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구축연구

최윤경·조숙인·이혜민·김정현·윤재석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구축연구

저 자

최윤경, 조숙인, 이혜민, 김정현, 윤재석

연구진

연구책임자 최 윤 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조 숙 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이 혜 민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정 현 (전북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윤 재 석 (인천시청 과장)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2-18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구축연구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9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세일포커스 02) 2275-6894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035-0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취학 전-후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대상의 교육과 돌봄의 실질적인 연계와 통합적 접근은 여전히 많은 숙제를 남기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교육-돌봄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보통합과 유초연계 등 분절되었던 취학 전-후 아동돌봄의 서비스 이용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초 저출생의 사회적 위기가 가속화 되면서 지역별로 인구감소와 교육·보육·돌봄 인프라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인구감소와 위험/재난의 사회적 어려움, 아동과 부모의 맞춤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돌봄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전반의 연계협력의 중요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통합적 운영과 연계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봄의 법적기반이 부재하고 연계협력의 운영기반은 실질적인 협업으로 지속되지 않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수요자 부모와 아동의 관점과 지자체, 즉 지역 중심의 접근이 필요함으로 논의하였으며, 특히 취학 전-후 주요 돌봄정책 사업을 망라하여 이용현황과 접근성, 재정 등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그 분절성과 연계협력의 가능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감해보았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통합 운영 기반으로서의 법적 근거와 거버넌스, 그리고 수요자 관점의 통합플랫폼 구축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관련 돌봄 정책사업에 대해 체계적 분석을 실시하고 통합적 법 기반의 마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언한 공동 연구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연구과정에 현장의 의견과 정책적 자문을 해주신 각 계의 전문가와 부모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당면한 돌봄환경의 과제 속에서 통합적 운영과 연계협력의 실행 기반이 빠른 시일 내에 구축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은 아님을 밝혀둔다.

2022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요약	1
-----------	----------

I. 서론	15
1. 연구목적	17
2. 연구내용	19
3. 연구방법	20
4. 연구범위와 틀	23
II. 아동돌봄의 정책 현황 및 운영 기반	31
1. 취학 전-후 아동 돌봄정책 현황	33
2. 취학 전-후 아동 돌봄 관련 법령	55
3. 국내외 통합돌봄 운영 사례	67
4. 통합 돌봄 플랫폼 운영 현황	124
5. 아동돌봄 서비스의 쟁점과 과제	140
III. 통합적 관점의 아동돌봄정책 분석	153
1. 통합적 아동돌봄의 개념 및 접근방법	155
2. 통합적 관점의 주요 아동돌봄 서비스(10대사업) 분석	158
3. 통합적 아동돌봄 지원정책 비교분석	190
4. 소결	193
IV. 수요자 관점의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이용가능성 및 연계 분석	195
1. 아동의 발달주기별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197
2. 아동의 발달주기별 돌봄서비스 접근성 및 연계·통합	217
3.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에 대한 의견	239
4.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266

V.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제언	279
1. 법적기반	281
2. 거버넌스	293
3. 아동돌봄 통합정보플랫폼	297
 참고문헌	 301
Abstract	321
부록	323
부록 1.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개)-전문 비교	323
부록 2. 아동돌봄 수요자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지	331
부록 3.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오픈응답)	365



표 목차

〈표 Ⅰ-3-1〉 면담 대상자 특성	21
〈표 Ⅰ-3-2〉 면담 내용	21
〈표 Ⅰ-3-3〉 전문가 자문회의	22
〈표 Ⅰ-4-1〉 생애주기별 아동돌봄 서비스 분석 틀	29
〈표 Ⅱ-1-1〉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내 아동 돌봄 정책 추진 계획	34
〈표 Ⅱ-1-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정책 추진 계획	38
〈표 Ⅱ-1-3〉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내 ‘3.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추진 계획	41
〈표 Ⅱ-2-1〉 다부처 아동돌봄 체제 및 관련 법	56
〈표 Ⅱ-2-2〉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주요내용	63
〈표 Ⅱ-2-3〉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법 조항	65
〈표 Ⅱ-3-1〉 서울시 성북구 아동돌봄 기관 현황(2022년 6월 기준)	68
〈표 Ⅱ-3-2〉 서울시 성북구 방과후돌봄 현황(2018년 기준)	70
〈표 Ⅱ-3-3〉 서울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0. 5. 제정)	74
〈표 Ⅱ-3-4〉 서울시 도봉구 내 운영 돌봄 기관	75
〈표 Ⅱ-3-5〉 서울시 도봉형 마을방과후학교 현황(2019년 기준)	78
〈표 Ⅱ-3-6〉 서울시 노원구 아동돌봄 기관 현황(2022년 6월 기준)	80
〈표 Ⅱ-3-7〉 서울시 노원구 방과후돌봄 현황(2022년 6월 기준)	81
〈표 Ⅱ-3-8〉 서울시 노원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0. 1. 제정)	84
〈표 Ⅱ-3-9〉 경기도 오산시 초등돌봄교실 현황(2020년 기준)	86
〈표 Ⅱ-3-10〉 경기도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2020년 기준)	86
〈표 Ⅱ-3-11〉 경기도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2. 23. 일부개정)	88
〈표 Ⅱ-3-12〉 충청남도 홍성군 아동돌봄 기관 현황(2022년 6월 기준)	90
〈표 Ⅱ-3-13〉 충청남도 홍성군 도농복합형 돌봄 모델 운영 모형	91
〈표 Ⅱ-3-14〉 충청남도 홍성군 방과후 돌봄센터 ‘아이들 세상’	91
〈표 Ⅱ-3-15〉 경상남도 초등돌봄 기관 현황(2020. 6. 30. 기준)	93

〈표 II-3-16〉 경상남도 돌봄기관별 초등학생 이용 현황(2018년 기준)	94
〈표 II-3-17〉 경상남도 초등돌봄교실 현황(2020. 6. 30. 기준)	94
〈표 II-3-18〉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9. 12. 30. 제정)	100
〈표 II-3-19〉 인천시 연수구 마을 교육문화공간사업: 교육청-지자체 연계협력 사례	102
〈표 II-3-20〉 광역 지방자치단체 통합 돌봄 시도 대표 사례 (부산, 인천, 제주)	103
〈표 II-3-21〉 기초 지방자치단체 통합 돌봄 시도 대표 사례 (경기 화성시, 전북 익산시, 전남 강진군)	104
〈표 II-3-22〉 사례집 1차 분석 결과(돌봄중심 키워드 검색)	105
〈표 II-3-23〉 영유아 교육·보육 각 국가별 구조(문화 대. 통합)	110
〈표 II-3-24〉 영유아 교육·보육 국가별 통합교육과정 체계	112
〈표 II-3-25〉 스웨덴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114
〈표 II-3-26〉 스웨덴 영유아 교육·보육 교사 자격 구분	116
〈표 II-3-27〉 국가/관할지역별 영유아 교육·보육과 초등교육 통합 커리큘럼	120
〈표 II-4-1〉 정부24-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제공 목록	125
〈표 II-4-2〉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서비스 제공 목록	128
〈표 II-4-3〉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상담 서비스 목록	130
〈표 II-4-4〉 경기 위라벨 링크 제공 서비스 목록	131
〈표 II-4-5〉 지방자치단체 통합 돌봄 플랫폼 구축 시도 사례 (경기 시흥시, 대전, 서울)	140
〈표 III-2-1〉 생애주기별 아동돌봄서비스 일반현황(2021년도 말 기준)	159
〈표 III-2-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일반현황(2021년도 말 기준) ..	160
〈표 III-2-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분석(2021년도 말 기준) ..	161
〈표 III-2-4〉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일반현황(2021년도 말 기준)	163
〈표 III-2-5〉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이용분석(2021년도 말 기준)	165
〈표 III-2-6〉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 일반현황(2021년도 말 기준)	166
〈표 III-2-7〉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 이용분석(2021년도 말 기준)	167
〈표 III-2-8〉 아이돌봄 지원사업 일반현황(2021년도 말 기준)	169
〈표 III-2-9〉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분석(2021년도 말 기준)	170
〈표 III-2-10〉 보육서비스 일반현황(2021년도 말 기준)	171

〈표 Ⅲ-2-11〉 보육서비스 이용분석(2021년도 말 기준)	172
〈표 Ⅲ-2-12〉 유아교육 일반현황 (2020년도 기준)	174
〈표 Ⅲ-2-13〉 연도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현황 비교	175
〈표 Ⅲ-2-14〉 유아교육 이용분석(2021년도 말 기준)	177
〈표 Ⅲ-2-15〉 시간제보육 일반현황(2021년도 말 기준)	178
〈표 Ⅲ-2-16〉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 이용분석(2021년도 말 기준)	179
〈표 Ⅲ-2-17〉 지역아동센터 일반현황(2020년도 말 기준)	180
〈표 Ⅲ-2-18〉 지역아동센터 이용분석(2021년도 말 기준)	181
〈표 Ⅲ-2-19〉 지역아동센터 만족도 조사결과	182
〈표 Ⅲ-2-20〉 지역아동센터 평가결과(2021년도 말 기준)	183
〈표 Ⅲ-2-21〉 다함께돌봄센터 일반현황(2021년도 말 기준)	184
〈표 Ⅲ-2-22〉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분석(2021년도 말 기준)	186
〈표 Ⅲ-2-23〉 초등돌봄 일반현황(2021년도 기준)	187
〈표 Ⅲ-2-24〉 초등돌봄교실 이용분석(2021년도 말 기준)	189
〈표 Ⅲ-2-25〉 방과후학교 일반현황(2021년도 기준)	190
〈표 Ⅳ-1-1〉 부모 조사 응답자 특성①-인구학적 특성	197
〈표 Ⅳ-1-2〉 부모 조사 응답 가구 특성②-경제적 특성	199
〈표 Ⅳ-1-3〉 부모 조사 응답 가구③-취약특성	200
〈표 Ⅳ-1-4〉 미취학 자녀 이용 어린이집 기관 유형(중복응답)	202
〈표 Ⅳ-1-5〉 미취학 자녀 이용 유치원 기관 유형(중복응답)	203
〈표 Ⅳ-1-6〉 미취학 자녀가 기관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204
〈표 Ⅳ-1-7〉 초등학생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초등학생 대상 공공 돌봄서비스 유형(중복응답)	205
〈표 Ⅳ-1-8〉 초등학생 자녀가 방과후돌봄 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이유 (1순위, 2순위, 1+2순위)	206
〈표 Ⅳ-1-9〉 현재 받고 있거나 과거에 받은 현금/시간 지원	207
〈표 Ⅳ-1-10〉 현재 받고 있거나 과거 받은 현금 지원: 2) 영아수당(2022년 출생아 대상)	210
〈표 Ⅳ-1-11〉 현재 받고 있거나 과거 받은 현금 지원: 3) 가정양육수당(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시)	211
〈표 Ⅳ-1-12〉 현재 받고 있거나 과거 받은 현금 지원: 5) 기타 지자체 현금지원(일회성 포함)	213

〈표 IV-1-13〉 현재 받고 있거나 과거 받은/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간 자원: 12)	
상담 놀이치료(부)	215
〈표 IV-2-1〉 13개 주요 돌봄서비스에 대한 6개항목 평가	217
〈표 IV-2-2〉 평일 낮 시간에 자녀를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기관	222
〈표 IV-2-3〉 자녀 돌봄서비스 이용 시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	224
〈표 IV-2-4〉 자녀 돌봄 시 돌봄 공백 경험	225
〈표 IV-2-5〉 돌봄공백 발생 시 대응 돌봄방식 또는 서비스 유형	228
〈표 IV-2-6〉 자녀연령별 돌봄공백 경험 및 부모 취업상태	230
〈표 IV-2-7〉 자녀 연령별로 경험한 돌봄 관련 정부 정책 평가	231
〈표 IV-2-8〉 자녀 연령별로 가장 필요한 서비스 또는 지원(만0-6세)	233
〈표 IV-2-9〉 아동 연령별로 가장 필요한 서비스 또는 지원 (초등 1-6학년)	234
〈표 IV-2-10〉 자녀 돌봄의 연속성 및 연계 어려움 정도(횡적-종적 연계)	235
〈표 IV-2-11〉 자녀 돌봄 횡적연계의 어려움	235
〈표 IV-2-12〉 자녀 돌봄 종적연계의 원활함	237
〈표 IV-2-13〉 자녀연령별로 돌봄서비스 이용 연계가 어려운 시기	238
〈표 IV-3-1〉 육아 및 돌봄 관련 플랫폼/앱에 대한 인지도, 이용률, 만족도	239
〈표 IV-3-2〉 응답자별 알고 있는 육아 및 돌봄 관련 플랫폼 혹은 앱: 0) 복지로	241
〈표 IV-3-3〉 응답자별 알고 있는 육아 및 돌봄 관련 플랫폼 혹은 앱: 1) 정부24-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서비스	243
〈표 IV-3-4〉 응답자별 알고 있는 육아 및 돌봄 관련 플랫폼 혹은 앱: 2)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244
〈표 IV-3-5〉 응답자별 알고 있는 육아 및 돌봄 관련 플랫폼 혹은 앱: 3) 경기도 워라밸 링크	245
〈표 IV-3-6〉 응답자별 알고 있는 육아 및 돌봄 관련 플랫폼 혹은 앱: 4) 서울시 직장맘 든든맵	247
〈표 IV-3-7〉 응답자별 알고 있는 육아 및 돌봄 관련 플랫폼 혹은 앱: 5)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어플리케이션	249
〈표 IV-3-8〉 응답자별 알고 있는 육아 및 돌봄 관련 플랫폼 혹은 앱: 6) 민간육아도우미 서비스 매칭 플랫폼(예: 맘시터, 짝각악어)	251
〈표 IV-3-9〉 육아 및 돌봄 관련 통합(정보)플랫폼 혹은 앱 필요	253

〈표 IV-3-10〉 돌봄 플랫폼에서 꼭 필요한 기능	254
〈표 IV-3-11〉 돌봄서비스 간 이용의 연계와 속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	255
〈표 IV-3-12〉 자녀의 돌봄에서 원활한 연계가 필요한 지점 (1순위, 2순위, 1+2순위)	256
〈표 IV-3-13〉 아동돌봄 통합적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있는 내용(1순위, 2순위, 1+2순위)	257
〈표 IV-4-1〉 전문가조사-응답자 특성	267
〈표 IV-4-2〉 아동 연령 주기별 현행 육아지원정책 평가(7점 척도)	267
〈표 IV-4-3〉 정부 육아지원 중 상대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는/ 있지 않은 시기	268
〈표 IV-4-4〉 정책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7점 척도	269
〈표 IV-4-5〉 주요 돌봄서비스 정책/사업에 대한 항목별 긍정 평가 (4개항목: 1+2순위 응답)	270
〈표 IV-4-6〉 주요 돌봄서비스 정책/사업에 대한 항목별 부정 평가 (4개항목: 1+2순위 응답)	272
〈표 IV-4-7〉 종적-횡적 연계에 대한 의견	275
〈표 IV-4-8〉 아동돌봄 통합적 운영 기반 마련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276
〈표 IV-4-9〉 취학 전-후 돌봄서비스 운영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우선 추진 부문	277
〈표 IV-4-10〉 취학 전-후 돌봄서비스 운영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우선 추진 과제	278



그림 목차

[그림 I-4-1] 연구 내용	28
[그림 I-4-2] 수요자 관점의 아동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이용 및 연계 분석 내용	30
[그림 II-1-1]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주요 정책과제	34
[그림 II-1-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체계도	36
[그림 II-1-3]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정책 체계	40
[그림 II-1-4]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의 범주	45
[그림 II-1-5]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체계도	45
[그림 II-1-6]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	48
[그림 II-1-7]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51
[그림 II-1-8]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53
[그림 II-1-9]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제공 개요	54
[그림 II-3-1] 서울시 성북구 온종일돌봄 비전 및 추진목표	71
[그림 II-3-2] 서울시 성북구 학교 중심 생활권 돌봄시설 통합 운영 모형	72
[그림 II-3-3] 서울시 성북·강북구 안심·동심 돌봄나눔터 웹서비스 지도 화면	73
[그림 II-3-4] 서울시 도봉구 돌봄서비스 운영 체계	77
[그림 II-3-5] 서울시 도봉형 마을방과후활동 운영비전	78
[그림 II-3-6] 서울시 도봉구 마을학교 운영 지도	79
[그림 II-3-7] 서울시 노원구 돌봄협의회 구성	82
[그림 II-3-8] 서울시 노원구 아픈아이 돌봄센터	83
[그림 II-3-9] 경남형 온종일돌봄서비스 전달체계	95
[그림 II-3-10] 경상남도 거점형 통합돌봄센터 ‘늘봄’ 통학버스	96
[그림 II-3-11] 경상남도 거점형 통합돌봄센터 ‘늘봄’ 프로그램 운영(안)	97
[그림 II-3-12] 경상남도 거점형 통합돌봄센터 ‘늘봄’ 통학버스	97
[그림 II-3-13] 호주 Centrelink business model	122
[그림 II-4-1] 정부24 온종일 돌봄 원스톱서비스 신청 과정	127
[그림 II-4-2]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내 어린이집 찾기 서비스	129
[그림 II-4-3]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내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련 절차	129

[그림 II-4-4] 경기도 워라밸링크 아동돌봄지도 화면	131
[그림 II-4-5] 경기도 워라밸링크 이용자 참여 콘텐츠	132
[그림 II-4-6] 스마트서울맵 홈페이지 화면: 아동돌봄 관련 정보 제공	134
[그림 II-4-7] 아이돌봄서비스 모바일 앱 서비스 신청 화면	136
[그림 II-4-8] 맘시터 플랫폼을 통한 돌봄 신청 화면	137
[그림 II-4-9] 째깍악어 플랫폼 신청 화면	139
[그림 III-3-1] 아동돌봄 지원정책 분석 캔버스(Canvas)	191
[그림 IV-2-1] 현재 시점 평일 하루를 기준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시간대	227
[그림 IV-4-1] 잘 마련되어 있는 돌봄서비스 정책/사업-1순위, 1+2순위 응답 결과	271
[그림 IV-4-2] 돌봄서비스 정책/사업에 대한 항목별 평가①-접근성	273
[그림 IV-4-3] 돌봄서비스 정책/사업에 대한 항목별 평가②-포괄성 및 핵심수요 충족	273
[그림 IV-4-4] 돌봄서비스 정책/사업에 대한 항목별 평가③-행·재정 거버넌스	274
[그림 IV-4-5] 돌봄서비스 정책/사업에 대한 항목별 평가④- 돌봄공백/사각지대 해소	274
[그림 IV-4-6] 아동 돌봄서비스 통합적 운영 기반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276
[그림 V-2-1] 출생 전후 아동 생애주기별 돌봄지원 사업 거버넌스 체계	294
[그림 V-2-2] 지역 통합돌봄 환경 선순환 생태계	295
[그림 V-2-3] 지역단위 통합돌봄 환경 조성 전 거버넌스	295
[그림 V-2-4] 지역단위 통합돌봄 환경 조성 후 거버넌스	296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의하면, 촘촘한 아동돌봄체계의 마련을 위해 비용지원에서부터 보육서비스 및 출산 전·후 산모와 아동에 대한 건강관리와 아동보호(복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 범위를 포괄하고, 교육·돌봄의 과제가 종합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46)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보건복지부)’을 위해 부모급여의 신설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촘촘한 아동돌봄체계의 마련과 산모·아동의 건강관리 체계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책임 강화(가정형 보호 확대 및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가 주요 과제로 제시되어 있음(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5: 87).
 - 현금 등의 지원체계에서부터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과 부모교육/시간제보육 등의 서비스 확대를 통한 가정 양육지원의 강화, 0-5세 유보통합의 단계적 방안, 마을돌봄-학교돌봄의 사각지대 보충,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등을 세부 국정과제로 마련함(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5: 87).
- 이제 학교 안-밖, 가정 안-밖 및 기관과 지역 중심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의 제공은 어느 한 쪽의 책임 소재와 역할의 구분이라는 제도적 설계를 넘어, 돌봄의 사각지대와 양육의 어려움, 이 과정에서 누적되는 돌봄과 교육 수혜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고려하여, 단절과 공백 없이 연속성 있게 제공되도록 하는 통합적 논의를 필요로 함.
 - 돌봄정책의 효율성과 수요자 관점의 서비스 이용의 연속성과 다양한 수요에의 충족, 형평성의 제고를 위해 교육·돌봄의 제 영역과 서비스 전달방식 및 운영상의 협력과 연계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음.
- 이 연구의 목적은 정책별로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아동돌봄 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지역기반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로 제공되도록 하는 통합적 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 아동의 생애주기에 기초하여 교육과 보육, 돌봄을 포괄하는 광의의 돌봄으로서 돌봄서비스에 대한 이용가능성(접근성)과 연속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아동돌봄 서비스 이용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통합적 운영기반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나. 연구내용

- 취학 전-후 돌봄을 아우르는 주요 정책·사업의 기본계획과 법령개요 고찰
 - 국·내외 (온·오프라인) 통합적 운영 사례 및 통합적 운영 기반 제언에 필요한 거버넌스 내용 고찰
- 다부처 사업으로 운영되는 주요 돌봄 정책·사업(10개)의 제도적 설계와 운영현황 분석
 - 목적의 통합성, 관점의 통합성, 기능의 통합성, 대상의 통합성
 - 돌봄서비스의 접근성, 상용성, 효과성, 연계성을 주요 지표로 고찰
- 아동의 연령별 돌봄 수요와 서비스 이용 현황 및 돌봄의 공백과 단절, 어려움에 대한 수요자 부모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실시
 - 2022년 양질의 돌봄서비스로의 접근성과 이용의 연속성, 형평성 분석
- 수요자 욕구에 맞는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의 보편적인 이용과 접근, 지속적인 이용 연계가 가능한 돌봄서비스 운영 기반(법적기반, 거버넌스, 통합정보플랫폼) 제언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아동돌봄 관련 법령, 정책/사업에 대한 제도적 고찰
- 설문조사 자료 분석: 0~12세 자녀를 둔 부모 대상 돌봄서비스 수요 및 이용조사결과, 교육·보육·돌봄 분야 전문가 조사결과
- 부모 FGI 면담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

라. 연구범위와 틀

- 통합의 다양한 층위와 개념

- 물리적 통합(integration)에서부터 연계 협력(collaboration, cooperation)과 전이 및 연속성(transition, continuity), 적절한 배치(alignment)의 다양한 개념을 가짐.
- 통합 외에, 다양한 서비스 운영 방식과 전달체계 간 연계·협력, 아동 연령별로 다른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 연속성 보장과 원활한 전이 및 배치의 과정을 의미함. 종적-횡적 통합과 연계로도 구분 가능함.
- ‘아동’은 0~12세(출생후~초등학령기)의 연령을 범위로 하고, ‘돌봄’은 아동의 교육·보육·돌봄을 중심으로 살펴봄.
- 신생아기의 경우 돌봄에서 건강관리가 주요한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산후조리와 관련된 건강·의료 관련 일부 내용을 함께 고려함.
- ‘돌봄서비스’는 공적기반을 중심으로 아동의 생애주기별로 신생아기 건강관리에서부터 영유아기 유치원과 어린이집(교육과정 및 방과후돌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이용, 초등학령기 아동 대상의 아이돌봄서비스,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및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를 포함함.
- 개별 돌봄서비스와 사업에 대한 현황과 과제에 대한 논의보다, 아동돌봄의 보편적 이용 기반과 행·재정의 효율을 담보하는 정책 설계 및 수요자 부모와 아동의 관점에서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탐색’과 ‘이용’, ‘연계’가 가능한 지점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함.

2. 아동돌봄의 정책 현황 및 운영 기반

가. 취학 전-후 아동 돌봄정책 현황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1~2024),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획(2021~2025),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의 아동돌봄 정책을 고찰
- 7개 기본계획을 통해 살펴본 돌봄정책의 내용과 설계는 개별 사업으로서의 제도 설계의 타당도와 구체적 목표의 설정과 이행 및 그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유사 돌봄서비스 제공에 대한 연계·협력으로서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줌.

- 일례로 지역사회 통합 노인돌봄의 경우 기본계획에 드러난 확장 방침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 등 아동돌봄 운영과의 연계점을 찾을 수 없음.
- 유보통합의 논의에서도 수요자 관점에서 동일/유사 내용이 전혀 다른 법적 기반과 운영기준, 전달체계를 통해 제공되는 공급자 위주의 제도설계와 운영을 보여줌.

나. 취학 전-후 아동 돌봄 관련 법령

- 13개 아동돌봄 정책사업의 법적 근거와 온종일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안(2개) 안을 고찰
 - 개별법으로서의 정책/사업 추진체계와 실행목표의 달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양한 돌봄서비스 간 연계와 공유, 협력의 법적 근거나 조항이 부재함.
 - 최근 발의된 온종일돌봄 법안에서도, 특별법의 형태로 접근하는 제한점과 여전히 돌봄운영의 통합적 추진 방안이 반영되지 못하고 관련 법 조항이 결여되거나 실질적인 집행력이 반영되지 않는 기구로 제시되어 있음.

다. 국·내외 통합돌봄 운영 사례

- 국·내외 다양한 형태와 내용 및 거버넌스의 통합적 운영 사례를 살펴봄.
 - 서울시 성북구/도봉구/노원구, 경기도 오산시, 충남 홍성군, 경상남도, 인천광역시/연수구의 자체 통합돌봄사업 외에, 2021년 전국의 지자체 아동돌봄사업 고찰을 통해 통합적 운영을 위한 노력 전반을 살펴봄.
 - 해외 사례의 경우, 부처 단일화 및 교육과정 통합과 연계를 통한 각국의 유보통합 및 유초연계의 노력, 스웨덴의 아동기에 걸친 교육·돌봄의 학제를 통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및 공간(건물), 교사자격, 운영기준에 이르는 통합의 체계적 접근, 호주의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통합과 연계 체계로서 센터링크(Cetrelink)라는 통합지원 서비스 운영에 대해 살펴봄.

3. 통합적 관점의 아동돌봄정책 분석

- 대표적 아동돌봄서비스 10대 사업을 중심으로 법적·제도적 운영 현황과 이용자 부모와 아동 측면의 서비스 통합적 이용 가능성과 연속성을 분석

- 목적의 통합성, 관점의 통합성, 기능의 통합성, 대상의 통합성
 - 돌봄서비스의 접근성, 상용성, 효과성, 연계성을 주요 지표로 비교 분석
- 주요 정책/사업을 아동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연속성과 접근성, 연계협력의 관점에서 정책 설계를 전체적으로 조감한 결과, 효율성 측면에서 분석대상 10대 사업 모두 연계성 또는 통합성의 절대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돌봄 정책/사업의 통합성과 연계협력의 관점에서 제도적 설계와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NIP)’이 여타 아동돌봄서비스 보다 접근성, 상용성, 만족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아교육도 수혜도, 접근성, 연계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반면, 아이돌봄, 시간제 돌봄, 다함께 돌봄, 공동육아 등 대표적인 가정육아 지원서비스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낮게 나타남. 다만 아이돌봄서비스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아동기 돌봄서비스는 비교적 제도시행 연혁이 짧고 사업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접근성, 상용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다만, 아동기 돌봄서비스(초등돌봄, 다함께 돌봄, 지역아동센터)는 제도 설계의 특성 면에서는 여타 서비스와의 연계성이 비교대상 서비스 중에서 높은 것으로 분석됨.

4. 수요자 관점의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이용가능성 및 연계 분석

가. 수요자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아동의 발달주기별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 0~12세 자녀를 둔 전국의 자녀양육가구 부 또는 모 2,18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
- 가구내 아동 3,333명에 대한 응답으로, 어린이집 54.2%, 유치원 26.2%, 반일제이상 학원 0.9%, 기관 미이용 18.7%, ‘초등돌봄’의 경우 초등자녀 가구의 65.4%에서 (방과후학교를 포함하여) 공적 초등돌봄 서비스를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현재 초등이하 자녀에 대한 낮시간 주된 돌봄은 여전히 부모 중심의 가족돌봄(특히 모)이 우세한 가운데, 돌봄서비스 중에서 어린이집(16.2%), 사적 교육·돌봄 서비스 이용(15.7%), 초등방과후돌봄(10.8%), 마을돌봄(1.1%), 돌봄인력(2.8%)의 순으로 나타남.

□ 초등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공공 돌봄서비스를 질문한 결과(N=1,053, 중복응답), 53.6%가 초등방과후과정을, 26.4%가 초등돌봄교실(학교돌봄터 포함)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5.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1%, 다함께돌봄센터 2.8%, 온종일/지자체돌봄센터 2.4%로 나타남.

-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읍면지역, 초등저학년, 부모학력 4년제 대졸이상, 맞벌이/전일제 취업모 가구, 그리고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조손/다문화/한부모 등 취약특성을 갖는 가구에서도 초등돌봄교실 이용률이 비취약가구에 비해 좀 더 높게 나타남. 초등돌봄 서비스 이용자격이 제한됨에 따라, 주 이용층이 되는 맞벌이가구의 고소득/고학력 특성과, 취약가구의 특성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초등자녀가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1+2순위 중복응답), ‘시설학원을 다니고 있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58.7%로 가장 많음. 또한 ‘이용자격이 되지 않아서’, ‘이용시간이 맞지 않아서’ 라는 응답은 각각 17% 정도로, 이용 의향이 있으나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은 17% 이상으로 나타남.
 -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이용가능성) 제고가 필요함을 보여줌.
 - 돌봄의 연속성과 통합적 접근을 위해 (서비스-현금-시간의 양육지원체계의 정합성과 함께) 개별 서비스 이용 간 연계와 접근성이 아동의 연령주기를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2) 아동의 발달주기별 돌봄서비스 접근성 및 연계·통합

□ 수요자 부모를 대상으로 주요 돌봄서비스 정책/사업 13개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및 만족도와 향후 이용의향, 필요 시 이용가능한지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 정보의 충분성(6개 항목)에 대해 질문

- 전국 인프라를 시설/기관을 중심으로 갖춘 ‘국가 예방접종’과 ‘어린이집·유치원’은 높은 인지도와 이용률, 이용 만족도와 향후 이용의향(이용 수요)이 높은 수준으로 연관되어 있음.
-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과정’은 높은 인지도와 이용의향, 만족도에 비해 이

용가능성(접근성)과 관련 정보의 충분성이 다소 떨어지고, 실제 이용률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민간 육아도우미는 이용의향과 이용가능성(접근성), 정보 충분함이 20%대로 유사하게 유지되는 반면,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이용의향에 비해 실제 이용률과 이용가능성(접근성), 관련 정보의 충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의 경우 접근성과 관련 정보, 이용 만족도가 양호하게 나타남.
 - 시간제보육은 이용의향(이용수요) 대비 접근성과 정보 충분성이 비교적 양호하지만, 실제 이용률이 이용의향 대비 크게 떨어짐.
 - 육아/마을 공동체의 경우 인지도가 40% 미만으로 낮지만, 이용의향 대비 접근성과 정보 충분성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각기 다른 인프라 기반과 이용률 및 이용수요를 갖는 돌봄서비스들 간에 개별 돌봄서비스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 외에 지역 기반의 유관 돌봄서비스 이용 간 매칭과 연계, 정보 제공의 온-오프라인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함.
- (자녀돌봄의 어려움) 자녀 돌봄서비스 이용 시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1+2 순위 중복응답), 예기치 못한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돌봐줄 사람 또는 맡길 곳을 구하지 못해서 겪는 ‘긴급돌봄 대응’의 어려움(28.6%, 1+2순위), 그 다음으로 ‘이용의 우선순위와 자격제한’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22.3%), ‘비용 부담’(17.2%)으로 나타남.
- 주변에 이용 가능한 돌봄서비스 ‘인프라 부족’과 ‘돌봄인력의 전문성’(각 15.3%), ‘이용시간(대)’(14.9%), 이용 가능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13.4%), 돌봄서비스의 ‘내용과 질’(12.3%), ‘위치/물리적 접근성’(11.3%), ‘서비스 이용 간 연계’의 어려움(8.2%)로 응답됨.
 - 돌봄서비스 이용의 ‘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5.3%로 나타남. 특별히 어려움이 없었음 3.4%,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음 8.5%로 응답됨.
 - 자녀 돌봄서비스 이용의 가능성과 연속성의 어려움, 즉 돌봄의 단절과 제한, 공백으로 인해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이 응답되었으며, 돌봄인력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대한 불만족 또한 약 27.6%(중복응답의 합)로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남.

- (횡적-종적 연계의 어려움) 평일 하루 일과에서 서비스 이용의 연속성과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횡적연계의 어려움' 32.8%, 자녀 연령증가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연속성과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종적연계의 어려움' 26.1%로, 현재 시점 자녀의 하루 일과에서 시간대별로 돌봄서비스 이용에서 경험하는 횡적연계의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 연계가 어려운 때) 자녀 출생 이후 현재 연령까지 서비스 이용에서 연계가 어려운 때로, 응답자의 21.8%가 만0세(0~11개월)에서 만1세(12개월~23개월)로 가는 전환기를 꼽았고, 18.4%가 만1세(12~23개월)에서 만2세(24개월~35개월)로 가는 전환기를 꼽아, 자녀 출산이후 영아기 연령 간 돌봄연계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만6세(72~83개월)에서 초등 1학년으로 가는 전환기 16.8%, 초등 1학년에서 2학년으로 가는 전환기 14.6%로 응답됨.
 - 만0, 1, 2세, 초등 1학년에서 '돌봄공백'을 가장 많이 경험하였다는 응답과 일치하는 결과로, 영아기와 취학 전-후 시기에 경험하는 '돌봄연계'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음.
- (돌봄공백 경험) 을 한해를 기준으로 자녀를 돌보는데 돌봄의 공백을 경험한 적 있는지 질문한 결과, (어느정도+매우) 그렇다 각 33.8%, 7.3%로 '돌봄공백'을 경험한 비율이 전체의 41.1%로 적지않은 비중을 보임.
 - 돌봄공백의 발생 시(중복응답), '조부모/친인척' 돌봄이 45.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모(33.9%), 부(23.7%), 부모함께(12.3%), 자녀혼자/자녀들끼리(9.1%)로 나타남. 대부분 가족돌봄을 통해 돌봄공백의 발생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들끼리 있는 경우가 약 9% 이상임.
 - 돌봄공백의 대응에서 여전히 '가족돌봄'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적 돌봄의 이용은 학교/마을 돌봄과 어린이집·유치원,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보육을 합하여 25.1%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학원 등(12.8%), 민간육아도우미(2.5%)를 합하여 사적 교육·돌봄 서비스의 이용이 15.3%로 나타남.
 - 돌봄공백 발생 시 돌봄서비스 이용의 접근성과 대응력 제고를 위해 공적 서비스 이용의 연계와 연속성, 접근성을 꾀하여 서비스 이용기반의 확장을 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정부정책 평가) 자녀 출생 후부터 현재까지 자녀 연령별로 경험한 돌봄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해 5점척도로 평정하게 한 결과, 전반적으로 평균 3점이상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남.

- 영아기에 비해 유아기에 잘 되어있다는 긍정응답이 40% 내외로 좀 더 많았으며, 초등학교로 가면서 점차 긍정응답이 줄어들음. 특히 취학전 만 5, 6세에서 초등 1학년으로 이어지는 유초연계에서 긍정응답 감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출산 전-후 자녀 및 모자 돌봄과 보건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3) 아동 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에 대한 의견

□ (통합정보 돌봄 플랫폼/앱에 대한 의견) 통합(정보)플랫폼 혹은 앱이 ‘필요하다’ 91.5%로 육아 및 돌봄 관련 정보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전달하는 플랫폼 또는 앱에 대한 요구도가 큼을 알 수 있음.

- 아동 연령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 검색 기능(80.6%), 기관 운영 프로그램 및 이용 가능 시간대 별 검색 기능(78.7%)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통합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우선 과제) 수요자 부모는 1, 2순위 모두 기관/학교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를 꼽음.

- 그 다음으로 수요자관점의 아동돌봄통합(정보)플랫폼 마련(1+2순위 중복응답) 30.8%, 통합 행·재정 체계 구축 28.2%, 교육-돌봄서비스 간 연계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27.5%의 순으로 나타남.
- 표준화 된 운영기준의 마련(23.7%)과 지자체/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21.7%)에 대해서도 중복응답 기준 20% 이상으로 나타남.

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 아동의 생애주기별 양육지원체계에 대한 의견

□ 유아기(3-6세)에 대한 평가가 7점척도 평균 5.6점으로 가장 높았고, 3.3점을 받은 초등 고학년(4~6학년)에 대한 긍정평가가 가장 적었음.

- 전반적으로 취학전 영유아기와 임신출산기에 비하여 초등 입학 이후 학령기에 대한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평가가 저조하게 나타남.
- 수요자 부모와 아동의 관점에서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과 포괄성, 행·재정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에 대한 전문가의 긍정 평가가 일관되게 나타남.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경우 돌봄공백과 사각지대 해소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우세하였으며, 유치원 교육서비스의 행·재정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긍정 의견이 많음.
- 돌봄공백과 사각지대 해소의 측면에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긍정평가도 우세하게 나타남.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에 대한 4개 요소별 긍정평가가 10% 내외로 고르게 나타난 가운데, 특별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취약 계층 지원을 고려하여 포괄성에서 긍정평가(16.7%)가 우수함.
- ‘초등돌봄교실’도 4개 요소별로 긍정평가가 10% 내외로 고르게 나타났으며, 돌봄공백과 사각지대 해소의 측면에서 ‘시간제보육’과 ‘초등돌봄교실’,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긍정의견이 약 13%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마을돌봄’과 ‘민간육아도우미’ 및 ‘시간제보육’에 대한 긍정의견은 낮은 수준을 보임.
- (통합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우선 과제) 행·재정 거버넌스의 구축(61.7%)과 통합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40.0%), 수요자 관점의 아동 통합돌봄플랫폼 마련(30.0%)이 상위로 응답됨.
- 이 중 실현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관련 법적근거의 마련, 아동통합돌봄플랫폼 구축, 행·재정 거버넌스의 구축 순으로 나타남.
- 당장의 실현가능성이 낮은 과제로 인력 운영체계의 정비(자격, 처우, 직무/역할 등)(11.7%)와 지자체/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13.3%)로 나타남.

5.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제언

가. 법적기반

1) 1단계: 현행 돌봄 법령 정비

□ 교육부의 돌봄서비스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

-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에 관한 규정을 신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4장의3을 신설하여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제5장의3을 신설하여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서비스 내용, 지원 주체, 돌봄 종사자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 통합운영과 연계협력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및 현행법령(아이돌봄 지원법, 청소년기본법)의 소관부처 변경

-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다함께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실질적인 연계협력 방안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업무의 보건복지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이 현실화 될 경우, 돌봄의 통합적 접근과 연계협력의 토대 마련이 용이. 이 경우 여성가족부의 소관법률인 「아이돌봄 지원법」과 「청소년기본법」은 보건복지부 소관법률로 변경이 요구됨. 이 때 두 부처의 돌봄사업 간 통합운영과 연계협력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함.

2) 2단계: 통합 법률 제정

□ 아동돌봄사업의 거버넌스의 통합이 단기간 내 가능할지 실행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돌봄서비스의 통합 운영 기반 마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심사업을 두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통합적 접근의 형태를 취하도록 함.

□ 중장기 관점에서 통합법률이 답아야 할 내용

- 목적, 정의규정, 이념 및 기본방향, 행정계획, 거버넌스(1,2,3안), 전달체계(1,2안), 돌봄과정, 돌봄인력의 자격 및 교육훈련, 시설설비, 비용부담 및 지원, 관리감독, 위임위탁, 정보시스템 구축, 그리고 돌봄서비스 운영의 연계협

력의 조항을 담음.

- 통합돌봄 전달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중앙-지방 정부의 기능분담을 담음.
- 아동 돌봄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주기적 영향 평가 시행 근거를 마련함.

나. 거버넌스

- 통합돌봄의 운영 기반 조성 전에 개별 수요자가 다양한 돌봄 정책과 서비스별로 분절된 정보를 탐색하고 이용을 하였다면(그림 V-3-1), 통합적 운영 기반 조성 후에는 온-오프라인 연계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어 관련 정보의 제공과 서비스 연계가 최대한 동일한 채널을 통해 파악되고 진행되도록 함(그림 V-3-2).
- 지역별로 가용한 민-관 영역의 자원인 지자체 고유의 통합돌봄사업과 민간플랫폼(예: 네이버 맵, 민간육아도우미 매칭 플랫폼), 지역사회 돌봄공동체와 유관기관/유희공간(학교시설, 도서관, 주민센터 등)에 대한 접근성까지 포괄하는 접근이 필요함.
- 이는 우선 정보 제공의 연계에서 출발하여 통합정보의 검색과 제공이 가능한 플랫폼의 구축으로 진행되도록 하며, 나아가 개별 사업과 법 체계내에서 설치된 유희공간과 시설 및 인력(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유관 돌봄사업의 공간과 인력 운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체제와 인력 전반에 있어 보다 유연하고 광범위한 접근이 필요함(예: 빈 교실 공간에서 지역사회 시간제돌봄 및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중장기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시설·설비 기준과 인력 운영 및 자격체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아동통합돌봄센터가 중앙 시도-시·군·구 조직을 갖추고, 중앙 및 시도 센터는 지원기관으로, 시·군·구 센터는 해당 지역의 아동돌봄을 직접 운영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함.
- 지역별 교육청과 지자체 및 민관 협력체제를 아우르는 (가칭) 지역통합돌봄 위원회와 관련 조직체제의 마련이 요구됨.

다. 아동돌봄 통합정보플랫폼

- 아동돌봄의 통합정보플랫폼은 다음의 내용(콘텐츠)을 담을 필요가 있음.

- (1) 가용한 돌봄서비스의 이용을 실시간 검색과 대기신청 및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 (2) 공-사, 민-관의 정보와 돌봄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플랫폼으로서의 개방성과 확장, (3) 돌봄서비스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상담 및 놀이치료 등의 서비스 이용까지 연계되는 돌봄-복지의 확장된 연계, (4)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등하원알림 서비스의 확대와 자녀의 연령에 맞는 양육정보의 제공, (5) 지자체별로 특화된 돌봄서비스 앱과 민간영역의 지도 및 유관 매칭 서비스와도 연결될 수 있는 개방성
- 저출생 기조 하에서 지역별 교육·돌봄뿐만 아니라 및 건강·의료, 문화·체육 인프라의 소멸과 재구성이 필요하고, 다양한 재난/위험 상황에 대비한 긴급돌봄 운영체계의 유연한 대응이 요구됨.
 -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정규적인 교육·돌봄 서비스의 제공 외에, 지역별로 예기치 못한 재난/위험 상황별로 긴급한 일시 돌봄서비스의 제공과 교육의 운영이 공백과 단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가용한 정보를 집적함.
 - 지역내 시설·공간과 인력 운영의 정보가 재난/위험 상황의 긴급돌봄체계로 전환될 수 있는 운영체계를 통합정보플랫폼 내에 구축함.

I

서론

01 연구목적

02 연구내용

03 연구방법

04 연구범위와 틀

I. 서론

1. 연구목적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의 전환과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표방하며,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돌봄서비스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아동의 돌봄을 받을 권리 보장을 제시하였다(대한민국 정부, 2020: 41). 아동정책이 추구할 방향으로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을 제시하며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의 구축과 균등한 초등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확충, 온종일돌봄체계의 구축,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등 아동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였다(대한민국 정부, 2020). 아동돌봄의 공공성 강화는 아동을 정책 수혜 대상으로서의 피보호자에서 권리 주체자로서의 인식 전환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대한민국 정부, 2020: 51).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의하면, ‘(46)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보건복지부)’을 위해 부모급여의 신설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촘촘한 아동돌봄체계의 마련과 산모·아동의 건강관리 체계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책임 강화(가정형 보호 확대 및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가 주요 과제로 제시되어 있다(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5: 87). 현금 등의 지원체계에서부터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과 부모교육/시간제보육 등의 서비스 확대를 통한 가정 양육지원의 강화, 0-5세 유보통합의 단계적 방안, 마을돌봄-학교돌봄의 사각지대 보충,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등을 세부 국정과제로 마련하였다(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5: 87). 이로써 정부의 돌봄정책은 촘촘한 아동돌봄체계의 마련을 위해 비용지원에서부터 보육서비스 및 출산 전-후 산모와 아동에 대한 건강관리와 아동보호(복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 범위를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67)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보건복지부)’의 어린이 주치의 시범사업과 정신

건강 등 건강·보건 관련 아동 진료체계와 기관 방문 지원의 연계(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22. 5: 117), ‘(84)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의 해소(교육부)’의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소외계층 없는 맞춤형 교육과 교육격차 해소, 유보통합 과제와 ‘유치원 방과후과정(돌봄)’ 대상/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유초 교육과정 연계 강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과후 활동과 초등 전일제 학교 운영, 돌봄교실 운영시간(20시까지) 단계적 확대, 그리고 유아·초등 돌봄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통합플랫폼 구축(‘24~)을 고려할 때(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5: 142), 교육·돌봄의 제 영역을 포괄하는 유관 분야 과제가 종합적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학교 안·팍, 가정 안·팍 및 기관과 지역 중심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의 제공은 어느 한 쪽의 책임 소재와 역할의 구분이라는 제도적 설계를 넘어, 돌봄의 사각지대와 양육의 어려움, 이 과정에서 누적되는 돌봄과 교육 수혜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고려하여, 단절과 공백 없이 연속성 있게 제공되도록 하는 통합적 논의를 필요로 한다. 돌봄정책의 효율성과 수요자 관점의 서비스 이용의 연속성과 다양한 수요에의 충족, 형평성의 제고를 위해 교육·돌봄의 제 영역과 서비스 전달방식 및 운영상의 협력과 연계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아동 대상의 교육과 보육, 돌봄을 포괄하는 광의의 돌봄에 대한 통합적 접근은 개별화된 정책 영역과 사업으로의 접근이 갖는 한계와 비효율성, 생애 경로의 격차와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서비스 이용의 연계협력과 생애초기 중재가 중요함을 다수의 연구를 통해 논의한 바 있다(예: UNESCO, 2020).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초 저출생으로 인한 아동수 감소로 교육·보육·돌봄 기관의 미충족과 인프라 소멸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이는 지자체 및 지역사회 중심의 인프라와 제반 운영체계(거버넌스)에 대한 연령통합 및 서비스 연계협력 관점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당면과제를 던진다(예: 농산어촌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 또한 셋째, 영아수당과 부모급여의 도입 등 생애 초기(신생아기~영아기) 양육지원체계에서 현금지원의 확대를 고려할 때, 교육·돌봄 서비스의 선택권 보장과 이를 위한 실질적 이용 기반이 수요자 관점에서 단절되거나 사회경제적 격차가 고착되지 않도록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취학 전-후 유초연계(continuity, transition)도 정책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서비스 전반의 효율적

운영체계가 뒷받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코로나19와 같은 위험/재난 상황에서 공적돌봄체계의 휴원·휴업 조치와 긴급돌봄의 운영에서, 돌봄의 단절과 공백,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중심의 긴밀한 협조와 공조/조정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변화하는 양육·교육 환경의 변화와 아동의 성장발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의 이용과 조합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 부모의 수요에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동돌봄의 제 요소와 층위를 고려할 때, 연속성의 관점에서 통합적 운영의 핵심이 되는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토대로서 운영기반을 구체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법적기반과 거버넌스, 디지털 정보통합플랫폼의 세 축을 중심으로 검토 및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정책별로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아동돌봄 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지역기반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로 제공되도록 하는 통합적 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아동의 생애주기에 기초하여 교육과 보육, 돌봄을 포괄하는 광의의 돌봄으로서 돌봄서비스에 대한 이용가능성(접근성)과 연속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아동돌봄 서비스 이용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통합적 운영기반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 다루는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돌봄의 통합적 논의의 필요성과 통합의 다양한 층위와 의미,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으로서의 내용 범주와 요소를 설정한다.

그런 다음 첫째, 취학 전·후 돌봄을 아우르는 주요 정책·사업의 기본계획과 법령개요를 살펴보고 통합적 운영 기반으로서의 공통 요소를 도출한다(2장).

둘째, 국내외 (온·오프라인) 통합적 운영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통합적 운영 기반 제언에 필요한 거버넌스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2장).

셋째, 다부처 사업으로 운영되는 현재 돌봄 정책/사업(10개)의 제도적 설계와 운영 현황을 분석한다(3장). 신생아 돌봄(산후조리)에서부터 영아기 아이돌봄 지원

사업과 어린이집, 유아기 유치원과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초등학교 입학 이후의 방과후돌봄에 이르기까지 서비스 이용의 기반과 인프라, 행·재정 효율(중복과 사각지대, 비용지원)에 대해 사업별로 필요한 쟁점 요소를 고려하여 분석한다.

넷째, 아동의 연령별 돌봄 수요와 서비스 이용 현황 및 돌봄의 공백과 단절, 어려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22년 시점의 양질의 돌봄서비스에의 접근성과 이용의 연속성, 형평성을 분석한다(4장).

다섯째, 아동돌봄의 법·제도적 고찰과 이용 현황에 대한 조사자료에 기초하여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의 보편적인 이용과 접근, 지속적인 이용 연계가 가능한 돌봄서비스 운영 기반(법적기반, 거버넌스, 통합정보 플랫폼)에 대해 제언한다(5장).

3.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아동돌봄 관련 법령, 정책/사업에 대한 제도적 고찰(정책/사업 분석)
- 국·내외 아동 교육·돌봄의 통합적 운영 사례에 대한 고찰

□ 설문조사

- 0~12세 자녀를 둔 부모 대상 돌봄서비스 수요 및 이용 조사
 - 자녀연령주기(신생아/영아기, 유아기, 초등학생기), 지역, 가구유형, 이용기관 등을 고려해서 표집
 - 교육·보육·돌봄-건강보건 등 아동돌봄의 개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 이용률, 효과성(만족도, 수혜율), 연계성 등에 대해 조사

□ FGI 면담조사

- 자녀돌봄의 경험 및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적 있는 0~12세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과 종적-횡적 연속성에 대해 면담조사 실시

〈표 I-3-1〉 면담 대상자 특성

구분	면담 일시, 방법	부모 연령	자녀 연령/학년	(자녀 미취학 시) 이용 기관	모 취업상태
영유아 부모	2022. 8. 25(목) 온라인 zoom 회의	30대	만3세, 17개월	민간어린이집	취업(휴직)
		30대	만3,4세	공립단설/병설유치원	취업(휴직)
		30대	만2세, 24개월	국공립어린이집	미취업
		40대	만4,6세	공립단설유치원	미취업
초등 아동 부모	2022. 8. 24(수) 온라인 zoom 회의	30대	초등1학년, 15개월	가정어린이집	취업(휴직)
		30대	초등1,4학년	-	미취업
		40대	초등3학년, 만6세	사립유치원	취업(시간제)
		30대	초등1학년	-	취업(재택)

〈표 I-3-2〉 면담 내용

구분	면담 질문 내용
영유아 부모	응답자 특성(자녀 연령, 본인 취업 여부)
	자녀 돌보는 방식 및 서비스 이용 현황, 자녀 양육시 경험한 어려움, 출산전후부터 지금까지 자녀 양육시 경험한 어려움과 만족스러운 점
	주요 정책사업 및 아동연령별 서비스 이용경험 및 긍정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는 서비스
	돌봄/육아 관련 통합플랫폼 이용 경험
	아동 돌봄(교육 및 보육 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 관련 의견
초등아동 부모	응답자 특성(자녀 연령, 본인 취업 여부)
	자녀 돌보는 방식 및 서비스 이용 현황, 자녀 초등학교 취학 이후 경험한 돌봄 서비스, 자녀 양육시 경험한 어려움, 출산전후부터 지금까지 자녀 양육시 경험한 어려움과 만족스러운 점
	주요 정책사업 및 아동연령별 서비스 이용경험 및 긍정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는 서비스
	돌봄/육아 관련 통합플랫폼 이용 경험
	아동 돌봄(교육 및 보육 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 관련 의견

□ 전문가 자문회의

아동 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논의를 위해 당면한 주요 쟁점과 돌봄서비스의 내용 범주 등에 대한 각 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다음 〈표 I-3-3〉은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이다.

〈표 I-3-3〉 전문가 자문회의

구분	차수	일자	주제	주요 내용
전문가 자문회의	1차	3. 14(월)	연구배경 및 연구 방향 논의	- 차기 정부 대선 공약 검토 후 내용 반영 필요 - 기존 타 기관 연구 리뷰를 통해 차별화된 지 점 반영 필요 - 기타 세부 연구 내용 검토
	2차	4. 22(금)	정책 동향 논의	- 현재 아동돌봄 체계 개편 정부안 공유 - 현실적인 아동돌봄 통합적 운영 방안 논의
	3차	5. 24(화)	아동돌봄 통합 관련 지자체/해외사례, 연구 방향 및 내용 논의	- 통합 돌봄 관련 국내지자체/해외 사례 검토 필요성 - 연구 방향설정 논의
	4차	5. 25(수)	아동돌봄 통합 관련 지자체 연구 논의, 연구 방향 및 내용 논의	- 지자체 내 아동돌봄 통합 구축 시 현안 과제
	5차	5. 26(목)	아동돌봄 통합 관련 국책연구기관 연구 논의, 연구 방향 및 내용 논의	- 국책연구기관에서 이루어진/이루어지는 아동 돌봄 통합 연구 공유 - 최근 국가적 아동돌봄 통합 관련 현안 - 아동돌봄 통합 시 통합안 논의
	6차	5. 27(금)	아동돌봄 통합 관련 정책 동향 논의, 연구 방향 및 내용 논의	-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아동돌봄 통합 - 아동돌봄 통합 시 통합안 논의
	7차	6. 2(목)	아동돌봄 통합 플랫폼 관련 논의	- 플랫폼 관련 개발 방향 및 지향점 논의 - 플랫폼 구축 유사 사례와 쟁점
	8차	6. 9(목)	아동돌봄 통합 관련 법적 개선방안 논의	- 아동돌봄 통합을 위한 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
	9차	6. 9(목)	아동돌봄 통합 관련 행정적 개선방안 논의	- 통합적 운영기반으로서의 행정재정 거버넌스 논의를 위한 유관자료 분석 방법 등
동료 멘토링	1차	5. 25(수)	연구 방향 및 아동돌봄 통합안 논의	- 아동돌봄 통합적 운영 방안 논의
	2차	6. 16(목)	아동돌봄 통합 관련 법적 개선방안 논의	- 아동돌봄 개별사업 통합 연계협력력을 위한 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

4. 연구범위와 틀

연구의 범위와 틀을 제시하기에 앞서, 아동 돌봄에 관한 통합적 논의의 필요성과 통합의 다양한 층위와 개념, 돌봄의 내용 요소들을 짚어보았다.

가. 통합 논의의 필요성

아동 돌봄의 통합에 관한 요구와 관련된 논의가 많으나, 과연 통합적 접근이 현재와 같은 다부처 돌봄 운영체계에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거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첫째, 공급자 관점에서 정책의 집행과 제도설계 및 행·재정상의 효율성을 들 수 있다. 다부처에서 동일한 아동 및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과 보육, 돌봄의 이름으로¹⁾ 유사 지원 내용의 분절된 사업을 진행하여도 개별 정책이 미처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와 과부족이 발생한다. 이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긴급돌봄 운영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다(최윤경·박원순·최윤경·안현미, 2021). 이러한 경우 공급자인 중앙-지방 정부와 전달체계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동일한 아동과 부모 대상의 돌봄 서비스 제공과 운영에서 발생하는 과부족과 중복 및 지역간/서비스간 격차와 행·재정적 비효율을 파악하여 조정, 재배치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이는 정책의 제도적 설계가 갖는 제한점을 보완하고, 행·재정의 투입이 수혜자 아동과 부모에게 최대한 누수없이 전달되도록 하는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둘째, 수요자 관점에서 아동과 부모의 교육과 돌봄에 관한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하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과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 제공의 기본 목표이다. 서비스의 내용과 운영방식, 시간(이용시간, 시간대)은 변화하는 다양한 수요 대비 충족이 어려운 지점들이 발생하며, 아동 연령 및 서비스 구간별로 분절된 서비스 운영은 보편화 된 안정적 이용 기반이 미처 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 이용의 공백과 단절을 보인다. 특히 아동 관점에서 출생 후 영유아기를 거쳐 초등학교 입학 이후의 0~12세 아동기에 필요로 하는 교육·돌봄 서비스

1) 신생아돌봄, 산후조리, 아이돌봄, 영유아보육(기본보육-연장보육), 유아교육(교육과정), 방과후과정, 온종일 돌봄, 초등돌봄, 마을돌봄;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돌봄공동체/육아공동체 등

스의 이용을 집 근처에서 단절없이 연결 및 조합하는 과정은 수요자 부모와 아동에게 어려운 숙제이다. 이러한 횡적-종적, 내용과 형식상의 연속성은 돌봄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논의를 필요로 하는 주요 과제이자 목표이다. 이는 돌봄수요의 파악과 목표/기준의 설정, 데이터의 공유와 질 관리 모니터링의 실시, 관련 인프라와 수행력(capacity building)을 필요로 한다(UNESCO, 2020: 15). 양질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과 아동의 연령 및 상황에 따른 연속성의 보장, 이로써 국가수준의 돌봄서비스 이용에서의 형평성과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변화된 환경 및 시대 상황과 미래 대응의 과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험/재난의 주기적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일상적 상황과 재난/위험 상황에서의 돌봄체계의 전환과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또한 초저출생으로 인한 아동수의 감소로 교육과 돌봄 서비스의 제공 방식에 대한 재고와 변화를 꾀해야 하는 상황으로, 육아 인프라의 감소가 가시화 된 상황에서 기존의 다부처 돌봄 정책과 지원을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성과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 다.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분포에 따라 인구 밀집지역과 희소지역 등 해당 지역의 가구 구성과 수요에 맞는 적정 인프라의 유지와 가용한 최적의 서비스 운영 간의 연계·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으며, 변화된 육아환경에 맞는 유연한 전환과 연계가 가능한 돌봄체계로 변화해야 하는 숙제에 당면해 있다.

이러한 통합과 연계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예: OECD, 2015; UNESCO, 2020).

상기한 이유가 아동돌봄의 통합적 논의를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논거라면,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연계·협력의 방안이 이미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지점이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넷째, 아동 돌봄의 다부처사업과 분절된 거버넌스가 통합과 연계 협력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논의와 제안, 실행의 노력이 다수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계협력과 통합적 기반의 마련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지 않는 이유를 찾아야 하는 점이다.

노르딕 북유럽국가와 같이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상당부분 직접 관장하고 운영하는 경우 다양한 돌봄서비스 간 통합적 접근과 연계협력의 실천이 상대적으로 수월

한 것으로 논의된다. 반면 사적영역의 민간분야에서 서비스 제공 인프라의 우위를 차지하는 경우, 이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실현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다(UNESCO, 2020: 4).

지난 정부의 유보통합과 초등돌봄에 관한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면, 관련 인프라의 확충과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행·재정 거버넌스의 운영과 다부처 돌봄서비스 간 연계협력의 통합적 접근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①법적 기반의 마련과 국가수준의 중앙-지방 정부의 거버넌스 구축과 같은 하향식의 구조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통합 운영의 실행력이 지속되지 않음을 경험하였다. 또한 정부 주도의 정책 실행이 ②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 없이 공급자의 서비스 제공과 제도 설계만으로 아동 돌봄의 영역이 사각지대와 편차 없이 운영되도록 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로써 지역 중심의 지역사회 돌봄의 필요성과 공동체적 접근이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에 대한 논의는 상기한 기본적인 이유와 필요성의 논거(3가지) 외에, 지금까지의 다양한 논의와 시도에서 간과되거나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수요자 관점의 연속성 개념으로 접근하여 찾아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 통합의 다양한 층위와 개념

통합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층위와 개념을 갖는다.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합치는 통합(integration)에서부터 연계 협력(collaboration, cooperation)과 전이 및 연속성(transition, continuity), 적절한 배치(alignment)의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 즉 아동 돌봄의 통합은 지시적으로 ① 물리적·구조적 기능과 조직의 통합을 의미함과 동시에, ② 다양한 서비스 운영 방식과 전달체계 간 연계·협력, ③ 아동 연령의 주기별로 서로 다른 서비스에 대한 운영 및 이용에 있어서 연속성의 보장과 원활한 전이 및 배치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를 종적-횡적 통합과 연계로 구분하기도 한다.

통상 ‘종적인 통합과 연계’는 공급자 관점에서 중앙정부-지방정부-기초지자체(지역사회)로 이어지는 행(재)정 거버넌스 상의 통합적 논의라면, 수요자 관점에서는 아동의 생애주기별로 분절된 다양한 교육·돌봄의 서비스 운영과 이용이 자녀의

성장과 함께 연속성 있게 연계되도록 하는 지점이다. ‘횡적 통합과 연계’는 돌봄이 포괄하는 내용 범주에 따라 교육·보육·돌봄의 통합과 연계 또는 교육·보육·돌봄 외에 건강·보건·의료와 안전, 보호, 아동복지의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의미할 수 있다. OECD의 Transition 보고서에 의하면 취학 전-후 유초연계에서 연속성의 개념은 pedagogical continuity, professional continuity, developmental continuity의 3가지로 파악되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OECD, 2017). 후속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통합적 접근과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통합의 내용 요소는 하위분류에 의해 돌봄에 관한 정보 통합, 교육과정과 내용(콘텐츠)의 통합, 인력/교사 자격 및 양성과정의 통합, 비용지원체계의 통합, 전달 체계 상의 통합과 서비스 운영의 연계·협력 등 다양한 층위와 내용 구분이 가능하며, 나아가 장애통합과 다문화 등까지 고려한 D(diversity), E(equity), I(inclusiveness)로 확장될 수 있다. 아동돌봄 정책의 당면한 현안과 쟁점을 중심으로 순차적, 단계적으로 통합적 논의와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통합적’이란 “둘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 따위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통합적이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고 현황에 대한 문제인식과 효율성(efficiency)과 효과성(effectualness)에 대한 기대가 출발점이 된다. 둘 이상이 개별적·분절적으로 존재하거나 작동할 때에 대한 반성과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접근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통합적 아동돌봄’을 정의해 보면 ‘아동의 생애주기에 따라 제공되는 개별적·분절적 돌봄서비스를 제공자는 물론 수요자의 이익에 부합 하면서 연속성 있게 연계되도록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한 아동돌봄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대목에서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인돌봄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²⁾과는 개념적 정의를 달리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시설이나 기관보다는 자신이 살던 곳(집)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aging in place), 가정방문과 지역사회 내 근거리 가정돌봄(home care)이 주된 정책 목표이다(대한민국 정부, 2020: 89). ‘통합적 아동돌봄’은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뿐만 아니라 인지, 정서, 사회성 등 아동발달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

2)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2018. 11. 20)’에서 제시한 용어이다.

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시설과 기관을 이용해 제공된다. 또한 통합이 물리적, 지역적 통합에 국한하지 않고 개별 서비스를 연계하여 확대함을 사업목표로 하는 점, 수요자의 돌봄서비스 이용 여부의 선택권이 작동한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은 앞서 논의한 통합의 다양한 내용 요소와 층위 및 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 법적 기반과 행·재정 거버넌스, 서비스 이용 대상의 보편적 기반과 비용지원, 교사/인력의 자격과 양성, 프로그램(내용)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토대를 갖는다. 현 시점 당면한 현안과제 중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한 지점에서부터 통합적 논의를 꾀할 필요가 있다.

다. 연구범위와 틀

아동 통합돌봄에 대한 논의가 매우 다양한 층위와 요소를 가짐에 따라, 이 연구에서 말하는 통합적 아동 돌봄의 범위와 내용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아동’은 0~12세(출생후~초등학령기)의 연령을 범위로 하며, ‘돌봄’은 아동의 교육·보육·돌봄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단 신생아기의 경우 돌봄에서 건강관리가 주요한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산후조리와 관련된 건강·의료 관련 일부 내용을 함께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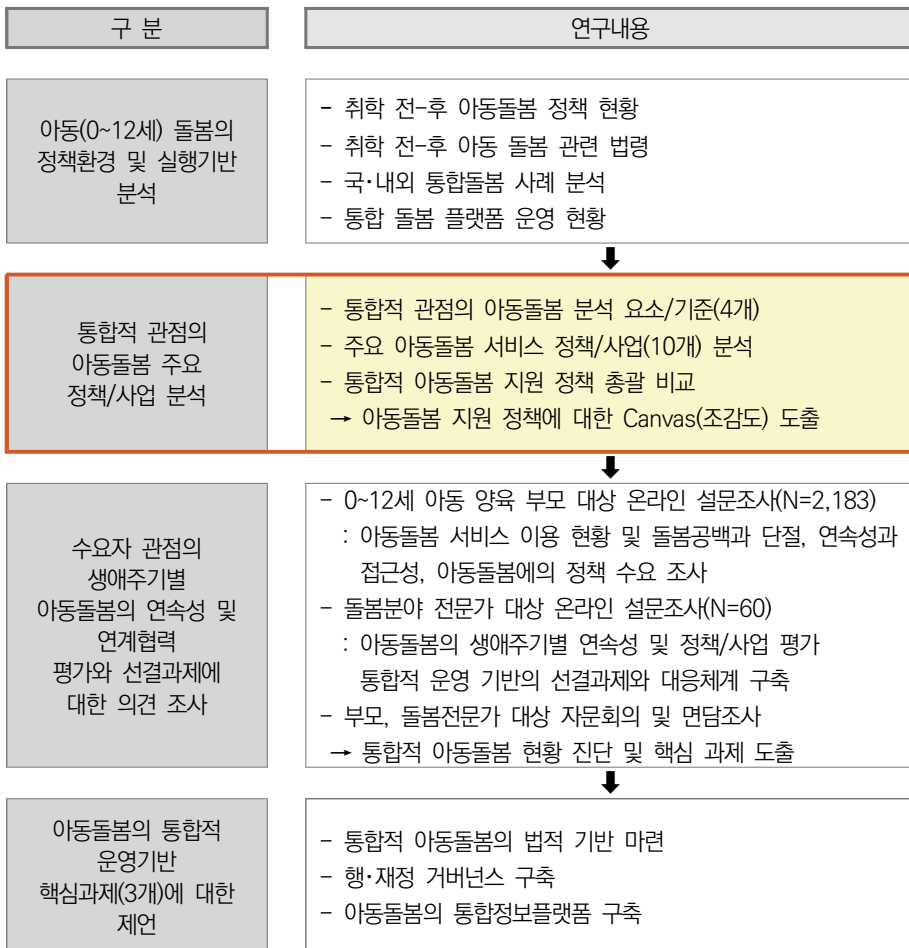
‘돌봄서비스’는 공적기반을 중심으로 아동의 생애주기별로 신생아기 건강관리에 서부터 영유아기 유치원과 어린이집(교육과정 및 방과후돌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이용, 그리고 이어서 초등학령기 아동 대상의 아이돌봄서비스,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및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를 포괄하여 살펴보되, 개별 돌봄 서비스와 사업에 대한 상세 현황과 과제에 대한 논의보다, 아동돌봄의 보편적 이용 기반과 행·재정의 효율을 담보하는 정책 설계 및 수요자 부모와 아동의 관점에서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탐색’과 ‘이용’, ‘연계’가 가능한 지점을 중심으로 이를 작동하게 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통합적 아동돌봄’은 수요자 관점의 연속성으로 0~12세 아동의 연령에 따라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돌봄 서비스에 대한 ①보편적 이용기반(접근성-이용자격, 이용시간, 비용지원, 이용률, 인프라)과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양질의 서비스 이용, ②수혜의 형평성, ③ 0~12세 아동의 연령주기를 고려한 교

육·돌봄의 단절과 공백, 사각지대와 어려움, 격차가 최소화 된 상태, ④정보의 탐색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통합정보플랫폼의 구축’을 칭하고, 이에 대한 주요 정책/사업을 분석하였다(3장). 관련하여 수요자 부모의 아동 돌봄 전반에 대한 의견과 수요를 조사하였으며(4장), 주요 정책/사업 분석과 수요자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에 대해 법적기반의 마련, (행·재정) 거버넌스의 체계화, 통합정보플랫폼의 구축 3가지를 중심으로 제안하였다(5장).

주요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책/사업의 종류와 분석의 틀은 [표 I-4-1]과 같으며, 전체 연구내용의 구성은 [그림 I-4-1]과 같다.

[그림 I-4-1] 연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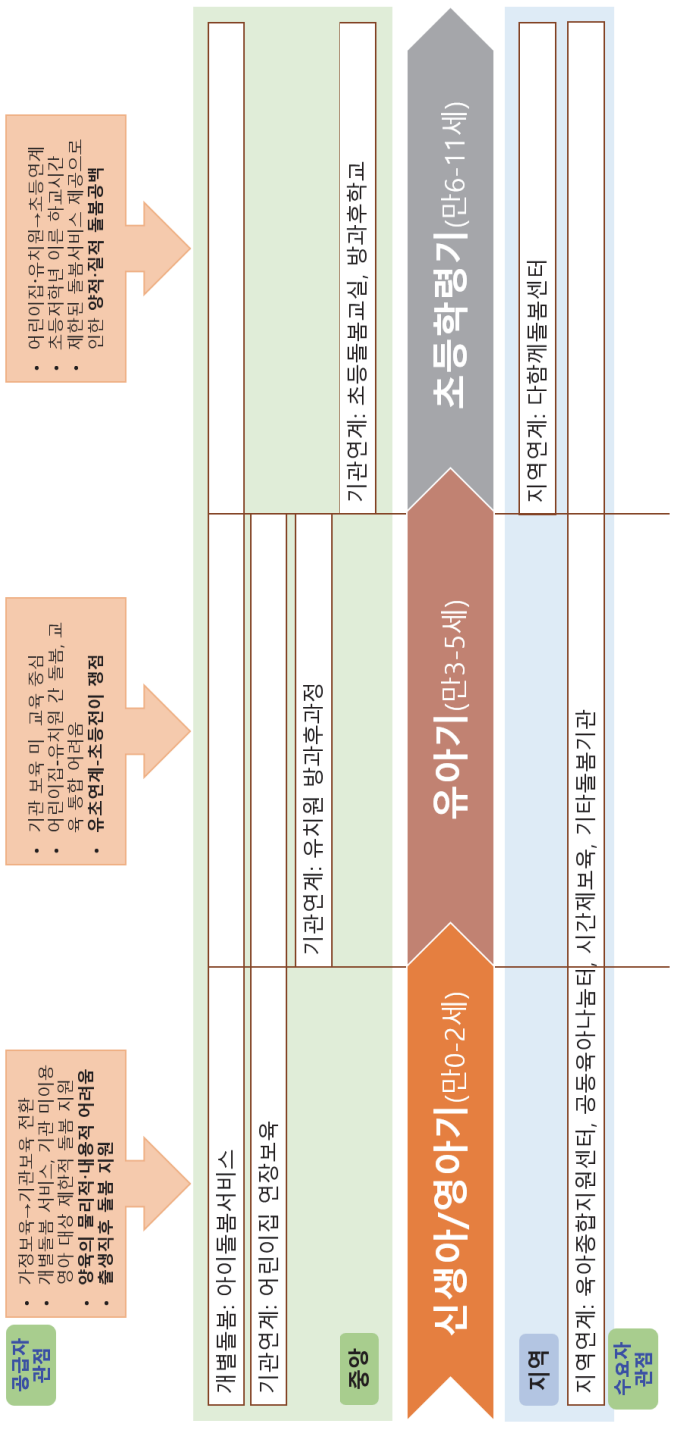
〈표 I-4-1〉 생애주기별 아동돌봄 서비스 분석 틀

구분 (생애주기)	돌봄서비스	근거법	전달체계	이용대상 연령	대상/시간/ 이용자 수 (coverage)	인프라/ 개소수	효과성	연계성
신생아 · 영아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모자보건법	서비스제공기관	생후 2개월이하				
	국기필수예방접종(NIP)	모자보건법	보건소	만13세이하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지원법	건가/다가센터 등	만12세 이하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 지원법	건가/다가센터 등	만18세 이하				
영유아기	어린이집 보육: 기본-연장보육	영유아보육법	육아종합지원센터	5세 이하				
	유치원 유아교육: 교육-방과후과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진흥원	3-5세				
	시간제보육	영유아보육법	육아종합지원센터	5세 이하				
아동기 (초등학생기)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법	아동권리보장원	18세 이하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시·군·구	12세 이하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청	6-12세				

주: 1) 본 보고서 3장의 통합적 관점의 아동 돌봄 정책/사업 분석임. 상세내용은 3장을 참조

2) 영유아기 유보통합은 0~12세 아동을 포괄하는 돌봄 정책/사업 전반의 통합적 운영기반 구축과 논의의 결을 달리하므로, 본 연구의 내용에 포함하지 않음.

[그림 1~4-2] 수요자 관점의 아동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이용 및 연계 분석 내용



II

아동돌봄의 정책 현황 및 운영 기반

- 01 취학 전-후 아동 돌봄정책 현황
- 02 취학 전-후 아동 돌봄 관련 법령
- 03 국·내외 통합돌봄 운영 사례
- 04 통합 돌봄 플랫폼 운영 현황
- 05 아동돌봄 서비스의 쟁점과 과제

II. 아동돌봄의 정책 현황 및 운영 기반

1. 취학 전-후 아동 돌봄정책 현황

이 절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아동돌봄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관련 기본계획을 고찰하였다. 가장 최근에 수립된 1)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1~2024), 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3)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획(2021~2025), 4)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그리고 5)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 6)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등을 중심으로 아동돌봄 정책을 정리했다. 또한 아동 대상 정책은 아니지만, 지역 사회 돌봄이라는 관점에서 함의를 제공해주는 7)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제도 고찰의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가.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

1) 수립배경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경우,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15~’19)이 수립·추진되어 아동의 보편적 복지 확대 등에 대하여 노력하였으나, 아동의 행동수준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아동 중심의 정책 추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마련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20. 8: 1). 본 계획에서는 아동의 행복과 권리주체로서 아동 관점 강화를 위해 법·제도적 체계 정비, 재정적 지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아동 정책 정립의 필요성이 고려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20. 8: 2).

2) 정책 과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정책과제는 1)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2)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 3)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4)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의 4가지이며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 [그림 II-1-1]과 같다.

[그림 II-1-1]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주요 정책과제

아동이 행복한 나라	
〈목표〉	
아동 권리의 존중 및 실현	아동이 현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추진 전략 및 추진과제〉	
1)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체계 마련 • 생활 속 아동권리 실현
2)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	• 놀이와 학습이 조화로운 학교와 지역사회 • 아동 신체와 마음건강 관리 강화 • 폭력과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
3) 공정한 출발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 아동중심 공적 보호·돌봄체계 구축 • 저소득 가구 등 취약아동 지원 강화
4) 코로나19대응 아동정책 혁신	• 가정의 양육 역량 강화 • 재난 상황에 대응가능한 돌봄체계 마련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 8).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안)('20~'24). p. 14.

3) 아동 돌봄 정책 추진 계획

해당 계획에서 아동 돌봄 정책과 관련된 추진 전략은 ‘공정한 출발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로, 계획 수립 시점에서 돌봄의 공공성과 품질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을 인식하여, 정책 방향으로 ‘영유아-초등-청소년 돌봄서비스 양적·질적 수준 제고’가 제시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20. 8: 53). 중점 추진 과제로는 ‘아동 돌봄 확충 및 운영 내실화’를 제시하였는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1-1〉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내 아동 돌봄 정책 추진 계획

추진 세부 과제	내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가정-지역사회 돌봄지원 강화	- '21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550개소 이상 확충, 공공보육 이용률 40% 조기 달성 - 가정내 아이돌봄서비스 및 지역사회 공동육아 지원 확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돌봄서비스 질 제고	- 방과후 초등돌봄을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다함께돌봄센터 대폭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 8).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안)('20~'24). pp. 59-60.

‘아동 돌봄 확충 및 운영 내실화’ 과제에서 지역사회 공동육아 지원 확대를 위해 부모와 자녀가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관계부처 합동, 2020. 8: 59).

또한 방과후 초등돌봄을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등 지역사회 내 방과후 초등돌봄 인프라 확충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이 계획에서 2022년까지 약 53만명의 초등학생에게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 밝혔다(관계부처 합동, 2020. 8: 60). 아울러 온종일 돌봄 선도모형을 구축하고,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및 운영, 학교-지자체 협업 강화 등 지역사회 맞춤형 초등돌봄체계 구축 계획이 제시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20. 8: 60). 이 계획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명시된 근거법 제정을 추진하며, 공통 업무매뉴얼 개발 등을 추진하여 지역 간 편차도 완화할 예정임을 밝혔다(관계부처 합동, 2020. 8: 60).

이외에도 다함께돌봄센터를 2022년까지 약 1,800개소 확충하여 약 9만명의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제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0. 8: 60). 이를 위해서 신축 아파트 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며, 생활 SOC 복합화 선정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추진한다(관계부처 합동, 2020. 8: 60). 또한 등·하원 지원, 운영시간 확대, 인력 확충 등 센터운영을 내실화하여 이용 아동·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부 내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긴밀히 연계하여 각 돌봄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관련 부처 간 돌봄협의회를 구성·운영함을 명시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0. 8: 60).

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1) 수립배경

정부는 지난 세 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초저출산 현상 및 급격한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었다고 진단하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대한민국 정부, 2020: 8). 해당 계획에서는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잔존하는 돌봄공백’을

지적하며 돌봄수요 증가로 돌봄인프라가 확대되었으나, 고용 친화적이지 못한 시스템으로 인해 여전히 돌봄공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대한민국 정부, 2020: 19). 영유아기의 경우 낮은 공공성, 초등 저학년의 경우 돌봄수요 대비 교육 및 돌봄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돌봄공백의 발생을 지적하였다(대한민국 정부, 2020: 19).

2) 정책 과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전체적인 정책 체계도는 [그림 II-1-2]와 같다. 이 중 아동돌봄 관련 정책과제는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③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담겨져 있다.

[그림 II-1-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체계도

비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		
↑			
목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혁신
↑			
추진 전략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①모두가 누리는 워라벨 ②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③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④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⑤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①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②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③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④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⑤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①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②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③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④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 ⑤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①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②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③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④지역상생 기반 구축 ⑤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추진 체계	①연도별 중앙부처·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②중앙·지자체 인구문제 공동대응 협의체 운영 등 중앙·지역 거버넌스 구축		

자료: 대한민국 정부(2020).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p. 43.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아동 돌봄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돌봄 서비스의 확립 및 교육이 공공성 강화를 통해 아동의 행복한 돌봄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다(대한민국 정부, 2020: 41). 정부는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발달단계에 맞춰 아동 돌봄의 공공성·책임성을 강화하고,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대한민국 정부, 2020: 50). 이를 위하여 공보육 50% 달성(‘25), 교사 대 아동비율 조정, 시간제보육 확충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개선하고, 초등교육 혁신 및 온종일돌봄 확충 지속,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 마련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담았다(대한민국 정부, 2020: 51).

3) 아동 돌봄 정책 추진 계획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책임성을 강화하고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대한민국 정부, 2020: 70). 이를 위해 국공립 기관의 보편적 확대를 기하고, 교사 대 아동비율 적정화를 통한 돌봄서비스 내실화 등 수요자 중심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강화한다(대한민국 정부, 2020: 70). 또한 초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학생 개별 맞춤형 지도와 출발점 격차 완화 등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대한민국 정부, 2020: 70).

특히 아동돌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 수요에 맞는 서비스의 지원을 위해 중앙-지역 간 협업 체계를 마련하는 등 아동돌봄 통합운영 기반을 구축한다(대한민국 정부, 2020: 70). 이는 현재 분절적인 돌봄서비스의 통합 운영을 위해 지역별 특성과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의 개편을 위한 것이다(대한민국 정부, 2020: 7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③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속한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 <표 II-1-2>와 같다.

〈표 II-1-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정책 추진 계획

추진 과제	내용	세부 내용
1-3-1-①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아동돌봄기관의 공공성 강화	국공립 등 공보육 확충	-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확충 등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25)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 국공립유치원 지속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책무성 강화	- 지역 보육수요 충족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 다양화 등 기능 강화
	안정적 서비스 제공	- 영유아 보육료 및 누리과정 비용의 지속적 지원을 통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교육 서비스 제공
	민간기관 투명성 제고	- 전문·체계적 지원없이 민간에 맡겨진 시설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 마련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	교사 대 아동비율 적정성 제고	- 아동 발달단계를 고려, 교사-아동간 긍정적 상호작용 강화를 위해 단계적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서비스 격차해소	- 지역별·이용시간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에 불편함과 차이가 없도록 안정적 교사배치 및 기능 강화
	긴급돌봄 체계화	- 위기상황에 따른 나홀로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 긴급돌봄 운영 체계 마련
다양하고 유연한 돌봄서비스 확충	시간제보육 확대	- 영아기 다양한 보육수요를 고려, 장시간 보육(8시간 이상) 외 시간제보육 지속 확대 및 이용률 제고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 보수·전문교육 및 인·적성검사 실시등 인력 관리를 체계화하고 아이돌보미의 역량 강화
	보완적 서비스 확대	-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과 전담인력(부모교육·상담 등) 배치를 통한 양육정보·서비스 접근성 강화
1-3-1-② 아동의 균등한 초등돌봄 환경 조성		
초등교육 혁신을 통한 충분한 교육 제공	초등교육 혁신	- 놀이·쉽, 창의적 교육과정, 개별 학습지원, 유연한 공간조성을 통해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 및 양육환경의 근본적 개선
	유·초 연계 교육과정 시범운영	- 취학기 유연한 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과정 연계 모형(유·초등 1학년) 개발·운영 및 지역별 모델 제언
수요자 중심 온종일돌봄 지속 확충	온종일돌봄 확대	- '22년까지 53만명 확대 이후, 실질적 수요를 파악하고 학교 안·밖의 다양한 자원 연계를 통해 돌봄 지속 확충
1-3-1-③ 아동돌봄 통합적 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아동돌봄 통합적 운영 기반 마련	체계 정비	- 돌봄 관련 법령을 정비, 평가체계 등 아동중심 보편적 돌봄을 위한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추진
아동중심 통계 조성	아동 삶의 질 분석	- 기존 통계조사 집계를 ‘아동중심’으로 전환, 아동의 삶·생활 변화 등 객관적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 근거 확보

자료: 대한민국 정부(2020).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 pp. 71~75.

이 정책 과제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는 아동돌봄 통합적 운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아동중심 보편적 돌봄을 위한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대한민국 정부, 2020: 74). 이는 돌봄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돌봄모델 운영 및 지역수요를 반영한 인적·물적 자원의 조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대한민국 정부, 2020: 74). 이를 위하여 우선 중앙-지역 간의 정보공유 및 연계, 중장기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지원체계 마련의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대한민국 정부, 2020: 74). 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는 돌봄정책 가이드(중앙), 아동돌봄 종합계획 수립(지역)을 통해 중앙-지방간 유기적 연계 및 원활한 수요·공급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대한민국 정부, 2020: 74). 마지막으로 돌봄기관 대상 공통서비스 표준(안), 기본지표를 마련·제공하고, 실적 평가의 결과 환류를 통해 효율적 관리 및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하여 평가체계를 구축한다(대한민국 정부, 2020: 74).

다.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획(2021~2025)

1) 수립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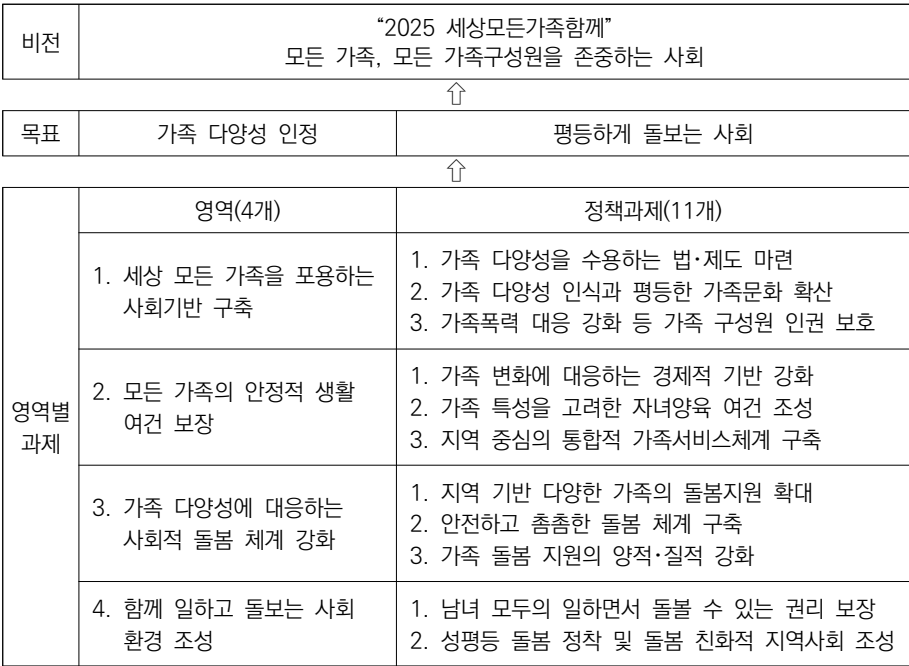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의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21. 4. 27: 1).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의 가족정책 성과를 기반으로 하면서 가족 변화 등 정책 환경에 따라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21년에 발표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의 다양성 증가를 반영하여 가족 다양성을 포용하고,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삶의 여건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여성가족부, 2021. 4. 27: 12). 또한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권리 인식 증가를 반영하여, 가족 구성원 개개인을 존중하는 방향을 지향한다(여성가족부, 2021. 4. 27: 13).

2) 정책 과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정책 체계는 다음 [그림 II-1-3]과 같다.

[그림 II-1-3]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정책 체계



자료: 여성가족부(2021. 4. 27). 2025 세상모든가족함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p. 14.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모든 가족, 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가족다양성 인정’과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설정하고, ①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 구축, ②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 여건 보장, ③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체계 강화, ④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의 4개 영역별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여성가족부, 2021. 4. 27: 13).

3) 아동 돌봄 정책 추진 계획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현 시점에서 돌봄시설 및 서비스가 지속·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질적 측면에서의 체감은 미흡하고 선호도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은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분석하였다(여성가족부, 2021. 4. 27: 64).

이에 따라 1)가족 변화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사회적 돌봄을 확충하고, 2)공적 돌봄 확충과 질 제고 등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고하는 것

으로 정책 방향을 정했다(여성가족부, 2021. 4. 27: 65).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사회적 돌봄의 확충을 위해서는 마을 단위 자녀돌봄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과 아이돌봄 서비스 등 안전한 가정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여성가족부, 2021. 4. 27: 65). 또한 공적 돌봄 확충과 질 제고 등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적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여성가족부, 2021. 4. 27: 65).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내 아동 돌봄 관련 과제(3.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의 세부 추진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1-3〉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내 '3.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추진 계획

정책 과제	내용	세부 내용
3-1 지역 기반 다양한 가족의 돌봄 지원 확대		
지역사회 자녀돌봄 지원 확대	초등학생 등 자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마을, 학교를 기반으로 방과후 돌봄 공간을 확충하고 지역 사회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	▷ 초등학생 등 자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마을, 학교를 기반으로 방과후 돌봄 공간을 확충하고 지역 사회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
	▷ 1인 가구 등의 고독, 고립 등 방지를 위해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다양하고 자발적인 돌봄공동체 모델 확산	▷ 1인 가구 등의 고독, 고립 등 방지를 위해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다양하고 자발적인 돌봄공동체 모델 확산
	지역사회 자녀돌봄 지원 확대	-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지역별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개소 수 단계적 확충 및 운영시간 확대 추진 등 - 초등 온종일 돌봄 지역 사회 인프라 확충 -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 공동체 기반의 일상 돌봄 지원	초등학생 돌봄 수요를 고려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강화	- 지자체와 학교가 서로 연계·협력하여,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 돌봄 모델 확산 - 집과 인접한 곳에서 틈새 방과후 돌봄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가족센터(SOC) 등 유관기관 연계 방안 마련
	1인 가구의 일상적 돌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 활성화	- 1인 가구 고독·고립 등 방지를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기반 지역사회 가족 간 소통·교류 활성화
	여성 1인가구 등의 안전한 생활여건 마련	- 여성 1인가구 등 대상범죄 예방체계 확충 -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 시스템 강화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확산	- 주민주도형 공동체 돌봄 활동 지원 기반 마련 - 지역별 돌봄 플랫폼 구축 - 돌봄공동체 사업 추진 체계 마련

정책 과제	내용	세부 내용
3-2.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 아이돌봄서비스 등 안전한 가정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가정돌봄 인력의 전문성 확보로 서비스 질 제고		
▷ 재난·재해 시 돌봄 공백 대응을 위한 긴급 돌봄 지원체계 구축 및 안전기준 등 강화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가정돌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돌봄 대상 연령 및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한 차등 정부지원 확대 추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 부모·아동 가구 등 돌봄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정부지원 확대 검토 - 소득수준,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및 요금 체계 개편 추진: 취약전 아동, 초등학생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발굴·제공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체계 구축	- 아이돌봄 모바일앱을 통해 이용자가 일시연계서비스(긴급돌봄요청)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요청방식 개선 - 야간·주말 등 긴급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와 돌보미를 실시간 연계할 수 있는 긴급연계시스템 운영 - 아이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이 서비스 대기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가정 돌봄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및 전문성 제고	- 출·퇴근 시간대 수요 집중, 돌보미의 단시간 돌봄 기피 등에 따른 수급미스매치 개선 방안 마련 - 아이돌보미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발생 시 산재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보급 - 선발에서 서비스 이용 종료 이후까지 인력 관리 체계화로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 양성 - 공공·민간 돌봄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아이돌봄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 아이돌봄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사업을 총괄·조정할 ‘중앙지원센터’ 지정·운영 -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간 아이돌보미 수급 조정, 지역 간 서비스 이용 칸막이 해소, 노무관리를 전담할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재난·재해 시 돌봄공백 대응	지역 기반 긴급돌봄 지원 체계 구축 및 안전기준 강화	- 지역 기반 긴급 돌봄을 위한 대응 가구 설치 -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등 가정방문 돌봄인력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관련 기준 마련·보급 - 아동 돌봄시설, 노인 돌봄시설 등에 대한 재난 위기 또는 감염병 발생시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 마련·적용
	긴급상황에서 자녀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긴급 돌봄 지원	- 감염병 등 상황발생 시 돌봄이 필요 아동 대상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 서비스 지원 - 노인, 장애인 돌봄시설 중단시 가족 돌봄 지원을 위한 재가서비스 지원 확대 - 돌봄시설 운영 중단에 따른 결식 우려 아동·노인에 긴급 급식 지원

정책 과제	내용	세부 내용
3-3. 가족 돌봄 지원의 양적·질적 강화		
▷ 공적 돌봄서비스 확충 및 질 제고 등 가족 돌봄의 공공성 강화		
▷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가족돌봄자 지원 등을 통해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 제고		
가족 돌봄의 공공성 강화	어린이집·유치원 등 국공립 교육·보육 시설 확충 및 질 제고	-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및 국공립 유치원 지속 확충 - 돌봄인력 및 시간제 돌봄 확충을 통한 돌봄수요 충족 - 민간 돌봄 시설의 공공성·투명성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자녀돌봄을 위한 비용·서비스·시간 지원에 대한 종합적 중장기 양육지원체계 발전 방안 논의
	공적 노인돌봄 서비스 확대	- 노인돌봄시설에서 공공이 운영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국공립 전환 등 추진 - 지역사회 기반 노인돌봄 지원 확대 - 예방적 노인 의료서비스 확충 및 질 제고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	- 돌봄종사자 직무분석을 통한 공정한 보상 및 경력관리체계 마련 - 돌봄일자리 등 여성 집중 업종에 대한 일자리 질 개선 등 관련 해외정책 연구조사 및 모범사례 확산 - 돌봄종사자 인권 및 안전 보호체계 강화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	- 노인 등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휴식 지원 - 가족돌봄자 연결망 및 심리·정서적 지원

자료: 여성가족부(2021. 4. 27). 2025 세상모든가족함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pp. 66~76.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세부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듯이, 정부는 돌봄 시스템의 점검과 확충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초등 저학년의 경우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초등 온종일 돌봄 지역 사회 인프라 확충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돌봄 선택 시 수요자들이 접근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을 운영하고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는 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여성가족부, 2021. 4. 27: 67). 가장 눈에 띄는 계획은 아동의 집과 인접한 곳에서 틈새 방과후 돌봄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가족센터(SOC)등 유관기관 연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여성가족부, 2021. 4. 27: 67), SOC의 경우 앞선 정책과제인 ‘2.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 여건 보장-3. 지역 중심의 통합적 가족서비스체계 구축’에서도 밝힌 대로 2021년 97개소를 운영하는 등 돌봄 및 교

육·상담·소통 등 생애주기별 가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여성가족부, 2021. 4. 27: 53). 또한 아동 돌봄을 위해서는 지역별 돌봄 플랫폼을 구축하여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21. 4. 27: 69).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도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생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할 계획도 있다(여성가족부, 2021. 4. 27: 70).

라.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1) 수립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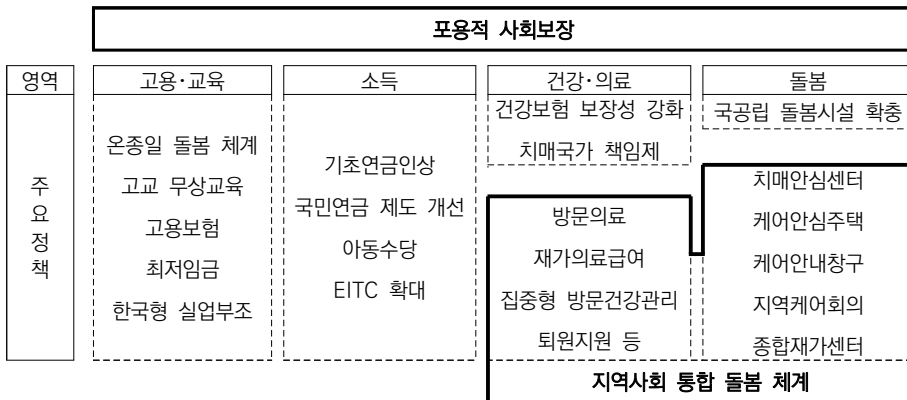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9. 2. 12: 1). 이에 2019년에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해당 계획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점과 저성장,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해 경제·사회구조의 지속 가능성 문제(보건복지부, 2019. 2. 12: 5), 그리고 세대별·성별 격차확대 등으로 사회적 갈등 요인이 증가한다는 점이 문제(보건복지부, 2019. 2. 12: 6)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의 추진원칙 및 전략으로 1)사회보장체계의 포용성 강화, 2)사회보장 제도의 연계 및 조정 강화, 3)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4)포용과 혁신(국가와 개인)의 상호보완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보건복지부, 2019. 2. 12: 13-16). 특히 '3)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에서는 현재 공급자 관점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회보장 이용체계를 수요자 욕구 중심으로 연계된 통합적 이용체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보건복지부, 2019. 2. 12: 14). 즉, 자기가 살던 곳에서 개개인이 필요한 복지, 돌봄, 요양·보건의료, 주거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커뮤니티 케어)로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계획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완성'이라는 목표와 12대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로도 반영되었다(보건복지부, 2019. 2. 12: 17-18). 제2차 사회보

장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의 범주는 다음 [그림 II-1-4]와 같다.

[그림 II-1-4]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의 범주



자료: 보건복지부(2019. 2. 12).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p. 14.

2) 정책 과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전략 체계도는 다음 [그림 II-1-5]와 같다.

[그림 II-1-5]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체계도

비전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		
추진 원칙 및 전략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사회보장 제도의 연계·조정 강화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포용과 혁신의 상호보완체계 구축
중장기 목표	국민 삶의 질 향상: OECD 28위('17) → 20위('23) → 10위('40)		
4대 핵심 분야별 목표 및 중장기 방향('40)	고용	저임금 근로자 비용 축소	- 노동형태 다양화, 노동이동 증가에 대응하는 일자리 안전망 확충 - 평생학습체계 구축 및 인적자원 역량 제고
	소득	상대빈곤율 완화	- 공공부조 역할 강화 및 청년층·장년층 등 근로연령층의 소득보장 확대 -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1인 1연금 및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확충
	건강	건강수명 연장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 경감 - 의료이용체계의 효율화로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 서비스	GDP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비율 확대	- 생애주기별·대상별 다양한 사회서비스 확충 - 지역사회에서 주거·돌봄·의료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완성 및 질 높은 사회서비스 인력 양성

핵심 추진 과제 (‘23)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1. 인적 자원의 역량 제고 및 차별없는 출발선 제공	1.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 제도 역할 강화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1. 생애주기별, 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2. 일자리안정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2. 근로연령층 소득보장 확대	2. 필수의료 보장	2.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3. 노동시장 격차완화 및 일·생활균형 달성	3.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3.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3.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
기반	• 사회투자 확대 • 사회보장 이용체계의 연계 강화 •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책 분석의 과학화			

자료: 보건복지부(2019. 2. 12).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p. 19.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장기 정책목표와 분야별 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4대 핵심영역 중심으로 90여 개 중점 추진과제 안을 제시하였으며, 세부과제는 기본계획의 취지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³⁾에서 상세히 규정하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2. 12).

수립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며,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한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2. 12).

3) 아동 돌봄 정책 추진 계획

우선 고용·교육 보장 분야의 ‘①교육의 공적 책임 강화’에서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계획으로 제시하였으며, 2018년 36만명에서 2022년 53만명으로 확대하여 초등돌봄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2019. 2. 12: 21). 같은 분야의 ‘③노동시장 격차 완화 및 일·생활 균형 달성’에서는 아동양육부담 완화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18년 6.4만가구→’22년 12만 가구)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확충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2019. 2. 12: 24).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③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

3)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http://www.ssc.go.kr/menu/busi/busi040101_05.do, 2022. 5. 30, 인출)에 연차별 상세 계획이 제시됨.

과제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등 국공립 돌봄시설을 확충할 계획인데, 2021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취원률을 40%까지 확충하는 것이 하나의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2019. 2. 12: 32).

마.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공공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1) 수립배경

「유아교육법」에 의거하여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해당 계획은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된다.

이번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은 제1차 기본계획(2013~2017)의 한계점과 보완사항들을 진단하여 수립되었다(문무경 외, 2021: 75).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의 경우 1)실질적 교육기회 평등 확보를 위한 노력 미비, 2)공급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3)교육현장의 자율성 존중 부족의 문제 제기가 먼저 이루어졌고, 이를 기반으로 계획이 수립되었다(교육부, 2018. 3: 5-6).

특히 초등학교 준비, 돌봄 기능 대체 등을 위해 유아 학부모의 사교육 수요가 확대되어 유아의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 졌고, 이를 위해 유아의 놀 권리와 쉼 권리의 보장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였다(교육부, 2018. 3: 6).

2) 정책 과제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의 비전·목표 및 추진과제는 다음 [그림 II-1-6]과 같다.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의 기본 방향은 1)희망사다리 복원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것, 2)교실혁명을 통해 유아가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 3)현장교원·학부모와 함께 유아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을 지원하는 것, 4) 현장의 유아교육 혁신을 위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교육부, 2018. 3: 7).

[그림 II-1-6]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

비전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교육문화 혁신을 통해 교육의 공공선(公共善) 실현	
목표	- 국가 책무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유아교육 및 실질적 교육기회 평등 보장 - 유치원, 교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와 함께 유아발달 지원 - 교육현장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	
↑		
추진 과제	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국가책임 강화 - 희망사다리 복원을 통한 실질적 교육기회 평등 실현 - 건전한 사립유치원 육성·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② 교실혁명을 통한 유아중심의 교육문화 조성	- 유아가 중심이 되는 교육패러다임 전환 -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문화 개선
	③ 교육공동체와 함께 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유아 교육환경 조성 - 학부모 참여 강화로 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 교원의 업무부담 완화를 통한 유아와의 상호작용 강화
	④ 유아교육 혁신을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	- 현장에 적합한 평가체계 마련 - 사립유치원 행정지원 체계 정비
↑		
추진 체계	교육부-교육청-현장(유치원, 교사, 학부모), 관계부처(기관) 간 종합적·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자료: 교육부(2018. 3).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공공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p. 8.

3) 아동 돌봄 정책 추진 계획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의 추진 과제인 ‘2. 교실 혁명을 통한 유아 중심의 교육문화 조성’ 내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인 ‘영유아대상 과도한 사교육 문화 개선’에서는 돌봄 강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감소를 목표로 한다(교육부, 2018. 3: 21). 해당 계획에서는 일하는 가정 등 학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 돌봄교실 운영을 확대하고자 한다(‘17년 1,075개원→’22년 2,000개원). 이는 지역 내 교육기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초등 돌봄교실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지역·유치원 내 학부모 참여 확대 등 충분한 돌봄 인력 확보를 통해 현장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교육부, 2018. 3: 21). 또한 돌봄교실 이용 종료 후, 통학버스 운영을 통해 원거리 유치원 이용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등·하교 안심알리미를 연계한다(교육부, 2018. 3: 21).

가) 2022년 교육부 정책

새 대통령 취임 이후 아동 돌봄 관련 국가 정책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2022년 7월 발표된 교육부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교육부는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2. 국가 책임제로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 해소'를 제시하였다(교육부, 2022. 7. 29). 해당 추진과제에서는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유보통합 방안을 포함하였다(교육부, 2022. 7. 29). 이를 위하여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유치원-어린이집 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 등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며, 유치원-어린이집 모두 질 높은 교육·돌봄 기능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도록 한다(교육부, 2022. 7. 29).

나) 유보, 유초 이음교육

한편 교육부는 2022년 유아교육 역량강화 국가시책사업으로 개정 유치원 보육과정과 보육과정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다양한 연계 방안 모색을 위한 '유·보, 유·초 이음교육'을 운영하고 있다(인천광역시 교육청 공식 블로그a, 2022. 10. 14, 인출). 이를 위해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음교육 운영 방향 공유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한 사례로 강원도 교육청은 2022년 4월, 유아의 발달과 놀이 경험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이어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유치원-초등학교 이음교육'을 운영하여 전환기를 맞는 유아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강원도 교육청 보도자료, 2022. 4. 7). 강원도 교육청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0~2세 보육과정, 그리고 유치원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의 협력적 연계 사례를 발굴하고 다양한 연계 적용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강원도 교육청 보도자료, 2022. 4. 7). 세부적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유치원~초등학교 연계 교육에 대한 관점 공유, 교육과정 이해, 교사의 교수법 연계, 놀이 경험과 배움에 대한 관찰과 기록 공유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연합뉴스, 2022. 4. 7).

인천시 교육청은 공·사립 유치원의 질적 도약을 위해 유치원 미래교육체제 구축과 지원을 위해 유·보 및 유·초 이음교육 시범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인천광역시

교육청 공식 블로그b, 2022. 10. 14, 인출). 이음교육 시범유치원은 인천 시 내 5개원을 선정하여 유·보, 유·초, 및 유·초 이음교육을 운영하며, 학부모 및 연계기관 교원의 상호 이해력 강화를 위한 연수를 운영하고, 원당 1,0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한다(인천광역시 교육청 공식 블로그b, 2022. 10. 14, 인출). 또한 인천시 교육청은 유·초, 유·보 이음교육 운영 방향 공유를 위하여 2022년 7월에 상반기 포럼을 진행하였고(인천광역시 교육청 공식 블로그a, 2022. 10. 14, 인출), 11월에는 하반기 포럼을 개최하였다(인천광역시 교육청 공식 블로그c, 2022. 11. 17, 인출).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도 도내 공·사립유치원 1개원을 선정하여 2022년 3월부터 12월 동안 이음교육 운영하도록 하며 유·초 이음교육 사례 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대구 경북 내일신문 블로그, 2022. 10. 14, 인출). 또한 유·초 이음교육 놀이자료집을 발간하여 도내 공·사립 유치원 648개원에 배포한 바 있다(에너지경제신문, 2021. 12. 17, 보도).

바.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1) 수립배경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시행령에 의하여 5년 단위의 보육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중장기보육 계획은 새싹플랜('06~'08)이라고 불리우는 제1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과 1차 계획의 수정 보완 계획인 아이사랑 플랜('09~'12)과 제2차 기본계획('13~'17)을 거쳐 2017년에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보건복지부, 2017. 12).

해당 계획에서는 지금까지의 보육정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1)무상보육임에도 어린이집 적정 이용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 2)양적·질적 측면의 낮은 어린이집 공공성 문제, 3)보육서비스 품질에 대한 부모의 기대수준은 미충족된다는 점, 4)부모에 대한 직접적인 양육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 5)보육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보건복지부, 2017. 12: 8-11)이 제시되었다.

2) 정책 과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의 비전 및 정책과제 체계도는 다음 [그림 II-1-7]과 같다.

[그림 II-1-7]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비전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	
↑		
추진과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 체계 개편
	1. 국공립 이용률 40%로 확대 2.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 강화 3.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4.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	1.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 2.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3. 보육과정 개편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부모 양육지원 확대
	1.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2.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3.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4.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	1.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지원 2.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3. 취약보육 지원 개선
실행기반	-지원기관 기능 개편 -민·관 협업 확대 -전산시스템 개편	

자료: 보건복지부(2017. 1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p. 14.

3) 아동 돌봄 정책 추진 계획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정책과제 중 하나로 부모 양육 지원 확대를 제시하였는데, 해당 과제를 토대로 제공기관 확대 및 지원기준 개선으로 시간제보육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보건복지부, 2017. 12).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라는 목표별 세부 추진전략의 경우 문화센터·복지센터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시간제보육반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별 설명회·컨설팅을 통한 참여 확대를 추진하며, 시간제 보육 시설 수요와 지역별 이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간제 보육반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보건복지부, 2017. 12). 또한 계획 수립 시점에서 맞벌이형·기본형으로 이원화된 지원 기준을 개선하여 부모의 이용 부담완화 및 편의를 제고하고자 한다(보건복지부, 2017. 12).

사.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중심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은 아동을 대상으로 수립된 계획은 아니며 지역사회 내 포괄적 케어의 제공을 정부의 공적책임 영역으로 강조하는 점에서, 자녀돌봄 서비스 이용 여부의 선택권이 주요하게 작동하는 아동기 돌봄과는 구분되는 차이점이 있다. 그럼에도 지역사회 내에서 운영되는 돌봄에 대한 체계적인 시각을 제공해주는 의의가 있어 이번 절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2018년 발표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은 노인 커뮤니티케어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지만, 추후 아동을 대상으로도 커뮤니티케어 기본 계획을 고려할 예정이라는 정부의 발표도 고려하였다(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8. 11.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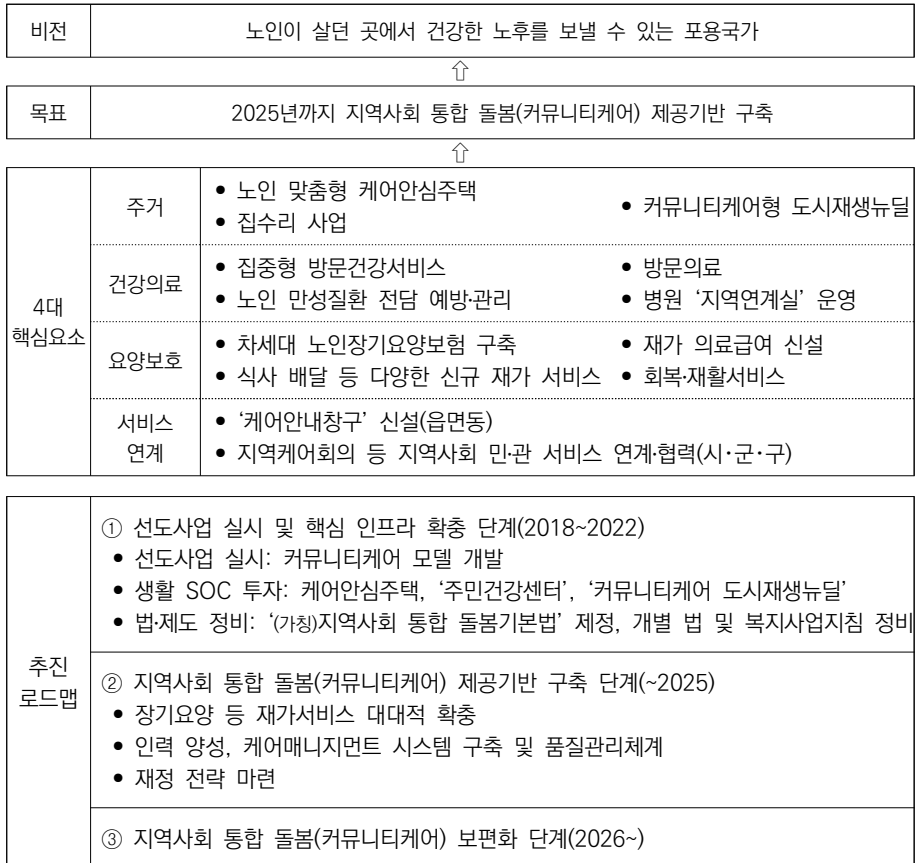
1) 수립배경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이 수립된 배경에는, 수립 당시 돌봄 불안이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의 돌봄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배경 파악이 있었다(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8. 11. 20). 이 계획에는 국민들이 불충분한 재가서비스로 인하여 돌봄 욕구 충족에는 한계를 겪고 있고, 있는 서비스도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체감하기 어렵다는 현실 반영이 있었다(관계부처 합동, 2018. 11. 20: 3). 이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노인 돌봄 불안을 해소하면서 평소 살던 곳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주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커뮤니티케어)’를 구현하고자 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8. 11. 20: 4).

2) 정책 과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에서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라는 비전 아래,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그림 II-1-8 참고).

[그림 II-1-8]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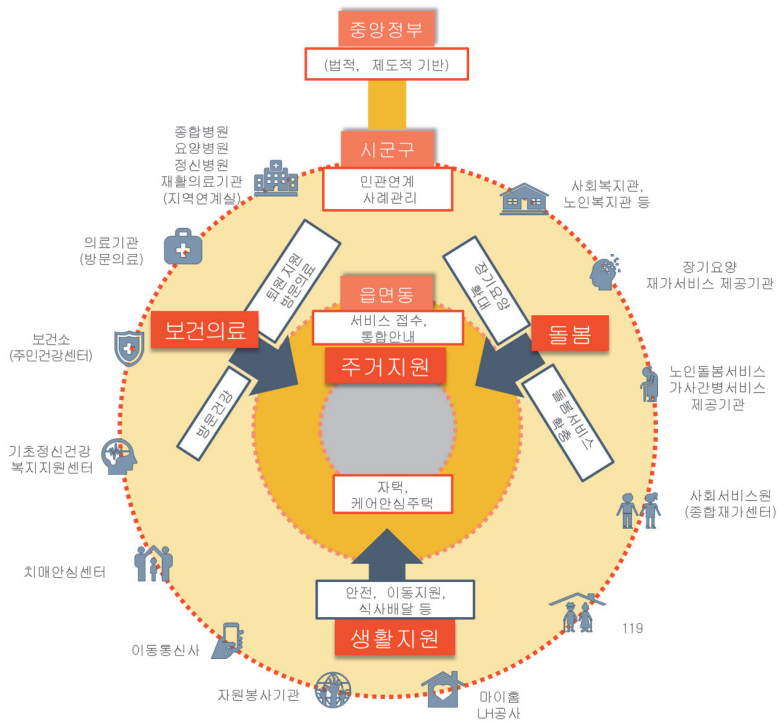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11. 20).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중심-. p. 3.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의 4대 핵심요소별 중점 과제는 1)주거 지원 인프라 대폭 확충, 2)어르신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실시, 3)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획기적 확충, 4)사람 중심의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의 4가지이다(관계부처 합동, 2018. 11. 20: 4-7). 해당 중점과제 중 '2)어르신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실시'에서는 어르신을 찾아가 건강관리를 하는 '주민건강센터'를 대폭 확충하고(관계부처 합동, 2018. 11. 20: 5), '3)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획기적 확충' 과제에서는 종합재가센터를 시·군·구별로 1개씩은 설치하여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품질을 제고하고자 한다(관계부처 합동, 2018. 11. 20: 6). 또한 '4)사람 중심의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의 과제에

서는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서비스 칸막이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각종 민관이 협력하여 사람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연계, 통합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하고자 한다(관계부처 합동, 2018. 11. 20: 7). 본 계획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제공의 개요는 다음 [그림 II-1-9]와 같다.

[그림 II-1-9]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제공 개요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11. 20).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중심-. p. 8.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의 로드맵을 살펴보면, 2018년에서 2022년까지는 생활 SOC 투자와 연계, 규제개혁 등으로 커뮤니티케어의 핵심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 있고, 2025년까지는 커뮤니티케어의 제공기반을 구축하여, 2026년부터는 커뮤니티케어를 보편화하고자 한다(관계부처 합동, 2018. 11. 20: 9). 또한 이러한 운영체제와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 노인돌봄에 국한되지 않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적용의 확장을 계획한다고 제시되어 있다(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8. 11. 20).

아. 소결: 기본계획을 통해 살펴본 국가수준 돌봄정책 수립의 시사점

돌봄에 관한 7개 기본계획을 통해 살펴본 돌봄정책의 내용과 설계는 개별 사업으로서의 제도 설계의 타당도와 구체적 목표의 설정과 이행 및 그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유사 돌봄서비스 제공에 대한 연계·협력으로서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교육과 돌봄,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방과후돌봄),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지역사회, 기관서비스와 재가서비스, 가정내양육 지원 등 돌봄 정책과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은 수요자 부모와 아동의 생애주기별로, 담당 부처별로, 분절되어 있다. 일례로 지역사회 통합 노인돌봄의 경우 기본계획에 드러난 확장 방침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 등 지역사회 아동돌봄 운영과의 연계점을 찾을 수 없으며, 유보통합의 논의에서도 지역내 서비스 이용기반에 대한 정보와 접근성 등 제 영역이 정책적으로 분절되어 있어, 수요자 관점에서 동일/유사 내용이 전혀 다른 법적기반과 운영기준, 전달체계를 통해 제공되는 공급자 위주의 제도설계와 운영을 보여준다.

이로써 개별 정책 사업으로 운영되는 돌봄서비스의 제공이 지역 단위에서 수요를 파악하고 공급의 과정에 연계·협력하는 조정기구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아동돌봄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 기준과 목표의 설정, 콘텐츠와 프로그램에 대한 공유 및 서비스 이용의 연계협력이 가능한 지점에 대한 법제화 및 사업화(서비스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교직원/인력 구성에 대한 연속성 관점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2. 취학 전-후 아동 돌봄 관련 법령

가. 다부처사업으로서의 아동돌봄 관련 법 현황

다부처 사업에 걸쳐 있는 취학 전-후 아동 돌봄의 법령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과 아이돌봄 지원법, 청소년기본법과 각 지자체 조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적 기반을 갖고 있다(초등돌봄교실의 법적 근거는 각 지자체 조례에 운영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다). 아동 대상의 돌봄서비스 제공과 질 관리 및 인력의 배치와 운영, 비용지원 등에 대한 법 조항을 갖추고 있으나, 아동 돌봄의 기본이

되는 공통 요소에 대한 설정과 다양한 서비스 운영 간의 통합적 운영과 연계·협력, 정보 제공의 통합 설계가 가능한 법 조항이 부재한 상황이다. 수요자 관점과 공급자 중앙-지방 정부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돌봄의 통합적 운영(예: 통합 정보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법 조항의 마련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표 II-2-1〉 다부처 아동돌봄 체제 및 관련 법

부처	돌봄체제	법적 근거	비고
교육부	유치원 (교육과정-방과후과정)	유아교육법	
	초등돌봄교실	(없음)	2004년 정책 발표 및 시범운영 시작 -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 각 지자체 조례에 운영규정 마련
	방과후학교	-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3-7호, 제2015-74호)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시간제보육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시행령 제21조의3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2조 -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제44조2(다함께돌봄센터) -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 2017년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공동 공모사업 및 시범사업 실시 - 2018년 관계부처 합동 〈온종일돌봄 정책〉 발표 - 2019년 설치·운영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 지원단 발족 - 2020년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법	설치·운영: 제50조~52조 *그외,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 -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 공부방을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 시도청, 지역아동센터 사도지원단, 사군구청, 지역아동센터

부처	돌봄체제	법적 근거	비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 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여성 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지원법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 지원법	-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제1항(자녀양육지원강화)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제3항(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시도, 시군구, 사업수행기관, 서비스이용자 *2020년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기본법	- 제48조2(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3(종합기본계획수립) - 제33조4(방과후활동종합지원실시) - 제33조5(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2005년 청소년위원회 과제 채택 및 시범사업 실시 - 2011년 청소년기본법 개정(추진근거 마련) - 여성가족부, 지자체, 운영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자료: 관련 근거 법 조항 및 '서정아 외(2021). 위험과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구축.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pp. 9-20', '최윤경 외(2022). 양육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양육지원법 제정 기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38-43' 참조하여 작성

현재 아동돌봄의 소관부처는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이고, 교육부 산하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 산하의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가 공존하고 있다.

교육부가 실시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 사업은 2004년 정책을 발표하여 시범운영을 시작하였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온종일돌봄체계를 구축하였다. 초등돌봄교실 사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4)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

중등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3-7호)⁴⁾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편제와 배당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이므로, 사실상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방과후학교’도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3-7호, 제2015-74호)에 근거하고 있다. 다만 방과후학교 사업의 경우 학교교육과정의 보충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정부조직법 제6조의 위탁근거 조항에 따라 학교 내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장귀덕, 2020; 하봉운, 2021: 39 재인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돌봄교실의 아동돌봄사업과 관련하여 교육부 소관법률은 없는 상태이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다함께 돌봄’과 ‘지역아동센터’의 근거규정은 「아동복지법」이다. ‘다함께돌봄’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1항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등·하교 전 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의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1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고(동조 제3항),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동조 제4항).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

4)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5) 「초·중등교육과정」(교육부 고시)

II.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4. 학교 급별 공통 사항

(28)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동조 제5항).⁶⁾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운영은 「아동복지법」 제50조~52조에 근거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아동복지법 제50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동조 제4항). 「아동복지법」 제51조는 휴업·폐업 등의 신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52조는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지역

6)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제21조의2 관련)

1. 설치기준

- 가. 전용면적이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일 것
- 나. 놀이 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 공간, 화장실 및 조리 공간을 각각 갖출 것

2. 운영기준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것.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관리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3. 종사자의 자격기준

- 가.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선생님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돌봄서비스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했다고 인정한 사람

아동센터 등이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별표 2]는 아동복지시설의 공통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의 시설별 기준을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이고, 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집단지도실은 2개실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설치하고 있다. 이 법 제48조2는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全人的)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청소년 기본법 제48조2).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3는 종합기본계획수립, 제33조4는 방과후활동종합지원실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33조5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원센터를 방과 후 사업운영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지원센터는 방과후종합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방과후사업의 운영 관리, 컨설팅 및 평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외 자료조사, 방과후사업의 업무 종사자를 위한 교육연구⁷⁾, 방과후사업의 운영모형 개발⁸⁾, 그 밖에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한다(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5).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

7) 여성가족부장관이 설치하는 지원센터만 해당한다

8) 여성가족부장관이 설치하는 지원센터만 해당한다

거하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의 근거규정은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이다. 이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기준,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은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을 1. 환경·교통 및 안전 등의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해 설치할 것, 2. 시설면적은 전용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출 것, 4. 벽 및 천장의 마감재로는 불연·준불연 또는 난연 재료를 사용하고, 커튼류 및 카펫류 등은 방염성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5. 아이돌봄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냉난방 시설, 통풍시설, 출입시설, 창문시설, 수납시설, 소화시설 등에 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및 위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아이돌봄 지원법」에서는 여성가족부의 돌봄사업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법은 제7장, 37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제4조(국가 등의 지원), 제4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아이돌보미의 직무 및 책무), 제6조(결격사유)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0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제10조의3- 제18조의2),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제19조의2(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등),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제20조-제27조), 지도및감독(제28조-제34조)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돌봄서비스 주관부처는 산재해 있지만, 교육부의 경우 근거법률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의 경우 별도의 독자적인 법률을 두고 있으나 이 법과 무관한 돌봄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써 정부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에서 소관별로 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간 연계·협력이 미흡하여 장기적·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돌봄 서비스 공백 및 유사·중복된 돌봄 서비스 공급 등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등

사업 추진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안정적인 공적 돌봄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

돌봄수요에 대한 대응은 교육기관인 학교와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고, 학교/기관 밖 돌봄 운영은 각 지역에 따라 편차가 발생해 아동과 부모들에게 양질의 체계적 돌봄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업 간 연계가 부족하고 분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각 지자체마다 수요 대비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돌봄의 공백은 학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을 어렵게 하고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할 경우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커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에 대한 돌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며, 취학 전-후의 연속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돌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법률 제정에 대한 논의와 관련 거버넌스의 실질적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 온종일돌봄 특별법안 진행 경과 및 주요내용

아동 돌봄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법적 토대의 마련을 위한 노력이 진행된 바 있다. 2020년 6월 10일에 권칠승 의원이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2020년 8월 4일에 강민정 의원이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다음의 2개 법안을 통해 아동 돌봄의 통합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거버넌스 중심의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개 법안은 목적, 정의,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온종일돌봄특별위원회(강민정의원 대표발의 법안 내용임), 온종일돌봄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광역돌봄협의회, 기초돌봄협의회, 온종일돌봄의 내용⁹⁾, 온종일돌봄 시설 운영, 지도감독, 온종일돌봄지원센터 설치, 실태조사, 온종일돌봄의 우선 제공, 보호자 비용 부담, 비용 지원, 온종일돌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공통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 요소는 향후 아동돌봄의 통합 법안 구성에 참조가 된다.

9) 온종일돌봄 내용: 1.안전한 보호, 2.간식 및 급식 지원, 3.특기적성 및 역량개발 지원, 4.체험 및 놀이활동 지원, 5. 생활상담 등 정서적 지원, 6.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보호.

〈표 II-2-2〉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주요내용

권철승 의원 대표발의 (2020. 6. 10)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0. 8. 4)
(제안이유)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안이유)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인 교육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장을 위원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나. 교육부장관은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교육장)과 협의를 거쳐 연도별 지역 온종일 돌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지역의 온종일 돌봄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온종일 돌봄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협력 증진 등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돌봄 협의회를 둠(안 제7조 및 제8조). 마. 온종일 돌봄은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에게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간식 및 급식 지원, 특기적성 및 역량 개발 지원 등을 의미함(안 제9조). 바. 온종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온종일 돌봄시설의 설치기준, 인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안 제10조). 사.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아. 교육부장관은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위하여 중앙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12조). 자. 교육부장관은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온종일 돌봄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나.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인 교육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의 장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의 대표자를 위원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는 5년마다 온종일 돌봄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는 온종일 돌봄 실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의 편차로 인하여 아동 돌봄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안 제6조).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를 거쳐 연도별 지역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마. 지역의 온종일 돌봄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온종일 돌봄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협력 증진 등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돌봄 협의회를 둠(안 제8조 및 제9조). 바. 온종일 돌봄은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에게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간식 및 급식 지원, 특기적성 및 역량 개발 지원, 생활상담 등 정서적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미함(안 제10조). 사. 온종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온종일 돌봄시설의 설치기준, 인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함(안 제11조). 아.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

권철승 의원 대표발의 (2020. 6. 10)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0. 8. 4)
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13조). 차. 온종일 돌봄시설 운영자는 기초수급자, 한부모·다문화가족, 장애인 및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온종일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14조). 카. 온종일 돌봄시설 운영자는 보호자에게 온종일 돌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안 제15조). 타. 온종일 돌봄시설의 현황, 시설별 온종일 돌봄의 내용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및 제공하기 위해 온종일 돌봄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16조). 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시설 및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 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시설 설치·운영을 위해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안 제18조).	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자.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는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위하여 중앙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 차. 온종일 돌봄시설 운영자는 보호자에게 돌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안 제16조). 카. 온종일 돌봄시설의 현황, 시설별 돌봄의 내용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17조).

주. 2개 법안 전문 비교는 부록 1 참조

자료: 의사국 의안과 의안원문(권철승,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2022. 5. 30, 인출)

발의된 2개 법안은 공통적으로 초등돌봄의 보편적 운영을 강조하고 돌봄서비스의 틈새나 사각지대가 없는 온종일 돌봄을 표방하며, 온종일 돌봄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공공의 책무성을 제시하고 아동돌봄의 통합을 추구하며 지자체 중심의 돌봄체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하봉운 외, 2021: 16, 20).

돌봄 통합에 있어 중앙의 총괄 책임을 어디로 하는가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민정위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의 실행이 모두 연계되어 있으며 국무총리가 주체가 되는 안으로 제시되어 있다(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인 교육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온종일돌봄 특별위원회를 설치). 권철승 의원의 대표발의 안은 교육부 장관(부총리)이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개 법안에서는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한 부분으로, 현행법과의 비교를 통해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온종일돌봄 특별위원회(또는 교육부장관)에서 중앙온종일돌봄지원센터-광역돌봄협의회-기초돌봄협의회를 관장하는 거버넌스의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II-2-3〉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법 조항

권철승 의원 대표발의 (2020. 6. 10)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0. 8. 4)
제1조(목적) 이 법은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체계적인 온종일 돌봄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체계적인 돌봄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좌동)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좌동)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의 온종일 돌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좌동)
	제5조(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
제5조(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소관별로 5년마다 온종일 돌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은 (후략)	제6조(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 는 5년마다 온종일 돌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등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지역 온종일 돌봄시행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관할구역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소관별로 온종일 돌봄의 수요·공급의 변동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정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지역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시행, 제3항에 따른 변경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계획 등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지역 온종일 돌봄시행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관할구역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 는 온종일 돌봄의 수요·공급의 변동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정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지역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시행과 제3항에 따른 변경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광역돌봄협의회) .	(좌동)
제8조(기초돌봄협의회)	(좌동)
제9조(온종일 돌봄)	(좌동)
제10조(온종일 돌봄시설 운영 등)	(좌동)
제11조(지도·감독)	(좌동)
제12조(온종일 돌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교육부장관 은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중앙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온종일 돌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 는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중앙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권철승 의원 대표발의 (2020. 6. 10)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0. 8. 4)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온종일 돌봄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2. 온종일 돌봄시설 간의 연계 및 협력 지원 3. 온종일 돌봄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 4. 온종일 돌봄 관련 정보의 제공, 홍보 및 교육 5. 온종일 돌봄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온종일 돌봄 관련 인력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지원 7. 광역돌봄협의회 및 기초돌봄협의회 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분석 지원 8. 그 밖에 온종일 돌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③ 교육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구역에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는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온종일 돌봄시설 및 온종일 돌봄 지역센터에 대한 업무 지원 2. 온종일 돌봄시설 간의 연계 및 협력 지원 3. 온종일 돌봄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 4. 온종일 돌봄 관련 정보의 제공, 홍보 및 교육 5. 온종일 돌봄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온종일 돌봄 관련 인력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지원 7.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 광역돌봄협의회 및 기초돌봄협의회 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분석 지원 8. 그 밖에 온종일 돌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③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구역에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는 온종일 돌봄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 은 (중략)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실태조사 등) ①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 는 (중략)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온종일 돌봄의 우선 제공)	(좌동)
제15조(보호자의 비용 부담)	(좌동)
제16조(온종일 돌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제17조(온종일 돌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제17조(비용 지원)	(좌동)
제18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좌동)

그러나 여전히 돌봄운영의 통합적 추진 방안이 반영되지 못하고 관련 법 조항이 결여되거나 실질적인 집행력이 반영되지 않는 기구로 제시되어 있음이 지적되었다. 권철승 의원 안에서는 온종일돌봄의 통합적 추진체계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며 현재의 분산된 돌봄 운영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계를 보인다. 강민정 의원 안에서 제시된 온종일특별위원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정책기구는 위원회 조직으로서의 한계를 답습하여 통합적 정책 추진과 조율의 집행력이 부족함이 지적되었다(하

봉은 외, 2021: 21). 이로써 실질적인 집행 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특별법 형태로 접근하는 방식의 적절성과 온종일돌봄 체제의 실행 주체에 대한 미비, 지역 협의체의 형식적인 면, 그리고 지자체 운영의 권한, 학교 등 공간 활용의 근거 제시가 분명해질 필요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즉 특별법 형태로 발의된 2개 법안은 아동돌봄의 통합체계 구축과 운영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며, 전담기관의 설립과 지자체 차원의 통합 운영기반을 반영하고, 학교 등 공간의 활용과 안전사고의 관리와 책임소재를 반영하는 법안이 필요함이 논의되었다(하봉은 외, 2021: 23-26).

또한 시도교육청과 시도 지자체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 행·재정의 주요 거버넌스와 전달체계에 대한 큰 틀의 제안¹⁰⁾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으나, 적용가능한 부분에서부터(예: 통합정보플랫폼 구축) 관련 법 조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안 구성의 구체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3. 국·내외 통합돌봄 운영 사례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지자체 협력을 통해 통합적 지원을 추진함을 공표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그러나 여전히 돌봄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틈새돌봄시간인 출퇴근시간, 방학중, 긴급상황에도 돌봄 서비스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희현, 2019: 11). 지역에 따라 돌봄 공급과 학교 및 돌봄기관 여건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역 자원의 조정을 통한 서비스 확대 노력이 부족하므로, 학교 및 돌봄기관의 돌봄공급이 어려운 경우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및 협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지적이다(이희현, 2019: 11; 김은정 외, 2021).

정부는 2021년 8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방과후학교와 연계한 돌봄 공급의 확대를 위하여 정부가 방과후학교와 통합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교육부, 2021b: 20).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절에서는 국내 지자체와 학교 및 유휴공간으로서의 돌봄/보육시설과 각종 센터가

10) 예: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고, 복지부 내 아동청소년여성정책실(돌봄정책) 실을 신설, 여성가족부 개편에 대비하며, 과학기술부와 교육부를 통합하는 방안이 거론됨-행정연구원 정부조직 제안 보고서 (연합뉴스. 2022. 6. 15)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전환 또는 연계·협력을 통해 돌봄 생태계를 구축한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국내 지자체/지역 중심의 통합돌봄의 운영체계(거버넌스)와 국외 통합돌봄 운영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가. 서울시 성북구

1) 개요

서울 성북구는 종암동, 석관동, 삼선동 등 총 20동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2019년 기준으로 0~14세 아동 수가 48,955명인 지역이다(성북 공공데이터 플랫폼, 2022. 6. 8, 인출). 성북구는 서울시 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초등아동 수 및 취약계층 아동 수가 높다는 지역 여건이 존재한다(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8. 6. 27). 서울 성북구 내의 아동 돌봄기관의 현황은 다음 <표 II-3-1>과 같다.

<표 II-3-1> 서울시 성북구 아동돌봄 기관 현황(2022년 6월 기준)

기관	구분	내용
초등돌봄 교실	대상	1~3학년 학생 중심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
	운영시간	아침돌봄: 6:30~9:00 오전돌봄: 학교 자율휴업일 및 방학중 7:00~13:00 오후돌봄: 방과후~17:00 저녁돌봄: 17:00~22:00 (※ 아침·저녁돌봄은 수요조사를 통해 학교사정에 따라 운영)
	프로그램	과제 수행 등 개인활동 놀이, 창의성 및 인성 함양을 위한 특기적성 중심의 단체활동
	이용료	급·간식비 부담 (저소득층 학생 전액 지원)
	운영기관	공립 24교/사립 1교
	이용방법	신학기 시작 전 가정통신문으로 안내 연도 중 입급 가능(대기자가 없는 경우)
지역아동 센터	대상	방과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 아동 (※ 소득 및 돌봄 필요성이 확인되는 초·중학생 중심 이용)
	운영시간	학기중: 기관마다 상이(1일 8시간) 방학중: 기관마다 상이(1일 8시간) (※ 수요에 따라 야간·토요 운영)
	프로그램	기본 프로그램: 보호·교육·문화·정서, 일상생활관리, 급식, 귀가지도, 교과 학습지도, 진로·특기적성 지도, 문화체험활동, 정서지원·지역사회연계 특화 프로그램: 지역·대상 맞춤 운영

기관	구분	내용
	이용료	무료: 일부 프로그램 수익자 부담(5만원 이내) 부과
	운영기관	시·군·구에 등록된 지역아동센터(민간23개소, 구립 4개소)
	이용방법	수시접수 센터 또는 구청 신청서 제출(이용아동 승인 후 이용)
방과후 아카데미	대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2학년
	운영시간	주5~6일, 1일 4시간 내외 운영 방과후~21:00 토요일 09:00~18:00 내 2~5시간
	프로그램	체험활동, 교과학습, 숙제지도, 독서활동, 문화·예술체험활동, 지역사회참여활동, 자가개발활동, 급·간식, 귀가지원
	이용료	무료(교재비 및 준비물 일부 수익자 부담 가능)
	운영기관	시립성북청소년센터
	이용방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http://www.youth.go.kr/yaca)
우리동네 키움센터	대상	방과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초등학교생(소득계층 무관, 6~12세)
	운영시간	학기중: 13:00~20:00/방학중: 10:00~20:00 (※ 수요일에 따라 야간·토요일 운영)
	프로그램	기본 프로그램: 생활·숙제·놀이 지도 특화 프로그램: 문화예술 프로그램
	이용료	무료(일부 프로그램 수익자 부담(10만원 이내) 부과)
	운영기관	성북구 직영/위탁/공동운영기관
	이용방법	수시접수(이용시간 및 이용방법 개별센터로 문의 후 이용)
시간제 (틈새) 돌봄	대상	방과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초등학교생(소득계층 무관, 6~12세)
	운영시간	학기중: 15:30~19:30 1일 4시간 방학중: 수요일에 따라 운영
	프로그램	안전한 보호 생활·숙제·놀이지도 기타 연계 프로그램
	이용료	무료(일부 프로그램 수익자 부담(5만원 이내) 부과)
	운영기관	지역사회 작은도서관, 주민커뮤니티, 협동조합 등 보조사업 운영기관(혁신교육사업) 선정
	이용방법	수시접수(이용시간 및 이용방법 개별센터로 문의 후 이용)

자료: 성북 온가족 행복망 온라인통합정보 시스템 홈페이지(https://sbhappy.sb.go.kr/main/lowb/LowBirhtDetail.do?lowbld=LOWB_000000000000598&menuNo=&subMenuNo=&Msub=Y, 2022. 6. 3, 인출).

2019년 기준의 성북구 방과후 돌봄 현황은 다음 <표 II-3-2>와 같은데, 지역아동센터 27개 중 4개가 구립지역아동센터로, 지자체 운영 센터가 상대적으로 다른 자치구보다 많은 것이 특징적이다(이혜숙·이영주, 2019: 11).

<표 II-3-2> 서울시 성북구 방과후돌봄 현황(2018년 기준)

단위: 개교, 개소, 명

구분	합계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기타	
			구립	민간		틈새돌봄	기타
개교/개소 수	79	25	4	23	1	16	10
돌봄 이용 아동	2,582	1,328	162	670	70	197	155
초등	2,378	1,328	162	511	40	197	140
중·고등	204	-	-	159	30	-	15

자료: 이혜숙·이영주(2019). 서울시 방과후돌봄 활성화 방안. 서울연구원. p. 11.

2) 통합 돌봄 사업

서울시 성북구는 2018년 6월,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선정한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는데, 성북구에서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초등아동 수 및 취약계층 아동 수가 서울시 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다는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폐업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활용한 돌봄망 확대, 시간별 이원적 돌봄체계(울타리형: 방과후~17시/둥지형: 17~21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8. 6. 27). 성북구청과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은 성북구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으로 ①지역내 초등학생은 돌봄 수요에 대한 공동조사, ②아이와 학교 중심의 촘촘한 마을돌봄망 구축과 운영, ③돌봄서비스의 질적 개선, ④돌봄시설의 지속적인 확대에의 노력을 하고 있다(성북구청·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홈페이지, 2022. 6. 30, 인출). 서울시 성북구는 2018년 11월, 온종일 돌봄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9년 11월에는 성북구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김성기, 2020: 4). 2018년에 발표된 성북구 온종일돌봄의 비전 및 추진목표는 다음 [그림 II-3-1]과 같다.

[그림 II-3-1] 서울시 성북구 온종일돌봄 비전 및 추진목표

비전		아이를 돌보는 마을, 아동친화도시 성북						
전략 과제	1		2		3		4	
	시기별·시간대별 맞춤형 종합 돌봄망 구축		돌봄서비스의 보편성·다양성 안전성·만족도 제고		돌봄망에 기반한 교육복지 통합 연계망 구축		지속가능한 돌봄망 운영·지원체계 구축	
추진 과제	2018	1.1. 돌봄수요조사 및 돌봄공간 확대를 지역자원 조사						
		1.2.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1.3. 학교중심의 울타리돌봄 시범사업 실시						
	2019	2.1. 성북구 돌봄시설 표준매뉴얼 작성 및 마을돌봄협의회 구축						
		3.1. 요보호 아동 통합 DB 구축 및 통합 관리·지원 체계 구축 등						
		1.1. 초등(동지)돌봄교실 확대			1.2. 울타리 돌봄 학교 확대			
		1.3. 겨울방학 돌봄 시범사업 실시						
		2.1. 사업평가 워크숍			2.2. 지역 돌봄 통합정보망 구축 운영			
	2020	3.2 돌봄망에 기반한 교육복지 연계망 구축 운영						
		4.1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과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1.1. 보육시설의 구립돌봄센터로 전환을 통한 돌봄망 확대						
		2.1. 평가워크숍 및 성과보고대회			2.2. 성북구 돌봄박람회 개최 정례화			
		3.1.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간 교육복지 서비스 통합방안 논의 추진						
2021	4.1. 개별 학교중심의 유관 돌봄시설간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체계 구축							
	4.2.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간 이원적 돌봄지원체계 통합 논의 추진							
2022	1.1. 어린이집 구립돌봄센터 전환을 통한 돌봄망 확대							
	4.1. 돌봄시설간 통합운영위원회 구축 확대							
		4.1. 성북구 돌봄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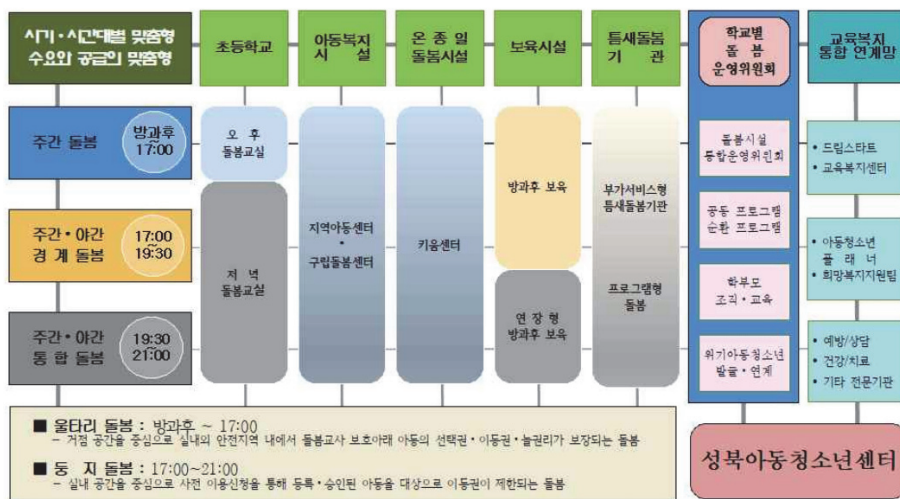
자료: 서울 성북구청(2018). 성북 온종일돌봄 종합계획. p. 3.

서울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은 2018년부터 모든 돌봄시설의 통합 운영매뉴얼을 작성하여 적용하여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사업 지침의 편차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서울 성북구청, 2018: 9). ‘성북구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에서는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돌봄모형을 개발하고 자원을 육성하는 등 지역사회에 맞는 돌봄환경을 마련하고자 하였는데(서울 성북구청, 2018: 4), 본 계획에

서 제안한 돌봄시설 통합운영 모형은 다음 [그림 II-3-2]와 같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구립돌봄센터), 온종일돌봄센터(키움센터), 보육시설, 틈새돌봄기관이 이르는 통합 운영이 제시되어 있으며, 학교별 돌봄운영위원회와 교육복지 통합 연계망, 성북 아동·청소년센터간의 협력이 제시되어 있다. 학교 안·밖의 교육·보육·돌봄 시설 및 아동청소년 센터의 연계를 담은 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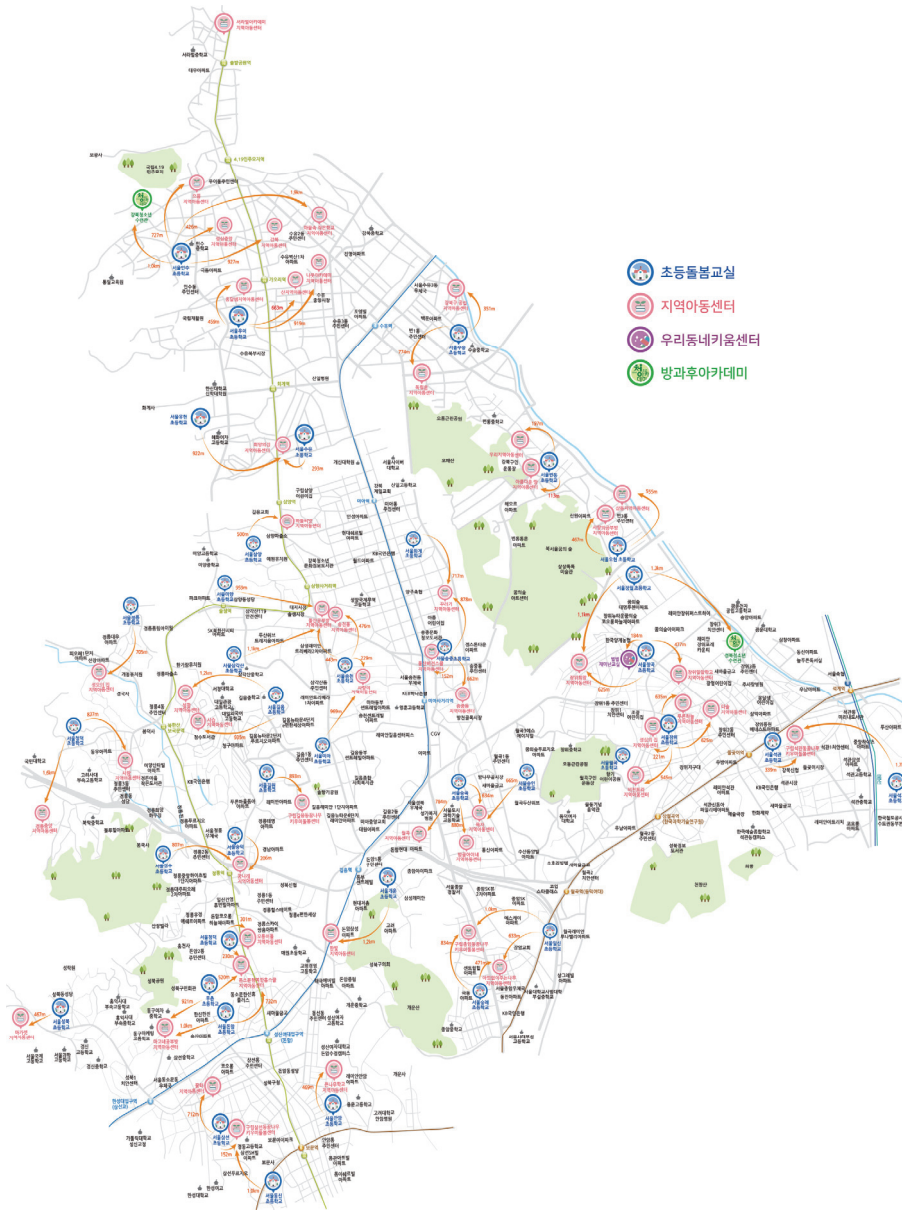
[그림 II-3-2] 서울시 성북구 학교 중심 생활권 돌봄시설 통합 운영 모형



자료: 서울 성북구청(2018). 성북 온종일돌봄 종합계획. p. 14.

또한 성북구는 2020년 2월부터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안내 돌봄 기관 정보와 돌봄 지도를 제공하는 ‘안심·동심 돌봄나눔터 웹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보도자료, 2020. 2. 14). 본 서비스를 토대로 학부모 및 학생, 지역 주민이 활용 가능한 돌봄 지역자원을 안내받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보도자료, 2020. 2. 14).

[그림 II-3-3] 서울시 성북강북구 안삼동심 돌봄나눔터 웹서비스 지도 화면



자료: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sbgbedu.sen.go.kr/CMS/admininfo/admininfo04/admininfo0405/admininfo040501/index.html> (2022. 6. 8. 인출).

한편 성북구 의회는 2020년 하반기에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 <표 II-3-3>와 같다.

<표 II-3-3> 서울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2020. 10. 5.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초등돌봄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세에서 만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이거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온종일 돌봄"이란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양육, 교육, 문화활동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온종일 돌봄시설"이란(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 돌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중략> 제5조(기본계획 등) ① 구청장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돌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략> 제6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돌봄 서비스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교육·문화·예술·체육 활동 3. 적절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동과 학부모 상담, 돌봄서비스 정보제공 및 자원연계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8조(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이용 아동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및 현장체험 참여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중략> 제16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중략> 제11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으로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돌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중략〉

제12조(온종일돌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중략〉

자료: U-LEX 법률우주 홈페이지a, [https://www.ulex.co.kr/%EB%B2%95%EB%A5%A0/1533275-2201608-%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EC%84%B1%EB%B6%81%EA%B5%AC%EC%98%A8\(2022. 5. 17, 인출\).](https://www.ulex.co.kr/%EB%B2%95%EB%A5%A0/1533275-2201608-%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EC%84%B1%EB%B6%81%EA%B5%AC%EC%98%A8(2022. 5. 17, 인출).)

나. 서울시 도봉구

1) 개요

서울시 도봉구는 14개 동으로 구성된 인구 31만 7천여명(2022년 1월 기준)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구로(서울 도봉구청 홈페이지b, 2022. 6. 9, 인출), 초등돌봄교실 23개소 77실, 지역아동센터 18개소, 우리동네 키움센터 3개소, 청소년아카데미 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b, 2022. 6. 9, 인출). 세부 운영 내용은 다음 <표 II-3-4>와 같다.

〈표 II-3-4〉 서울시 도봉구 내 운영 돌봄 기관

구분		내용
초등돌봄교실	운영	1~4학년 중심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선정 수용
	운영유형 및 개요	-(1~4학년)운영시간: 수업전(아침돌봄), 오후돌봄(13:00~17:00), 저녁돌봄(17:00~, 17시부터 학부모 수요 및 학교여건에 따라 22시까지 운영 가능), 방학중 오전돌봄(09:00~13:00) -(5~6학년) 방과후학교연계형돌봄교실 운영시간: 13:00~17:00
	학급편성	단일 학급 내 인원은 25명 내외로 구성하되 교실 공간의 크기, 학년 당 학생 수, 퇴실시간, 학생들의 발달 단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학급 편성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지역사회 내 방과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 아동(*소득 및 돌봄 필요성이 확인되는 초·중학생 중심 이용)
	운영기관	시·군·구에 등록된 지역아동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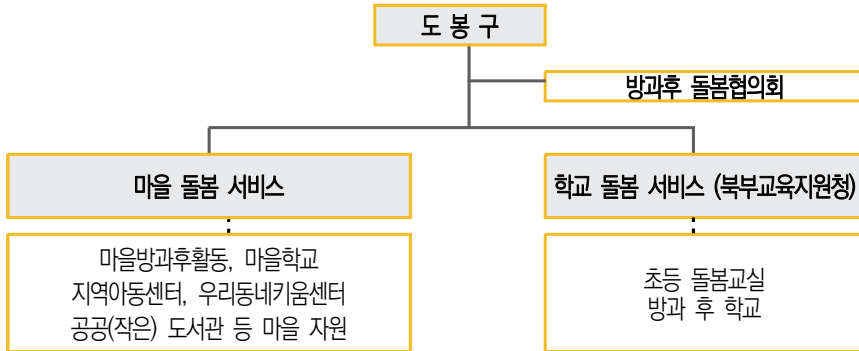
구분		내용
	지원내용	일상생활관리, 급식, 교과학습지도, 진로, 특기 적성지도, 문화체험활동, 정서 지원, 지역사회연계
	운영시간	학기중(14:00~19:00), 방학중(12:00~17:00) 포함 1일 8시간, 수요일에 따라 야간·토요일운영
	이용료	무료
우리동네 키움센터	이용대상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소득계층 무관, 6~12세)
	운영기관	자치구 직영/위탁
	지원내용	돌봄서비스 제공, 놀이·문화예술프로그램 등 운영
	운영시간	학기중(13:00~19:00), 방학중(9:00~18:00)
	이용료	무료
청소년 아카데미	이용대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2학년
	운영기관	청소년센터, 서울시, 여성가족부
	지원내용	학습지원활동, 생활지도, 귀가지원(셔틀버스운영), 체험활동, 특성화활동, 급·간식지원, 캠프
	운영시간	주5일, 1일 4시간 내외 운영, 방과후~19:00, 토요일(월1~2회), 주말체험활동
	이용료	전액무료(단, 교재 및 재료비 수익자 부담)

자료: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b, <http://bbedu.sen.go.kr/CMS/adminfo/adminfo09/adminfo0903/index.html>(2022. 6. 9, 인출).

2) 통합 돌봄 사업

서울시 도봉구는 2018년부터 도봉구청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부서 간 TF를 따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서울 도봉구청 홈페이지a, 2022. 5. 16, 인출). 본 TF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6~12세)이 이용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시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접근성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조성하고 운영(동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서울 도봉구청 홈페이지a, 2022. 5. 16, 인출).

[그림 II-3-4] 서울시 도봉구 돌봄서비스 운영 체계



자료: 서울 도봉구청 홈페이지a, https://ceo.dobong.go.kr/FILE/link/ceo/SCMAOO_A1_00039/%EA%B3%B5%EC%95%BD28.pdf(2022. 5. 16, 인출).

도봉구는 2015년부터 도봉형 마을 방과후활동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도봉형 마을 방과후활동’은 마을을 중심으로 도봉구와 지역 교육자원이 주체가 되어 현재 학교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를 전국 최초로 도봉구(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다(도봉배움e 홈페이지, 2022. 5. 16, 인출). 도봉구는 일찍이 2017년부터 ‘도봉구 아동·청소년 방과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를 시작하였고,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봉구가 방과후학교를 직접 운영하는 ‘도봉형 마을방과후활동’ 사업을 추진하였다(최혜영, 2020: 4).

‘도봉형 마을방과후활동’은 방과후에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중 사적인 영역을 제외한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교육활동, 놀이, 여가문화생활, 자기 주도적 동아리(프로젝트) 활동 등이 포함된 개념으로 도봉구가 직접 운영,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최혜영, 2020: 4). 도봉형 마을방과후활동 사업에는 도봉형 방과후학교(학교 안 방과후), 도봉마을학교(학교 밖 방과후)가 있다(최혜영, 2020: 4). 방과후학교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학교는 정규교육과정과 학생생활지도에 전념하고, 도봉구와 지역사회는 아동과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교육 지원 모델로 불리운다(도봉배움e 홈페이지, 2022. 5. 16, 인출). 도봉형 방과후학교는 도봉마을방과후활동운영센터를 통해 운영된다(도봉배움e 홈페이지, 2022. 5. 16, 인출). 2022년 현재 구내 16개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서울 도봉구청 홈페이지a, 2022. 5. 16, 인출), 도봉형 마을방과후학교 참여 현황은 다음 <표 II-3-5>와 같다.

〈표 II-3-5〉 서울시 도봉형 마을방과후학교 현황(201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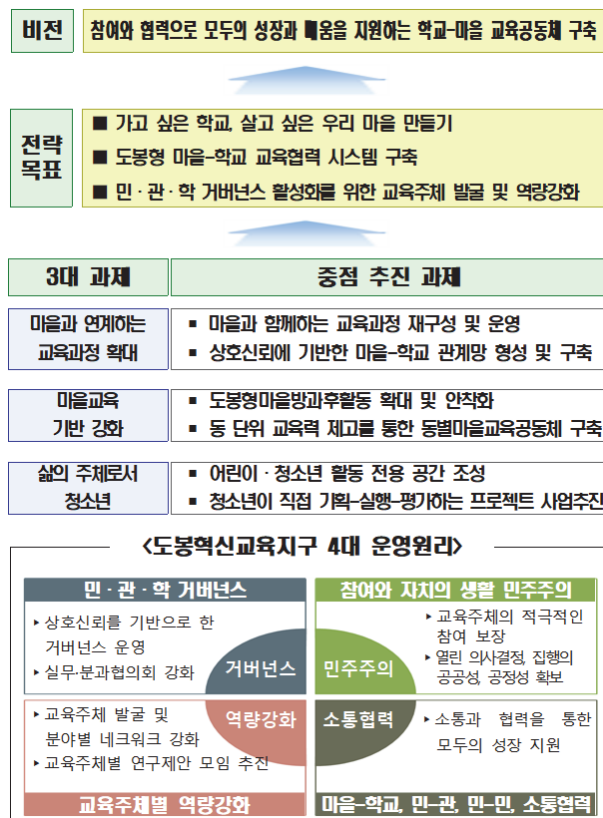
단위: 개교, 명, %

구분	학교 현황			학생 현황		
	전체 학교 수	참여 학교 수	참여율	전체 학생 수	참여 학생 수 (월 평균)	참여율
합계	46	10	43.2	5,182	3,473	66.5
초등학교	23	도봉동: 1	4.3	도봉동: 496	363	73
		방학동: 2	8.6	방학동: 1,094	729	66
		쌍문동: 2	8.6	쌍문동: 1,502	775	51
		창동: 5	21.7	창동: 2,090	1,606	76

자료: 이희현·황준성·김은경·김정현·배현순(2020).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생태계 구축을 통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 78.

한편 도봉형 마을방과후학교의 운영 비전은 다음 [그림 II-3-5]와 같다.

[그림 II-3-5] 서울시 도봉형 마을방과후학교 운영비전



자료: 도봉구청·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2020).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도봉지구 2020년 사업실행계획서. p. 5.

II

[그림 II-3-6] 서울시 도봉구 마을학교 운영 지도



자료: 도봉배움e 홈페이지, <https://edu.dobong.go.kr/content.asp?code=10007683>(2022. 5. 16, 인출).

2020년 당시,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교육사업이 중단되고 온라인 학습으로 대안이 마련되었지만 도봉구 마을학교는 개인적 공간을 열어 긴급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을학교를 운영한 결과, 75개의 마을학교 중 38개의 마을학교에서 약 300명의 아이들이 돌봄형 마을학교에 참여한 바 있다(최혜영, 2020: 9).

다. 서울시 노원구

1) 개요

서울시 노원구는 19개동의 인구 51만여명이 거주하는 도시이다(서울 노원구청, 2022: 13-14). 노원구는 전체 인구에서 아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8% 정도이고, 25개 자치구 중에 15세 이하 유소년 인구 수가 3위인 지역으로, 아동 수가 타 자치구에 비해 많은 편이라 할 수 있다(관계부처합동-한국교육개발원, 2019: 19). 또한 노원구는 중위소득 맞벌이 가정 비율이 높아 보편돌봄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남승연·최금순, 2020: 48). 서울 노원구의 아동돌봄 기관 현황은 다음 <표 II-3-6>과 같다.

<표 II-3-6> 서울시 노원구 아동돌봄 기관 현황(2022년 6월 기준)

기관	구분	내용
초등돌봄 교실	운영	1~4학년 중심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선정 수용
	운영 유형 및 개요	- (1~4학년)운영시간: 수업전(아침돌봄), 오후돌봄(13:00~17:00), 저녁돌봄(17:00~, 17시부터 학부모 수요 및 학교여건에 따라 22시까지 운영 가능), 방학중 오전돌봄(09:00~13:00) - (5~6학년) 방과후학교연계형돌봄교실 운영시간: 13:00~17:00
	학급편성	단일 학급 내 인원은 25명 내외로 구성하되 교실 공간의 크기, 학년 당 학생수, 퇴실시간, 학생들의 발달 단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학급 편성
지역아동 센터	이용대상	지역사회 내 방과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 아동(*소득 및 돌봄 필요성이 확인되는 초·중학생 중심 이용)
	운영기관	사·군·구에 등록된 지역아동센터
	지원내용	일상생활관리, 급식, 교과학습지도, 진로, 특기 적성지도, 문화체험활동, 지역사회연계
	운영시간	학기중(14:00~19:00), 방학중(12:00~17:00) 포함 1일 8시간, 수요에 따라 야간, 토요일운영

기관	구분	내용
	이용료	무료(일부 프로그램 수익자 부담)
아이휴센터 : 우리동네 키움센터	이용대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소득계층 무관, 6~12세)
	운영시간	학기중(13:00~20:00), 방학중(9:00~20:00), 등교전돌봄(7:30~9:30)
	운영기관	자치구 직영/위탁/공동운영기관
	지원내용	생활, 숙제, 놀이, 문화예술프로그램
	이용료	월2만원

자료: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a, <http://bbedu.sen.go.kr/CMS/admininfo/admininfo09/admininfo0902/index.html>(2022. 6. 10, 인출).

서울시 노원구의 방과후돌봄 현황은 다음 <표 II-3-7>과 같다. 노원구의 방과후 돌봄기관은 초등돌봄교실 102개실(41개교), 지역아동센터 21개소,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1개소, 복지관 내 방과후어린이집 등 기타 돌봄기관이 14개소가 있다(이혜숙이영주, 2018: 79). <표 II-3-7>에 따르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동 수는 2,251명이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는 559명이다.

<표 II-3-7> 서울시 노원구 방과후돌봄 현황(2022년 6월 기준)

단위: 개소, 명

구분	합계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기타 돌봄기관
개소수	137	102	21	14
돌봄 아동				
정원	3,245	2,251	614	380
이용아동	3,190	2,251	559	380

자료: 이혜숙이영주(2019). 서울시 방과후돌봄 활성화 방안. 서울연구원. p.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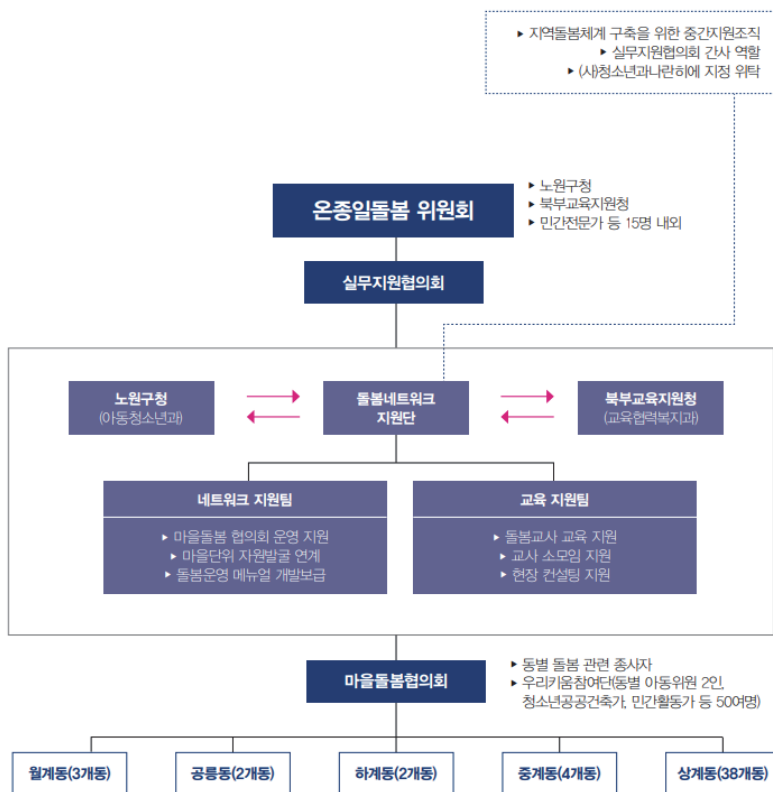
노원구의 초등 방과후 돌봄기관인 우리휴센터는 2022년 현재, 24개소가 개원하였으며, 정원으로 보았을 때 총 636인 규모이다(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a, 2022. 6. 9, 인출).

2) 통합 돌봄 사업

서울시 노원구는 저소득층 아동과 중위소득 이상 맞벌이 가정의 아동들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으로(한미영·윤연경·김성연·윤수영 외, 2019: 107), 돌봄에의 욕구가

다른 지역이라 서로 다른 삶의 양식을 가진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방안을 고려하게 되었다(한미영 외, 2019: 108). 이를 위해 노원구청과 북부교육지원청의 정기적인 실무협의회 실시로 학교와 마을 간 촘촘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였고, 노원구 돌봄네트워크지원단이 노원구의 돌봄 컨트롤타워가 되어 돌봄 생태계를 꾸러가기 시작하였다(관계부처합동-한국교육개발원, 2019: 20).

[그림 II-3-7] 서울시 노원구 돌봄협의회 구성



자료: 관계부처합동-한국교육개발원(2019).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사례집. p. 21.

노원구 돌봄네트워크지원단을 중심으로 노원형 초등 방과후 돌봄 ‘아이센터’를 조성하기 시작했고, 2018년 총 6개의 아이센터가 조성되었다(관계부처합동-한국교육개발원, 2019: 22). 아이센터 조성 시 아동 돌봄 공간은 도보 1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야 한다는 목표로 다양한 공간을 찾았고, 공공복합시설, 작은도

서관, 마을커뮤니티, 경로당, 아파트 등을 활용하여 노원형 초등방과후 돌봄 공간인 ‘아이휴센터’를 조성하기 시작하였다(한미영 외, 2019: 109). 그 결과 노원형 초등방과후 돌봄 기관인 아이휴센터는 1,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내 1층이나 학교 인근 일반주택 등 보호자와 아동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집과 학교에서 가까운 최적의 장소에 위치하게 되었다(한미영 외, 2019: 109).

운영시간은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며,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등교 전 돌봄도 운영한다(한미영 외, 2019: 109). 부모가 일찍 출근하여 돌봄 공백이 생기더라도 아이휴센터에서 등교 지원 서비스를 통해 돌봄교사와 함께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다(한미영 외, 2019: 109).

노원구의 또다른 아동 돌봄 사례로 아픈아이 돌봄센터와 밥상돌봄을 들 수 있다. 아픈아이 돌봄센터는 아이가 갑작스럽게 아플 때 맞벌이 부모가 회사를 조퇴해야 하고, 갑작스레 연가를 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 대신 아이와 병원에 동행해주는 서비스이다(관계부처합동-한국교육개발원, 2019: 24). 아픈아이 돌봄센터는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해 있는데, 센터 내에 6개의 병상을 갖춘 간병실, 보호자 대기 및 아동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 사무실, 화장실로 이뤄져 있으며, 전담 인력인 간호사 1명과 환자 돌봄사 4명이 상주하면서 아이 상태에 맞는 간병 돌봄을 제공한다(서울 노원구청 보도자료, 2020. 10. 26).

[그림 II-3-8] 서울시 노원구 아픈아이 돌봄센터



자료: 서울 노원구 블로그, <https://blog.naver.com/goodnowon/222356301590>(2022. 6. 10, 인출)

또한 서울 노원구에서는 아동 결식 대안 및 방과후 돌봄을 결합하여 건강한 식사 제공하고, 다양한 놀이 콘텐츠를 지원하는 공공 돌봄 공간의 일환으로 밥상돌봄 사업인 아동식당을 운영하고 있다(서울 노원구청 홈페이지, 2022. 6. 11, 인출). 아동 식당에서는 평일 저녁(오후 5~6시) 및 방학 중 점심(12~1시)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료는 1식 3,500원으로 현금, 카드 모두 결제가 가능하다(서울 노원구청 홈페이지, 2022. 6. 11, 인출). 현재 아동식당은 노원구에 총 3호점이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서울 노원구청 홈페이지, 2022. 6. 11, 인출).

또한 서울 노원구는 2019년, 온종일 돌봄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조례의 세부 내용은 다음 <표 II-3-8>과 같다.

<표 II-3-8> 서울시 노원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2019. 10. 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틈새 없는 아동 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종일 돌봄"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내에서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양육, 교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돌봄 시설"이란 온종일 돌봄 서비스(이하 "돌봄 서비스"라 한다) 지원을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 ①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온종일 돌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온종일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온종일 돌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3.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4. 차상위, 다문화 가정의 아동, 장애아동 등 취약아동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온종일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온종일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돌봄 서비스) 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등교 전 돌봄, 방과 후 돌봄, 방학 돌봄, 휴일 돌봄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6조(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등) ①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인 아동(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에 한한다. 이하 "돌봄 아동"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2. 익 월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
--

②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 이용의 우선 순위를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저학년 여부
2. 맞벌이 가정 여부
3. 다자녀 가구 여부
4. 돌봄 아동 별 돌봄 필요 시간
5.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중략〉

제9조(중간지원 조직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확대 지원에 따라 학교와 마을의 연계·협력을 위해 중간지원 조직(이하 "중간지원 조직"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온종일 돌봄 확대 지원에 관한 마을 단위 돌봄 수요 파악
2. 돌봄 시설 조성 및 운영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3. 온종일 돌봄 자원 발굴 및 연계
4. 지역 돌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5. 온종일 돌봄 종사자 교육 등 역량강화
6. 그 밖에 구청장이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온종일 돌봄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돌봄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원구 온종일 돌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중략〉

제11조(온종일 돌봄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략〉

자료: U-LEX 법률우주 홈페이지b, [https://www.ulex.co.kr/%EB%B2%95%EB%A5%A0/1411310-2190493-%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EB%85%B8%EC%9B%90%EA%B5%AC%EC%98%A8\(2022. 6. 10, 인출\).](https://www.ulex.co.kr/%EB%B2%95%EB%A5%A0/1411310-2190493-%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EB%85%B8%EC%9B%90%EA%B5%AC%EC%98%A8(2022. 6. 10, 인출).)

라. 경기도 오산시

1) 개요

경기도 오산시는 2022년 기준으로 인구 23만명의 도시로(경기 오산시 홈페이지a, 2022. 6. 10), 총 6개동(세마동, 신장동, 남촌동, 초평동, 중앙동, 대원동)이 있다(경기 오산시 홈페이지b, 2022. 6. 10). 경기도 오산시는 시민 평균연령이 36.4세(2018년 평균)로 비교적 젊은 도시이다(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8. 6. 27).

이에 따라 초등학생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이다(남승연·최금순, 2020: 5).

경기도 오산시의 초등돌봄교실 현황을 살펴보면, 오산시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 개소수는 24개소이고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수는 16,411명이다. 초등돌봄교실 수는 총 59개이고, 이용 비율은 7.1% 수준이다.

〈표 II-3-9〉 경기도 오산시 초등돌봄교실 현황(2020년 기준)

단위: 개교, 명, %

구분	초등학교 수	초등학생			초등 돌봄		
		1~3학년	4~6학년	계(a)	교실 수	이용자 수(b)	이용 비율(b/a)
전체	24	8,528	7,883	16,411	59	1,165	7.1

자료: 남승연·최금순(2020). 오산시 온종일 돌봄 성과측정 및 중장기 발전방안.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p. 21.

경기도 오산시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오산시 내에서 전체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319명 정원에 286명 현원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비율 중 돌봄취약 아동 비율이 83.6%이고 일반 아동은 16.4%로 나타났다.

〈표 II-3-10〉 경기도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2020년 기준)

단위: 개소, 명, %

구분	개수	이용자 수		이용아동 분류		정원 대비 현원 비율
		정원	현원	돌봄취약	일반	
합계	10개	319	286	239	47	89.7%
				83.6%	16.4%	
남촌동	2개	56	48	36	12	85.7%
				75.0%	25.0%	
대원동	1개	45	30	25	5	66.7%
				83.3%	16.7%	
세마동	2개	54	53	43	10	98.1%
				81.1%	18.9%	
신장동	2개	54	50	46	4	92.6%
				92.0%	8.0%	
중앙동	1개	45	45	40	5	100.0%
				88.9%	11.1%	
초평동	2개	65	60	49	11	92.3%
				81.7%	18.3%	

자료: 남승연·최금순(2020). 오산시 온종일 돌봄 성과측정 및 중장기 발전방안.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p. 24.

2) 통합 돌봄 사업

경기 오산시는 아동들이 행복하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어내기 위해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모든 정책의 중심에 시민공동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의 돌봄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였다(한미영 외, 2019: 110). 오산시는 학교돌봄을 넘어 마을돌봄으로 돌봄 생태계를 촘촘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대표적인 지자체로,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촘촘한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는데(한미영 외, 2019: 111), ‘함께자람’을 오산형 온종일 돌봄 브랜드로 정하고 정책을 추진하였다(남승연·최금순, 2020: 6).

오산형 온종일 돌봄 ‘함께자람’은 초등학생들이 방과후 안전하게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전 도시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학교의 초등돌봄교실 지원과 더불어 마을에서 아이들을 보듬을 수 있도록 지역의 유휴공간을 찾아 돌봄 공간으로 활용하고, 마을 자원을 투입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이다(한미영 외, 2019: 111). ‘함께자람’은 초등학생의 정규 교육과정 전후로 돌봄이 필요한 시간대에 공백없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공간, 프로그램, 정보 및 안전분야와 급간식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제반 여건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남승연·최금순, 2020: 25).

오산시 ‘함께자람’은 센터와 교실의 2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함께자람센터는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와 동일한 방식의 상시돌봄을 운영하는 곳으로(남승연·최금순, 2020: 25), 2022년 2월까지 20호점까지 개소하였다(파이낸셜뉴스, 2022. 2. 21, 보도). 함께자람교실은 학교 및 도서관 등의 공간에 학기 중 등교 전 시간 또는 방학 중 오전시간과 같은 틈새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남승연·최금순, 2020: 26), 2021년까지 7개소, 12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경인매일, 2021. 9. 1, 보도).

특히 함께자람센터는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방학 중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맞벌이 부부, 다자녀가구 등 지역 내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행복한 교육, 2019. 4). 함께자람센터는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내 유휴공간에 조성해 아이들이 오갈 수 있어 귀차

길 안전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가 매우 높다(행복한 교육, 2019. 4). 아이들은 함께 자람센터에서 휴식과 기본적인 돌봄서비스 외에 하루 한 시간, 주4일 마을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이용아동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통공예, 중국어, 수학놀이, 보드게임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수학, 탁구수업 등이 운영되며, 수업은 오산교육재단, 오산체육회, 오산백년시민대학 등에서 양성된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관계부처합동-한국교육개발원, 2019: 92).

오산시는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에게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생태계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온종일 돌봄 지원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다(경기도 보도자료, 2018. 9. 28).

〈표 II-3-11〉 경기도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2021. 12. 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오산시 초등학생의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시작 전 및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오산시, 기관, 단체, 커뮤니티,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9. 30>

〈중략〉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략〉

제7조(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시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청구)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 아동 학부모 등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 체험비 등의 비용

〈중략〉

제11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중략〉

제12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교육장으로 하고, 간사는 돌봄 지원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협의체 위원은 시장, 교육장, 돌봄 지원 관련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중략〉

자료: U-LEX 법률우주 홈페이지c, [https://www.ulex.co.kr/%EB%B2%95%EB%A5%A0/1413286-2183639-%EC%98%A4%EC%82%B0%EC%8B%9C%EC%B4%88%EB%93%B1%ED%95%99%EC%83%9D%EC%98%A8%EC%A2%85\(2022. 5. 17, 인출\).](https://www.ulex.co.kr/%EB%B2%95%EB%A5%A0/1413286-2183639-%EC%98%A4%EC%82%B0%EC%8B%9C%EC%B4%88%EB%93%B1%ED%95%99%EC%83%9D%EC%98%A8%EC%A2%85(2022. 5. 17, 인출).)

마. 충남 홍성군

1) 개요

충남 홍성군은 3개의 읍과 8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도시로(충남 홍성군청 홈페이지a, 2022. 6. 9, 인출), 2022년 5월 기준으로 인구는 9만 8천여명이다(충남 홍성군청 홈페이지b, 2022. 6. 9, 인출). 홍성군은 관내 아동 인구는 읍·면간 인구밀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2개 읍(홍성읍, 홍북읍)에 아동 인구 수가 가장 밀집해 있고, 나머지는 전형적인 농어촌의 형태를 띠고 있다(한미영 외, 2019: 99).

충남 홍성군의 경우 충남도청이 홍성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구가 급증하는 도시지역과 기존의 농촌지역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농산어촌 맞벌이 가정이 증가 추세를 띄게 되었다(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8. 6. 27). 특히 내포신도시가 조성된 홍북읍의 경우 2013년 이후 젊은 층 인구 유입과 아동 인구 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아동과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중심의 기반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었다(한미영 외, 2019: 100). 이로 인하여 아동 통합 돌봄 시스템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홍성군에는 초등돌봄교실 21개소, 방과후돌봄센터인 ‘아이들세상’이 4개소, 지역아동센터 12개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방과후아이돌봄서비스 4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홍성군청, 2021).

〈표 II-3-12〉 충청남도 홍성군 아동돌봄 기관 현황(2022년 6월 기준)

기관	운영처	구분	내용		
초등 돌봄교실	교육부	이용대상	초등학교 1~2학년(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운영 순위)		
		운영기관	초등돌봄교실을 설치한 초등학교		
		지원내용	돌봄, 숙제지도, 특기지도 등		
		운영시간	방과후~17:00(학교 여건과 수요에 따라 운영 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이용료	무료(급간식비 수익자 부담)		
방과후돌 봄센터 '아이들 세상'	홍성군	이용대상	초등학교 전학년		
		운영기관	홍성군청		
		지원내용	저녁돌봄, 외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급간식 제공 등		
		운영시간	학기 중		
지역 아동센터	보건 복지부	이용대상	만 18세 미만		
		운영기관	사군·구에 등록된 지역아동센터		
		지원내용	일상생활관리, 급식, 귀가지도, 교과학습지도, 진로·특기적성지도, 문화 체험활동, 정서지원·지역사회연계		
		운영시간	10:00~19:00(학기중방학중 시간 동일) - 수요에 따라 야간·토요일 운영 - 센터에 따라 운영시간 상이할 수 있음		
		이용료	무료(일부 프로그램 수익자 부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여성 가족부	이용대상	중1~3학년		
		지원내용	교과수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시간	15:30~20:30		
방과후 아이돌봄 서비스	여성 가족부	구분	홍성읍		홍북읍
			사회복지관	부영2차 관리동	내포 LH아파트
		이용대상	0세~초등 3학년		
		지원내용	육아 품앗이, 육아 프로그램 운영		
		운영시간	09:00~18:00	10:00~18:00	

자료: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홍성군청(2021), 2021 아이들의 방과후돌봄.

2) 통합 돌봄 사업

충남 홍성군은 안심하고 양육과 돌봄이 가능한 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해 ‘아이들 세상 만들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농복합형의 돌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3가지 운영 모형으로 돌봄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 II-3-13>과 같다(관계부처합동-한국교육개발원, 2019: 102).

<표 II-3-13> 충청남도 홍성군 도농복합형 돌봄 모델 운영 모형

모형	내용
학교와 함께 돌봄	- 지자체-교육지원청-학교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식 -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을 활용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전학년으로 참여 대상 확대하여 기존 초등돌봄교실과 차별점.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함과 동시에, 학교의 활용가능교실을 활용하여 홍성군청에서 직영으로 돌봄교실 운영
마을과 함께 돌봄	- 지자체-LH대전본부-LH입주자대표와의 협약(‘18.3.22)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아동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식
홍성군 틈새돌봄	-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이돌봄 자부담 비용을 군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

자료: 관계부처합동-한국교육개발원(2019).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사례집. p. 102 내용 정리하여 제시함.

초등학교 내 온종일 돌봄교실인 ‘아이들 세상’은 맞벌이 가정이 겪는 아동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홍성군 및 학교가 함께 설립한 홍성군 직영의 초등 방과후돌봄센터이다(관계부처합동-한국교육개발원, 2019: 102). 지자체-교육지원청-초등학교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돌봄 생태계 구축의 첫 사례라고 볼 수 있으며, 홍성초등학교와 홍주초등학교의 2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한국교육개발원, 2019: 107).

<표 II-3-14> 충청남도 홍성군 방과후 돌봄센터 ‘아이들 세상’

구분	1호점	2호점	3호점
유형	학교 안 돌봄교실 (지자체-학교 협력)	학교 안 돌봄교실(거점형) (지자체-학교 협력)	아동통합지원센터 (지자체-마을 협력)
위치	홍성초등학교 내	홍주초등학교 내	내포LH스타힐스 단지 내
면적	90m ²	131.4m ²	400m ² (급식소 포함)
교실 수	1실	2실	3실
돌봄교사	1명	2명	4명

구분	1호점	2호점	3호점
이용대상	20명 (본교 재학생)	40명 (본교+인근초 재학생)	60명
운영시간	학기 중: 13:00~19:30, 방학 중: 08:30~15:30		
운영방식	군 직영		

자료: 한미영 외(2019). 경남형 돌봄체계 구축 방안 연구(Ⅰ) 지역사회 중심의 초등돌봄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2019년 교육정책 연구보고서 자체연구보고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p. 104.

특히 홍주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인근 초등학교 학생도 참여하는 거점형 돌봄센터로써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안전도우미 자원봉사자가 직접 안전 지도 및 학생탑승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한국교육개발원, 2019: 104). 홍성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와 KB금융그룹의 협약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이 제공한 활용 가능한 교실을 KB금융그룹의 기부금으로 리모델링하고 홍성군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전국 최초의 ‘학교-지자체 협업 운영 돌봄센터’이다.

돌봄교실은 설계 단계부터 선생님과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했는데 놀이와 학습을 동시에 고려한 구성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성과 감성 등을 동시에 키울 수 있도록 꾸몄고, 늦은 시간까지 집이 아닌 곳에서 있어야 한다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집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한미영 외, 2019: 101).

‘아이들세상’ 운영 시간은 초등학생이 하교하는 13시부터 19시 30분까지이며, 방학의 경우에는 8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간식과 저녁 식사는 외부업체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한국교육개발원, 2019: 107). 프로그램의 경우 다양한 외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단순돌봄에서 벗어나 활동 중심의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관계부처합동-한국교육개발원, 2019: 106). 단순 돌봄에서 벗어나 활동 중심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창의적인 생각과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책읽기와 창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협동심을 키울 수 있는 각종 놀이가 진행되며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한미영 외, 2019: 102). 온종일 돌봄교실 3개소 6개실 운영의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해 홍성군에서 돌봄교사를 직접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교사는 총 7명으로 13시부터 20시까지 1일 7시간 주당 35시간 전일제 근무를 하고 있다(한미영 외, 2019: 104).

학교의 초등돌봄교실과 초등학교 내 위치한 홍성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종일

돌봄교실의 차이점은 이용대상, 저녁급식, 시간연장 확대 운영에 있으며, 초등돌봄 교실의 경우 이용 대상을 1~2학년으로 제한한 반면, 온종일 돌봄교실은 전학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는 것이다(관계부처합동-한국교육개발원, 2019: 107-108). 충북 홍성군은 방과후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 들기 조례’를 제정하여 실질적인 아동정책 추진과 예산집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충청의 오늘, 2021. 12. 23, 보도).

바. 경상남도

1) 개요

경상남도는 8개시와 10개군으로 구성되어 있고(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등), 0~19세까지의 인구는 2020년 6월 기준, 605,449명이다(박해금·류지선·임채영, 2020: 32). 이 중 0~4세 아동 수는 116,388명, 5~9세 수는 161,491명, 10~14세는 158,567명으로 나타났다(박해금 외, 2020: 33).

2020년 6월 기준으로 경상남도 초등돌봄 기관 현황은 다음 <표 II-3-15>와 같다. 학교돌봄을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는 전체 515개교이며, 오후돌봄 교실 수는 889개이다. 마을돌봄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265개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24개소이다.

<표 II-3-15> 경상남도 초등돌봄 기관 현황(2020. 6. 30. 기준)

단위: 개소

구분	학교 돌봄			마을 돌봄		
	운영 학교 수	오후돌봄 교실 수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 교실 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다함께돌봄
전체	515	889	106	265	24	16

자료: 박해금 외(2020). 지역통합형 아이돌봄 모형개발 연구.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p. 34.

2018년 기준으로 초등돌봄교실 이용 인원은 6,000명이었으며, 지역아동센터 1,753명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6월 기준으로 경상남도 초등돌봄교실은 오후 돌봄교실 889개, 오후 연

장형 돌봄교실의 경우 3개,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은 106개로, 총 995개로 나타났으며, 이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 수는 전체 21,886명으로, 9월 30일 기준으로 수용율은 97.8%로 나타났다.

〈표 II-3-16〉 경상남도 돌봄기관별 초등학생 이용 현황(2018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인원	0~19세 인구대비 이용자 비율	이용인원	0~19세 인구대비 이용자 비율	이용인원	0~19세 인구대비 이용자 비율
전체	6,000	3.21	1,753	0.9	20	0.0

자료: 박해금 외(2020). 지역통합형 아이돌봄 모형개발 연구.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p. 35.

〈표 II-3-17〉 경상남도 초등돌봄교실 현황(2020. 6. 30. 기준)

단위: 명, %

오후돌봄 교실 수	오후연장형돌봄 교실 수(오후돌봄에 포함됨)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 교실 수	합계		수용율
			교실 수	학생 수	
889	3	106	995	21,866	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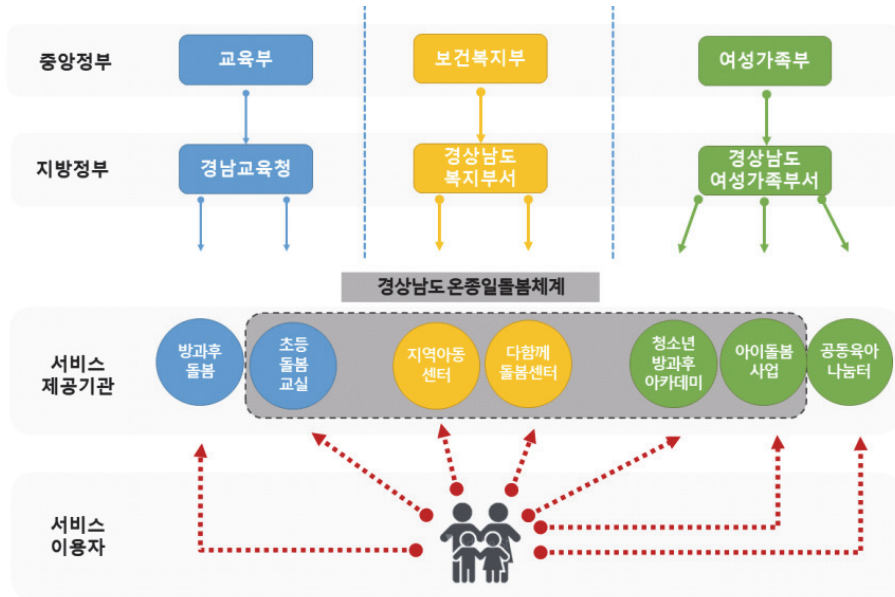
자료: 박해금 외(2020). 지역통합형 아이돌봄 모형개발 연구.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p. 36.

2) 통합 돌봄 사업

경상남도는 2019년 9월부터 민간전문가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1개의 광역 돌봄협의체 및 18개의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다(박해금 외, 2020: 44). 경상남도는 또한 이 시기부터 도-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계로 돌봄 운영실태와 수요를 공동으로 파악하여 수요에 적합한 돌봄 기관을 연계하고 부족한 돌봄기관을 확충하면서, 지역의 프로그램 및 자원을 공유하고자 하였다(박해금 외, 2020: 44).

경남의 온종일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는 다음 [그림 II-3-9]와 같은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각 부처별로 지방정부의 해당 부서로 업무가 전달되고 이는 다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전달되는 상황을 알 수 있다(박해금 외, 2020: 151).

[그림 II-3-9] 경남형 온종일돌봄서비스 전달체계



자료: 박해금 외(2020). 지역통합형 아이돌봄 모형개발 연구.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p. 152.

경상남도는 2021년 3월 1일, 공적 돌봄의 확대 및 인근학교 간 돌봄 공동 수요 충족을 목적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거점돌봄모형을 개발하여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1호점을 개원하였다(경상남도교육청 보도자료, 2021. 1. 11). 경상남도 교육청은 경상남도 내 초등돌봄교실이 전체 돌봄 기관(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포함)의 70% 이상으로 비중이 높은 반면, 초등돌봄교실의 증설은 쉽지 않으며 돌봄 수요가 많은 학교의 경우 학교 내 여유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파악하였다(경상남도교육청 보도자료, 2021. 2. 24). 이에 경남교육청이 학생 수가 줄어 여유 교실이 생긴 학교의 공간을 확보하게 하였고, 인근 학교 학생들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거점통합돌봄센터를 설립하게 되었다(경상남도교육청 보도자료, 2021. 2. 24).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1호점은 창원 명서초등학교의 유휴 교실 24개를 리모델링한 돌봄 공간으로, 인근 10개 학교 1~4학년 초등학생들이 함께 이용하게 되었다(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2021. 2: 13). 돌봄교실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단체 프로그램, 급간식, 개인활동, 독서활동 등으로 구성되는데, 총 6개의 돌봄

교실에 1실당 학생 25명 이내 돌봄전담사 1인이 있으며, 방학 중에는 돌봄전담사 3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전문상담사가 따로 배치되어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맡는다(아이좋아 경남교육, 2021. 2: 13).

[그림 II-3-10] 경상남도 거점형 통합돌봄센터 ‘늘봄’ 통학버스

승강기	4층			미술실	학습교실1	학습교실2	학습교실3	놀이공간5	미래교육실	창의과학실		화장실
								아외테라스			아외테라스	
	3층	화장실	돌봄교실4	준비실	돌봄교실5	놀이공간3	돌봄교실6	도레미실		어울림실		화장실
						아외테라스					아외테라스	
	2층	화장실	로비및 휴식공간	사무실	보건 상담실	놀이공간1	돌봄교실1	준비실	돌봄교실2	놀이공간2	돌봄교실3	독서계단 유티브 박스
						아외테라스				아외테라스		화장실
	1층	화장실	양치교실	도서실				급식소				

자료: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s://www.gne.go.kr/nbgne/index.gne?menuCd=DOM_000003801001002000(2022. 6. 8. 인출).

급식과 간식, 돌봄교실 내 단체 프로그램은 무상으로 지원한다(경상남도교육청 보도자료, 2021. 2. 24). 운영시간은 학기중에는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방학기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돌봄시간을 늘렸고,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경상남도교육청 보도자료, 2021. 2. 24). 안전한 운영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도보 이동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하교시간에 맞춰 등원 통학 차량을 운행하고, 등·하원 시 학생 인계가 원활하도록 자원봉사자를 배치한다(경상남도교육청 보도자료, 2021. 2. 24).

[그림 II-3-11] 경상남도 거점형 통합돌봄센터 '늘봄' 프로그램 운영(안)

일시	월	화	수	목	금	토
12:30~13:00 (토 - 8:00~9:00)	출석 확인 / 독서 활동					
13:10~13:50 (토 - 9:00~10:00)	종이접기	공동체 놀이	미술 활동	신체 활동	독서 활동	개별 활동
		4주 안전교육				
14:50~15:40 (토 - 10:00~11:00)	즐거운 간식시간 / 휴식 및 자유 활동					간식시간 /휴식
15:40~16:20 (토 - 11:00~12:00)	단체 프로그램 (환경)	단체 프로그램 (음악)	단체 프로그램 (창의)	단체 프로그램 (미술)	단체 프로그램 (놀이)	교구 활동
16:20~17:00 (토 - 12:00~12:40)	아이클레이, 미니 블록, 비즈 공예 등					
17:00~17:40 (토 - 12:40~13:00)	교구 활동	개별 활동	교구 활동	독서 활동	개별 활동	정리 정돈 및 귀가지도
17:40~18:00	정리 정돈 및 귀가 지도					
18:00~19:00	저녁 돌봄 학생 식사 / 휴식					
19:00~20:00	자유 선택 활동 / 정리 정돈 및 귀가 지도					

자료: 경상남도교육청 거점통합돌봄센터(2021).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리플렛.

[그림 II-3-12] 경상남도 거점형 통합돌봄센터 '늘봄' 통학버스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 12. 27). 늘 따뜻하게 아이들을 돌보는 '늘봄'입니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7417>(2022. 6. 8, 인출)).

늘봄의 경우 사용자 참여 설계를 위해 전문가를 촉진자로 위촉해 과정별 활동을 이끌고, 명서초등학교와 인근 10개 학교의 돌봄교실을 방문해 돌봄 참여 학생과 돌봄 전담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경상남도교육청 보도자료, 2021. 2. 24). 이후 학교별 학부모, 학생, 업무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정리된 의견을 바탕으로 늘봄 공간을 위한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고 설계에 반영했다. 사용자 참여 설계로 공간의 가변성, 실내외와 자연스러운 연계, 휴식공간, 안전한 놀이공간 등을 반영한 시공이 이루어졌다.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늘봄 운영을 목적으로 운영 전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학생과 학부모 800여명의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특화 지원해야 할 영역과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안전하고 내실있는 세부 운영 방향을 수립했다(경상남도교육청 보도자료, 2021. 2. 24).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2021년 6월,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경상남도교육청 보도자료, 2021. 6. 18). 경상남도 교육청은 2022년 9월, 창원 상남초등학교에 늘봄 2호를 개관할 예정으로, 역시 인근 10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이다(경남일보, 2022. 1. 11, 보도).

사. 인천광역시

1) 개요

인천광역시는 8구, 2군, 1읍, 19면, 135개동의 행정구역체계를 가진 지역으로(인천광역시 홈페이지a, 2022. 6. 11, 인출), 2022년 5월 기준 전체 인구는 131만 여명이다(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22. 6. 11, 인출). 인천광역시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아동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 2020년 기준으로 18세 미만 아동 인구는 44만 여명으로 나타났다(박주은·정선영, 2020: 35). 세부 연령별로 살펴보면 0~6세 아동 인구는 15만 8천여명, 7~12세 아동 인구는 16만 5천여명이다(박주은·정선영, 2020: 37).

한편 인천시 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정육아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하고자 해도 육아지원시설이 부재하여 마땅히 갈 곳이 없다고 호소하는데, 실제로 인천시 관내 어린이집이 2,100개소인 반면 공동육아나눔터는 21개소에 그치고 있다(윤재석·신유선·임은정, 2019: 91). 이에 아파트 단지 등 집 가까운 곳에서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가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돌보며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공간으로서 혁신육아카페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높아졌다(윤재석 외, 2019: 96).

2) 통합 돌봄 사업

인천시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육아 활성화를 위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는 수요자 맞춤형 육아지원서비스 공간인 ‘아이사랑꿈터’를 확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2021: 76). 아이사랑꿈터의 이용대상은 부모(보호자)를 동반한 영유아(0~5세)이고, 운영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한다(아이사랑꿈터 홈페이지a, 2022. 6. 11, 인출). 아이사랑꿈터의 이용료는 2시간(1타임) 1,000원이고, 프로그램 이용료는 2시간 이내로 이용 시 2,000원이다(아이사랑꿈터 홈페이지a, 2022. 6. 11, 인출). 아이사랑꿈터는 부모자녀 놀이공간이면서 부모교육,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양육정보 공유, 부모 자조모임을 운영하기도 한다(인천광역시 홈페이지b, 2022. 6. 11, 인출).

아이사랑꿈터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함께 모여 아이를 돌보며, 육아 부담을 덜자는 취지로 시작한 새로운 인천형 육아정책사업으로, 유아와 함께 부모들이 집 가까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유휴공간, 폐원 어린이집 등을 활용해 시작되었다(한겨레, 2019. 12. 2). 특히 출산율 감소로 인천시 내 100곳 이상 폐업 중인 가정어린이집 공간을 아이사랑꿈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하였고(경인일보, 2020. 7. 9), 아이사랑꿈터 설치를 행·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도 제정되었다(표 II-3-18 참조). 아이사랑꿈터에는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이 있고 보육경력이 5년 이상인 전문인력 1명과 보육교사 3급 자격의 보조인력 1명이 각각 배치된다(한국일보, 2019. 12. 2). 2022년 6월 현재, 인천시 내 총 37개소(서구 4개소, 계양구 4개소, 부평구 2개소, 동구 2개소, 중구 2개소, 미추홀구 7개소, 연수구 6개소, 남동구 10개소)가 운영 중이다(아이사랑꿈터 홈페이지b, 2022. 6. 11, 인출).

〈표 II-3-18〉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19. 12. 3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공동육아·공동돌봄 활성화를 통해 부모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가정양육 친화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이사랑꿈터”(이하 “꿈터”라 한다)란 영유아를 키우는 보호자가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돌보며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공간으로 「아이돌봄지원법」제19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육아·공동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꿈터의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고려하여 꿈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꿈터 공간조성 내 리모델링 및 장난감, 교재·교구 등 비치물품 구매 비용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설치기준) 꿈터의 설치기준은 「아이돌봄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기준을 따른다. 제6조(기능) 꿈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호자 간의 육아정보 나눔 기회 제공 2. 보호자와 영유아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3. 장난감 대여 서비스 제공 4. 육아를 위한 적절한 놀이기구 및 안전한 공간 제공 5. 가정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 제7조(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정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꿈터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목표 및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꿈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꿈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설치·기능) ① 꿈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동육아·공동돌봄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꿈터 선정에 관한 사항 2. 꿈터의 설치·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육아·공동돌봄 정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중략〉 제11조(개관 및 휴관) 꿈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제12조(운영시간 등) ① 꿈터의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꿈터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이용료의 징수 등) ① 꿈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방법, 감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중략〉

제17조(꿈터 운영·위탁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라 설치한 가정양육사업 전담 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꿈터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꿈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gubun=ELIS&ordinSeq=1443897> (2022. 6. 11, 인출)¹¹⁾

3)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사례: 교육문화 공간 마을엔 사업¹²⁾

가) 추진배경 및 목적

인천시 연수구에서는 지역사회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학 거버넌스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학교-마을을 연결하는 중간 지원조직의 필요성이 지역사회 활동가를 중심으로 대두되었다. 마을교육공동체의 활동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학교와 마을이 만나는 기회 확대를 위하여 인천시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공간혁신사업으로 교육문화복합시설을 마련하고 공간의 확장 및 마을교육자치 관련 학교시설복합화를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공동체적 관계 형성과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

11) 아이사랑꿈터 홈페이지c, <https://kkumteo.or.kr/main/index.php>(2022. 6. 7, 인출)
cf. 인천광역시 공동육아나눔터운영(18세 이하 아동과 부모)(인천광역시 홈페이지c,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20317>(2022. 6. 7, 인출))
- 지자체 조례 재정시 통합적 관점의 돌봄 이행 근거 불충분(아이사랑꿈터 홈페이지d, <https://kkumteo.or.kr/main/main.php?categoryid=02&menuid=02&groupid=00>(2022. 6. 7, 인출), 아이사랑꿈터 법적 기반 참조)

12) 민관학 거버넌스가 함께 하는 ‘교육문화공간 마을엔’ 운영(인천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단, 2022. 5) 자료를 반영, 재구성함.

한 교육주민자치의 실현과 교육청과 지자체,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연대하는 지역 중심의 교육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였다.

나) 민관학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인천시 교육청과 연수구청은 민관학 거버넌스를 위하여 연수구 마을교육지원단장-연수구청국장-선학중학교장-마을교육대표 각 1인으로 구성된 대표자협의회를 구성하여 협력적인 업무구조를 실행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청-지자체 협업으로 마을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주체를 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 투자로 예산 절감 효과를 가졌으며, 구청과 시교육청 직원이 한 사무실 공간에서 상근하여 업무 효율과 협력을 제고하였다. 교육문화공간 마을엔이 마을 사랑방의 역할로 다양한 교육주체의 참여 활동을 통해 마을교육의 거점을 마련하고, 학교의 배움 공간이 마을로 확장됨에 따라 교사와 학생의 다양한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한 것으로 그 효과가 보고되었다.

〈표 II-3-19〉 인천시 연수구 마을 교육문화공간사업: 교육청-지자체 연계협력 사례

구분	인천광역시교육청	연수구청	학교
설립지원	교특(30%), 자체예산(50%)	연수구청 대응투자(20%)	운동장 부지 제공
시설관련 지원예산	초기구축지원비 255,000천원 시설운영비 18,000천원 청소원인건비 24,000천원	시설운영비 21,600천원 (공공요금)	시설운영 및 관리 업무 및 업무 지원
프로그램 운영예산	2021년: 19,000천원 2022년: 20,000천원	2021년: 3,000천원 2022년: 17,000천원	마을카페, 마을공방 위탁운영
배치인력	장학사(1), 파견교사(1), 주무관(1)	연수구청 임기제공무원 파견(1)	시설관리 인력 (청소원 1, 당직 1)

자료: 인천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단(2022. 5). 내부자료.

아. 2021년 지자체 아동돌봄 사업 고찰¹³⁾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 중인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분야별 지원정책을 운영 지자체 규모(광역/기초)와 지원 유형별(현금, 상품권, 현금성, 현물, 이용권

13)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22).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내용을 참조하여 통합돌봄의 사례를 별도로 정리·요약함.

(바우처), 서비스 인프라 및 교육·홍보)로 분류하여 전국에서 진행 중인 돌봄사업 전반을 살펴본 결과(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2. 4. 8), 2021년 지방자치단체가 실시 중인 출산지원정책은 총 2,310개로 전년 대비(총 2,367개) 감소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2. 4. 8). 이는 6·1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나타난 아동 관련 공약 부재와 흐름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서울신문, 2022. 5. 26, 보도).

모음자료로서 사례집 분석 결과 전국의 지자체별로 다양한 육아지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으로서의 접근과 연계협력의 사례를 추려 살펴봄으로써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의 운영 현황을 전체적으로 짚어 보았다. 육아 관련 맞춤형 세부 지원 단계의 설정과 지원의 노력, 다양한 지원 채널의 구축과 서비스 접근성의 제고, 결혼·임신·출산·육아를 아우르는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환경 조성이라는 기존 패러다임의 강화를 추진하는 지자체별 노력이 파악되었다.

이 중 광역 및 기초 지자체별 통합 돌봄 시도 대표 사례를 제시하고, 통합 돌봄 플랫폼 구현을 시도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광역 지방자치단체 통합 돌봄 시도 대표 사례

〈표 II-3-20〉 광역 지방자치단체 통합 돌봄 시도 대표 사례(부산, 인천, 제주)

구분	지자체	사업명	내용	통합 돌봄 관점 의의
광역	부산	2022년 부산형 아이돌봄 지원사업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등·학교(원)돌봄 서비스)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사각지대 보완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 2021년 관내 8개 자치구 시행 후 2022년 16개 모든 자치구·군으로 확대 시행 - 대상: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입원아동 - 제공 서비스: 의료 및 정서 지원 <등·학교(원) 돌봄 서비스> - 2022년 시범사업: 관내 3구(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시범 시행 - 대상: 만 36개월~만 12세 이하 - 제공 서비스: 수요 발생 시간대 단시간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대상 연령 통합 - 기관과 가정 내 돌봄 연계 - 지역사회 차원의 공동체적 접근 - 유관서비스 연계·협력 - (사업수행기관: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부산 YWCA)
	인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부모들의 육아경험과 정보 공유 소통 공간 제공 및 자녀들의 또래 상호작용 촉진의 장 마련	- 지역사회 차원의 공동체적 접근 - 민관 연계

구분	지자체	사업명	내용	통합 돌봄 관점 의의
			- 지역중심 양육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핵가족화에 의한 가족돌봄 기능 제한 보완 - 대상: 인천시 소재 만 18세 이하 아동 및 부모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민간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등(공공시설)에서 운영(2022년 6월 기준 인천시 내 22개소 운영) - 제공 서비스: 안전한 자녀돌봄 공간 제공, 부모자녀 동반참여 프로그램 운영, 품앗이 돌봄 공동체 구성 및 촉진 지원 활동 운영, 놀이 프로그램 및 놀이 활동 촉진 교구 지원	- 품앗이형 자조 돌봄 공동체 구성 및 운영 지원
	제주	수눔음 돌봄 공동체 발굴 육성	- 지역사회 수눔음돌봄문화 확산: 이웃, 마을과 함께 양육하는 돌봄·정서·문화나눔 양산 - 장애아,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유형을 포괄하는 78개의 수눔음돌봄공동체 운영 중(2022년 4월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공모를 통해 공동주택 커뮤니티센터, 마을 도서관 등 10평(33㎡) 이상의 지역 유휴공간에 조성 -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주체: 제주가족친화센터	- 커뮤니티와 가정 내 돌봄 연계 - 지역사회 차원의 공동체적 접근

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22).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pp.109~110.

부산 사례: 베이비뉴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011>(2022. 6. 7, 인출).

인천 사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20317>(2022. 6. 7, 인출).

제주 사례: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https://jffsc.kr/pages.php?p=3_1_1_1(2022. 6. 7, 인출).

2) 기초 지방자치단체 통합 돌봄 시도 대표 사례

〈표 II-3-21〉 기초 지방자치단체 통합 돌봄 시도 대표 사례(경기 화성시, 전북 익산시, 전남 강진군)

구분	지자체	사업명	내용	통합 돌봄 관점 의의
경기	화성시	화성형아이키움터(공동육아나눔터)	- 이용대상: 만 12세 미만 자녀와 부모 - 운영시간: 평일 10~18시 - 부모와 자녀의 놀이 상호작용 공간 제공(무료) - 운영: 화성시가족센터 - 프로그램 운영: 주 1~2회 부모 및 자녀 대상 교육·문화 프로그램 제공(연령 및 주제별 맞춤) - 2015년 10월 아이키움터 맘애좋은점을 시작으로 총9개 키움터 개소(2022년 6월 기준)	- 지역사회 차원의 공동체적 접근 지원 - 민관연계

구분	지자체	사업명	내용	통합 돌봄 관점 의의
			- 가족품앗이 공동체 활동 지원: 월 2회 자조모임 후 월별 활동일지 작성(주제: 등·학 동행, 학습, 놀이, 체험, 예체능 취미활동 등, 세부 활동 내용 및 방식은 구 성원 협의 후 결정) - 가족품앗이 활동 혜택 제공: 전용프로그램 제공, 전체 모임 진행, 리더교육 및 워크숍 실시, 화성형아이키움터 상시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전북	익산시	우리마을돌봄공동체 운영	-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만 0~12세 아동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 - 소득수준 무관 방과후 돌봄 수요 발생 초등학교생이 주대상이며 미취학 아동은 공동육아방 형태로 개방, 부모들의 육아 정보 공유 장소 기회 마련 - 현재 4개소 운영 중이며 2개소 추가 선정(2022년 4월 기준)	- 지역사회 차원의 공동체적 접근 - 민관 연계
전남	강진군	맘편한 야간돌봄터 운영	- WESTART 강진글로벌아동센터의 아이 키우기 좋은 강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야간 돌봄서비스 제공 - 근로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출장 및 야근 등 긴급 야간 돌봄 필요 발생 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의 정서 및 행복감 증진에 기여 목표 - 이용대상: 관내 4세~8세 아동 - 이용시간: 16시~21시 - 지원내용: 야간일시보육 및 간식 제공	- 커뮤니티와 가정내 돌봄 연계 - 취학 전후 아동 통합 돌봄 제공 - 시설과 가정내 돌봄의 연계 시도

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22).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p. 291, 294, 295.
 경기 화성시 사례: 화성형 아이키움터 홈페이지, <http://www.hscfamily.or.kr/main.asp>(2022. 6. 8, 인출).
 전북 익산시 사례: 익산시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hiksanin/222689118029>(2022. 6. 8, 인출).
 전남 강진군 사례: 강진군청 홈페이지, <https://www.gangjin.go.kr/www/government/news/notice?idx=465689&mode=view>(2022. 6. 8, 인출).

〈표 II-3-22〉 사례집 1차 분석 결과(돌봄중심 키워드 검색)

구분	사업명	대상	내용	비고
광역지방단체				
서비스 중심				
서울	2021년 우리동네 키움포털 콘텐츠 보강 및 운영 사업	해당 없음	초등돌봄서비스 콘텐츠 보강, 우리동네키움센터	

구분	사업명	대상	내용	비고
서울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	영유아자녀 둔 부모 및 양육자, 출산·전입·다문화 가정 등	육아정보 및 상담 서비스 제공	
부산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	영유아 및 보호자	육아부모 이용 가능한 소규모 실내놀이 공간 제공(2개소) 체험실, 장난감 대여 등	
부산	부산형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입원 아동 돌봄 서비스)	만3개월~ 만12세 이하 아동 - '21년 시범지역 8개구(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영도구, 해운대구) 거주 부산지역 내 병원 입원	입원 아동 보호사 방문, 기본 돌봄(식사 및 투약), 정서지원	
인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임산부, 출산가정, 맞벌이 부부 등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부모자녀 교육, 놀이 공간 등 제공	
인천	찾아가는 아이사랑 플레너	영유아 자녀 가정	전문 육아 플레너 직접 방문, 가족 맞춤형 컨설팅 제공	
광주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신청일 당시 부모 또는 이용 아동 광주시 거주 병원입원 만12세이하 아동	병원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 -08시~20시 (1일 1회/4~8시간) -1인 연간 150시간이하	
경기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도내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아동의 부모	육아정보 및 가족품앗이 공간 제공,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제주	수놓음 돌봄 공동체 발굴 육성	5가구이상 부모 자조모임	팀별 120~150만원 지원	
인프라 중심				
서울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 운영	돌봄 필요 6~12세(소득 무관, 초등학생 중심)	지역 여건, 수요 고려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 제공	

구분	사업명	대상	내용	비고
서울	열린육아방 및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가정양육 가정에 육아커뮤니티 공간 제공	
제주	수놓음 육아나눔터 조성 운영	10평 이상 유휴공간 확보 나눔터 운영(하고자)하는 비영리단체(법인) 등	지역 내 10평 이상 유휴 공간 활용 돌봄 공간 조성 및 운영(아파트, 마을회관, 도서관, 복지회관 등 내)	
기초 지방자치단체				
서울	중구	학교 안팎, 중구 모든 아이 돌봄 사업	돌봄 필요 초등생	교육청 협약 학교 안 돌봄교실, 학교 밖 돌봄센터 및 틈새돌봄 운영
서울	서대문구	맞벌이가정 자녀 방학 돌봄	맞벌이가정 초등학생(1~4학년) 자녀	맞벌이가정 자녀 대상 교육 및 돌봄 프로그램
서울	송파구	송파구아간 긴급돌봄서비스	관내 거주 36개월이상 10세 이하 아동	아간(평일 18:00~21:00) 긴급 또는 일시적 사유로 자녀돌봄 필요한 가정돌봄 제공(풍납동 공동육아나눔터, 송파 여성문화회관 열린 육아방)
경기	광명시	아이 안심 돌봄터 운영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가정 돌봄 공백 해소 위한 안심터 운영(2개소)
경기	의왕시	육아나눔터 운영	초등학교 저학년이하 아동 및 (조)부모	안전한 돌봄 공간 제공, 육아정보 나눔 및 육아프로그램 지원 등
경기	화성시	화성시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	만12세이하 아이와 양육 보호자	육아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보호자와 아이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장난감 등 육아물품 이용대여 지원 등

구분	사업명	대상	내용	비고
충북	청주시	마을돌봄 활성화 지원 사업	아파트 내외 작은 도서관 4개소(청주시 구별 1개소)	마을 공동 돌봄 육아 시스템 마련
충남	논산시	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	관내 만24개월~만9세 이하 아동	주중 24시간 긴급·일시 돌봄 서비스 제공
전북	익산시	우리마을돌봄 공동체 운영	익산시 0~12세 아동	초등돌봄 교실(만0~5세 공동 육아방)
전북	완주군	아파트 르네상스 아이돌봄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 활용 공동체 돌봄 교실 운영	공동체 돌봄 교실 운영, 단지 특성에 맞춰 인원 및 대상 등 변경 가능
전남	순천시	보육스테이션사업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가정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주민 돌봄 공동체 자율 운영)
전남	강진군	맘 편한 야간돌봄터 운영	관내 거주 만5~7세 자녀 둔 가정	야간 돌봄 서비스 운영(공동육아나눔터, 평일 16시~21시)

자료: 1) 광역지방단체-서비스 중심 사례: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22).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pp. 108~110. / 인프라 중심 사례: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22).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p.110.
 2) 기초 지방자치단체-서울 사례: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22).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pp. 281~283. / 경기 사례: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22).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pp. 289~291. / 충북 및 충남 사례: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22).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pp. 292~293 / 전북 및 전남 사례: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22).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pp. 294~295.

그밖에, 낙인과 차별 해소를 위한 돌봄 기관 통합 의지를 보이며, 충남 천안시의 회는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통합’ 건의문을 채택하였으며, 대전 서구 의회는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통합」 건의안[정현서 의원 발의]을 발의 하였다.

서울시 우리동네 보육반장, 우리동네돌봄공동체 사업이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2022년 다가치보육 어린이집 협력사업이 전개되어 소규모 어린이집 4~5개를 설립유형별(가정, 민간, 혼합, 국공립거점)로 하나의 그룹으로 구성, 공동(공통, 선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협력 모델이 운영 예정이다.

자. 국외 통합돌봄 사례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 모색을 위해 세 가지 관점에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국외사례를 탐색하였다. 첫째, 보육과 교육의 통합적 운영(부처 통합, 교육과정 통합), 둘째,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통합 연계(유초연계), 셋째, 서비스 통합과 지역사회 연계에 대해 OECD 보고서, 국외 교육·보육 관련 정부 부처 홈페이지 등 가용한 국외 자료를 검토하였다.

1) 보육·교육의 통합적 운영

가)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부처 단일화

국가들마다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를 관장하는 부처는 돌봄(0-3세)과 교육 부문(3세 이상)을 나누어 둘 이상으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거나, 하나의 부처에서 관리하기도 한다. <표 II-3-23>에 돌봄과 교육을 나누어 관장하고 있는 국가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국가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돌봄과 유아교육을 각기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고, 0-3세는 보육, 3-5세는 교육으로 구분하는 국가는 캐나다, 콜롬비아, 체코, 벨기에,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미국 뉴저지,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위스, 터키, 영국 웨일즈 등이 있다(Shuey et al., 2019: 26-27). 이와 달리 국가 혹은 지역사회 수준에서 하나의 부처에서 돌봄과 교육을 관리하는 국가들은 오스트리아, 칠레, 크로아티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카자흐스탄,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스코틀랜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호주 빅토리아 등이 있다(Shuey et al., 2019: 26-27).

북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0-5세 또는 0-6세 보육과 교육 담당 부처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과 보육을 한 부처에서 관리하고 통합적으로 학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스웨덴은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¹⁴⁾, 덴마크는 Ministry of Children and Education¹⁵⁾, 핀란드는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¹⁶⁾,

14) European Agency. (n.d.). Country information for Sweden – Legislation and policy. Retrieved October 7, 2022, from <https://www.european-agency.org/country-information/sweden/legislation-and-policy>

15) Ministry of Children and Education. (n.d.). <https://eng.uvm.dk/>

16)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n.d.). <https://okm.fi/en/frontpage>

노르웨이는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¹⁷⁾에서 교육과 보육을 모두 통합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3-23〉 영유아 교육·보육 각 국가별 구조(분화 대. 통합)

구분	분화 체제	통합 체제
정부 방침	- 돌봄과 유아교육을 각기 다른 부처에서 관리 - 아동 연령에 따라 구분	- (국가 혹은 지역사회 수준에서) 하나의 부처에서 돌봄과 교육 관리 - 주 부처는 교육부, 혹은 복지부 등 국가별 상이 - 교육과정 개발, 모니터링, 재정 등 통합적 책임
국가 예시	- 캐나다, 콜롬비아, 체코, 벨기에,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미국 뉴저지,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위스, 터키, 영국 웨일즈	- 오스트리아, 칠레, 크로아티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카자흐스탄,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스코틀랜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호주 빅토리아

자료: Shuey et al. (2019). OECD Education Working Paper No. 193. Curriculum alignment and progression betwee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nd primary school. A brief review and case studies. OECD. pp. 26-27. Table 2.2. 재구성.

미국 내에서는 영유아 교육·보육의 통합적 운영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영유아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부서를 새로 신설한 경우, 기능을 하나로 강화한 경우, 협력 및 조정한 경우와 같이 세 가지 형태를 시도해왔다.

첫 번째,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위해 영유아의 학습과 보육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새로운 부처를 만들었다. 이러한 예로 앨라배마의 Alabama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조지아의 Bright From the Start Georgia Department of Early Care and Learning, 매사추세츠의 Massachusetts Department of Early Education and Care가 있다(Atchison & Diffey, 2018: 4),

둘째, 기존에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기능을 담당하던 부서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한군데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였다. 즉,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던 기존 부처들 중에 적절한 부처에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2005년 메릴랜드 주에서는 모든 영유아 관련 프로그램을 교육부 산하의 유아 발달 부서로

17) Government.no. (2020, February 11).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Retrieved October 7, 2022, from <https://www.regjeringen.no/en/topics/families-and-children/kindergarten/early-childhood-education-and-care-polic/id491283/>

모두 이전하였고, 교육부에서 보육, 교육 자격 증명, 보조금, 기관 운영 프로그램 등을 모두 담당하게 되었다(Atchison & Diffey, 2018: 5).

셋째, 일부는 기존 사무실을 통합하는 대신 기관사이의 프로그램 운영을 조정하고 협력을 증진하는 방식을 채택하며, 이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거나 공식합의서를 작성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콜로라도 주에서는 영유아 지원 기능을 가진 여러 부처의 일을 하나의 팀을 만들고 역할을 세분화하여 통합적 운영을 꾀하였다. Colorado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안에 아동사무소(Office of early childhood)를 만들어 두 가지 기능(첫째, 생애초기 돌봄과 교육 관련; 지역사회와 가족 지원)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법안을 통해 다른 부서의 업무를 조정 및 이관하거나, 교육부의 하위 부서와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유사하게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아동 돌봄과 조기개입, 교육 및 가족 지원을 담당하는 Office of Child Development and Early Learning는 Department of Human Service와 Department of Education 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Atchison & Diffey, 2018: 5-6).

나) 영유아 교육·보육 교육과정 통합

OECD에 따르면, 교육과 보육에서 통합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교육과정 체계 중 0-5세/초등 입학 대상으로 하나의 통합된 교육과정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관할지역은 호주, 캐나다 앨버타, 캐나다 브리티시 컬롬비아, 캐나다 노바스코샤, 캐나다 온타리오, 캐나다 퀘벡, 덴마크, 에스토니아, 독일 바이에른, 독일 베를린, 독일 브란덴부르크,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영국(잉글랜드) 등이 있다. 지역별로 적용되는 방식이 달라서 캐나다나 독일의 경우 여러 관할지역에서 한 가지 영유아 교육·보육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⁸⁾

18) OECD. (2021). Start Strong VI: Supporting meaningful interaction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Retrieved October 10, 2022, from https://www.oecd-ilibrary.org/sites/f47a06ae-en/1/4/1/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f47a06ae-en&_csp_=dd82f616450cabb36e84807345747f7&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

〈표 II-3-24〉 영유아 교육·보육 국가별 통합교육과정 체계

국가	관할지역	교육과정체계 이름	해당 연령 집단
호주		Belonging, Being & Becoming: The Early Years Learning Framework for Australia (EYLF)	0-5세/초등 입학 대상 통합
캐나다	앨버타	Flight: Alberta's Early Learning and Care Framework	0-5세/초등 입학 대상 통합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Early Learning Framework	0-5세/초등 입학 대상 통합
캐나다	노바스코샤	Capable, Confident, and Curious: Nova Scotia's Early Learning Curriculum Framework	0-5세/초등 입학 대상 통합
캐나다	온타리오	How Does Learning Happen? Ontario's Pedagogy for the Early Years	0-5세/초등 입학 대상 통합
캐나다	퀘벡	Accueillir la petite enfance	0-5세/초등 입학 대상 통합
체코		Framework Educational Programme for Pre-primary Education (FEP PE)	3-5세/초등 입학
덴마크		The pedagogical curriculum	0-5세/초등 입학 대상 통합
에스토니아		National Curriculum for the Preschool Child Care Institution	0-5세/초등 입학 대상 통합
프랑스		Pre-elementary education: an only cycle, fundamental for the success of all	3-5세/초등 입학
독일	바이에른	The Bavarian Framework for Early Education (for children aged 0 to school entry) (BayBEP*) including a short summary of the Bavarian Guidelines for Education (BayBL**)	0-5세/초등 입학 대상 통합
독일	베를린	Bridging Diversity- an Early Years Programme	0-5세/초등 입학 대상 통합
독일	브란덴 부르크	Principles of elementary education	0-5세/초등 입학 대상 통합

국가	관할지역	교육과정체계 이름	해당 연령 집단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Principles of education for children aged 0 to 10 in child-daycare-facilities and primary schools in North Rhine-Westphalia	0-5세/초등 입학 대상 통합
아이슬란드		The Icelandic national curriculum guide for preschools	0-5세/초등 입학 대상 통합
아일랜드		Aistear- the Early Childhood Curriculum Framework	0-5세/초등 입학 대상 통합
이스라엘		Frameworks specific to different learning areas	3-5세/초등 입학
노르웨이		Framework Plan for Kindergartens	0-5세/초등 입학 대상 통합
포르투갈		Curricular Guidelines for Preschool Education	3-5세/초등 입학
슬로바키아		State educational program for pre-primary education in kinderkartens	3-5세/초등 입학
남아프리카		The South African National Curriculum Framework for Children from Birth to Four	0-5세/초등 입학 대상 통합
영국 (잉글랜드)		Early Years Foundation Stage Framework	0-5세/초등 입학 대상 통합

자료: OECD. (2021). Start Strong VI: Supporting meaningful interaction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Retrieved October 10, 2022, from https://www.oecd-ilibrary.org/sites/f47a06ae-en/1/4/1/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f47a06ae-en&csp_=dd82f616450cabb36e84807345747f7&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 Table A.A.1. Overview of ECEC curriculum frameworks and reference numbers for tables and figures, 2019. 내용 재구성.

다) 스웨덴 사례 분석: 영유아 교육·보육 학제 구성

스웨덴에서는 1990년대부터 유아학교(preschool), 의무학교(compulsory school), 학령기 돌봄(school age childcare)을 통합하고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를 시도해왔고, 유아학교(preschool)와 학령기 돌봄(school aged childcare) 관리/담당을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에서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로 옮기게 되었다. 6세 아이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 유아학급

(Preschool class) 교육과정을 1998년에 소개하였고, 의무학교 교육과정은 학령기 아동 보육의 가장 보편적인 레저타임 센터(leisure-time centres) 교육과정과 통합되었다. 2003년 Swedish National Agency for School Improvement로 학교 관련 책임이 모두 이임되었고, 2011년 New Education Act가 발표되면서 새 교육과정 도입이 의무화되었다.¹⁹⁾

스웨덴의 영유아 교육·보육 돌봄의 구조를 정리하면 <표 II-3-25>와 같다. 스웨덴의 영유아 교육·보육은 공식적으로 2개 시스템(1-5세를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유아학교(preschool center, förskola)와 초등 시작 전 1년간 다니는 의무 초등 전 학급(compulsory pre-primary classes, förskoleklass)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 가정 개별 보육(pedagogical care, pedagogisk omsorg)과 지역에서 운영하는 열린 유아학교(open pre-schools, öppen förskola) 등이 있다. 이 모든 기관의 관리 책임은 공통적으로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²⁰⁾

<표 II-3-25> 스웨덴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연령	1-5세	6세	초등
정규교육과정	Preschool (förskola)	Preschool class (förskoleklass)	Compulsory school (grundskola)
정규 외 기타교육활동	-	(방과후) Leisure-time centers (fritidshem)	
	-	(지역사회) Care at uncomfortable times	
	(개별돌봄) Pedagogical care (pedagogisk omsorg) in family daycare homes (familjedaghem)		

자료: Eurydice. (2022, July 13). Sweden. 2. Organisation and governance. Retrieved October 6, 2022, from https://eacea.ec.europa.eu/national-policies/eurydice/content/organisation-and-governance-80_en

Eurydice. (2022, July 15). Sweden. 4.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Retrieved October 6, 2022, from <https://eurydice.eacea.ec.europa.eu/national-education-systems/sweden/early-childhood-education-and-care>

19) Eurydice. (2022, July 13). Sweden. 2. Organisation and governance. Retrieved October 6, 2022, from https://eacea.ec.europa.eu/national-policies/eurydice/content/organisation-and-governance-80_en

20) Eurydice. (2022, July 13). Sweden. 2. Organisation and governance. Retrieved October 6, 2022, from https://eacea.ec.europa.eu/national-policies/eurydice/content/organisation-and-governance-80_en

(1) 1-5세 유아학교(Preschool)

스웨덴에서는 the Education Act (Skollagen SFS 2010: 800)에 따라 아동 1세부터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용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Nordic Council of Ministers, 2022: 29). 3세부터는 주당 최소 15시간 무료 보육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혹은 학업중인 부모의 자녀는 방과후 레크리에이션 센터(fritidshem) 이용 보조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²¹⁾

Statistics database of the 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조사에 따르면, 2019년 1-5세 preschool 이용률은 85.4%, 1세 이용률 50.4%, 2세 이용률 90.6%, 3세 이용률 94.0%, 4-5세 이용률은 95.3%로 연령증가에 따라 이용 비율 역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²⁾

(2) 6세 유아학교 학습(Preschool class)

2018년부터 초등입학 1년 전 교육과정인 6세 유아학교 학급(preschool class)이 의무화되었다. 해당 아동이 다니게 될 초등학교(의무교육학교)에 있는 유아학교 학급(preschool class)을 다니는 구조로 한국의 병설유치원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 15시간 무료보육이 지원되며, 유아학교 학급의 이용률은 2019년 기준으로 약 98%에 이른다.²³⁾

(3) 기타 교육 활동

스웨덴에서는 정규 영유아 교육·보육 과정 외에 12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한 4개 유형의 보육 기관이 있다. 첫 번째 가정 돌봄(Pedagogical care, pedagogisk omsorg, in family daycare homes, familjedaghem)은 1-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아이돌보미의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를 말한다. 둘째, 열린 유아학교

21) Eurydice. (2022, July 15). Sweden. 4.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Retrieved October 6, 2022, from <https://eurydice.eacea.ec.europa.eu/national-education-systems/sweden/early-childhood-education-and-care>

22) Eurydice. (2022, July 15). Sweden. 4.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Retrieved October 6, 2022, from <https://eurydice.eacea.ec.europa.eu/national-education-systems/sweden/early-childhood-education-and-care>

23) Eurydice. (2022, July 15). Sweden. 4.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Retrieved October 6, 2022, from <https://eurydice.eacea.ec.europa.eu/national-education-systems/sweden/early-childhood-education-and-care>

(Open preschool, öppen förskola)는 아동과 부모, 교사가 함께 이끌어나가는 학교로 교육 집단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레저타임 센터(Leisure-time centers, fritidshem)는 정규 과정이 끝난 뒤 맞벌이나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돌보는 방과 후 기관으로 유아학교 학급과 초등의무교육을 받는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레저타임 센터는 학교 시스템과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대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한다. 넷째, 지자체 돌봄으로 'Care at uncomfortable times'가 있는데, 유아학교와 레저타임 센터가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 아동을 돌봐준다.²⁴⁾

(4) 교사 자격

스웨덴에서는 각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내 대학학위를 소지한 자가 적어도 1인이 있고, 약 40%의 교직원인 대학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ordic Council of Ministers, 2022: 29). 'Top of the class - new teacher education programmes'(Govt. Bill 2009/10:89)가 2010년 4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사자격이 되는 학위가 유아교육(Preschool education), 초등교육(Primary school education), 관련 교육, 직업 교육 학사/석사학위와 같이 네 가지로 변경되었다.²⁵⁾ 구체적인 대상별 전공과 자격요건은 <표 II-3-26>에 정리하였다. 이 중 유아학교 학급(Preschool class) 교사가 초등 1-3학년 교사와 함께 초등교육 전공자인 점이 눈에 주목할 만하다.

<표 II-3-26> 스웨덴 영유아 교육·보육 교사 자격 구분

기관	대상	전공	자격
유아학교	유아학교(Preschool) 교사	유아교육(Preschool education)	210 고등 교육 학점 취득
	돌보미(Childminders)	직업 학위	중등 이상
초등학교/	유아학교 학급(Preschool	초등교육(Primary school	240 고등 교육 학점 취득,

24) Eurydice. (2022, July 15). Sweden. 4.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Retrieved October 6, 2022, from <https://eurydice.eacea.ec.europa.eu/national-education-systems/sweden/early-childhood-education-and-care>

25) Eurydice. (n.d.). Sweden. 9. Teachers and education staff. 9.1. Initial education for teachers working in early childhood and school education. Retrieved October 6, 2022, from <https://eurydice.eacea.ec.europa.eu/national-education-systems/sweden/initial-education-teachers-working-early-childhood-and-school>

기관	대상	전공	자격
학령기 아동 돌봄 교사	class)/ 1-3학년 교사	education)	6-9세 연령 관련 교육
	4-6학년 교사	초등교육(Primary school education)	240 고등 교육 학점 취득, 10-12세 연령 관련 교육
	방과후 돌봄(leisure time centers) 교사	초등교육(Primary school education)	180 고등 교육 학점 취득

자료: Eurydice. (n.d.). Sweden. 9. Teachers and education staff. 9.1. Initial education for teachers working in early childhood and school education. Retrieved October 6, 2022, from <https://eurydice.eacea.ec.europa.eu/national-education-systems/sweden/initial-education-teachers-working-early-childhood-and-school>

스웨덴은 2011년 교육법 개정을 통해 ECEC 기관의 원장(rektor)이 학교 교장과 동일한 자격을 얻게 하였다. 이를 통해 원장의 권한과 책임이 강조하였고, 신규 원장으로 채용된 뒤 5년 안에 교장 교육 이수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는 초등학교와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장 명칭을 같게 하여서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높인 사례라 할 수 있다(한유미·공병호, 2019: 272-273).

또한 유아학교(Preschool)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조교사가 3년 풀타임, 5년 파트타임 경력이 있는 경우 보수교육(예: 4년간 180학점)을 받으면 유아교사가 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한유미·공병호, 2019: 275).

(5) 교사 대 아동 비율

스웨덴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에서 집단 크기별 최대 아동 수에 대한 권고사항은 존재한다. 2018년 통계를 살펴보면, 1-3세의 교사 1명당 아동 비율 권고사항은 6-12명이었는데, 2018년 평균은 교사 1명당 아동 12.6명으로 밝혀졌다. 4-5세 집단의 경우 교사 1명당 9-15명의 아동을 돌보도록 권고하였고, 실제 평균은 16.1명으로 나타났다. 연령관계 없이 최종 평균은 15.4명으로 집계되었다.²⁶⁾

최근 스웨덴에서는 약 40명의 아이들을 한 집단으로 두고 여기에 6-7명의 교사를 배치하여 보육하도록 하는 새로운 경향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하루 일과에서 일부분 연령그룹을 혼합하거나 비슷한 집단을 함

26) Oxford Bibliographies. (n.d.).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Sweden. Retrieved October 7, 2022, from <https://www.oxfordbibliographies.com/view/document/obo-9780199756810/obo-9780199756810-0081.xml>

께 묶어서 교육할 수 있다.²⁷⁾

(6) 기관 평가

스웨덴에서는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평가를 주 단위의 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NAE)에서 주관하며, 국가 차원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에 대한 지도, 사후점검과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 교육 관련 통계와 지침 마련을 주도하는 역할도 한다. 흥미로운 점은 Swedish School Inspectorate가 유아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다양한 성인교육 질 관리와 감독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기관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만든 지침은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며, 자기 평가를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질 제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목적을 가진다(Nordic Council of Ministers, 2022: 35). 평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는 아동의 관점과, 아동과 부모의 참여라는 점도 인상적이다(Nordic Council of Ministers, 2022: 37).

(7) 시사점

스웨덴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검토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1-5세 유아학교(Preschool, förskola)와 6세 유아학교 학급(Preschool class, förskoleklass)을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돌봄과 교육의 관할 부처 통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둘째, 유초연계를 위해 6세 대상 유아학교 학급(Preschool class, förskoleklass)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한 점도 의미 있다. 셋째, 유아학교 학급(Preschool class, förskoleklass)과 초등학교(Compulsory school, grundskola) 1-3학년을 담당하는 교사 자격이 동일한 부분도 통합적 학제 운영을 뒷받침한다.

2)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통합 연계

앞서서 소개한대로 보육과 교육이 통합된 체제로 운영되는 국가에서는 초등입학 전 마지막 해에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를 위해 특수한 1년짜리 교육과정을 만

27) Oxford Bibliographies. (n.d.).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Sweden. Retrieved October 7, 2022, from <https://www.oxfordbibliographies.com/view/document/obo-9780199756810/obo-9780199756810-0081.xml>

들기도 하였다. OECD Start Strong V 보고서에 따르면, 47개의 국가와 관할지역 중 의무 초등교육 한 해 전에 독립된 학급이나 집단을 조직하여 운영하는 지역이 23개(56%)이며, 이들 중 이를 의무로 운영 관리하는 지역은 11곳(48%)으로 나타났다(Shuey et al., 2019: 28).

가) 학교 건물 통합

초등학교와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의 물리적 연합은 학교 입학 전에 같은 학교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교직원과 학교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에 강점이 있다. 또한 교직원 간의 소통 증대로 아동 발달상에서 유초 연계가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Shuey et al., 2019: 34). 실제로 영유아 교육·보육과 초등 입학을 물리적으로 통합(같은 학교 건물을 사용)한 지역은 벨기에(플레미시 지역), 캐나다, 칠레(transition grade), 콜롬비아, 덴마크(kidertarten class), 그리스, 아일랜드(junior and senior infants), 이탈리아, 카자흐스탄(pre-primary classes), 룩셈부르크, 네덜란드(groep 1 and 2), 미국 뉴저지,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preschool class), 스위스, 터키, 영국 웨일즈가 있다(Shuey et al., 2019: 33).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과 초등학교 간에 같은 건물을 사용한다고 해서 커리큘럼 혹은 교사 자격 등이 동등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Shuey et al., 2019: 32).

나) 영유아 교육·보육과 초등 교육과정 통합

앞서 말한 부처 통합, 물리적 통합과는 또 다른 영역으로 교육과정 통합이 있다. 영유아 교육·보육 교육과정과 초등 교육과정 간의 연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ISCED02(pre-primary education)와 ISCED1(primary education)간에 1년간 통합 커리큘럼을 제안하는 국가들이 있다. 호주 빅토리아, 캐나다 뉴 브런스윅과 프린스, 에드워드 섬,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영국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미국 뉴저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Shuey et al., 2019: 41-42).

이러한 국가에서는 연령별로는 내용이 상이할 수는 있으나, 한 개의 문서에서 교육과정을 논의하고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의 테마, 목적, 관점 등을 반영하고 있다. 각 국가/관할지역별로 구체적 예와 연령 범위를 정리하면 <표 II-3-27>과 같다.

〈표 II-3-27〉 국가/관할지역별 영유아 교육·보육과 초등교육 통합 커리큘럼

국가	교육과정 이름	대상 연령
크로아티아	National Strategy for Science, Education and Sports	6개월-18세
이탈리아	National Curricular Guidelines for Preschool and for the First Cycle of Education	3-14세
룩셈부르크	Curriculum Framework for Pre-Primary and Primary Education	3-12세
	National Framework for Non-formal Education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0-12세
폴란드	Core Curriculum for Preschool and General Education in Individual Types of Schools	3-18세
영국 스코틀랜드	Curriculum for Excellence	3-18세
호주 빅토리아	Victorian Early Years Learning and Development Framework (VEYLDF)	0-8세

자료: Shuey et al. (2019). OECD Education Working Paper No. 193. Curriculum alignment and progression betwee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nd primary school. A brief review and case studies. OECD. p. 45. Table 2.6. 재구성.

다) 통합 사례

학교 건물 통합과 교육과정 통합이 모두 이루어진 곳으로 영국 웨일즈가 있다. 3-7세 대상으로 2015년에 수정된 Foundation Phase라는 하나의 교육과정 아래에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과 초등학교가 물리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학교 건물 통합과 관리 부처 통합의 예로는 덴마크 사례가 있다.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 학급이 초등학교에 물리적으로 함께 위치해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공통된 하나의 지역 부처가 권한을 가진다.

학교 건물은 통합되어 있으나, 교육과정이나 학교의 실제적 운영이 함께 운영되고 있지 않은 예로 슬로베니아가 있다. 슬로베니아에서는 학교 건물은 영유아 교육·보육기관과 초등학교가 함께 사용하지만, 2개의 구분된 교육과정으로 학제를 운영한다(Shuey et al., 2019: 34)

라) 시사점

영유아 교육·보육과 초등 교육 간의 연계를 위해 부처 통합, 물리적 통합, 교육

과정 통합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음을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부처와 거버넌스 통합은 궁극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지만, 전체적 구조를 바꾸기 때문에 실행이 쉽지 않다. 교육과정 통합 역시 국가 차원의 필요성과 협력 하에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현을 위해선 장기간 다양한 부문 합의를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 환경적인 적응을 높이는 방안으로 물리적 통합을 고려해볼 수 있다. 초등 입학 한해 전에 기존의 병설유치원을 활용하여 유초연계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적용시켜보는 것도 국외사례를 모델삼아 시도해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3) 서비스 통합, 지역사회 연계

학제 통합과 유초연계 외에도 돌봄과 교육, 가족과 관련된 서비스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 호주 센터링크

센터링크(Centrelink)는 호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Services Australia의 종합프로그램으로 호주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녀 양육, 거주지 관련, 노년, 일자리, 교육, 건강, 장애와 관련된 서비스 소개 및 연결, 이용비용 지원과 비용 납부 등을 돕는 호주의 대표적 돌봄 통합 지원 서비스라 할 수 있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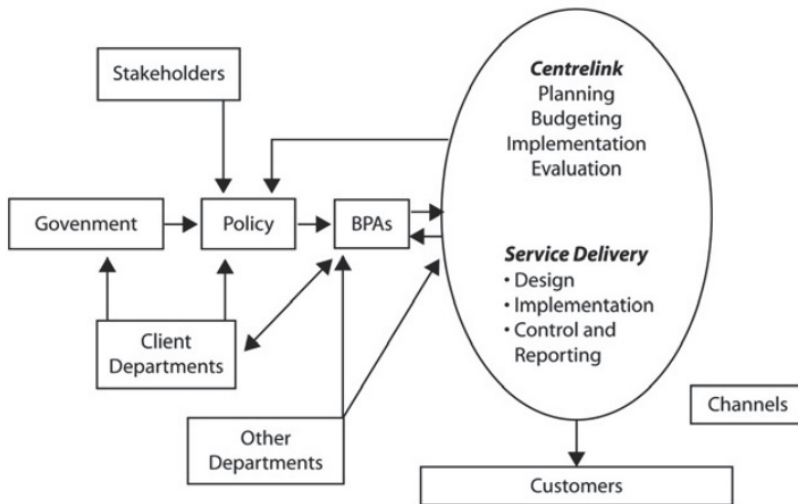
[그림 II-3-13]의 Centrelink business model을 살펴보면, 센터링크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예산을 계산, 시행 및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실제 서비스 이용자와 소통하는 기관이다. 또한 다양한 정부 부처의 서비스를 하나로 종합하여 안내할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을 한다.

가족 복지와 관련된 서비스 상담을 한군데서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센터링크의 장점이 크다.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는데, 출산 이전부터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가족 세금 혜택 등 'Parent Pack'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지원금 수급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안내한다. 이에 그치

28) Australian Government. Services Australia. (n.d.). Centrelink. Retrieved October 11, 2022, from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centrelink?context=1>

지 않고 자녀의 의료 혜택, 가능한 자녀 돌봄 시설 검토, 그 외에 필요한 지원을 한 번에 제공한다는 점에 큰 이점을 가진다.²⁹⁾

[그림 II-3-13] 호주 Centrelink business model



자료: Halligan, J. (2008). The Centrelink experiment: Innovation in service delivery. p. 58. Figure 3.1.

출생부터 영유아기는 주로 영유아 교육·보육 시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상담을 통해 가족 수입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센터링크에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Starting Blocks에서 지역사회의 가능한 영유아 기관의 자리와 비용을 알아보고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센터링크가 지역사회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과 긴밀히 연결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⁰⁾ 동시에 아동의 양육이나 기관이용을 돕는 금전적 지원(예: Family Tax Benefit (FTB), Parenting Payment, Child Care Subsidy(CCS)) 도 함께 안내받고 조건 충족

29) Australian Government. Services Australia. (n.d.). When your baby arrives. Retrieved October 11, 2022, from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when-your-baby-arrives?context=60001>

30)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 Care Quality Authority. (n.d.). StartingBlocks.gov.au. Your first step into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Retrieved October 11, 2022, from <https://www.startingblocks.gov.au/>

시 지원 가능하다.³¹⁾

센터링크의 또 다른 강점은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이혼이나 별거 등 부부간에 함께 자녀를 돌보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Life event 발생 시) 변화에 맞추어 자녀 양육 관련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센터링크의 온라인 계정에서 정보를 수정하고, 업데이트하는 과정 등을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아동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받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제공한다.³²⁾

1997년에 만들어져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호주의 센터링크 사례를 통해 국내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돌봄과 교육 간 부처 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이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센터/기관을 새로 마련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직접 정보를 얻고 신청과 비용 지불까지 가능한 체계가 마련된다면, 기존에 있던 정책의 활용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센터링크는 각 지역의 구청과 동사무소 등을 활용하여 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거나, 저점형 온라인 상담을 활성화할 수 있다. 서울시의 우리동네 보육반장과 다산콜센터를 혼합한 새로운 아동돌봄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센터링크 사례는 통합플랫폼 마련을 지지하는 사례이다. 복지로 생애주기별 지원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지만, 중앙정부 지원 정책 중심이고 지역사회 돌봄 체도를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신청/서비스 비용 지불과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센터링크의 역할을 하는 통합형 플랫폼을 마련하여 상담과 신청 및 관리를 한 곳에서 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4) 국·내외 중앙-지방정부 통합적 돌봄 운영 사례의 시사점

우리나라의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사업과 노력은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광역단위의 경우 지자체별로 자체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시의 경우 기초지자체(연수구)와 교육청, 마을공동체

31) Australian Government. Services Australia. (n.d.). Early education. Retrieved October 11, 2022, from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early-education?context=60007>

32) Australian Government. Services Australia. (n.d.). Separating. Retrieved October 11, 2022, from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help-when-youre-deciding-to-separate?context=60015>

와 주민의 참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인적구성과 예산 배분, 공간의 확보에 이르기까지 지역 기반의 통합적 운영기반을 보여주는 사례가 통합운영모델로서 우수하였다. 기초단위에서 서울시 도봉구의 경우 행정지원국 내에 교육지원과가 있으며 여기에 방과후돌봄이 별도 센터로 있다가 팀 내로 들어갔으며 해당 업무는 개방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 형태를 보였다. 전달체계의 핵심과 업무구성에 차이를 보이는 사례였다.

해의 사례의 경우, 보육과 교육의 통합적 운영(부처 통합, 교육과정 통합)과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통합 연계(유초연계), 서비스 통합과 지역사회 내 연계를 살펴봄으로써, 광의의 통합적 접근이 거버넌스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동기 통합적 돌봄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는 국가는 의무교육 체제에 기반한 경향이 있었으며, 이 경우 스웨덴과 같이 아동기 전반에 걸쳐 교육과 돌봄의 통합적 접근이 교사자격과 공간활용, 프로그램 구성에 이르기까지 연속성과 체계성이 확보되어 있었다. 미국은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화 된 국가로 알려져 있으나, 주 정부 차원에서 행정조직의 업무 진행은 상당히 통합적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주었으며, 호주의 링크센터는 수요자 이용의 관점에서 지역내 통합돌봄센터의 실행조직이 뒷받침되는 유용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다양한 층위와 내용 요소에서 이루어지는 아동돌봄의 통합적 접근은 개별 정책/사업 단위의 효율적 추진 외에 다양한 통합적 시도와 노력이 수요자 요구에 따라 연계 및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연결과 정보 제공의 실행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하겠다.

4. 통합 돌봄 플랫폼 운영 현황

플랫폼이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서비스 검색과 대기, 신청 및 이용,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 기능이 탑재된 것을 의미한다. 플랫폼과 포털, 사이트, 온라인 결제창구 등의 명확한 범위와 범주를 파악 또는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돌봄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돌봄공백의 발생과 단절 및 정보의 비대칭과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수요자 관점의 통합적 운영의 출발점은 돌봄서비스에 관한 통합 정보의 제공으로 논의된다. 다양한 형태의 돌봄서비스 이용에 관

한 플랫폼 운영이 공적-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각기 다른 정보의 수준과 내용 범위, 이용가능한 서비스 검색과 대기, 신청 및 매칭, 결제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돌봄 플랫폼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전반을 아우르는 정부24 통합플랫폼에서부터, 개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관한 웹 기반의 신청시스템, 어린이집·유치원 검색과 대기 신청, 민간영역의 돌봄서비스 매칭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아동돌봄의 통합 플랫폼 구축 시 고려 및 연계 가능한 범위, 플랫폼에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능, 기존 민간영역에서 구축된 플랫폼과의 관계 등 유의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정부24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정부24는 그 전까지 정부서비스가 각 기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별 개별사이트에서 분산 제공됨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서비스 통합 및 연계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에 구축되어 제공되기 시작하였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7. 7. 26). 정부24는 광범위한 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8. 6. 21), 홈페이지를 통해 영유아와 아동청소년 등 생애별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8. 7. 3). 현재 정부24에서는 다양한 돌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는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의 목록은 다음 <표 II-4-1>과 같다.

<표 II-4-1> 정부24-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제공 목록

구분	항목	서비스 내용
원스톱 서비스	맘편한 임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맘편한 임신서비스 지원, 상담 및 교육
	행복출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지역별 출산지원 서비스 안내, 다자녀 지원 서비스 안내
	온종일 돌봄	온종일 돌봄 시설 서비스 신청
	꿈청소년	청소년 상담, 청소년 지원서비스 등
	전입신고	전입신고 및 공공요금감면 통합처리 신청
	안심상속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취업서류	취업서류 일괄제출 서비스
생애주기별 서비스	영유아	임산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가정 양육수당 지원 온라인 신청, 아동수당 등

구분	항목	서비스 내용
	아동청소년	초등돌봄교실, 아이돌봄 서비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지원 등 정보 제공
	청년	구직급여, 채용정보 검색 등 정보 제공
	중장년	구직급여, 채용정보 검색 등 정보 제공
	어르신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등 정보 제공
꾸러미 서비스	보금자리, 가족안전, 안심식탁, 동네할인, 반려동물, 해외여행, 재기지원, 귀촌준비, 퇴직후 생활, 나라지킴 등 관련 정보 제공	

자료: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transferReport>(2022. 6. 28, 인출).

특히 정부는 2019년에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제공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는데, 본 계획을 통해 4가지 돌봄 서비스인 ①교육부 운영 ‘초등돌봄교실’, ②보건복지부 운영 ‘다함께돌봄’, ③‘지역아동센터’, ④여성가족부 운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기 시작했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9. 11. 11). 실제로는 정부24를 통해 2020년 6월 말부터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제공되었고(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0. 6. 30), 2021년부터는 초등돌봄교실 서비스에 대하여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1. 1. 20).

‘온종일 돌봄 원스톱서비스’는 정부24에서 바로 찾을 수 있는데, 이용자들은 지역별·서비스별 상세검색과 지도보기를 통해 시설별 위치, 현장사진, 프로그램, 모집 현황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희망하는 서비스를 1, 2, 3지망까지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0. 6. 30).

[그림 II-4-1] 정부24 온종일 돌봄 원스톱서비스 신청 과정

1. 정부24 온종일 돌봄 원스톱서비스 신청 화면

〈정부24 메인화면〉	〈돌봄시설 검색〉	〈시설 상세조회〉

2. 정부24 온종일 돌봄 원스톱서비스 신청 서식

〈수혜자 선택〉	〈시설 선택〉	〈확인 및 신청〉

3. 정부24 온종일 돌봄 원스톱서비스 신청 결과

〈신청 및 처리 절차〉	〈정부24 My Gov〉	〈신청인 SMS 발송〉
		[Web발신] [정부24] ***님 ** 아동센터에 승인 되었습니다. [Web발신] [정부24] ***님 ** 아카데미에 입소 대기 처리 되었습니다. 5월 18일 (월) 오후 4:08 [Web발신] [정부24] ***님 ** 돌봄교실에 입소 마승인 처리 되었습니다.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0. 6. 30).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이제 찾아가지 말고 「정부24」로 바로 신청하세요!

2)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임신, 출산, 육아, 어린이집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연동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a, 2022. 6. 28, 인출). 처음 해당 사이트는 어린이집 이용 부모를 대상으로 보육료 납부 등의 단순한 서비스만 제공하였지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 5. 29, 인출), ‘아이사랑 보육포털’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전국 보육정보센터(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콘텐츠, IT 자원 통합 등을 통해 보육정보 채널을 일원화하여 어린이집 이용서비스, 맞춤형 육아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0. 6. 17). 이후 아이사랑 보육포털은 2015년 8월에 기존 보육정보 누리집이었던 ‘아가사랑’과 ‘마음터하기’ 누리집을 통합하면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이 종합포털에서는 아이를 임신하고 양육하며 어린이집에 보내기까지 부모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 5. 29, 인출). 현재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 및 서비스 목록은 다음 <표 II-4-2>와 같다.

<표 II-4-2>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서비스 제공 목록

구분	정보 및 서비스 내용
임신	임신계획, 임신 중 잘 지내기, 고위험임신, 유산, 난임, 임신 상담, 근로자 지원제도, 임신부 신고
출산	출산준비, 출산징후, 분만, 산후관리, 출산예정일, 출산 상담, 근로자 지원제도, 출산지원금
육아	함께하는 양육, 월령별 성장 및 돌보기, 병(의)원찾기, 육아상담, 근로자 지원제도, 장애아 육아
어린이집	어린이집찾기, 입소대기, 국민행복카드, 보육료결제, 시간제보육사업, 우리아이 건강관리, 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 센터, 보육교직원, 지역개방 직장어린이집, 직장입소모집공고, 민간업체공개현황, 연장반어린이집, 어린이집 이용 신청
상담실	상담 안내, 임신 상담, 출산 상담, 육아 상담, 심리정책상담, 상담 예약, 어린이집 이용 상담, 시스템 이용 문의

자료: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a, <https://www.childcare.go.kr>(2022. 6. 28, 인출).

특히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은 현재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을 찾을 수 있는데, 지역, 어린이집 유형, 특성(일반,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등), 공공형 여부, 평가 인증 관련 정보 등 원하는 옵션을 설정하여 아이에게 맞는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다(그림 II-4-2 참조).

[그림 II-4-2]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내 어린이집 찾기 서비스

시/도 시/군/구 지번/도로명 전체
 유형 특성 공공형 평가정보
 운영반 연장반 운영여부
 어린이집명

* 사고 발생·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운영 중지 또는 폐쇄된 어린이집의 경우 검색 결과에서 제외됩니다. <위반사실의 공표 바로가기>

Q 총 32 개가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어린이집	분류	평가정보	정원	현원	연장반	위치(지도)
1	가회어린이집	국공립 야간연장	A	49	34	Y	
2	경희궁솔빛어린이집	국공립 야간연장	A	45	43	Y	
3	경희궁자이어린이집	국공립 야간연장	A	65	49	Y	
4	경희궁초록어린이집	국공립 야간연장	A	23	19	Y	

자료: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a, <https://www.childcare.go.kr>(접속 후 '어린이집'-'어린이집 찾기' 메뉴로 접속하여 특정 지역을 설정하여 어린이집을 검색한 결과임, 2022. 6. 28, 인출)

또한 본 사이트를 활용하여 이용자들은 어린이집 입소대기를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본 플랫폼을 통해 정해진 규정(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입소 아동 범위 등)에 따라 이용자는 아동의 어린이집의 입소 신청을 진행하고, 어린이집 원장 등 운영자 측은 입소대기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 명단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

[그림 II-4-3]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내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련 절차



자료: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b, <https://www.childcare.go.kr/cpin/contents/040201000000.jsp>(2022. 6. 28, 인출).

또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 심리 및 정책, 어린이집 이용 등의 상담을 제공하는데, 온라인 상담에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c, 2022. 6. 28, 인출). 전문가 상담 위원은 유아교육학, 아동복지학 등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자인 육아상담위원과 국제 모유수유전문가 자격을 가진 모유수유상담위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c, 2022. 6. 28, 인출). 상담 분야 및 내용은 다음 <표 II-4-3>과 같다.

<표 II-4-3>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상담 서비스 목록

구분	내용	세부 상담 서비스 내용
임신 분야	산부인과	성건강(피임, 월경, 성매개감염병, 임신중절 관련 합병증 등) 산부인과(계획임신, 임신중, 출산전후 등)
출산 분야	모유수유	모유수유방법/모유수유문제
	산전후우울증	임신, 출산, 육아 기간 중 우울증
육아 분야	육아	영유아 행동심리/영유아 양육방법
	소아청소년과	영유아 일반(성장발달, 영유아 건강문제),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아, 영유아 청력
	영유아눈건강	취학전 아동의 주요 눈질환(굴절이상, 약시 등) /그 외 취학 전 아동의 눈 관련 모든 의료적 사항
심리 및 정책 분야	성건강, 임신, 출산, 육아, 심리 정책	심리(성건강, 영유아눈건강, 임신출산육아 관련 갈등 및 스트레스 등 정서적 문제) 정책(성건강, 영유아눈건강,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부(시·군·구)정책정보 및 전문 기관연계)

자료: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c, <https://www.childcare.go.kr/cpin/contents/060100000000.jsp>(2022. 6. 28, 인출).

3) 경기도 워라밸 링크 - 아동돌봄 정보 제공

경기도 워라밸링크는 「2018년 경기도 일·생활 균형지원모델 개발」 연구에서 제시된 일·생활 균형 지원 모델을 토대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의 일·생활 균형지원 플랫폼이다(이나련·황나리, 2021: 29). 경기도 워라밸링크에서는 경기도민의 일·생활 균형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인생 6대 영역(가족, 건강, 여가, 관계, 직업, 재무)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도 및 시·군의 워라밸 정책정보와 지역별 아동돌봄기관정보, 분야별 온라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경기도 워라밸링크

홈페이지a, 2022. 6. 29, 인출). 경기도 워라밸링크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정보는 다음 <표 II-4-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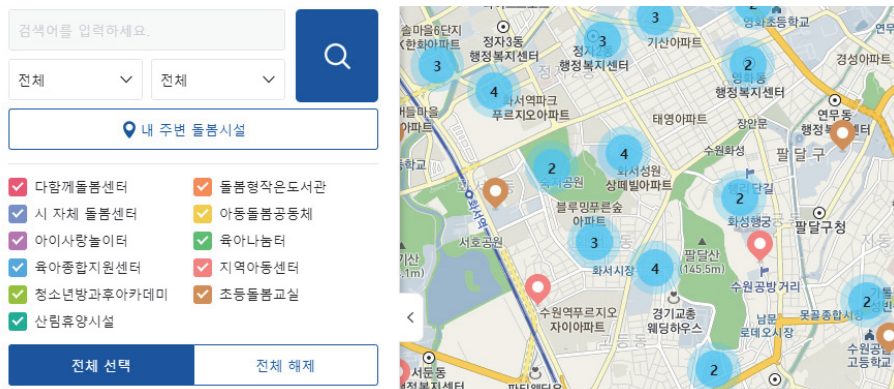
<표 II-4-4> 경기 워라밸 링크 제공 서비스 목록

영역	분류
가족과 건강	가사·돌봄, 자녀교육, 가족친화, 건강정보, 생활정보, 정책·공고
여가와 관계	문화·예술·관광, 워라밸 교육, 워라밸 활동, 봉사, 정책·공고
직업과 재무	직업교육, 재직지원, 금융·재테크, 부동산, 정책·공고

자료: 이나련·황나리(2021). 경기도워라밸링크 이용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p. 30.

특히 경기도 워라밸링크는 자녀 돌봄과 관련하여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지역별 아동돌봄기관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동돌봄시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돌봄지도’를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있다(이나련·황나리, 2021: 30). 이용자가 지역, 돌봄기관, 자녀 연령 등을 선택하면 기관 리스트가 제공되고, 필요한 기관을 선택하면 온라인 신청페이지와 연계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이나련·황나리, 2021: 30).

[그림 II-4-4] 경기도 워라밸링크 아동돌봄지도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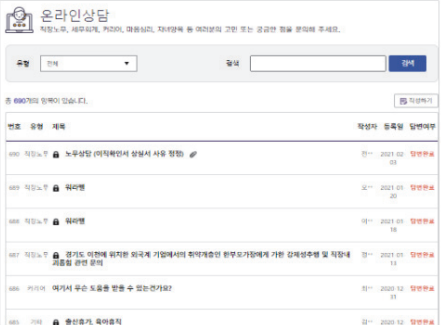
자료: 경기도 워라밸링크 홈페이지b, <https://13b.gg.go.kr/caremap/>(2022. 6. 29, 인출)

경기도 워라밸링크에서는 또한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 뿐 아니라 이용자와의 소통공간을 마련해두고 있으며, 해당 페이지에서는 개인의 일·생활 균형 증진을 위해 직장노무, 세무회계, 커리어, 마음심리, 자녀양육 등과 관련한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여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이나련·황나리, 2021: 31). 직장노무 및 고충 지원에 대해서는 노무사 등이, 마음과 심리지원 상담에서는 컨설턴트 및 카운슬러 등이, 자녀양육 및 관계지원에 있어서는 각종 코칭 전문가가, 커리어와 경력개발 커리어 관련 기관들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경기도 워라밸링크 홈페이지c, 2022. 6. 29,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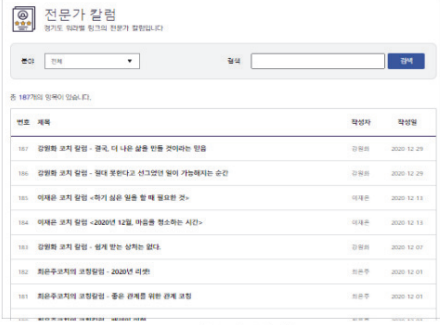
[그림 II-4-5] 경기도 워라밸링크 이용자 참여 콘텐츠



▲ 이용자 소통공간(점선 네도박스)



▲ 온라인 상담



▲ 전문가 칼럼



▲ 정보나눔

자료: 이나련·황나리(2021). 경기도워라밸링크 이용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p. 32.

4)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직장맘 든든맵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을 다니거나 생활하는 직장맘과 직장대디를 지원하기 위해 개소된 기관이다(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2019: 6). 현재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5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서울시 내에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의 3개 기관이 설립되어 있다(서울특별시 홈페이지, 2022. 6. 30, 인출). 해당 기관에서는 직장을 다니는 부모를 위해 서울시의 정책, 생활, 문화, 의료 등의 정보를 제시한 안내서인 ‘직장맘든든맵’을 배포하고 있다(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 2022. 6. 30, 인출). 직장맘든든맵은 책자로 제작된 후 스마트서울맵 앱으로도 구축되어 온라인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었다(연합뉴스, 2018. 5. 29, 보도). 현재 스마트서울맵에서는 다음 [그림 II-4-6]과 같이 교육지원정책, 긴급의료기관(야간24시), 놀이체육시설, 도서관/장난감대여, 돌봄/보육, 문화센터/커뮤니티, 박물관/도서관, 생활서비스/반찬가게, 아동발달심리상담, 아이키움센터, 어린이집/유치원, 여성병원/산부인과, 지역아동센터, 혁신파크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스마트서울맵 홈페이지, 2022. 6. 30, 인출), 세부 지역 설정 후 아이콘을 클릭하면 각 기관의 전화번호, 홈페이지,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4-6] 스마트서울맵 홈페이지 화면: 아동돌봄 관련 정보 제공



자료: 스마트 서울맵 홈페이지, [https://map.seoul.go.kr/smgis2/themeMapCopy?mode=themeMapCopy&tm_theme_id=100957&map_type=1&xpoint=126.93265177493501&ypoint=37.5898691897176&level=7&oldmap=&tp=0.7&maptile=BASEMAP_GEN&order=0&utid=%C2%A9_mode=theme\(2022. 6. 3 0, 인출\).](https://map.seoul.go.kr/smgis2/themeMapCopy?mode=themeMapCopy&tm_theme_id=100957&map_type=1&xpoint=126.93265177493501&ypoint=37.5898691897176&level=7&oldmap=&tp=0.7&maptile=BASEMAP_GEN&order=0&utid=%C2%A9_mode=theme(2022. 6. 3 0, 인출).)

5)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웹 사이트/어플리케이션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전까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였지만, 2013년 10월부터 복지로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3. 10. 7). 2016년 11월부터는 ‘아이돌봄 서비스 모바일 웹’이 개발되어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해당 모바일 웹을 통해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찾기, 센터전화 바로 걸기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6. 11. 9). 그러나 아이돌봄서비스의 웹 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장기 대기 등 불편사항이 발생하자 2020년부터는 ‘아이돌봄 통합업무관리시스템’ 구축되어 운영을 시작하였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 12. 24). 해당 시스템에서는 대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사이 일시(당일) 연계 기능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아이돌보미 기본 정보를 제공하며 서비스 평가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 12. 24). 또한 ‘아이돌봄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은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를 통해 이용자 뿐 아니라 아이돌보미들도 본 앱을 통해 활동일지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 12. 24).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 비용에 있어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다’형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을 받은 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라’형의 경우는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1b: 13). 절차를 통해 정부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나면 다양한 서비스(정기이용 신청/일시연계 신청/질병감염아동지원 신청)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a, 2022. 6. 29, 인출). 아이돌봄서비스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 신청시 세부 화면은 다음 [그림 II-4-7]과 같다.

[그림 II-4-7] 아이돌봄서비스 모바일 앱 서비스 신청 화면



자료: 여성가족부 유튜브(2020. 7. 15). [아이돌봄서비스] 앱 사용법 간단정리 | 이용자 편(<https://www.youtube.com/watch?v=x1f0dWQVwW4&t=128s>, 2022. 6. 29, 갈무리)

6) 민간육아도우미 서비스 매칭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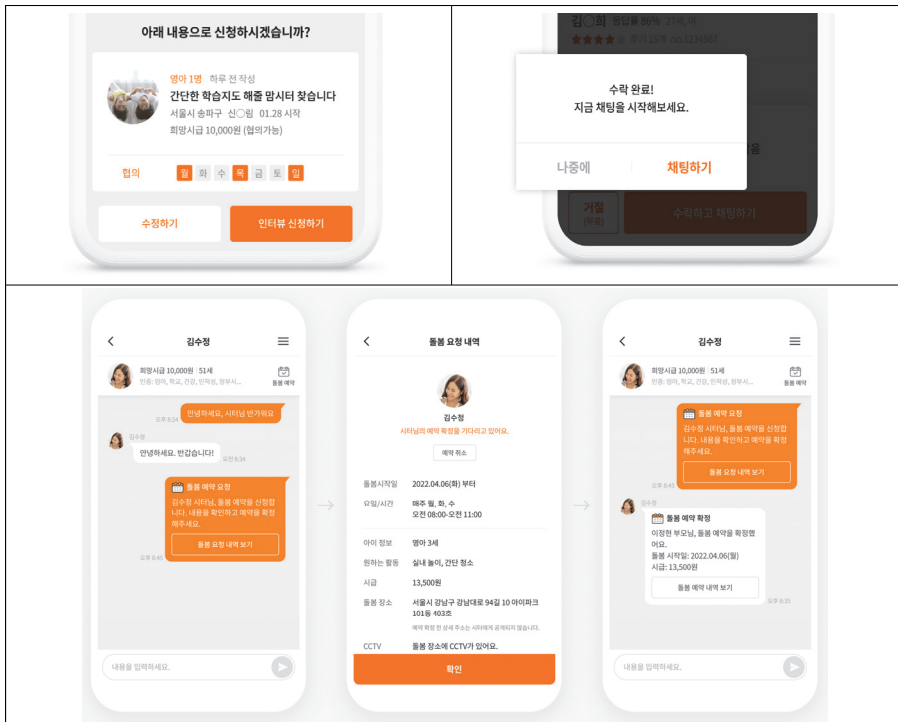
일찍이 민간육아도우미 서비스 업체에서는 민간육아도우미와 육아도우미를 원하는 수요자를 매칭해주기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여 서비스에 활용하여 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민간육아도우미 서비스 업체 중 ‘맘시터’와 ‘째깍악어’를 통해 민간육아도우미 서비스 매칭 플랫폼의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맘시터

맘시터 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바쁜 부모들이 아이돌보미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로, 수수료 없이 수요자의 조건에 맞는 시터를 자동으로 추천받거나 편하게 지원받는 서비스이다(맘시터 홈페이지a, 2022. 6. 30, 인출). 2016년 9월,

첫 서비스를 시작한 맘시터는 아이 돌봄이 필요한 부모를 돌보미와 연결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아이돌봄 연결 플랫폼(거래터)으로, 2022년 3월 기준 누적 회원 수 100만여 명(부모 35만여 명, 돌보미 65만여 명)을 돌파하며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정책주간지 공감, 2022. 3. 14). 해당 업체에 가입된 시터들은 19세 이상 내국인이며, 모두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인증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맘시터 홈페이지a, 2022. 6. 30, 인출). 맘시터 플랫폼을 통하여 시터를 찾는 화면은 다음 [그림 II-4-8]과 같다.

[그림 II-4-8] 맘시터 플랫폼을 통한 돌봄 신청 화면



- 자료: 1) 맘시터 홈페이지b, <https://mom-sitter.zendesk.com/hc/ko/articles/900002231546--%EB%B6%80%EB%AA%A8%ED%9A%8C%EC%9B%90-%EA%B0%80%EC%9D%B4%EB%93%9C-%EC%B9%9C%ED%84%B0%EB%8B%98%EC%97%90%EA%B2%8C-%EC%A7%81%EC%A0%91-%EC%9D%B8%ED%84%B0%EB%B7%B0-%EC%8B%A0%EC%B2%AD%ED%95%98%EA%B8%B0-%EB%B0%9B%EC%9D%80-%EC%9D%B8%ED%84%B0%EB%B7%B0-%EC%A7%80%EC%9B%90%EC%97%90-%EC%88%98%EB%9D%BD-%ED%95%98%EA%B8%B0>(2022. 6. 30, 인출).
 2) 맘시터 홈페이지c, <https://mom-sitter.zendesk.com/hc/ko/articles/900002226983--%EB%B6%80%EB%AA%A8%ED%9A%8C%EC%9B%90-%EA%B0%80%EC%9D%B4%EB%93%9C-%EC%B1%84%EC%9A%A9-%EB%B0%8F-%EB%8F%8C%EB%B4%84-%EC%98%88%EC%95%BD-%EC%8B%A0%EC%B2%AD%ED%95%98%EA%B8%B0>(2022. 6. 30, 인출).

아이 돌봄을 원하는 수요자가 플랫폼을 통해 직접 ‘맘시터 찾기’를 통해 시터를 검색하고, 시터의 자기 소개, 활동 지역, 나이, 일정 등을 확인 후 인터뷰를 신청하게 된다(맘시터 홈페이지b, 2022. 6. 30, 인출). 플랫폼 내 채팅을 통해 인터뷰 완료 후 돌봄 예약을 신청하여 채용을 확정하게 되는데, 돌봄 예약이 확정되면 시터와 이용자 간 돌봄 예약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돌봄 시작일 전날에 사전 알림을 플랫폼에서 보내주기도 한다(맘시터 홈페이지c, 2022. 6. 30, 인출).

나) 째깍악어

째깍악어는 빠르고 원하는 조건을 필터링하여 시터를 찾는 맘시터와는 다른 전략으로 엄격한 시터 선발 과정을 내세워 안심할 수 있는 ‘돌봄 선생님 매칭 앱 서비스’이다(서울경제, 2018. 9. 15, 보도). 째깍악어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놀이, 학습, 등하원 및 이동, 창의미술, 영어까지 양육자의 필요에 맞는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째깍악어 블로그, 2022. 6. 30, 인출). 현재 째깍악어 앱에서는 수천명의 돌봄교사 프로필과 댓글이 있는데, 여기서 특정 교사를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부를 수 있다(매일경제, 2022. 6. 7, 보도). 째깍악어는 최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방문 선생님 매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에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및 메타버스 기술 적용까지 추진하고 있다(전자신문, 2021. 8. 1, 보도).

째깍악어는 맘시터와 마찬가지로 2016년에 설립되었으며, 이 시기에 미국 노동 공유 온라인 플랫폼이 크게 유행함에 따라 벤치마킹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매일경제, 2022. 6. 7, 보도). 2022년 6월 현재, 돌봄교사 회원 수는 약 10만명(현재 활동 인원은 8천여명)이고 부모 회원 수는 약 22만명 정도이다(매일경제, 2022. 6. 7, 보도).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은 다음 [그림 II-4-9]와 같다.

[그림 II-4-9] 짹짹어 플랫폼 신청 화면

첫번째, 우리 아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우리 아이의 정보와 성향을 설정해 주세요.
다자녀일 경우도 걱정마세요!
TIP 현재저축, 친구와 함께 통학할 경우 시간당 5,000원이며, 한비미용 수업은 재료가 포함되어 10,000원이에요.

두번째, 선생님이 어디로 방문하면 될까요?
돌봄이 필요한 우리집, 학원, 학교 후문 등 여러 장소를 등록해 놓고 편하게 신청해요!

세번째, 선생님이 언제 방문하면 될까요?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365일 연중 무휴! 아이돌봄은 쉼이 없으니깐요.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편하게 선택 할 수 있어요.
TIP 오늘 돌봄이 필요하세요?
간접돌봄비 1만원이 추가되어 약어선생님과 매칭률이 높아져요.

네번째,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놀이부터 배움까지!
놀이부터 배움까지! 약어선생님과 함께 보낼 우리 아이 하루 동안 무엇을 할지 최대 2개를 선택해 주세요!
시간 설정
놀이와 창의미술을 얼마동안 하고 싶으세요?
유형당 최소 1시간 이상, 30분 단위로 지정 가능합니다.
놀이: 2시간, 학습: 1시간
16,000(2)+20,000(1) 52,000원

다섯번째, 원하는 선생님을 선택해 주세요!
지원을 받아 마음에 드는 선생님을 선택하거나 직접 원하는 선생님들에게 요청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매칭 방식
지원한 선생님을 통 마음에 드는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선생님의 지원을 받을래요
부모님이 직접 원하는 선생님들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제가 선생님을 고를게요

이제, 약어선생님 신청 완료!
신청한 정보가 맞는지 꼼꼼히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
확정 후 선생님 방문 2일 전 결제 진행돼요!
돌봄 신청 정보 확인
아이 정보: 김민준 (남, 5세), 약어: 김민준 (남, 5세), 놀이: 2시간, 학습: 1시간
돌봄 장소: 우리집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1 제1국민체육센터 인근 1234동)
돌봄 날짜: 서울 (2022. 06. 30)
돌봄 시간: 09:00 ~ 10:00 (2시간)
돌봄 유형: 정기돌봄 (2주 이상) / 일회성돌봄 (1회)
신청 완료
신청 완료 후 약 2시간 내 약어선생님에게 매칭됩니다.
신청한 선생님은 2시간 후 확인하세요.

자료: 짹짹어 홈페이지, <https://parent.tictocroc.com/application> (2022. 6. 30, 인출).

7) 기타 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 사례

이밖에도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통합돌봄 플랫폼의 사례는 다양하며, 고유한 콘텐츠와 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있다. 지역별로 관내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기초 지자체 및 교육청·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통합 정보의 제공과 서비스 공급과 이용에 대한 연계·협력의 노력이 가시화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4-5〉 지방자치단체 통합 돌봄 플랫폼 구축 시도 사례(경기 시흥시, 대전, 서울)

구분	플랫폼명	내용	통합 돌봄 관점 의의
경기	시흥시	시흥시 초등돌봄 서비스 포털 (https://childfirst.siheung.go.kr) - '쉽고 빠른 원클릭 초등돌봄 서비스' 표방 - 아이누리 돌봄센터/나눔터, 학교돌봄터,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 교실, 아이돌봄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 등 관내 모든 돌봄관련 서비스 정보 제공 - 돌봄서비스 지도 제공(행정구역/서비스/대상연령별 통합 검색 옵션 제공) - 1:1문의 서비스 제공	- 행정구역/돌봄서비스 유형/연령별 맞춤형 정보 제공
대전	대전형 아이돌봄 통합정보 플랫폼, 다함께돌봄원스톱통합지원센터 (https://www.daejeoni.or.kr/dolbom)	- 대전형 아이돌봄 통합정보 플랫폼: 돌봄기관검색 및 돌봄 맵 제공(놀이·체험·위급상황) - 다함께돌봄원스톱통합지원센터: 돌봄활동가 양성, 돌봄공동체 운영 지원(손·오·공 돌봄공동체/공동육아나눔터/거점온돌방/화상회의시스템 제공) - 센터지원 프로그램 소개	- 돌봄기관정보 및 관련 프로그램 통합 제공
서울	우리동네키움포털 (https://icare.seoul.go.kr/icare)	-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방, 아이돌봄서비스, 서울형키즈카페, 우리동네보육반장, 방과후 아카데미, 초등돌봄교실 정보 통합 제공 - 모바일 플랫폼 제공 - 서비스 예약 통합 제공	- 우리동네보육반장을 통해 커뮤니티 케어 및 육아정보자조품앗이 제공의 장 마련

자료: 경기 시흥 사례: 시흥시 초등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https://childfirst.siheung.go.kr>(2022. 6. 7, 인출)
 대전 사례: 대전아이돌봄센터 홈페이지, <https://www.daejeoni.or.kr/dolbom/main.do;jsessionid=68B340F6E4DCCF048A4DE2F711EE3603>(2022. 6. 7, 인출)
 서울 사례: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22).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p. 108 / 우리동네키움 포털 홈페이지b, <https://icare.seoul.go.kr/icare/index.do>(2022. 6. 3, 인출)

5. 아동돌봄 서비스의 쟁점과 과제

앞서 육아지원 및 아동돌봄 전반의 정책 현황과 과제 및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을 위해 필요한 개선과제로서, 선행연구 및 본 연구에서 파악한 현행 돌봄서비스 정책/사업의 쟁점과 과제를 아동의 연령주기를 고려하여 정리하였다.

1) 돌봄서비스 이용 관련 쟁점 고찰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돌봄 정책과 서비스 운영에 관한 쟁점 사항을 고찰함으로써, 이후 진행하는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이용의 접근성과 연속성 분석의 주요 논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유아기에는 포털 등을 통해 이용가능한 서비스 기관들을 알 수 있는 경로가 있고, 기관대기, 입소 등이 가능하며 바우처 지원체제와 카드 발급으로 이용까지 한번에 가능한 것에 비해, 초등 방과후돌봄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취학 전-후의 통합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현재 정부24로는 부족), 연초 수요조사 이후에도 부모의 변경된 취업상태와 수요에 따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신청-대기-이용의 시스템 대응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정보탐색에서부터 비용지원까지 연결되어 수요자의 정보 비대칭 해소와 접근성의 제고를 담을 필요가 있다. 또한 영유아기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중심으로 교육·돌봄 서비스의 제공이 접근성과 보편적 토대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아이돌봄서비스 및 지역사회 가정양육 지원서비스(예: 공동육아나눔터, 육아공동체 등)와의 현장의 통합적 연계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초등학교령기 이상의 경우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연계협력의 어려움에 대한 쟁점이 남아있다.

아동 출생 직후의 신생아돌봄까지 살펴볼 경우, ‘산후조리’에서부터 ‘신생아(예방접종) 돌봄’과 ‘건강관리’에 이르기까지 ‘정보’와 ‘비용지원’의 체계에서 정책적으로 집중된 신생아기/영아기 지원과 투자에 비해 가용한 서비스의 정보와 접근성 등의 측면에서 인력/질 관리의 공백과 행·재정 지원의 비효율 등이 있다.

아동 돌봄 서비스 운영의 통합과 연계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어떻게 논의했는지, 어떠한 쟁점과 정책적 제안이 있었는지 취학 전-후로 구분하여 국내연구를 중심으로 우선 살펴보았다.

가) 취학전 - 신생아/영유아기

생애초기 신생아 돌봄과 관련하여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의 아동학대 발생 사건에 따라 산후도우미 자격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쟁점이 부각되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라는 지칭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의 관리와 견주어 공공서비스로서의 서비스 제

공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정부에서는 비용만 지원하고 있을 뿐 어떠한 공적 개입도 하고 있지 않아 산후도우미의 자격과 질 관리의 문제에 대한 제도적 공백과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이 있다. 출산 이후 첫 지원체계로서의 산후돌봄의 공적 서비스로서 적정수준의 개입과 관리체계가 필요하며(김아름, 2020), 이는 영아기 서비스 이용 및 지원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하여(2016년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실태조사에서 산모의 75.1%가 이용), 민간차원의 영리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경우가 대다수로 지역 간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과 서비스 내용의 격차가 커 출생 직후 산모와 아동에 대한 돌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기본서비스를 범주화하고 서비스 내용을 구체화하여,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해야 하는 표준서비스의 기준을 마련하였다(이정림·이재화·조미라·박여정, 2021: 5). 아동 출생 직후 영아기 집중투자자로 아동수당과 영아수당, 부모급여(예정) 등으로 현금 지원과 육아휴직의 사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생애 첫 돌봄서비스로서의 산후조리와 신생아돌봄에 대한 제도적 설계에 대해 다른 생애주기의 돌봄정책과 견주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취학전 영유아기 교육·보육·돌봄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관점은 다수의 국·내외 연구에서 이루어진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다. 대표적으로 OECD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통합적 접근(integration)과, 취학 전-후 ‘유초연계’와 ‘전이’(transition from ECEC to primary education)에 대한 논의가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통합 논의가 시작되어 육아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으며(예: 이옥 외, 2006; 김은설 외, 2011; 최윤경 외, 2011), 박근혜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여 국무조정실 산하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을 구성하여 3단계의 통합 실행 로드맵에 대한 13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1단계의 결제카드, 기관 정보, 평가 지표의 통합이 추진되었으며, 통합 로드맵 2단계의 3-5세 누리과정(공통과정, 보육료·교육비 지원)에 대한 통합이 이루어졌다. 2단계의 교사통합과 이어지는 3단계 행·재정 통합에 대한 논의와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계획된 기간 내에 다음

단계/요소로의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보격차 완화와 초등 방과후돌봄의 온종일돌봄체계와 사회서비스원의 전달체계 구축으로 국정과제의 수행이 이루어짐에 따라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인프라가 보강되었으나, 유초연계와 유보통합의 접근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다.

저출생으로 인한 아동 수의 감소가 빠른 속도로 가시화 되는 인구 위기의 상황에서, 인구특성에 따른 지역별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유아인구가 희소한 농어촌 지역의 보육·교육 서비스 시설의 접근성, 질적 수준의 보장, 지리적 환경으로 인한 산발적 주거지역 등의 물리적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이 추진되고 있다. 인구감소로 영유아인구가 적은 농어촌지역의 보육·교육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단독형, 혼합형, 거점형, 통합형의 4개 유형으로 마련되어, 운영관리, 교직원, 프로그램 관리, 부모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의 4개분야로 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양미선 외, 2021b).

나) 취학이후- 아동 초등학령기

이 절에서는 아동기(초등학령기)의 돌봄과 교육 연계에 대한 선행연구(2017~2022년 연구)를 중심으로 기존연구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초등입학 전후 혹은 초등학생 시기의 돌봄서비스 이용에서 언급된 주제와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전 연구에서 제안된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이 장에서 분석하는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의 접근성과 연속성에 대한 분석의 쟁점을 참조하고자 한다. 정규 교육시간 이전/이후에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연계에 대한 연구는 초등 입학 시기(초등 전이 발생 시기)에 집중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학교돌봄(예: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과 지역사회 돌봄의 연계협력(다함께 돌봄, 지역아동센터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경향을 보였다.

(1) ‘돌봄’ 정의에 대한 합의 미흡

기존의 초등돌봄 관련 연구에서는 근본적으로 ‘돌봄’의 정의에 대한 의견이 다양한 점 때문에 돌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보기 어렵다고 보고한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돌봄이 교육과 복지의 영역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돌봄의 주체(예: 학교, 마을, 지자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돌봄이 필요한 연령은 어디까지 인지 등 돌봄에

대한 개념과 범위가 다양하게 존재한다(이희연·권택환, 2021: 1). 돌봄의 정의와 범위에 따라 돌봄서비스의 적정기준(시설/환경, 프로그램, 담당인력 조건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통의 합의가 중요한데(장명림 외, 2018: 7), 각 지자체별, 아동 연령별로 돌봄에 대한 개념이 상이한 점이 돌봄서비스의 통합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 학교 연계 돌봄 서비스의 한계 존재

(가) 학교 연계 돌봄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실제

초등학교 입학 후에 기관 정규 시간이 줄어들면서 방과후의 돌봄 이슈가 새롭게 대두된다. 특히, 초등입학 시기는 다른 연령대보다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때로 일부 부모들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학교 연계 돌봄 서비스인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이용하기도 한다(이재희·김근진·엄지원, 2017: 138). 이러한 서비스의 핵심은 돌봄 공백 발생 기간 동안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인데(김영란 외, 2018: 121), 돌봄 공백은 주중/방학중에 주로 발생하고 자녀 연령이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맞벌이 가구일수록 돌봄 공백이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김영란 외, 2018: 120). 부모들은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물리적 안전(예: 안전한 이동 지원, 주변 환경 안전성 등), 서비스 접근성(예: 방학/주중 이용 시간, 무제한 이용 등) 질적 돌봄(예: 돌봄 교사의 관심, 교사자격 요건) 차원을 고려하길 기대한다(김영란 외, 2018: 121).

2018년 영유아 가구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 어떠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지 수요를 조사한 결과, ‘학원 등 사교육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가 36.7%로 가장 높게 보고되었으며, 뒤이어 30.3%의 응답자가 방과후교실을 이용하기를 희망하였다(이정원·이정림·김태우, 2018: 166). 맞벌이 가구는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향(21.7%)이 외벌이 가구(12.6%)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는 42.7%가 공적서비스보다는 사교육 시설을 더욱 선호한다는 점에서 공적 돌봄 서비스의 불충분을 반영한다(이정원 외, 2018: 167, 169). 2020년 KICCE 소비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실제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 비율이 11.9%, 방과후학교 이용 가구 비율이 4.5%임을 확인할 수 있다(최효미·이정원·박은정·김태우, 2020: 331). 2019년도 통계에서도 공적 초등돌봄서비스를 수

혜받은 아동이 약 36만명, 전체 아동의 13.3%로 돌봄서비스를 실제 받는 아이들의 수가 제한적이었다(정영모, 2019: 17).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고자 하는 경우(44.2%)를 제외하고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교실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각기 19.7%, 15.3%로 높게 나타난 점을 미루어볼 때 수요 대비 공급률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최효미 외, 2020: 224). 더불어 맞벌이 가정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이용을 통해 사교육 시간 감소, 사교육 비용 절감(백순근·이슬비·장지현·양현경, 2019: 67-68; 정설미·문희원·정동욱, 2021: 85; 한성민, 2019: 69), 중·하위 소득 가구와 읍면 거주 취약계층 맞벌이 모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이성희·조선미·장지은, 2020: 162; 한성민, 2019: 69). 반면 초등돌봄교실 이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학업수행능력이 떨어질 확률이 높고(백순근 외, 2019: 67-68),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의 정서 발달에 유의미한 도움을 주지는 못하였다(이성희 외, 2020: 162).

(3)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문제점

초등돌봄교실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공급 부족(이재희 외, 2017: 141; 장명림 외, 2018: 146), 까다로운 자격 요건(이재희 외, 2017: 141), 맞벌이 가구의 아침 및 저녁 돌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김근진·박은정·김희수, 2019: 291), 학교 외부로 나갈 시 다시 이용 불가능한 규정(김근진 외, 2019: 292) 등이 있다. 또한 초등돌봄교실과 부모 퇴근 시간 사이에 여전히 공백이 존재함으로써 초등돌봄교실만으로는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없는 점, 교사 한명이 돌보는 아동의 수가 많아서 돌봄의 질이 떨어진다는 인식 등이 한계로 지적되기도 하였다(장수정·송다영·백경흔, 2019: 280-281). 돌봄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 깊이에 한계가 있고, 부모와의 소통도 제한되어 있어 단순히 머물렀다가 가는 정거장의 역할을 한다는 인식도 강했다(장수정 외, 2019: 281).

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 본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으로는 프로그램 간 시간 중복으로 인하여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점, 분기별로 선착순 신청과 재추첨이 반복되기 때문에 지속해서 수강하기 어려워 학습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있다(이재희 외, 2017: 140). 학교, 교사, 방과후학교 강사는 공통적으로 방과후학교가 공급자 중심의 정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김수동·윤준영·정영모, 2017: 855).

또한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돌봄 종사자 자격요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김근진 외, 2019: 292), 이와 관련된 부처 간 협력을 지원하는 근거법이 역시 부재하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김근진 외, 2019: 295).

(4)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 개선방안

(가) 서비스의 명확한 정책 목표와 대상 설정

운영 개선을 위해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포함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명확한 목표와 대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이성희 외, 2020: 163; 이재희 외, 2017: 160). 서비스의 대상과 목표 명시와 더불어 성과 관리를 위한 절차 역시 정리될 필요가 있다(이재희 외, 2017: 160). 이 때 중요한 점은 초등돌봄교실이 공급자 혹은 어른 중심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 중심으로 설계되고 아동 발달 증진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이성희 외, 2020: 165, 167). 아동중심적인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이 원하는 돌봄과 돌봄 가치에 대한 합의가 아동, 부모, 학교, 마을돌봄 기관, 교육청, 지자체, 중앙부처 등 다양한 집단의 의견 청취와 공론화 과정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이희현·권택환, 2021: 1-2).

(나) 서비스의 양적 증가 및 질적 수준 제고

초등돌봄 선행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서비스의 양적 증가와 동시에 반드시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박승재 외, 2017: 167; 이재희 외, 2017: 160). 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위해 부모가 희망하는 시간에 초등돌봄서비스와 방과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대하고(정영모, 2019: 18; 한성민, 2019: 76), 신청자격을 완화하여 더 많은 이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제안한다(한성민, 2019: 76).

질적 수준 제고 측면에서는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서비스 내용 개선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박승재 외, 2017: 171-172). 방과후학교의 경우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분기별 추첨을 통한 운영방식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연속성이 유지되기 힘든 상황이므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양산하고 강사 질을 높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박

승재 외, 2017: 171-172; 정영모, 2019: 18; 한성민, 2019: 76). 초등돌봄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학생의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안정과 발달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장명림 외, 2018: 126-130).

(다) 지역사회 연계협력 증진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공급 확대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이재희 외, 2017: 160; 이희현·황준성·김은경·김정현·배현순, 2020: 4; 임선일·전호성·이선영, 2017: 70). 지역 인프라의 활용은 공간, 인력,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분으로 확대될 수 있다. 연계협력의 실체는 행·재정 이슈와 묶여있는데, 지역사회 연계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과 행정 인력 확보를 담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임선일 외, 2017: 70).

(라)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관련법 제정

초등돌봄 관련 선행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제안되고 있는 부분은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지원 근거법 마련이다. 관련법 제정을 통해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의 서비스 내용, 지원 주체, 교사 자격, 질 제고 기준 등이 정리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된 서비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김수동·윤준영·정영모, 2017: 855; 김근진 외, 2019: 295; 이재희 외, 2017: 160-161; 장명림 외, 2018: 146; 장수정 외, 2019: 282). 새롭게 마련되는 법률은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온종일 돌봄체계 전반에 대한 연계협력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김근진 외, 2019: 295).

(마) 코로나19와 같은 위험/재난 상황의 긴급돌봄 대응체계 마련

또한 일상적인 상황 외에 위험/재난 상황에서의 돌봄 제공을 위한 대응체계에 대한 점검과 긴급돌봄체계로의 전환과 재난관리기구의 마련이 제시되었다(김은정 외, 2021; 서정아 외, 2021).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험 상황에서 초등 학령기 아동의 돌봄공백은 심화되고, 취약계층의 재난 상황의 돌봄 불평등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보고된다(김은정 외, 2021).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이 이원화 된 체계에서 대응이 이루어짐에 따라 돌봄공백의 발생과 불평등 기전이 심

화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기대응 돌봄체계의 구축을 위한 아동 중심의 보편적 서비스로의 확장과 유연한 대응체계로 구축, 구체적으로 돌봄서비스의 양적확대와 서비스 질 개선, 탄력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단위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지원체계 수립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김은정 외, 2021). 일상 및 위험-재난 상황 대응 전략 간에 원활한 전환이 필요하며, 수요자(아동·청소년, 부모)의 관점에서 돌봄의 접근성과 연속성, 돌봄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양육지원체계가 재구조화 되어야 하며, 위험/재난 상황 하에서 (휴원·휴업 조치 외에) 온종일돌봄체계를 확대 운영하여 가능한 모든 돌봄체계를 연계하는 위험/재난에의 독자적인 통합 대응 기구의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서정아 외, 2021).

다) 지자체 돌봄 서비스의 한계 존재

(1) 학교-지역사회 연계 돌봄의 실제

초등방과후돌봄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회 협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에서 온종일돌봄을 위해 마련된 기관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돌봄센터)가 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대상 연령은 만 6-12세인 초등학생이며, 이들의 돌봄공백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총 282개소가 마련되어 운영중이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일반형, 융합형, 거점형으로 나뉘어진다. 일반형은 집과 학교 주변 10분거리에 위치하여 틈새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접근성을 높인 소규모 센터라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과 연계되어 있다. 융합형은 지역아동센터와 연계 협력하는 모델로 마을단위의 돌봄 거점기관으로서 긴급, 주말 돌봄을 강화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거점형은 지역대표로 특화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7개소 운영되고 있다. 거점형 센터에서는 일반형, 융합형에서 다루지 못하는 문화·예술·체육 부문을 지원하고, 부모교육 부문을 강화하는 등 여러 키움 센터의 허브 역할을 한다.³³⁾

실제 이용과 관련해서는 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잘 지원되고 있다고 인식되는 서울시에서도 초등학생 대상 공적 돌봄 이용 비율이 약 11%정도로 낮게 보고되고 있으며, 학교-지역사회 협력에 대한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협력은

33) 우리동네키움포털 홈페이지a, https://icare.seoul.go.kr/icare/user/fcltyInfoManage/BD_selectCarCenterContactList.do?q_tap=1(2022. 6. 10. 인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혜숙·이영주, 2018: 69). 특히, 지자체 내 초등돌봄 사업은 각 지역의 환경과 특성, 사례별로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지역규모, 인구분포, 거주 형태에 따라 양상이 다르다는 보고가 있다(김은정·홍진주·정세미·김현진, 2017: 149).

서울시 내에서 방과후돌봄이 잘 이루어진다고 평가되는 곳은 성북구와 노원구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서 학교-지역사회 협력 돌봄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치구에서 초등돌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수반되었던 점, 온종일 돌봄 지원체계 구축에 관해 논의되기 전에 자체사업을 실시하여 방과후 돌봄을 지원해 온 경험에 있는 점,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사전에 튼튼하게 조직되어 민관협력이 가능했던 점 덕분에 나타났다(이혜숙·이영주, 2018: 86-87). 지자체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의 모범사례를 살펴봐도 비슷하게 지자체 장의 초등돌봄에 대한 개선 의지가 강하고, 지자체-교육청, 민관, 학교-지역 간 연계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요인이 충족될 때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박해금 외, 2021: 124; 이희현 외, 2019: 198).

(2) 지역사회 연계 돌봄의 문제점

먼저 지역사회 연계 돌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부분이 큰 어려움으로 보고된다(김은정 외, 2017: 149; 전미양·이혁수, 2018: 50-52). 구체적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 시범사업 시에 기존 인프라를 사용하기 위해 임대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공간 안정성이 미비하고 공간 특성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돌봄의 종류가 달라지기도 하는 한계가 있다(전미양·이혁수, 2018: 50-52).

운영면에서는 저녁 돌봄 공급이 미비하여 틈새돌봄에서 제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며, 돌봄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있다(이혜숙·이영주, 2018: 69). 돌봄의 내용면에서도 한계가 발견되는데, 보호자 부재시 안전한 돌봄을 제공한다는데 초점을 두어 아동의 놀이권이나 선택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최현임·손가현, 2021: 761).

초등돌봄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 돌봄 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이 있다.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취약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반면, 다함께돌봄센터

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6-12세 일반 아동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일시돌봄의 기능을 하고 있다. 수요자입장에서 볼 때 이 세 기관은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각 기관별로 근무 인력에 대한 자격기준, 서비스 내용이 상당히 상이하여 수요자가 목적에 맞게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김은정 외, 2019: 183; 김은정 외, 2017: 150). 또한 각 지자체의 사업명에 따라 같은 기능/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름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수요자 중심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유사한 사업 간 중복투자의 가능성이 높은 점, 돌봄 서비스 계층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피하기 어렵다(박선권, 2020: 11).

학교-지역사회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부분은 초등돌봄을 담당하는 기관이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 등으로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분절적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서비스 운영 주체와 역할에 일관적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이 우려된다(김은정 외, 2019: 183; 장명림 외, 2018: 146). 이 때문에 학교 연계 돌봄에 비해 지역사회 돌봄 공급이 부족하고(박해궁·류지선·배은석, 2021: 124), 초등돌봄전담사와 다함께돌봄센터 인력의 업무 영역이 넓고 업무 강도가 높는데 반해 처우가 좋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최세림·윤자영·이희현, 2020: 171-172).

온종일돌봄체계 마련과 관련하여 전국 지자체별 계획 수립이 미흡한 점 역시 지역 편차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지자체돌봄(마을돌봄)의 경우 지역에 따라 인력부족이 심하게 드러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결국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는 지역적 편차와 특성을 세심히 반영한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장명림·박성철·정연아·이지미·김보미, 2020: 4).

(3) 지역사회 연계 돌봄의 개선방안

(가) 공간 안정성 확보

지역의 유휴공간 발굴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돌봄센터 마련 및 확대가 필요하다(전미양·이혁수, 2018: 50-52). 다함께돌봄센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 지원이 필수적이며, 돌봄 공간기준을 완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유휴공간을 늘리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남승연·이경민, 2019: 95-110). 공간 활용과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지역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돌봄센터가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설을 확충하고(최세림 외, 2020: 173), 지역별 특성을 살리는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이희현 외, 2019: 247-259).

(나) 온종일돌봄체계 내 학교-지역사회 연계 초석 마련

돌봄 시설 간의 허브 역할을 할 연결 기관뿐만 아니라 틈새돌봄 저녁돌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치구 단위로 거점형 돌봄 기구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이혜숙·이영주, 2018: 91-107). 학교 연계 돌봄과 지역사회 연계 돌봄을 따로 보지 않고 온종일돌봄체계 하에 쌍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과 운영에 관련된 근거법을 제정하는 것, 실제 업무를 담당할 인력 지원을 위해 매뉴얼 제작과 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장명림 외, 2020: 73-74). 근거법 제정을 통해 돌봄의 질 제고와 효율적 인력관리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최세림 외, 2020: 175, 177).

(다) 돌봄협의체, 수요자 참여형 추진체계 확대

학교와 자치구 협력을 기반으로 한 마을방과후 체계 마련과 유지를 위해서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돌봄협의체를 확대 구성하고, 안정적인 예산과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남승연·이경민, 2019: 95-110; 이혜숙·이영주, 2018: 91-107; 주정훈·강민정·김세희·김보영, 2017: 99-102). 초등돌봄 거버넌스로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하는 모델이 제안되기도 하였는데, 사회서비스원에서 초등돌봄 서비스와 보육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관련 기관 위탁 운영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큰 범위로 ‘지자체-학교 협력사업 운영자’로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정미나 외, 2020: 177-178). 또한 수요자 중심의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정책 설계 시 시민이 직접 의견을 개진하는 참여형 추진체계를 설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하였다(박해금 외, 2021: 125; 이희현·김효정·최형주·김은경·손호성, 2021: 203-207).

(라) 기타: 방과후돌봄 지도, 플랫폼 마련, 픽업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연계 돌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의 지도를 그리거나, 이들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주고, 신청연계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남승연·이경민, 2019: 95-110; 이해숙·이영주, 2018: 91-107). 서비스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 픽업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지역사회 연계 초등 돌봄의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다(남승연·이경민, 2019: 95-110; 강지원 외, 2020: 8).

III

통합적 관점의 아동돌봄정책 분석

- 01 통합적 아동돌봄의 개념 및 접근방법
- 02 통합적 관점의 주요 아동돌봄 서비스(10대사업) 분석
- 03 통합적 아동돌봄 지원정책 비교분석
- 04 소결

III. 통합적 관점의 아동돌봄정책 분석

이 장에서는 국가단위로 추진 중인 대표적 아동돌봄서비스 10대 사업을 중심으로 법적·제도적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이용자 측면에서 서비스의 통합적 이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통합적 아동돌봄’에 대한 접근과 개념을 다시 확인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통합적 아동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필요한 전달체계 및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 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1. 통합적 아동돌봄의 개념 및 접근방법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통합적’이란 “둘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 따위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통합적이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고 현황에 대한 문제인식과 효율성(efficiency)과 효과성(effectualness)에 대한 기대가 출발점이 된다. 그래서 둘 이상이 개별적·분절적으로 존재하거나 작동할 때에 대한 반성과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접근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통합적 아동돌봄’을 정의해 보면 ‘아동의 생애주기에 따라 제공되는 개별적·분절적 돌봄서비스를 제공자는 물론 수요자의 이익에 부합하면서 연속성 있게 연계되도록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한 아동돌봄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최근 정부에서 사용 중인 노인돌봄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³⁴⁾과는 개념적 정의를 달리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시설이나 기관보다는 자신이 살던 집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aging in place)는 개념으로 가정방문과 지역사회 내 근거리 가정돌봄(Home Care)이 주된 정책목표이다(대한민국 정부, 2020: 89). 따라서 ‘통합적 아동돌봄’은 아동을 대상

34)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2018. 11. 20)’에서 제시한 용어이다.

으로 돌봄 뿐만 아니라 인지, 정서, 사회성 등 아동발달 지원이라는 또 다른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시설과 기관을 이용해 제공된다. 또한 통합이 물리적, 지역적 통합에 국한하지 않고 개별 서비스를 연계하여 확대 재생산함을 사업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여기서 논의하는 통합적 아동돌봄은 개별 법령과 제도에서 정해진 사업목적과 내용을 근거로 아동의 연령이나 특성에 의해서만 다르게 제공되는 기존의 보호, 양육, 교육적 서비스의 틀에서 벗어나, 아동은 물론 가정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합하고 서비스 제공자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개선안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 이론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가. 목적의 통합성

통합적 아동돌봄서비스는 아동에게 보호와 교육, 부모 및 보호자에게 사회적·경제적 활동지원, 지역사회에는 통합과 발전을 추구한다는 목적의 통합성을 갖는다. 아동의 생애주기에 맞게 개별 목적에 따라 추진되는 돌봄서비스이지만 서비스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아동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지켜지고 아동의 양육지원을 통해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공통된 목적이 있다는 의미에서 통합적 돌봄서비스를 기획하고자 한다면 우선 목적의 통합성부터 검토되는 것이 필요하다. 서비스의 목적이 공유되고 추구하는 가치를 조율할 수 있을 때 통합적 아동돌봄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영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맞벌이 부부가 긴급한 사유로 퇴근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아이가 아플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인적자원인 건강관리사가 아이를 데리고 부모의 가정에서 일시보육을 담당해 줄 수 있게 통합돌봄을 설계하고 실행한다면 아동은 응급상황에 케어되고, 부모는 예기치 못한 긴급한 돌봄필요 상황에도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두 가지의 돌봄서비스는 ‘빈틈없이’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됨을 보여준다.

나. 관점의 통합성

아동돌봄은 아동을 중심으로 생태체계적 관점에 따라 개별적으로 설계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생태체계적 관점이란 체계이론과 생태학적 관점을 합해서 짚 개념적 틀이라 할 수 있고 주지하듯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은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체

제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아동돌봄에 내재된 문제들도 또한 같다. 따라서 생태체계적 관점은 아동돌봄의 문제와 아동의 발달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해결책이 무엇인지 판단하는데 유익하다. 예를 들어 오늘날 아동의 건강·영양 관리는 개별가정이나 양육자 부모의 역할에 국한되지 않는다. 아동의 비만이나 영양부조화는 식품과 의료 그리고 사회보험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할 사회문제이다. 따라서 가정과 어린이집 또는 학교, 급식관리지원센터, 보건소 등 아동을 둘러싼 환경체계의 다차원적 접근과 성장과 발달 그리고 통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관점의 통합성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 기능의 통합성

통합적 아동돌봄서비스는 개별 서비스가 지향하는 사업목적 외에도 다차원적인 목적 실현을 지향한다. 유치원의 유아교육과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연계는 교육과 돌봄, 보호의 기능의 통합하는 것 외에도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활동 지원이라는 기능을 통해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과 안정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필수예방접종(NIP)사업과 각 돌봄시설 간의 연계는 비용의 절감과 사업의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이므로, 서비스 간 통합은 연계와 조율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개별적·분절적 역할기능의 통합성이 강조된다.

라. 대상의 통합성

통합적 아동돌봄의 접근은 돌봄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제공기관은 물론 가정과 지역사회까지도 포괄하게 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 간 연계를 통해 개별 서비스에서 구축된 인적·물적 자원들이 아동을 중심으로 연대하게 된다. 개별적으로는 연대성 또는 연계성이 약한 자원들이 아동돌봄이라는 공통적 목표아래 모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온-오프라인(on-off line)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아동돌봄 플랫폼(platform)’ 등을 구축하여 원스톱(one stop) 전달체계를 만들게 되면 학교 내와 학교 밖으로 나뉘어 제공되는 아동돌봄서비스의 법률적 적용기반 한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상의 통합성을 통해 서비스 자원들의 지역사회 내 유기체적 역할과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통합적 관점의 주요 아동돌봄 서비스(10대사업) 분석

통합적 아동돌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별 아동돌봄 서비스의 제공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생애주기별로 현행 국가단위 아동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개별 서비스를 대상으로 사업비 규모와 이용실태 및 효과성 등을 분석해보고 서비스별 사업특성과 한계에 대해 파악한 후 서비스 연계 등 통합적 운영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가. 주요(10대) 아동돌봄서비스 총괄

아동기를 생애주기별로 세분해 보면 신생아기(만 2월 이하), 영유기(0~만5세 이하), 아동기(만6세~만12세)로 나눌 수 있다. 복지·교육사업은 일반적으로 생애주기를 걸쳐서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돌봄 서비스를 신생아·영아기, 영유아기, 아동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주요 아동돌봄서비스를 구분해 보면 <표 III-2-1>과 같다. 신생아·영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가필수예방접종(NIP)’, ‘공동육아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다. 영유기 아동대상 서비스는 ‘보육 서비스’, ‘유아교육’,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이 해당되고, 아동기 제공 서비스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 ‘다함께 돌봄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

개별법령에 따라 서비스 전달체계, 제공기관 그리고 대상연령이 정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아동돌봄서비스는 보편복지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으나 서비스별로 일부 이용자 자부담 규정을 두고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대상연령 대비 이용률이 가장 높은 사업은 ‘국가필수예방접종(NIP)’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서비스에 대한 공식적인 이용자 통계가 발표되지 않지만 거의 모든 아동이 1회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가장 이용률이 낮은 서비스는 ‘다함께돌봄’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시행 연혁이 짧고 아직 서비스 제공 시설수가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업비 규모는 일반적으로 영유아기 서비스 규모가 크고 신생아·영아기와 아동기 서비스가 작으나 아동기의 경우 학교교육이 병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동육아 지원사업의 경우 서비스 제

공 연혁과 사업대상 연령 등에 비해 시설 개소수, 사업비, 이용률 등이 적거나 낮은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표 III-2-1〉 생애주기별 아동돌봄서비스 일반현황(2021년도 말 기준)

생애 주기	서비스명	전달체계	지원대상· 인구수(명)	개소수 (개소)	이용자 (명/가구)	이용률 (%)	사업비 (백만원)
신생아 · 영아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기관	만 2월 이하 (253,946)	837	125,852	49.5	113,442
	국가필수예방접종 (NIP)	보건소	만 13세 이하 (5,628,465)	6,770	--	94.2	234,042
	공동육아 지원사업	건가다가센터 등	18세 이하 (7,976,210)	350	1,463	7.2	8,548
	아이돌봄 지원사업	건가다가센터	만 12세 이하 (5,159,364)	227	71,789	1.4	251,493
영 유아기	보육서비스	육아종합 지원센터	만 6세 이하 (2,387,763)	33,246	1,184,726	49.6	7,987,446
	유아교육	유아교육진흥원	만 3~6세 (1,660,756)	8,660	582,572	35.1	2,551,400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	육아종합 지원센터	6~36개월 미만 (707,726)	857	10,434	1.5	21,570
아동기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	아동권리보장원	초·중교생 (4,012,706)	4,264	106,510	2.7	187,238
	다함께 돌봄 지원사업	시·군·구	초교생 (2,664,278)	694	12,190	0.46	38,450
	초등돌봄교실 지원사업	지방교육청	초교생 (2,664,278)	6,120	256,213	9.6	231,894

주: 1. 공동육아 지원사업과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이용자는 가구수임.
 2.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이용자 정부통계는 3종 이상 접종자를 이용자로 조사하고 이용률을 산출함.
 3. 자료출처는 다음항 개별 서비스 일반현황 분석을 위한 표에 부기함.

나. 주요 아동돌봄 서비스(10대사업)에 대한 제도적 고찰

이 절에서는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아동돌봄서비스의 제도적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수요자 관점에서 주요 서비스별 이용현황을 분석해 봄으로써 통합적 연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일반현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일반적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로 불린다. 모자보건법(제15조의18)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임신부가 신청할 경우 해당 임신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06년 4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한 이래 매년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가단위 복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비교해 통상 ‘신생아 돌보미사업’으로 불리기도 한다. 대상연령은 생후 2월 이하의 신생아로 전국 837개소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서비스의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소득수준에 따른 일반신청자로 나뉘며, 일반신청자의 자격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이다. 또한 서비스는 보건소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태아유형과 소득수준 및 출생순위 등에 따라 국가보조금 외 본인부담금이 결정된다. 서비스는 최단 5일에서 25일까지 선택이 가능하며 1일 8시간 제공이 원칙이나 조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표 III-2-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일반현황(2021년도 말 기준)

지원대상 인구수(명)	제공기관 (개소)	제공인력 (명)	이용자 (가구)	이용률 (%)	사업비 (백만원)
만 2월 이하 (253,946)	837	37,428	125,852	49.5	113,442

주 1. 이용률은 전체아동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아동수 비율임.

2. 사업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로 교부한 본예산 국고보조금 기준.

자료 1.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2022. 8. 16, 인출.

2. 보건복지부(2022e). 2022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p. 11.

3. 이재희 외(2020). 산모 및 신생아 건강지원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88

4. 보건복지부(2020c). 시행공문-2021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2021년도 사업비는 국비기준 113,442백만원으로 2017년 38,425백만원 대비 195% 증가한 사업비 규모이다. 서비스는 돌보미 인력에 의해 제공되며 전국 37,428명이 활동 중이다. 이용자는 125,852명으로 전체대비 49.5%의 이용률을 보인다. 2018년 연간 이용자가 97,977명이었으나 코로나 19 팬데믹 속에서도 지난 2년간 이용자가 대폭적으로 증가했다. 서비스 이용자 자격조건 완화와 본인부담금 경감 등이 주요한 사유로 분석된다.

나) 사업분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서비스의 내용이 신생아는 물론 산모의 건강관리가 주요한 목적이다. 최근까지 코로나 19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으나 동 서비스 신청은 오히려 대폭 확대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이 서비스 이용 산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이재희 외, 2020: 60) 동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65.7%로 나타났다. 다른 생애주기 여타 돌봄서비스가 무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반해 생애초기 대표적인 돌봄서비스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자부담하는 점이 접근성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III-2-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분석(2021년도 말 기준)

생애주기	서비스명	접근성			상용성			효과성		연계성	
		인지도	무상(여부)	제한(조건)	1일(천명)	1일(시간)	이용률(%)	만족도(점)	수혜도(천원)	계획(여부)	실행(여부)
신생아영아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65.7	유상(일부자부담)	소득수준·취약계층	126	8'	49.5	3.8	901	무	유(미진)

주 1. 인지도는 설문조사 결과치임.

2. 1일 이용시간은 사업지침 상 이용 가능 시간임.

3. 이용률은 대상연령 아동수 대비 이용 아동수 비율임.

4. 만족도는 5점 척도 설문조사 결과임.

5. 수혜도는 사업비를 대상연령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사업비를 의미함.

6. 계획(여부)과 실행(여부)는 동 서비스가 여타 아동돌봄서비스와 통합 또는 연계운영하도록 계획되는지와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구자가 조사·분석한 것임.

자료 1. 보건복지부(2022e). 2022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pp. 47-49. p. 52.

2. 이재희 외(2020). 산모 및 신생아 건강지원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pp. 161-162. 육아정책연구소.

3. 보건복지부(2020c). 시행공문-2021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고 신청자격을 얻은 대상자도 모두 정부지원금 외 비용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용시간은 제도 운영상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사업의 효과성을 서비스 만족도를 통해 파악해 보면, 이재희 외(2020: 161)에 의하면, 이용자는 5점 척도기준 3.75점으로 조사되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은 일단 사업의 효과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동 서비스의 여타 돌봄서비스와의 연계성을 분석해 보면, 운영규정상 연계 또는 통합에 대한 특별한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공기관이 제도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병·의원과의 협약하여 운영하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서비스 연계성은 미진하다. 특히,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신생아 산후조리 서비스인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연계방안이나 신생아 건강관리와 관련한 이후 생애주기 돌봄서비스와의 연계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이며, 신규 교육과정은 총 60시간(이론 28시간, 실기 3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22e: 85-93). 이에 따라 임용은 교육수료증 및 건강진단서 요건만 충족되면 누구든 채용될 수 있다. 반면 아이돌봄 지원법 상 ‘아이돌보미’의 경우 범죄경력,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 실제로 아이돌보미 선발과정을 통해 아동학대 이력자 등 부적절한 지원자를 필터링할 수 있는 수단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통합적 아동돌봄의 관점에서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체계, 교육과정, 결격자 임용제한 등에 대한 장치의 미흡 또는 부재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이재희 외, 2020: 198). 아울러 동 정부사업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 제공되는 베이비시터 등 유사사업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관리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2) 어린이 국가예방접종(NIP)

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NIP) 일반현황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National Immunization Program)은 국가보건의료부문에서 시행되는 기본적 아동돌봄 지원사업이다. 신생아의 예방접종은 생애주기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예방접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기접종이 중요하다(황보영·함정오, 2007: 20).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출산시부터 만 12세까

지 ‘어린이예방접종일정표’를 작성하여 일반에 제공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재정사업으로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상으로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감염력이 있는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은 아동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집단면역 인자로 역할하게 되므로 선제적 조치가 요구된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2009년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민간 의료기관 접종비용 지원사업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당시에는 8종의 백신비가 일부 지원되었고 본인부담금제로 운영되었다. 2014년 본인부담금제를 폐지하고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무상접종제가 시행되었고 접종항목도 연차별로 확대되어 2017년부터 총 17종³⁵⁾으로 확대되어 운영되었고 2021년부터는 13세 아동(중학교 1년)에 대해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사업비는 2021년 말 현재 2,340억원 규모로 2017년도 2,442억원 대비 4.16%가 감소되었다. 이는 접종항목 확대에도 신생아 등 인구수가 감소하여 사업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비스는 전국 보건소를 포함하여 지정의료기관 총 6,770개소에서 제공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신생아와 아동이 예방접종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개인별로 접종항목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만 2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용률(접종률)이 94.2%로 조사되었다.

〈표 III-2-4〉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일반현황(2021년도 말 기준)

생애주기	서비스명	지원대상 인구수(명)	제공기관 (개소)	이용자 (가구)	이용률 (%)	사업비 (백만원)
신생아 영아기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만 13세 이하 (5,628,465)	6,770	--	94.2%	234,042

주 1. 이용률은 만 2세 예방접종률로 BCG 1회, HepB 3회, DTaP 4회, IPV 3회, Hib 4회, PCV 4회, MMR 1회, VAR 1회를 모두 완료한 경우를 말함.

2. 사업비는 질병관리청에서 시·도로 교부한 본예산 국고보조금 기준.

자료 1.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2022. 8. 16. 인출.

2. 질병관리청(2022a). 2022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p. 5.

3. 질병관리청(2021). 공문-2021년도 국가필수 예방접종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pp. 1-3.

4.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예방접종도우미-2020년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 <https://nip.kdca.go.kr/irgd/support.do?service=getNewsView&strNum=431&PROSEQNUM=431>.

35) 2022년 현재 접종되는 백신은 총 17종【결핵(BCG, 피내용), B형간염(HepB),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파상풍/디프테리아(Td),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폴리오(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DTaP-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DTaP-IPV/Hib),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PC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수두(VAR),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IJEV),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LJEV), A형간염(HepA),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인플루엔자(IV)]이다(질병관리본부, 2022a: 5)

나) 사업분석

정부가 2014년까지 보건소 이용자 또는 저소득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일부 예방접종을 지원했다. 이후 모든 아동이 모든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보편적 무상 아동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의 국정운영 전략에서 확인된다(질병관리청, 2022a: 3-5).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아동은 97.2%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신생아기와 영유아기 대부분의 아동이 예방접종에 참여하고 있어 높아진 부모의 보건의료 인식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동사업에 포함된 예방접종 17종 모두 무상으로 시행되고 신청조건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어 아동돌봄사업에 대한 접근성과 상용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동 사업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2016년 민간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발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정책에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5점 척도 기준 4.2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가가 부모 자부담이 없는 무상접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 보건소 또는 집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언제든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갖춘 점, 수요자 관점에서 현재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해주는 방식, 부모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아동의 보건의료 돌봄 문제를 공공서비스로 제공받는다는 시민으로서 자부심 등이 높게 평가받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중요도, 특히 부모나 일반인이 대행할 수 없는 전문적 영역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인지도와 집중률을 높게 유지하는 대국민 홍보사업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타 아동돌봄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나 아직까지 제도적 연계성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표 III-2-5〉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이용분석(2021년도 말 기준)

생애 주기	서비스명	접근성			상용성			효과성		연계성	
		이용 경험	무상 (여부)	제한 (조건)	1일 (천명)	1일 (시간)	이용률 (%)	만족도 (점)	수혜도 (천원)	계획 (여부)	실행 (여부)
신생아 영아기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97.2	무상	없음	이용 제한 없음	이용 제한 없음	—	4.2	42	무	무

- 주 1. 이용경험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의 1세 접종률을 이용경험으로 본 수치임.
 2. 만족도는 5점 척도 설문조사 결과를 재구성함.
 3. 수혜도는 사업비를 대상연령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사업비를 의미함.
 4. 계획(여부)과 실행(여부)은 동 서비스가 여타 아동돌봄서비스와 통합 또는 연계운영하도록 계획되는지와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구자가 조사·분석한 것임.
 자료 1. 질병관리청(2022b). 2021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 현황. p. 1.
 2. 질병관리청(2017). 내부자료(국가예방접종 지원정책 만족도 및 보호자 인식조사). p. 3.
 3. 질병관리청(2022).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p. 5.

3)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

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 일반현황

아동기 돌봄서비스를 크게 시설돌봄과 가정돌봄으로 나눌 때 가정돌봄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전달체계로 ‘공동육아나눔터’를 꼽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2022년도 가족사업안내 II」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목적으로 부모 양육부담 경감과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때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육아의 양태를 ‘돌봄’, ‘활동’, ‘나눔’, ‘소통’으로 나누고 개별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의욕하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2010년에 5개소가 시범운영 된 이래로 2020년 말 현재 전국 33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용대상은 0세부터 18세까지로 그 대상폭이 매우 넓다. 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규모 및 운영내용 측면에서 비교적 단순하다. 부모와 아동을 위한 소통과 놀이공간으로 이해되고 있다. 관련 지침은 서비스 제공 전담인력에 대하여 시설당 1명 이상을 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로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배치되는 추가인력은 대부분 시간제로 근무하는 비전공 공무원 인력으로 운용되고 있다.

2021년 사업비는 국비기준 8,548백만원(지방비 매칭분 미포함)으로 전체 대상인원을 감안하면 비교적 적은 규모로 운용되고 있다. 당초 시·군·구별 동일 인건비

지원제도에서 2019년부터 시설당 인건비 지원체제로 개선되어 2022년 8월 현재 시설당 운영비는 인건비 등을 포함 개소당 55백만원이 지원되며, 이는 국비(50%)와 지방비(50%)로 충당되고 있다.

〈표 III-2-6〉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 일반현황(2021년도 말 기준)

생애주기	서비스명	지원대상 인구수(명)	제공기관 (개소)	제공인력 (명)	이용자 (가구)	사업비 (백만원)
영유아기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사업	0세~만18세 (7,976,210)	331	350	1,463	8,548

- 주 1. 이용자는 연인원이며 동반한 보호자와 아동수를 모두 합한 수치임.
 2. 제공인력은 개별 시설에 배치된 전담인력 기준임(주말, 야간 등에 전담인력 대신 배치되는 추가인력은 미포함).
 3. 사업비는 여성가족부에서 시·도로 교부한 본예산 국고보조금 기준임.
- 자료 1.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2022. 8. 16, 인출.
 2. 여성가족부(2022b). 2022년도 가족사업안내 II. p. 26.
 3. 여성가족부(2021a). 시행공문-2021년도 아이돌보미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4. 여성가족부 홈페이지-2022 예산 및 기금운영 설명자료.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5). 2022. 8. 16, 인출.

나) 사업분석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은 그 목적과 필요성 등에 비추어 시설의 양과 질 적 운영 측면을 평가해 보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앞서 살펴본 연간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1일 시설당 이용인원을 살펴보면 약 14명이며 이는 동반한 보호자를 포함한 숫자로 순수 아동 이용자수는 대략 7명 내외로 분석된다. 다만, 이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치이나, 이 통계(연간 이용인원)가 시설별로 보고한 자료를 단순 취합한 형태로 생산되어 선행연구 등을 통해 조사된 인지도와 이용률 등을 고려하면 차이가 있다. 권미경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2016: 79-80)에서는 이용률을 5.7%로 보고한 바 있고, 윤재석 외 연구(2019: 82-83)에서는 7.2%로 보고한 바 있다.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신청이 가족센터를 통해 이루어짐에 따른 서비스 접근성의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용비용과 조건 등의 측면에서 살펴본 접근성은 좋은 편이다. 이용비용은 일부 프로그램 이용시 재료대 등 실비를 납부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무상이며, 소득수준이나 거주지 등에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의 효과성과 연계성을 분석해 보면, 만족도는 보통 이

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입되는 소요재정과 1인당 수혜도 그리고 이용경험, 이용률 등을 고려해 볼 때 부모의 만족도는 이들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한편 공동육아나눔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양육 지원시설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도 하원 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또한 동 시설에서 장난감 및 교재교구를 활용한 놀이교육은 물론, 육아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점, 무엇보다 아이돌보미 등 부모 이외의 보호자가 동반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여타의 돌봄서비스와의 연계와 전문인력의 배치 등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 관련법령과 운영지침 등에서는 제도적 연계성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시설별 연계 프로그램 외 별다른 연계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표 III-2-7〉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 이용분석(2021년도 말 기준)

생애 주기	서비스명	접근성			상용성			효과성		연계성	
		이용 경험	무상 (여부)	제한 (조건)	1일 (명)	1일 (시간)	이용률 (%)	만족도 (점)	수혜도 (천원)	계획 (여부)	실행 (여부)
영유아기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사업	32.8	무상 (일부 실비 부담)	없음	14	2 ¹	7.2	3.0	1.1	무	무

주 1. 인지도는 부모대상 설문조사에서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모른다'라고 응답한 비율임.

2. 1일 이용시간은 월평균(20일) 이용시간을 1일로 환산함.

3. 이용률은 인천광역시 2019년 조사결과임.

4. 만족도는 5점 척도 설문조사 결과임.

5. 수혜도는 사업비를 대상연령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사업비를 의미함.

6. 계획(여부)와 실행(여부)는 동 서비스가 여타 아동돌봄서비스와 통합 또는 연계운영하도록 계획되는지와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구자가 조사·분석한 것임.

자료 1. 권미경 외(2016).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p. 78.

2. 여성가족부(2022b). 2022년도 가족사업안내 II. p. 26.

3. 김숙자(2018). 부모가 주체가 되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실현. 육아정책포럼. p. 26. 육아정책연구소.

아울러, 공동육아나눔터 전담인력의 전문성 개발과 관련하여 제도적 미흡점이 발견된다. 현행 제도 하에서 전담인력의 배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이 시설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공동육아나눔터 전담인력의 선발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고 사업수행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의 채용기준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직원 재교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건강가정지원세

터 직원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이수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교육이수 교과목은 대부분 다양한 가족 수용성 증진을 위한 교육, 가족상담 역량강화 교육, 성폭력 예방 등 법정 의무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전담인력 배치 및 전문성 개발 교육기준은 공동육아나눔터와 가족사무추진기관의 사무혼용에서 빚어진 행정편의상 오류로 분석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영유아의 발달과 교육, 그리고 부모교육 등 생애초기 영유아의 발달지원이라는 전문적이고 중요한 서비스를 다루는 기관이고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는 가족기능회복과 역량강화를 위한 가족사무 담당기관이다. 그래서 교육내용과 직무내용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담인력 선발기준과 재교육 기준을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은 그동안 이 시설이 보여 온 낮은 이용률 및 만족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며 개선이 요구된다.

4) 아이돌봄 지원사업

가) 아이돌봄 지원사업 일반현황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동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균형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되는(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 국가적 복지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 부재 시 양육공백을 메꿔주는데 목적이 있다. 명시적으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서비스는 227개 제공기관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데 대부분 시·군·구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가 맡고 있다. 서비스의 종류는 영아 돌봄, 시간제 돌봄, 질병아동 돌봄, 기관연계 돌봄 등 구조화된 연계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아이돌보미는 전체 25,917명으로 파악되며 이용 가구수는 71,789가구로 조사되었다. 대상인구 대비 이용자로 파악한 이용률은 1.4%로 나타났다. 관계당국이 이용가구 통계 외 연계건수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지 않아 전국통계는 알 수 없으나, 인천광역시의 연계건수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인천광역시의 2021년도 이용가구는 2,550가구였으며, 총 연계건수는 431,989건으로 파악된다(인천광역시, 2022: 9).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 해인 2018년도 이용가구 2,700가구, 연계건수 238,045 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 서비스 연계건수가 대폭 증

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1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상당기간 문을 닫았던 때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돌봄 사각지대를 메꾸며 매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III-2-8〉 아이돌봄 지원사업 일반현황(2021년도 말 기준)

생애주기	서비스명	지원대상 인구수(명)	제공기관 (개소)	제공인력 (명)	이용자 (가구)	이용률 (%)
영유아기	아이돌봄 지원사업	0세~만12세 (5,159,364)	227	25,917	71,789	1.4

주 1. 이용률은 전체아동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수 비율임.

2. 사업비는 여성가족부에서 시·도로 교부한 본예산 국고보조금 기준.

자료 1.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2022. 8. 16. 인출.

2. 여성가족부(2022a).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 9.

3. 여성가족부(2021a). 시행공문-2021년도 아이돌봄미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나) 사업분석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서비스의 내용을 일시적 아동의 보호와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지원을 목표로 하는 점이 시설보육과 다르다. 최근 우리사회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19 팬데믹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앞서 인천 광역시의 2021년 연계건수 폭증 현황에서 살펴본 바처럼 동 서비스는 긴급한 상황과 수요에 대처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분석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유해미 외, 2021: 188)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92.9%로 높은 편이었으나 인지하지 못하는 부모도 7.1%로 나타났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시설보육은 무상으로 시행되나 가정양육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자부담을 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접근성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가정의 시간제서비스 이용요금은 부모 소득수준을 기준중위소득 구간으로 4등분하여 본인부담금을 최저 15%에서 최고 100%까지 부담토록 운영하고 있어 시설보육과는 차이가 있다. 여성가족부가 동 서비스 이용자를 가구단위로 파악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1년 한 해 동안 72천여 가구가 이용했고, 이용자는 하루 4시간 8분(월간 96.7시간) 정도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 이용률은 1.4%로 여타 돌봄서비스에 비해 낮은 편이다.

위 보고서에 의하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이용해 본 부모의 서비스 만족도는 5점

척도 중 3.5점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다른 연구(이정원 외, 2021: 62)에 의하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 기준으로 90.6점으로 나타나 2019년 89.5점보다 높고 매년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은 설계 당시부터 시설보육 등 여타 돌봄서비스와의 연계성을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어 비교적 높은 연계성을 갖는다. 시간제서비스의 경우 어린이집 등·하원 대행 또는 시설보육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일시보육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유해미 외, 2021: 210). 특히,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시설이용 아동이 전염병 등으로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사유를 제시하고 있고, 기관연계서비스는 시설 등에서 돌봄수요가 급증해 보조인력이 필요한 경우 기관의 장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여성가족부, 2022a: 51-55) 연계성이 목적이고 수단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III-2-9〉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분석(2021년도 말 기준)

생애 주기	서비스명	접근성			상용성			효과성		연계성	
		이용 경험	무상 (여부)	제한 (조건)	1일 (천명)	1일 (시간)	이용률 (%)	만족도 (점)	수혜도 (천원)	계획 (여부)	실행 (여부)
영유아기	아이돌봄 지원사업	92.9	유상 (일부 자부담)	중복 미지급 소득 수준	72	4'8"	1.4	3.5	49	유	유

- 주 1. 이용경험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부모 중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임.
 2. 1일 이용시간은 월평균(20일) 이용시간을 1일로 환산함.
 3. 이용률은 대상연령 아동수 대비 이용 아동수 비율임.
 4. 만족도는 5점 척도 설문조사 결과임.
 5. 수혜도는 사업비를 대상연령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사업비를 의미함.
 6. 계획(여부)과 실행(여부)은 동 서비스가 여타 아동돌봄서비스와 통합 또는 연계운영하도록 계획되는지와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구자가 조사·분석한 것임.

자료 1. 여성가족부(2022a).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p. 9-12.

2. 유해미 외(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p. 201. 육아정책연구소.

5) 보육서비스

가) 보육서비스 일반현황

보육서비스는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의 경제·사회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국가적 대단위사업이다. 보육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을 통해 제공되며 이 시설은 동일 유아 연령대(만3세~만5세) 교육기관인 유치

원과 함께 누리과정을 교육하는 대표적인 아동돌봄시설이다. 개별법인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영유아 보육의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보호자와 모든 국민들이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육서비스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아동의 양육을 위탁할 경우, 어린이집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사회는 물론 보호자의 지원을 받아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아동에게 교육과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표 III-2-10〉 보육서비스 일반현황(2021년도 말 기준)

생애주기	서비스명	지원대상 인구수(명)	개소수 (개소)	이용 아동수(명)	이용률 (%)	사업비 (백만원)
영유아기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0세~만6세 (2,387,763)	33,246	1,184,726	49.6	7,987,446

- 주. 1. 이용률은 전체아동 중 어린이집 아동수 비율임.
 2. 사업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국비기준).
 자료 1.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2022. 8. 16, 인출.
 2. 보건복지부(2022c).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p. 347.
 3. 보건복지부(2022d). 2022 보육사업안내 부록. p. 317.
 4. 교육부(2019). 2020년도 예산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pp. 517 - 518.
 5. 보건복지부(2022a). 2021년도 보육통계.

이를 내용별로 세분해 보면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보육교사의 양성 및 교육, 보육료 지원, 영유아의 교육 및 영양, 건강, 위생, 안전관리 등으로 나뉘볼 수 있다.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2021년 말 현재 총 33,246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 곳에 취원한 아동은 총 1,184,726명이다. 대상연령(0세~만6세) 아동의 49.6%를 담당하고 있으며 2021년도 국비기준 사업비는 7조 9,784억원 규모로 조사되었다(지방비 매칭분 미포함). 보육서비스는 최근 2년간 코로나 19 팬데믹 대처를 위해 어린이집 폐쇄와 운영을 반복했던 상황을 감안하고 지난 5년간 전년대비 사업비 평균 증가율 2.3%³⁶⁾와 합계출산율 평균 감소율 0.07명³⁷⁾를 대비해 살펴보면 저출산 현상으로 어린이집 취원 아동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보육사업예산은 매년 확대되는 역설적 경향성을 띄고 있다.

36) 보건복지부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에 기재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연도 보육사업예산 증가액의 전년대비 평균 증가율임.

37)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합계출산율의 전년대비 평균 감소율임.

나) 사업분석

보육서비스는 서비스의 대상을 아동은 물론이고 가정과 지역사회까지 넓혀 아동에게는 보호와 교육을 보호자와 직장에는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다목적·다차원적 국가단위 복지사업으로 설계되었다. 이에 따라 여타의 돌봄서비스와 다르게 국가적 재정투자가 확대되었고 그 결과 양적·질적으로 빠른 성장을 거듭해왔다.

일반적으로 인가된 어린이집 정원보다 취원한 아동의 숫자가 적다. 이와 더불어 최근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숫자는 현저히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인가정원 대비 현원 비율인 취원율은 76.1%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반면에 그만큼 취원 접근성은 높아졌으나, 이러한 요인보다는 2013년부터 시작된 무상보육 정책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볼 때 중복지급 금지 조건 외에는 한국 국적 영유아 누구나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보육서비스 접근성은 높다고 분석된다.

〈표 III-2-11〉 보육서비스 이용분석(2021년도 말 기준)

생애주기	서비스명	접근성			상용성			효과성		연계성	
		취원율 (%)	무상 (여부)	제한 (조건)	1일 (천명)	1일 (시간)	이용률 (%)	만족도 (점)	수해도 (천원)	계획 (여부)	실행 (여부)
영유아기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76.1	무상	중복 미지급 (양육수당 수령자 유치원이 용자 등)	1,185	7'12*	61.0	4.1	3,345	유 (미진)	미진

주 1. 취원율은 정원대비 현원 비율임.

2. 1일 이용시간은 월평균(20일) 이용시간을 1일로 환산함.

3. 이용률은 대상연령 아동수 대비 이용 아동수 비율임.

4. 만족도는 5점 척도 설문조사 결과임.

5. 수해도는 사업비를 대상연령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사업비를 의미함.

6. 계획(여부)과 실행(여부)은 동 서비스가 여타 아동돌봄서비스와 통합 또는 연계운영하도록 계획되는지와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구자가 조사·분석한 것임.

자료 1. 보건복지부(2022c).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p. 76, p. 347.

2. 보건복지부(2022a). 2021년도 보육통계.

3. 김은설 외(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228.

또한,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요인들은 상용성과도 조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영유아는 보육서비스를 1일 평균 7시간 12분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률은 49.6%³⁸⁾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설 외, 2021: 259).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2010년도 어린이집 이용률이 39.2%였던 것에 비하면 이는 증가된 수치로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그 상용성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위의 보고서에 의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만족도는 5점 척도 중 4.1점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등 질 관리 프로그램의 효과로 판단된다. 다른 조사³⁹⁾에서 설문에 참여한 어린이집 원장 73.7%가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질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료를 수령하는 아동은 중복지원 금지 원칙에 따라 양육수당이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제한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아동 1인당 수혜도는 여타 돌봄서비스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된다.

반면 보육서비스의 타 돌봄서비스와의 연계성은 미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어린이집 보육과정 및 평가인증에서 프로그램 연계 또는 협력을 권장하고 있어 일부 어린이집별로 여타의 돌봄서비스와 연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반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면, 취업모의 출·퇴시간대에 어린이집 영유아의 등·하원을 조력해 줄 수 있는 아이돌보미의 파견연계 등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부모가 자녀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양육방식이 다르다. 영아의 경우 가정양육을 선호한 반면 유아는 기관양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취학전 연령이 될수록 유치원 선호도가 높고 유아의 초등교육 연계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김은설 외, 2021: 63, 154)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초등학교와의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어린이집 이용부모에게는 자신들의 취업상황 또는 일하는 방식 등에 따라 여타 돌봄서비스와의 연계에 대한 다양한 어려움과 수요가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38) ‘김동훈 외(2021). 양육지원정책 중장기 재정추계 및 분담구조 개선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41.’에서는 2020년도 어린이집 이용률을 48.4%로 보고하였다.

39) 양미선 외(2021a). 「2021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422.

6) 유아교육

가) 유아교육 일반현황

유아교육은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유아의 건전한 교육과 돌봄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한다. 유아교육은 유치원을 통해 제공되며 교육과정과 방과후 교육 및 돌봄 등을 내용으로 한다. 동 법령은 교육의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호자로 규정하고 역할과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동일 연령대 유아(만3세~만6세)가 입소된 어린이집과 함께 누리과정으로 통칭되는 교육과정과 급·간식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육아지원기관이다.

유치원은 대상연령 인구수 대비 35.1%인 583천명의 유아를 분담하고 있다. 사업비는 지방교육청 예산과 유아교육특별회계로 운영되며 지방비부담금이 없이 운영된다. 그러나 여타의 돌봄서비스 사업비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유아교육사업비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국공립 유치원의 인력이 공무원 신분으로 전체 유초중등 교원의 인건비로 별도 편성되기 때문이다.

〈표 III-2-12〉 유아교육 일반현황 (2020년도 기준)

생애주기	서비스명	지원대상 인구수(명)	개소수 (개소)	이용 아동수(명)	이용률 (%)	사업비 (백만원)
영유아기	유아교육	만3세-만6세 (1,660,756)	8,660	582,572	35.1	2,551,400

주 1. 이용률은 전체아동 중 유치원 아동수 비율임.

2. 사업비는 2020년도 결산액 기준이며 자치단체 누리과정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나 종사자 인건비는 미포함 됨.

자료 1.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2022. 8. 16, 인출.

2. 교육부(2019). 2020년도 예산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p. 518.

3. 김동훈 외(2021). 양육지원정책 중장기 재정 추계 및 부담구조 개선 연구. pp. 54 - 55.

4.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a('21년 유치원 교육통계 학교별 주요 현황').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5446&survSeq=2021&itemCode=01&menuId=m_010104&uppCd1=010104&ppCd2=010104&flag=A. 2022. 8. 17, 인출.

유치원수는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현상과 인구수 감소로 인해 지난 5년간 유치원수는 4.1% 줄었고 인가된 학급수는 0.6%가 늘었다. 반면 원아수는 16.1%, 즉 112천명이 줄었다⁴⁰⁾. 이는 동기 동일연령 인구수⁴¹⁾가 19.1% 줄어든

40)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a('21년 유치원 교육통계 학교별 주요 현황').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5446&survSeq=2021&itemCode=01&menuId=m_010104&uppCd1=010104&ppCd2=010104&flag=A. 2022. 8. 17, 인출.

점을 감안하면 많은 유치원이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폐원 또는 통합 등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어린이집과 비교했을 때 전체 인구 중 유치원이 52.6%를 분담하고 어린이집이 46.1%를 분담하고 있다. 두 시설 모두 5년 전보다 입소아동의 수가 줄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은 13.2%가 줄었다.

〈표 III-2-13〉 연도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현황 비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	
							수	비율
인구수 (만3 - 5세)		1,369,973	1,324,814	1,296,603	1,220,046	1,108,509	△261,464	△19.1
유치원	시설수	9,029	9,021	8,837	8,705	8,660	△369	△4.1
	학급수	36,257	36,634	37,268	37,748	36,470	213	0.6
	원아수	694,631	675,998	633,913	612,538	582,572	△112,059	△16.1
	분담률	(50.7)	(51.0)	(48.9)	(50.2)	(52.6)	(1.9)	(3.6)
어린이집	원아수	588,006	571,974	568,586	543,506	510,639	△77,367	△13.2
	분담률	(42.9)	(43.2)	(43.9)	(44.5)	(46.1)	(3.1)	(7.3)

자료 1.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2022. 8. 16, 인출.

2. 보건복지부(2022a). 2021년도 보육통계.

3.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a('21년 유치원 교육통계 학교별 주요 현황').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5446&survSeq=2021&itemCode=01&menuId=m_010104&uppCd1=010104&ppCd2=010104&flag=A. 2022. 8. 17, 인출.

4.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b('20년 유치원 교육통계 학교별 주요 현황').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4978&survSeq=2020&itemCode=01&menuId=m_010102&uppCd1=010102&ppCd2=010102&flag=B. 2022. 8. 17, 인출.

5.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c('19년 유치원 교육통계 학교별 주요 현황').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4107&survSeq=2019&itemCode=01&menuId=m_010102&uppCd1=010102&ppCd2=010102&flag=B. 2022. 8. 17, 인출.

6.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d('18년 유치원 교육통계 학교별 주요 현황').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4107&survSeq=2018&itemCode=01&menuId=m_010102&uppCd1=010102&ppCd2=010102&flag=B. 2022. 8. 17, 인출.

7.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e('17년 유치원 교육통계 학교별 주요 현황').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941&survSeq=2017&itemCode=01&menuId=m_010102&uppCd1=010102&ppCd2=010102&flag=B. 2022. 8. 17, 인출.

41) 주민등록인구통계 홈페이지, <https://jumin.mois.go.kr>. 2022. 8. 16, 인출

나) 사업분석

유치원 취원율은 83.0%로 나타났다. 이는 입소아동 582,572명을 인가정원 701,643명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최근 정부가 폐원되는 사립유치원 정원수 만큼 국공립 유치원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입소대기 또는 취원 문제로 야기되는 접근성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치원의 학비는 정부지원금 외 부모부담금이 존재하고 특히 특별활동비 등을 별도 수납하고 있어 어린이집과 다르게 부모부담 문제가 제기되고 이는 심리적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유아는 유치원 교육을 1일 평균 7시간 4분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률은 52.6%로 어린이집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는 2017년과 비교해 1.9% 가량 증가한 수치이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유아교육 만족도를 살펴보면, 유치원을 이용하는 보호자는 5점 척도로 조사한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4.0점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재정을 통해 제공되는 아동돌봄서비스로서 유아교육은 연간 1인당 230만원 규모로 높게 수혜를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 금액은 서비스를 생산하는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유아교육의 실제 수혜도는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유아교육과 타 돌봄서비스의 연계성은 미진하나 일부 서비스연계성을 찾아볼 수 있다. 유치원별 초등연계 수업은 대표적인 연계사업이다. 또한 유치원 방과 후과정에 초등저학년 형제의 참여는 맞벌이 부모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서도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통합돌봄 제공 측면에서 살펴볼 때 맞벌이 부모의 출·퇴시간대에 유치원 등·하원을 조력해 줄 수 있는 아이돌보미의 파견연계 또는 공동육아 나눔터, 유아숲체험원 등과의 프로그램 연계 등 여타 돌봄서비스와의 연계성 강화 방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표 III-2-14〉 유아교육 이용분석(2021년도 말 기준)

생애주기	서비스명	접근성			상용성			효과성		연계성	
		취원율 (%)	무상 (여부)	제한 (조건)	1일 (천명)	1일 (시간)	이용률 (%)	만족도 (점)	수혜도 (천원)	계획 (여부)	실행 (여부)
영유아기	유아교육	83.0	무상 (일부 자부담)	없음	583	7'4"	35.1	4.0	1,536	유	유

주 1. 취원율은 정원대비 현원 비율임.

2. 1일 이용시간은 월평균(20일) 이용시간을 1일로 환산함.

3. 이용률은 대상연령 아동수 대비 이용 아동수 비율임.

4. 만족도는 5점 척도 설문조사 결과임.

5. 수혜도는 사업비를 대상연령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사업비를 의미함.

6. 계획(여부)과 실행(여부)은 동 서비스가 여타 아동돌봄서비스와 통합 또는 연계운영하도록 계획되는지와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구자가 조사·분석한 것임.

자료 1.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a(‘21년 유치원 교육통계 학교별 주요 현황).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5446&survSeq=2021&itemCode=01&menuId=m_010104&uppCd1=010104&ppCd2=010104&flag=A. 2022. 8. 17, 인출.

2. 김은설 외(2021).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p. 228.

3. 교육부(2018).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pp. 9-28.

7) 시간제보육 지원사업

가) 시간제보육 지원사업 일반현황

시간제보육이란 무상보육·교육을 지원받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부가 시간단위로 지원하는 보육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법령상 시간제보육을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대부분이다(보건복지부, 2021c: 306)⁴²⁾. 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2013년 일시보육 제공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어 2021년 현재 857개소(반 기준)가 운영 중이다.

시간제보육 지원대상은 양육수당을 받는 가구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이며 월 최대 8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간당 이용단가는 4천원으로 정부 지원금 3천원과 부모 자부담금 1천원을 재원으로 한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 2022: 13). 시간제보육 이용 신청은 온라인(임신육아종합포털) 또는 관 리기관 및 제공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인력은 보육교사 자격소지자이며, 총 보육경력 3년 이상, 특별직무교육 이수자가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 2022: 10).

42)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밖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 관련 시설로 구분된다. 2020년 말 기준 어린이집 534개소(78.4%), 육아종합지원센터 146개소(21.4%), 그밖에 시설 1개소로 조사되었다.

2021년 정부가 조사한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는 영아 자녀가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는 조사에서 2.6%로 나타났고 97.4%는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은설 외, 2021: 327). 이에 따라 이용아동수와 이용률은 여타 아동돌봄 제공서비스와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이다. 2021년 사업비는 국비기준 21,570백만원(지방비 매칭분 미포함)으로 전체 영유아 대상인원을 감안하면 사업비는 비교적 적은 규모로 운용되고 있다.

〈표 III-2-15〉 시간제보육 일반현황(2021년도 말 기준)

생애주기	서비스명	지원대상 인구수(명)	개소수 (반)	이용 아동수(명)	이용률 (%)	사업비 (백만원)
영유아기	시간제보육 지원사업	6-36개월 미만 (707,726)	857	10,434	1.5	21,570

주 1. 이용률은 전체 대상연령 인구수 대비 이용아동수 비율임.

2. 사업비는 2021년도 시간제보육 지원 국고보조금 국비 기준.

자료 1. 보건복지부(2022c).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p. 307.

2. 보건복지부(2022a). 2021년도 보육통계. p. 298.

3. 보건복지부(2022g). 내부자료(2022년 0-2세 영아대상 지원사업). p. 1.

4.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cpi.or.kr/kcpi/cyberpr/childcarestat4.do>). 2022. 9. 12, 인출.

나) 사업분석

시간제보육 지원사업은 이용대상 부모와 제공기관 담당자들이 인식하는 사업목적과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동돌봄 제공시설로써 양적 측면에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조사한 시간제보육에 대한 일반의 인지도는 53.8%로 낮은 수준이며, 이용률은 전체 이용대상 영유아대비 1.8%로 낮게 조사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용자 대상 조사에서 다수가 필요한 제도로 인식하여 지지하고 있으며 만족도 또한 이용자의 91.7%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한국보육진흥원, 2019: 재인용, 김은설 외, 2020: 15). 또한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만족도는 5점 척도 3.9점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앞서 2015년(3.85점), 2018년(3.7점)에 조사한 결과치보다 높은 수치이다(김은설 외, 2021: 329-330).

시간제 보육 확대의 필요성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다수 동의하였으나 시설 자체가 양적으로 부족하고, 서비스 자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영유아 부모의 인지도와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서비스 접근성과 상용성을 낮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용비용과 조건 등을 살펴보면 접근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용비용은 원칙적으로 유상이나 실비수준에서 부담한다. 시간당 4천원의 비용 중 3천원은 정부보조이며 자부담은 1천원이며, 소득수준이나 거주지 등에 제한 없이 대상 아동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는 장난감 및 교재교구를 활용한 놀이교육이 제공된다. 어린이집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관련법령과 운영지침 등에서는 여타 아동돌봄서비스와 제도적 연계성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극히 일부 자치단체에서 공동육아나눔터와 함께 설치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사례 외에는 별다른 연계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특성은 이용의 편의성과 긴급상황 대응 용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부모의 외출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부모 부재 시 아이를 대신 보호해 주는 유용한 돌봄시설이다. 따라서 시설의 설치와 운용은 다양한 돌봄시설 간 연계와 협력이 요구된다. 돌봄시설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장난감과 교재교구의 비치 등 기본적 설비도 시설별로 비치할 것이 아니라 장난감대여점 등에서 순회하며 제공하는 연계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담임교사 유고시 공백을 매꿀 수 있도록 어린이집 대체교사 활용방안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부모가 감염병 조사 등을 위해 병원을 이용해야 할 경우 등 영유아를 동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틈새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로써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지역단위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표 III-2-16〉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 이용분석(2021년도 말 기준)

생애 주기	서비스명	접근성			상용성			효과성		연계성	
		인지도 (%)	무상 (여부)	제한 (조건)	1일 (천명)	1일 (시간)	이용률 (%)	만족도 (점)	수혜도 (천원)	계획 (여부)	실행 (여부)
영유아기	시간제보육 지원사업	53.8	유상 (일부 자부담)	없음	10	4 ¹⁾	1.5	3.9	30	무	무

주 1. 인지도는 설문조사 결과임(전국 부모 2,500명/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2. 1일 이용시간은 지침 상 월 (운영 20일) 80시간을 1일 기준으로 환산한 시간임.

3. 이용률은 대상연령 아동수 대비 이용 아동수 비율임.

4. 만족도는 5점 척도 설문조사 결과(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5. 수혜도는 사업비를 대상연령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사업비를 의미함.

6. 계획(여부)과 실행(여부)는 동 서비스가 여타 아동돌봄서비스와 통합 또는 연계운영하도록 계획되는지와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구자가 조사·분석한 것임.

자료 1. 보건복지부(2022c).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pp. 307-316.

2. 보건복지부(2022g). 내부자료(2022년 0-2세 영아대상 지원사업). pp. 1-2.

3. 김은설 외(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329-330.

8)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가) 지역아동센터 일반현황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호·교육·놀이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보호자와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지역사회가 연계체계를 구축한다(보건복지부, 2022f: 3). 동 센터에서는 급·간식 지원을 위한 별도의 시설과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 2004년 895개소를 사회복지시설로 법제화한 이래로 2021년 말 현재 전국에 4,264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이용대상 아동은 18세 미만 아동이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자 선정과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아동을 50% 이상 우선 선정하고 일반아동을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전체 대상아동 인구수 대비 이용률은 2.7%이다. 지침상 대상연령 인구수는 18세 미만 초·중학생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부 미취학 형제, 고교진학 후 계속해서 이용 중인 고교생 등이 포함된다⁴³⁾. 사업비는 국비기준 1,872억원 규모이다.

〈표 III-2-17〉 지역아동센터 일반현황(2020년도 말 기준)

생애주기	서비스명	지원대상 인구수(명)	개소수 (개소)	이용 아동수(명)	이용률 (%)	사업비 (백만원)
아동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초·중학생 (4,012,706)	4,264	106,510	2.7	187,238

주 1. 대상연령인구수는 초·중학생으로 조사함. 지침상 18세 미만 초, 중학교 재학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미취학 아동 및 고교 재학생을 인정.

2. 이용률은 전체 대상연령 인구수 대비 참여 아동수 비율임.

3. 사업비는 2021년도 지역아동센터 국고보조금 국비 교부액 기준.

자료 1.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a, <https://www.icareinfo.go.kr/intro/center/centerAboutus.do?menuNo=2004300>. 2022. 8. 28, 인출.

2. 보건복지부(2021b). 전국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p. 7. pp. 22-24. 42.

3. 보건복지부(2020b). 내부자료(2021년도 지역아동센터 국고보조금 교부액).

4.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f(‘22년 학년별 학급수 및 학생수’).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5445&survSeq=2022&itemCode=01&menuId=m_010104&uppCd1=010104&uppCd2=010104&flag=B. 2022. 8. 17, 인출.

43) 2021년도 ‘보건복지부 전국지역아동 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학년별 입소아동 현황은 초등학교 78.6%, 중학생 16.2%, 기타 5.2%로 보고되었다.

나) 사업분석

지역아동센터 입소아동 현원은 2020년 말 기준 총 106,510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인가정원이 총 114,668명(보건복지부, 2021b: 42)인 점과 비교해 보면 현원이 92.9%로 취원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동 사업의 지침에는 이용대상 아동은 18세 미만 초·중학교 재학 아동으로 누구나 시·군·구(주민자치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에서 온 -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아동 등 취약계층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선정기준을 운용중이다. 또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시설에서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서비스 이용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시간은 1일 8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아동이 하교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운영시간 내에서 가능하다. 전체 대상아동 인구수 대비 이용아동 비율은 2.5%로 이용률은 낮다. 그러나 이는 이 시기 아동이 다양한 돌봄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특히, 사설학원을 이용하거나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등 여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이 다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III-2-18〉 지역아동센터 이용분석(2021년도 말 기준)

생애주기	서비스명	접근성			상용성			효과성		연계성	
		취원율 (%)	무상 (여부)	제한 (조건)	1일 (천명)	1일 (시간)	이용률 (%)	만족도 (점)	수해도 (천원)	계획 (여부)	실행 (여부)
아동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92.9	무상 (일부 자부담)	있음 (우선 조건)	107	8	2.5	4.1	45	유	유 (일부)

- 주 1. 취원율은 정원대비 현원 비율
 2. 1일 이용시간은 지침상 운영시간임.
 3. 이용률은 대상연령 아동수 대비 이용 아동수 비율임.
 4. 만족도는 5점 척도 설문조사 결과(2기 패널조사/207개소 686명/2019년 조사)
 5. 수해도는 사업비를 대상연령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사업비를 의미함.
 6. 계획(여부)과 실행(여부)는 동 서비스가 여타 아동돌봄서비스와 통합 또는 연계운영하도록 계획되는지와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구자가 조사·분석한 것임.

- 자료 1.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2019). 소식지: 기본 좋은 상상. pp. 2-3.
 2.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a. <https://www.icareinfo.go.kr/intro/center/centerAboutus.do?menuNo=2004300>. 2022.8. 28, 인출.
 3. 보건복지부(2021b). 전국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p. 7, pp. 22-24, p. 42, p. 76.
 4. 보건복지부(2022f).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pp. 41-42.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만족도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단체 등을 통해 조사되어 발표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은 서비스 만족도 추이를 시간변화에 따라 관찰해 볼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아동패널을 구축하고 종단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만족도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2021년말 현재 3기 패널은 지역아동센터 207개소의 아동 686명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기관별 만족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7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초기 전체시설 이용자 만족도는 3.8점으로 보통 수준 이상을 기록한 바 있었다. 최근 조사결과로 2019년 아동권리보장원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이 4.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0년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조사결과에서도 4.2점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표 III-2-19〉 지역아동센터 만족도 조사결과

구분	2007	2015	2019	2020
만족도 (5점)	3.8	4.3	4.1	4.2
시행기관	보건복지부	인천연구원	아동권리보장원	인천여성가족재단
응답자	전국/ 2,272개소 7,088명	인천광역시/ 118개소 1,187명	전국/ 207개소 686명	인천광역시/ 162개소 2,354명

주 1. 각 조사 모두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조사로 5점 척도 값으로 조사됨.

자료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07. 12. 10).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만족도 조사결과 발표. pp. 6-7.

2. 배은주(2015).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자 만족도 분석. 인천연구원. p. 26.

3.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2019). 소식지: 기분 좋은 상상. pp. 2-3.

4. 이예진(2021).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인천여성가족재단. pp. 90-91.

한편, 정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하여 시설운영 평가시스템⁴⁴⁾을 도입 운영 중이다. 동 평가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중앙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통해 시행중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설립 시 최초 진입평가와 3년 주기로 시행되는 심화평가를 이행하게 된다. 심화평가의 경우 평가지표는 아동권리, 프로그램, 아동개별지원, 운영기반 등 총 4개 영역 17개 지표로 구성된다. 평가결과는 통과등급(A~D)과 미통과 등급(N,P)으로 나누고 미통과 등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제한 등의 제재를 통해 서비스 질을 관리하고 있다. 2021년

44)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해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심화평가 대상시설 1,067개소 중 통과등급(A~D) 98.6%이고 미통과 등급 1.4%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부, 2021a: 1-2).

〈표 III-2-20〉 지역아동센터 평가결과(2021년도 말 기준)

계	계	A	B	C	D	Non
개소	1,067	523	338	140	51	15
비율	100	49.0	31.7	13.1	4.8	1.4

자료: 보건복지부(2021a). 내부자료: 2021년 지역아동센터 진입 및 심화평가 결과통보. pp. 1-2.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아동의 보호는 물론 급·간식 제공, 교육 등을 담당하는 종합돌봄서비스 제공시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이 규모가 작고 운영이 영세한 실정이다. 시설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와 과업이 많다. 따라서 외부 자원의 동원과 연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지침에는 여타 돌봄서비스와 연계 추진할 것을 권고하는 규정이 여럿 있다. ‘초등돌봄교실’과의 연계, ‘드림스타트’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과 관련하여 출석인정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시설별 ‘운영규정 (예시)’에도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f: 53, 256-263, 269-282). 특히, 아동권리보장원과 시도의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기관의 담당사무로 분장하고 이를 추진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지침 상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센터가 여타 돌봄시설이나 프로그램과 통합 또는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심화평가 지표에 통합 또는 연계추진에 대한 항목을 삽입하여 가점을 부여하거나, 또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 간 연계 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좀 더 실질적인 유인책이 필요해 보인다.

9)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사업

가) 다함께돌봄센터 일반현황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가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아동돌봄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보건복지부, 2022b: 3). 이 시설의 설치·운영 목적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 돌봄서비스 및 급·간식 제공, 방과후 교육 및 예체능 프

로그램 제공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사업지침에서는 초등돌봄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틈새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기능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정부가 2017년 시범사업(10개소)을 거쳐 2019년 아동복지법을 개정을 통해 제도화 한 시설로 비교적 최근에 문을 연 아동돌봄시설이다. 동 시설의 확충을 위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2021년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이 시설을 설치토록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 현원은 2021년 6월 말 기준 총 12,190명으로 조사되었다. 취원율은 인가 정원(총 13,061명) 대비 93.3%로 이용효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사업추진 연혁이 짧아 이용대상 아동에 비해 시설수와 이용아동수가 적고 이용률도 0.46% 아직 미진한 실적이다.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국비 교부액 기준 384억원 규모로 비교대상 아동돌봄서비스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표 III-2-21〉 다함께돌봄센터 일반현황(2021년도 말 기준)

생애주기	서비스명	지원대상 인구수(명)	개소수 (개소)	이용 아동수(명)	이용률 (%)	사업비 (백만원)
아동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	초등학생 (2,664,278)	694	12,190	0.46	38,450

주 1. 대상연령인구수는 초등학생으로 조사함. 지침상 초등학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미취학 아동을 인정.

2. 이용률은 전체 대상연령 인구수 대비 이용아동수 비율임.

3. 이용아동수는 2021년 6월말 기준.

4. 사업비는 2021년도 다함께돌봄센터 국고보조금 국비 교부액 기준.

자료. 1.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b, https://www.dadol.or.kr/center/center_info. 2022. 9. 4, 인출.

2. 보건복지부(2022b). 2022년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p. 3.

3. 보건복지부(2020a). 내부자료(2021년도 다함께돌봄센터 국고보조금 교부액).

4.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1). 온마을이 함께 키우는 아이 다함께돌봄. pp. 20-21.

5.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f('22년 학년별 학급수 및 학생수').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5445&survSeq=2022&itemCode=01&menuId=m_010104&uppCd1=010104&uppCd2=010104&flag=B. 2022. 8. 17, 인출.

나) 사업분석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부모들의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초등 부모 2,000명을 대상으로 '다함께돌봄센터의 기능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33.7%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김근진·유해미·조혜주, 2021: 186-187). 동 사업의 연혁이 짧고 사업규모가 적은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정부가 사업의 목적에서 밝힌 바대로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기 학교 밖 돌봄의 틈새돌봄 제공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설에 대한 요구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모들은 다함께돌봄센터, 초등방과후교실 등이 포함된 초등돌봄정책이 유·초등 돌봄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집중해야할 정책, 가장 성과가 높은 정책으로 각각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근진 외, 2021: 190-191, 193-194). 이는 사업의 규모나 시설의 개소수에 관계없이 틈새돌봄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방증이다.

이용대상 아동은 기본적으로 만6세부터 12세 이하 초등학생으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이용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이용아동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초등학교 재학 아동은 누구나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온종일돌봄원스톱 서비스'에서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초생활수급자 아동 등 취약계층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선정기준을 운용중이다. 또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시설에서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서비스 이용료를 수납하고 그 외 급·간식 등 개별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수익자 부담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설 이용 접근성은 시설수가 적다는 점 외 이용비용과 제한조건은 큰 장애요인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은 1일 8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아침, 저녁시간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전국 30개소를 선정 운영시간 연장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전체 대상아동 인구수 대비 이용아동 비율은 0.4%로 이용률은 낮다. 그러나 이는 이 시기 아동이 다양한 돌봄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특히, 사설학원을 이용하거나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여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이 다수이고 앞선 언급한대로 이 시설이 기능상 틈새돌봄시설로서 역할하고 있다는 점이 이용률이 낮은 이유로 분석된다.

반면, 보건복지부가 2021년 10월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4.6점(5점 척도)으로 조사되었다. 동 시설이 사업을 시작한 연혁이 짧고 프로그램 등 사업내용도 아직 개발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취학전 영유아기 보육·교육시설이 일반적으로 종일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초등학령기 아동의 경우 방과후 돌봄공백이 상존했던 점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기대감이 표출되어 만족도에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시설의 장점은 설립단계부터 여타 돌봄서비스와 통합·

연계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교육시설과 복지시설의 통합, 마을돌봄 모델의 개발, 그리고 초등돌봄교실 등 학교 안 돌봄프로그램과 학교 밖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이 사업추진 방향이다. 그러나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제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국회에서 발의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여전히 계류 중에 있다. 그래서 다함께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실질적인 연계협력 방안 마련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표 III-2-22〉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분석(2021년도 말 기준)

생애주기	서비스명	접근성			상용성			효과성		연계성	
		취원율 (%)	무상 (여부)	제한 (조건)	1일 (천명)	1일 (시간)	이용률 (%)	만족도 (점)	수해도 (천원)	계획 (여부)	실행 (여부)
아동기	다함께돌봄 센터 운영지원	93.3	유상	있음 (우선 조건)	12	8'	0.4	4.6	11.9	유	유 (일부)

주 1. 취원율은 2021년 6월기준 정원(13,061명)대비 현원(12,190명) 비율.

2. 1일 이용시간은 지침상 운영시간임.

3. 이용률은 대상연령 아동수 대비 이용 아동수 비율임.

4. 만족도는 5점 척도 설문조사 결과(이용부모, 1,097명, 21. 10. 29.~12. 10)

5. 수해도는 사업비를 대상연령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사업비를 의미함.

6. 계획(여부)과 실행(여부)는 동 서비스가 여타 아동돌봄서비스와 통합 또는 연계운영하도록 계획되는지와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구자가 조사·분석한 것임.

자료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 3. 1). 다함께돌봄센터 아침·저녁(7~9시) 운영 연장 실시.

2.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1). 온마음이 함께 키우는 아이 다함께돌봄. pp. 20~21.

3. 보건복지부(2022b). 2022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pp. 44~46, p. 48, p. 124.

10) 초등돌봄교실 지원사업

가) 초등돌봄교실 일반현황

초등돌봄교실은 돌봄 공백시간 해소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다. 유치원과 어린 이집을 졸업한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겪게되는 하교 후 돌봄공백에 대 해 보호와 교육 두 가지 모두를 목표로 하고 있다(교육부 외, 2022: 13). 돌봄 공백 은 주중/방학중에 주로 발생하고 자녀 연령이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맞벌이 가구 일수록 돌봄 공백이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김영란 외, 2018: 120).

이에 따라 이 시기 부모들은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다. 영유아 가구 대 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 어떠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지 수요를 조사한 결과, ‘학원 등 사교육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가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의 방과후 교실 이용 30.3%, 초등학교돌봄 교실 이용 16.8%로 그 뒤를 이었다(이정원·이정림·김태우, 2018: 166). 후자의 주된 목적은 사교육 비용절감, 부모의 경제활동 참가(백순근·이슬비·장지현·양현경, 2019: 67-68)라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초등돌봄서비스는 전학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2021년 현재 256천 여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전체 학생수 대비 9.6%에 해당한다. 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1, 2학년이 그 중 220천명으로 86.0%를 차지했고 나머지 학년 전체가 14.0%로 조사되어(교육부b, 2021: 5) 초등 저학년 시기의 돌봄수요를 반영한다.

서비스는 전액 무상으로 제공되나 일부 프로그램비와 급·간식비는 수익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간 사업비는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 2,319억원 규모⁴⁵⁾로 파악된다.

〈표 III-2-23〉 초등돌봄 일반현황(2021년도 기준)

생애주기	서비스명	지원대상 인구수(명)	개소수 (개소)	참여 아동수(명)	이용률 (%)	사업비 (백만원)
아동기	초등돌봄 교실 운영지원	초등학생 (2,664,278)	6,120	256,213	9.6	231,894

주 1. 이용률은 전체 초등학생 중 참여 아동수 비율임.

2. 사업비는 2022년도 예산액 기준 (지방교육재정 예산공시액)

자료 1.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s://eduinfo.go.kr/portal/intg/intgInfTColBudgPage.do?mainM=1&subM=1&myInfId=0FEXZ4XGFEQRKMYDUNEJ9785601&myLinkFlag=Y&myInfNm=>). 2022. 8. 17, 인출.

2. 교육부(2021b).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 방안(안). p. 5.

3.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22년 학년별 학급수 및 학생수').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5445&survSeq=2022&itemCode=01&menuId=m_010104&uppCd1=010104&uppCd2=010104&flag=B. 2022. 8. 17, 인출.

나) 사업분석

초등돌봄교실은 부모의 이용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21년 8월 정부는 돌봄교실 5,000실을 추가 확보하고 운영시간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교육부, 2021b: 16-17). 동 시설은 2022년 현재 11,980실

45) 2021년까지는 교육부가 공시가는 세출항목을 초등학교내지 고등학생까지 포함되는 방과후학교 사업비에 포함되어 '초등돌봄교실사업비'를 별도 계리하기 어려웠으나 2022년부터 세분하여 고시하고 있어 2022년도 사업비를 통해 그 규모를 분석코자 명기함.

이 운영 중이나 입소 대기자가 발생하는 실정이므로 실제로 취원율은 최대치라 할 수 있다. 이용률이 낮은 이유도 공급이 부족한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용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맞벌이와 저소득층 등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함에 따라 기본적으로 접근성이 높지 않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공급 부족(이재희 외, 2017: 141), 까다로운 자격 요건(이재희 외, 2017: 141), 하교 후 재이용 불가조건(김근진 외, 2019: 292) 등과 함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사유로 작용하고 있다.

1일 이용시간에 대한 공인된 통계가 없어 1일 운영시간 4시간 30분 전체를 이용시간으로 파악했으나 여전히 부모 퇴근 시간과의 사이에 공백이 발생하여 완전히 돌봄공백을 해소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⁴⁶⁾.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매년 2018년도 이용자 만족도는 95.9%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책연구기관의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대상 조사결과에서는 5점 척도 기준 3.8점으로 나타났다(김근진 외, 2021: 185-186).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돌봄교실은 몇 가지 운영상 문제점도 확인된다. 운영지침(교육부 외, 2022: 16)은 이 시설의 운영목표를 “모든 아이가 행복한 돌봄서비스 제공”이라고 정하고 핵심과제로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서비스 활성화”라고 천명하고 있다. 돌봄의 통합적 접근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해 보인다. 특히, 중점추진할 과제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정하고 있어 사업방향 설정도 높게 평가된다. 그러나 시행단계에서 추진되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여타 돌봄서비스와의 이렇다할 연계서비스는 파악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배치된 초등돌봄전담사 한명이 돌보는 아동의 수가 많아서 상호작용 한계 등으로 돌봄의 질이 떨어진다는 조사결과와 부모와의 소통도 제한되어 있다(장수정·송다영·백경훈, 2019: 280-281)는 연구결과가 있다. 따라서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부모의 요구와 아동의 선호를 보장할 수 있는 질 높은 아동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 돌봄시설 설치의 장점을 살리되 다양한 학교 밖 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은 물론 여타의 아동돌봄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한 통

46) 돌봄교실은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94.8%에 이르고, 동아일보-고려대-한국리서치가 주관한 2015년도 대한민국 정책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교육부 동정자료, 2017. 1. 19).

합돌봄체계의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근거법⁴⁷⁾ 마련이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조사에 의하면 근거법이 없을 경우 지자체 내 전담조직 및 인력 배치 그리고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장명림 외, 2020: 73).

〈표 III-2-24〉 초등돌봄교실 이용분석(2021년도 말 기준)

생애주기	서비스명	접근성			상용성			효과성		연계성	
		취원율 (%)	무상 (여부)	제한 (조건)	1일 (천명)	1일 (시간)	이용률 (%)	만족도 (점)	수혜도 (천원)	계획 (여부)	실행 (여부)
아동기	초등돌봄 교실 운영지원	-	무상 (일부 자부담)	있음 (맞벌이, 저소득층 등)	256	4'30*	9.5	3.8	86	유	무 (미진)

주 1. 1일 이용시간은 지참상 운영시간임.

2. 이용률은 대상연령 아동수 대비 이용 아동수 비율임.

3. 만족도는 5점 척도 설문조사 결과임.

4. 수혜도는 사업비를 대상연령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사업비를 의미함.

5. 계획(여부)과 실행(여부)는 동 서비스가 여타 아동돌봄서비스와 통합 또는 연계운영하도록 계획되는지와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구자가 조사·분석한 것임.

자료 1. 교육부(2021b).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 방안(안). p. 5.

2. 김근진 외 (2021).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Ⅳ): 2022~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pp. 185~186.

3. 교육부 외(2022).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개정판 2022). pp. 51~64. pp. 83~84.

한편, 정부는 앞서 살펴본 초등돌봄서비스 외에도 ‘방과후학교’라고 불리는 서비스를 2006년 이래로 제공 중이다. 이는 방과후에 진행되는 교과과정 예·복습과 진인적 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아동의 하교 후 돌봄적 접근이라기 보다는 사교육비 경감과 부모지원이라는 교육정책적 목표가 더 뚜렷하다. 기왕에 학생이 하교 후 예·보습을 해야 한다면(학원 등 시설이용 아동보호 목적도 있음) 사설학원보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공적서비스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아동의 안전과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부모의 요구와 국가의 기대가 맞아 떨어져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학교에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다. 일부 학생의 경우 부모 퇴근 시간에 맞추어 하교하기 위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끝나면 초등돌봄교실에서 제공되는 저녁돌봄 프로그램⁴⁸⁾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2021년 현재 전체 초·중·고교 중 5,701개교

47) 이와 관련하여 2020년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2022년 10월 현재 학교노조의 반대 등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가 참가하고 있으며 학생수는 전체 5,353,075명 중 975,500명이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2-25〉 방과후학교 일반현황(2021년도 기준)

구분	대상 연령	학생수 (명)	참여 학교수 (개소)	참여 아동수 (명)	이용률 (%)	'22년 사업비 (백만원)
방과후 학교	만6- 만18	5,323,075	5,701	975,500	18.3	261,075

주 1. 이용률은 전체 초·중·고학생 중 참여 아동수 비율임.

2. 사업비는 2022년도 예산액(지방교육재정 예산공시액) 기준임.

자료 1.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s://eduinfo.go.kr/portal/bbs/eduinfoPage.do>). 2022. 8. 17, 인출.

2. 교육부(2021a). 2021년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통계. p. 1.

3.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21년 학년별 학급수 및 학생수').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5445&survSeq=2021&itemCode=01&menuId=m_010104&uppCd1=010104&uppCd2=010104&flag=B. 2022. 8. 17, 인출.

3. 통합적 아동돌봄 지원정책 비교분석

상기한 주요 아동돌봄 지원정책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기반, 행·재정의 투입과 이에 대한 만족도 및 효과성, 이용의 연계성과 형평성 등 제도운영 전반에 대해 비교 분석을 실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 통해 어느 연령주기의 어떤 서비스의 정책 설계에서 어떤 지점이 수요자 입장의 통합적 관점에서 가장 큰 격차와 공백 또는 어려움의 사각지대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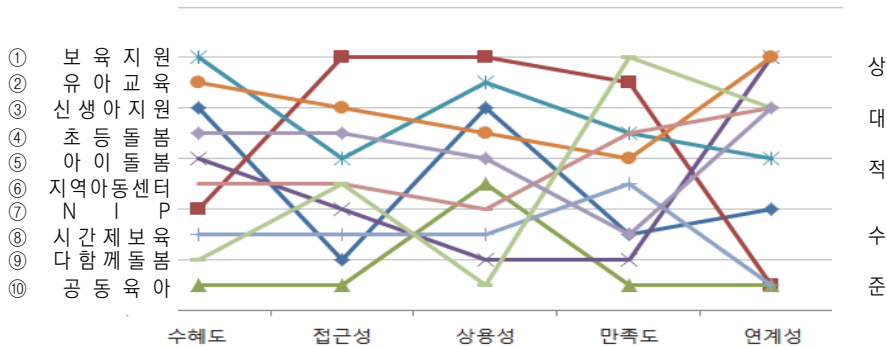
앞서 분석한 아동돌봄 지원정책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분석지표를 그림으로 나타낸 캔버스(canvas)를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NIP)’이 여타 아동돌봄서비스 보다 접근성, 상용성, 만족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또한 유아교육도 수혜도, 접근성, 연계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아이돌봄, 시간제 돌봄, 다함께 돌봄, 공동육아 등 대표적인 가정육아 지원서비스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낮게 나타나고 다만 아이돌봄서비스만이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지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사업비를 지원연령 인구수로 나눈 사업비를 의미하는 수혜도는 보육, 유아교육, 신생아 지원이 상대적 수준이 높

48) 초등돌봄 프로그램은 아침돌봄(07:00-09:00), 오후돌봄(방과후 - 17:00), 오후연장형돌봄(17:00-19:00, 저녁 미제공), 저녁돌봄(17:00-22:00, 저녁제공)으로 구분된다.

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사업비 규모가 큰 반면 대상연령 인구수 구간이 비교적 작아 1인당 소요사업비가 많이 산출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시간제보육, 다함께 돌봄, 공동육아는 전체사업비 규모는 작은 반면 대상연령 구간은 커서 아동 1인당 수혜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II-3-1] 아동돌봄 지원정책 분석 캔버스(Canvas)



- 주 1. 그래프는 대상서비스의 지표별 상대적 수준을 나타내며, 세로축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 주 2. 세로축 지표별 상대적 수준은 차이를 반영할 뿐 크기를 반영하지 않는다.
- 주 3. 가로축 지표 간에는 배타적으로 설정되며 지표 간 수준은 반영하지 않는다.

둘째, 대상서비스를 누구나 시간적, 공간적, 제도적 거리에 관계없이 원하는 때에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한 ‘접근성’의 경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NIP), 유아교육, 초등돌봄, 보육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에 대한 부모들의 인지도가 높고, 시설수, 보편적 지원정책 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신생아 지원, 공동육아, 시간제 보육 등은 인지도도 낮을 뿐만 아니라 시설수가 작고 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기인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대상서비스가 연중 평일 또는 휴일에 제공되는지 여부와 대상연령 아동의 이용률 등을 분석한 ‘상용성’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NIP), 보육, 신생아 지원, 유아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들은 제도설계 단계부터 운영시간 또는 이용시간을 부모 근무시간 등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의 편의성이 높고 상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다함께 돌봄, 아이돌봄, 시간제 보육 등은 이용시간 및 소득수준 등 대상자 선별, 서비스 이용료 자부담 등으로 이용률이 낮아

상용성이 여타 서비스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서비스 이용에 따른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다함께 돌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NIP), 보육, 지역아동센터, 유아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서비스는 국가가 필수적으로 제공해야할 아동돌봄서비스라는 점, 그리고 여타 서비스에 비해 부모의존도가 큰 서비스로 오랫동안 서비스의 양과 질 개선 사업이 병행되고 투자비를 늘려 왔던 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다함께 돌봄의 경우 앞서 분석한 바대로 그동안 영유아기 종일 돌봄서비스 제공 위주의 정책에서 초등학교방과후 돌봄 공백 해소 정책이 신설되면서 부모들의 기대감이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공동육아, 아이돌봄, 신생아지원 등은 사업이 시행된 이래로 이렇다 할 제도적 개선이 없었고, 소득수준에 따라 부모 자부담분이 존재하며 서비스제공 인력에 대한 전문성 제고 등이 약하다는 인식에서 만족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초등돌봄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부모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이는 조사방식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여타 서비스와 비교한 부모만족도는 신청제한 조건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고려됨에 따라 다소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섯째, 각 서비스 간 연계 또는 통합추진 여부를 알아 본 '연계성'은 아이돌봄, 유아교육, 방과후 돌봄(초등돌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순으로 조사되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여타 서비스와의 연계성이 비교적 높고, 유아교육의 경우 방과후 과정, 초등학교 과정과의 연계 등 특별한 연계 서비스가 설계되어 있으며, 앞서 언급된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학교와 마을, 학교 밖 서비스 간 연계서비스가 추진되고 있어 여타 서비스보다는 높다고 분석된다. 그러나 어린이국가예방접종(NIP)은 건강·보건 정책의 특성 상 서비스 간 연계추진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시간제 보육, 공동육아 등은 이용부모로부터 요구도가 높고, 연계추진 대상 서비스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나 아직까지 사업규모가 작고 서비스의 내용(Contents)이 비교적 단순할 뿐만 아니라 제도적 뒷받침 또한 부족해 서비스 간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앞서 주요(10대) 아동돌봄서비스의 제도적 기반과 운영현황 및 서비스 이용자의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영아기(신생아기), 영유아기 돌봄서비스는 비교적 연혁이 길고 사업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공동육아를 제외하면 제도적 접근성과 상용성 및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어린이국가예방접종은 소요 사업비는 여타 서비스에 비해 작은 반면 접근성, 상용성, 만족도의 상대적 수준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체불가 서비스로써 입지를 확고히 굳힌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아동기 돌봄서비스는 비교적 제도시행 연혁이 짧고 사업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접근성, 상용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아동기 돌봄서비스(초등돌봄, 다함께 돌봄, 지역아동센터)는 제도 설계의 특성 상 여타 서비스와의 연계성이 비교대상 서비스 중에서는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서비스는 제도설계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서비스 간 또는 기타 지역자원 간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성 측면에서 분석대상 10대 사업 모두 연계성 또는 통합성의 절대적 수준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이에 대한 연구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아동돌봄 지원정책의 추진 연혁은 영유아기 서비스가 먼저 발달하였고 이후 영아기(신생아기), 아동기 순으로 발달해 왔다. 이에 따라 제도시행 시기가 다른 점이 기본적으로 아동돌봄서비스 간 통합적 연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분절적으로 사업이 시행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본 장에서 앞서 살펴본 통합돌봄의 요건 중 ‘목적(기능)의 통합성’ 측면에서 아동돌봄 지원정책은 아동지원과 부모지원이라는 두 개의 큰 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동지원 서비스의 통합성은 아동을 중심으로 시간적·공간적 이동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별 돌봄서비스 간 목적과 기능적 측면에서 통합적 연계가 분절 없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적 접근이다. 또한 부모중심 서비스의 통합성은 부모를 중심으로 부모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돌봄서비스가 부모의 심리지원 또는 사회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개별 서비스간 목적과 기능이 통합적으로 연계가 분절 없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접근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주요 돌봄서비스는

목적의 통합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개별 서비스별 사업목적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두 번째로 ‘관점의 통합성’은 아이를 중심으로 돌봄환경체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적 접근이다. 현행 제도하에서 학교와 학교 밖의 돌봄시설 간 연대 또는 육아지원기관 간 연대 등은 매우 미진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마을단위 육아자원의 통합 및 육아네트워크의 조성 등 온종일 돌봄지원 사업의 법률적 제도화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

세 번째로 ‘대상의 통합성’은 돌봄대상 아동이 시설단위 또는 서비스 단위가 아닌 기능적 연대 또는 보완적 연대 등을 통해 원스톱(one stop) 전달체계가 운영되는지에 대한 접근이다. 이 또한 현행 각 돌봄정책은 시설 간 연계 또는 정보공유에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실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 또한 매우 민감하여, 법률적 제도의 마련과 아동돌봄 플랫폼(platform)의 구축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V

수요자 관점의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이용가능성 및 연계 분석

- 01 아동의 발달주기별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 02 아동의 발달주기별 돌봄서비스 접근성 및 연계·통합
- 03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에 대한 의견
- 04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IV. 수요자 관점의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이용가능성 및 연계 분석

1. 아동의 발달주기별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가. 조사참여가구 응답자 특성

수요자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을 위한 돌봄 현황 및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과 만족도 등 돌봄에의 접근성과 이용의 연속성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수요자 부모와 아동이 돌봄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공백과 단절, 사각지대를 파악함으로써 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에 필요한 우선 과제와 주요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조사는 0~12세 자녀를 둔 전국의 자녀양육가구 부 또는 모 2,18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하였으며(2022년 9월), 아동 연령별 할당을 통해 조사 회사 대규모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부모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IV-1-1〉 부모 조사 응답자 특성①-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구분	계(수)	구분	계(수)
응답자 전체	100.0(2,183)	응답자 자녀 전체	100.0(3,333)
응답자 성별		응답자 자녀 성별	
남	48.0(1,047)	남	50.0(1,666)
여	52.0(1,136)	여	50.0(1,667)
지역규모		응답자 자녀 만 연령(주 응답 기준 자녀)	
대도시	43.7(955)	0세	6.8(228)
중소도시	44.9(981)	1세	6.8(228)
읍·면	11.3(247)	2세	7.2(241)
지역		3세	7.8(260)
수도권	47.5(1,036)	4세	7.7(258)

구분	계(수)	구분	계(수)
강원권	3.4(74)	5세	8.1(269)
충청권	12.8(280)	6세	7.6(254)
호남권	11.2(245)	7세	7.2(241)
영남권	25.1(548)	8세	6.8(227)
응답자 연령		9세	6.5(215)
30대이하	54.2(1,184)	10세	6.6(221)
40대	42.2(922)	11세	5.8(193)
50대이상	3.5(77)	12세	5.5(186)
응답자 결혼 상태		13세 이상	9.4(314)
기혼	96.5(2,107)	응답자 자녀 취학 여부	
미혼	2.3(51)	미취학	52.1(1,737)
기타(이혼, 사별등)	1.1(25)	취학	47.9(1,596)
응답자 자녀1		미취학 자녀 이용 기관	100.0(1,737)
영아	31.9(697)	어린이집	54.2(942)
유아	47.7(1,041)	유치원	26.2(455)
초등저학년	31.3(683)	반일제 이상 학원	0.9(15)
초등고학년	27.4(598)	기관 미이용	18.7(325)
응답자 자녀2		현재 초등돌봄 이용	100.0(1,053)
미취학	65.9(1,438)	이용	65.4(689)
초등학생	48.2(1,052)	미이용	34.6(364)
중학생	10.2(222)		
고등학생	2.9(59)		
성인	1.1(23)		
취약가구 여부			
해당	13.7(300)		
비해당	86.3(1,883)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 수요자(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응답 가구내 자녀 전체를 고려한 응답은 아동 수 3,333명에 대한 응답으로, '미취학자녀의 이용기관' 분포는 어린이집 54.2%, 유치원 26.2%, 반일제이상 학원 0.9%, 기관 미이용 18.7%로 나타났으며, '초등돌봄'의 경우 초등자녀 가구의 65.4%에서 (방과후학교를 포함하여) 공적 초등돌봄 서비스를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IV-1-2〉 부모 조사 응답 가구 특성②-경제적 특성

단위: %(명)

구분	계(수)	구분	계(수)
모 전체	100.0(2,161)	부 전체	100.0(2,149)
모 연령		부 연령	
30대이하	61.2(1,323)	30대이하	46.2(992)
40대	36.9(798)	40대	49.1(1,055)
50대이상	1.9(40)	50대이상	4.7(102)
모 여부		부 여부	
취업	52.5(1,134)	취업	95.3(2,048)
휴직 중	14.0(303)	휴직 중	2.2(47)
구직 중	4.7(102)	구직 중	1.8(38)
미취업	28.8(622)	미취업	0.7(16)
모 일하는 형태	100.0(1,134)	부 일하는 형태	100.0(2,044)
규칙적으로 출퇴근	86.8(984)	규칙적으로 출퇴근	93.1(1,902)
불규칙하게 출퇴근	10.2(116)	불규칙하게 출퇴근	6.1(125)
출퇴근하지 않음	3.0(34)	출퇴근하지 않음	0.8(17)
모 주 평균 근로시간	100.0(1,145)	부 주 평균 근로시간	100.0(2,048)
20시간 미만	6.2(71)	20시간 미만	1.8(37)
20~40시간 미만	16.8(192)	20~40시간 미만	3.1(63)
40시간 이상	77.0(882)	40시간 이상	95.1(1,948)
평균 근로시간	38.1	평균 근로시간	44.0
모 근로/고용형태	100.0(1,134)	부 근로/고용형태	100.0(2,044)
임금근로자	93.7(1,063)	임금근로자	96.1(1,965)
비임금근로자	6.3(71)	비임금근로자	3.9(79)
모 임금근로자 시 형태1	100.0(1,063)	부 임금근로자 시 형태1	100.0(1,965)
전일제취업	85.0(904)	전일제취업	98.5(1,936)
시간제(파트타임)취업	15.0(159)	시간제(파트타임)취업	1.5(29)
모 임금근로자 시 형태2	100.0(1,063)	부 임금근로자 시 형태2	100.0(1,965)
정규직	84.2(895)	정규직	95.8(1,882)
비정규직(계약직)	15.8(168)	비정규직(계약직)	4.2(83)
모 월평균 소득	100.0(2,161)	부 월평균 소득	100.0(2,149)
250만원 미만	41.0(463)	250만원 미만	6.1(124)
250~450만원	48.3(545)	250~450만원	60.5(1,236)
450~650만원	7.5(85)	450~650만원	24.4(498)
650~850만원	1.6(18)	650~850만원	5.9(121)
850만원 이상	1.5(17)	850만원 이상	3.2(65)

구분	계(수)	구분	계(수)
맞벌이 여부	100.0(2,183)	가구소득 기준	100.0(2,183)
맞벌이	49.1(1,071)	250만원 미만	7.6(165)
외벌이	47.5(1,036)	250~450만원	31.1(678)
해당없음	3.5(76)	450~650만원	33.3(726)
가구원 수	100.0(2,183)	650~850만원	16.6(363)
2인	1.3(28)	850만원 이상	11.5(251)
3인	50.1(1,094)		
4인	40.8(891)		
5인 이상	7.8(170)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 수요자(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부와 모의 취업 및 경제활동에 관한 특성을 살펴보면, 모 취업 52.5%, 모 휴직중 14.0%로 나타났으며, 부 취업 95.3%, 부 휴직중 2.2%로 나타났다. 이로써 맞벌이 가구 49.1%, 외벌이가구 47.5%, 비해당(부모 미취업, 부재 등) 3.5%가 참여하였다.

전체 가구소득 수준은 월 평균 250만원 미만이 7.6%였으며, 850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11.5%로 나타났다.

〈표 IV-1-3〉 부모 조사 응답 가구③-취약특성

단위: %(명)

구분	해당사항 있음 (과거/현재 그러함)	비해당 (과거/현재 아님)	모름	계(수)
기초생활수급여부	6.2	92.4	1.3	100.0(2,183)
법정차상위계층 여부	6.4	91.1	2.5	100.0(2,183)
다문화가족 여부	6.6	92.2	1.2	100.0(2,183)
한부모가족 여부	6.3	92.5	1.1	100.0(2,183)
조손가족 여부	6.0	92.5	1.6	100.0(2,183)
장애가족 여부	6.8	91.8	1.4	100.0(2,183)
장기입원·질환 여부	6.0	92.5	1.5	100.0(2,183)
비정형/플랫폼 노동	6.8	91.3	1.9	100.0(2,183)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 수요자(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전체 응답가구 2,183명 중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및 다문화, 한부모, 조손, 장애, 장기입원질환의 취약가구 특성을 현재/과거 갖는 경우를 '취약가구'로 분류한 결과 13.7%로 나타났다.

나. 돌봄 기관 현황

0~12세 자녀양육 가구의 돌봄 현황 전반과 정부의 육아지원정책 수혜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돌봄(교육·보육·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참여가구의 미취학자녀(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례는 821가구로, 전체 가구(N=2,183)의 37.6%, 미취학자녀 가구(N=1,438)의 57.1%로 나타났으며, 미취학자녀(들)가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례는 429가구로, 전체 가구(N=2,183)의 19.7%, 미취학자녀 가구(N=1,438)의 28.3%로 나타났다. 한편, 공적 '초등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사례는 347가구로, 전체 가구(N=2,183)의 15.9%, 초등자녀 가구(N=1,052)의 33.0%로 나타났다. 이로써 (방과후과정을 포함하여) 올해 기준 초등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초등자녀를 둔 가구의 약 67%로 추정된다(중복응답 결과로, 정확한 이용가구 비율은 아님).

1)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현황 및 미이용 이유- 미취학자녀

미취학자녀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N=821), 현재 다니는 기관유형을 질문한 결과(중복응답 기준), 민간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5.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32.4%, 가정어린이집 15.7%, 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 7.9%, 직장어린이집 6.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본 조사에 참여한 미취학자녀 가구의 경우, 민간/가정 어린이집 61.3%, 국공립/법인단체등/직장 어린이집 46.3%로 약 4:6의 공-사립 어린이집 재원 분포를 보였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부모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외벌이보다 맞벌이/비해당 가구에서, 모 전일제 취업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고졸이하 저학력 가구, 맞벌이여부 비해당(부모 부재 등), 모
휴직중,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취약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민간어린이
집은 모 미취업 및 외벌이 가구, 가구소득 850만원 이상, 비취약가구에서 이용률
이 좀 더 높았다. 직장어린이집은 부모 학력 대학원이상, 맞벌이, 전일제 취업모
가구,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취약특성을 가질 경우 이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 미취학 자녀 이용 어린이집 기관 유형(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수)
전체	45.6	32.4	15.7	7.9	6.0	0.9	(821)
응답자 최종학력							
고졸이하	48.0	23.5	21.6	8.8	2.0	2.0	(102)
3년제 대졸	52.2	24.8	17.8	10.2	3.2	0.6	(157)
4년제 대졸	44.8	35.2	13.7	7.9	6.0	0.6	(466)
대학원 이상	35.4	40.6	15.6	3.1	14.6	1.0	(96)
맞벌이 여부							
맞벌이	45.1	35.7	14.0	7.5	7.0	1.2	(401)
외벌이	47.5	28.6	16.9	8.1	5.2	0.5	(385)
해당없음	28.6	37.1	22.9	11.4	2.9	-	(35)
취업모 여부1							
취업	44.8	35.0	14.3	7.7	8.0	1.1	(440)
휴직 중	33.8	32.3	24.6	8.5	3.8	-	(130)
구직 중	57.1	31.4	8.6	11.4	5.7	2.9	(35)
미취업	53.1	26.5	14.2	7.6	3.3	0.5	(211)
취업모 여부2							
전일제취업	42.6	37.0	14.0	7.3	8.7	1.4	(357)
시간제취업	59.3	22.2	14.8	13.0	1.9	-	(54)
미취업	53.0	27.2	14.3	7.8	3.2	0.5	(217)
가구소득 기준							
250만원 미만	32.4	31.0	21.1	9.9	8.5	-	(71)
250~450만원	47.6	31.0	16.7	7.5	4.1	1.0	(294)
450~650만원	48.3	30.5	13.5	9.3	5.8	-	(259)
650~850만원	40.6	37.6	16.5	5.3	8.3	0.8	(133)
850만원 이상	50.0	37.5	12.5	7.8	7.8	4.7	(64)
취약여부							
취약가구	39.2	35.3	23.5	11.8	11.8	2.0	(102)
비취약가구	46.5	32.0	14.6	7.4	5.1	0.7	(719)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 수요자(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미취학자녀 중 ‘유치원’에 다닌다고 응답한 경우(중복응답), 사립유치원 62.5%, 국공립유치원 39.2%로 (어린이집 재원과 유사하게) 약 4:6의 공-사립 기관 재원 분포를 보였다. 대부분의 응답자들로부터 약 4:6의 공-사립 기관 재원 분포가 나타났으나, 기준자녀 연령이 높을 때(기준자녀1 연령이 초등 고학년일 때) 49.2:54.1, 응답자의 연령이 높을 때(응답자 연령이 50대 이상일 때) 57.1:42.9로 전체 공-사립 기관 재원 분포와는 다른 분포가 나타났다.

〈표 IV-1-5〉 미취학 자녀 이용 유치원 기관 유형(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사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	(수)
전체	62.5	39.2	(429)
응답자 최종학력			
고졸이하	48.3	51.7	(29)
3년제 대졸	72.9	28.6	(70)
4년제 대졸	61.7	40.4	(277)
대학원 이상	60.4	39.6	(53)
맞벌이 여부			
맞벌이	60.4	41.9	(222)
외벌이	64.8	36.2	(196)
해당없음	63.6	36.4	(11)
취업모 여부1			
취업	61.4	40.8	(228)
휴직 중	77.5	22.5	(40)
구직 중	77.3	22.7	(22)
미취업	57.7	43.8	(137)
가구소득 기준			
250만원 미만	47.8	52.2	(23)
250~450만원	59.5	41.2	(131)
450~650만원	73.0	28.5	(137)
650~850만원	61.0	41.5	(82)
850만원 이상	51.8	51.8	(56)
취약여부			
취약가구	55.6	53.7	(54)
비취약가구	63.5	37.1	(375)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 수요자(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고졸이하 부모 학력과 맞벌이/취업모 가구,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취약특성을 가진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이용이 많았다.

〈표 IV-1-6〉 미취학 자녀가 기관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계(수)
전체	64.4	16.8	7.3	6.3	1.6	1.0	0.6	1.9	100.0(315)

주1: ①아이가 아직 어려서, ②가족이 돌보는 것이 아이에게 좋을 것 같아서, ③(국공립어린이집 등) 입소 대기 중/보내려고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중, ④믿을만한 곳이 없어서, ⑤가까운 곳에 없어서, ⑥아이가 가지 않으려고 해서, ⑦비용 부담 때문에, ⑧기타

주2: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 수요자(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미취학 자녀가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놀이학교 등)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N=315)은 미취학자녀 가구(N=1,438)의 약 22%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내 자녀 전체를 고려한 아동 수 3,333명에 대한 응답으로, 미취학자녀의 이용기관 분포는 어린이집 54.2%, 유치원 26.2%, 반일제이상 학원 0.9%, 기관 미이용 18.7%로 나타난 바 있다.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질문한 결과, '아이가 아직 어려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6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가족이 돌보는 것이 아이에게 좋을 것 같아서'가 16.8%, '(국공립어린이집 등) 입소 대기중/알아보는 중' 7.3%, '믿을만한 곳이 없어서' 6.3%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가까운 곳에 없어서'(1.6%), '아이가 가지 않으려고 해서'(1.0%), '비용 부담 때문에'(0.6%)는 적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를 통해 미취학 자녀가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녀의 연령 등 발달상의 이유가 81.2%로 가장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2) 초등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 및 미이용 이유 - 초등자녀

초등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N=1,053) 초등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공공 초등돌봄 서비스 유형을 질문한 결과(중복응답), 53.6%가 초등방과후과정을, 26.4%가 초등돌봄교실(학교돌봄터 포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지역 아동센터 5.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1%, 다함께돌봄센터 2.8%, 온종일/지자체돌봄센터 2.4%로 나타났다.

초등자녀 가구의 약 32.9%가 공공 초등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초등자녀 가구의 1.7%가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이로써 초등자녀가

구 응답자의 약 67%가 (방과후과정을 포함하여) 초등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7〉 초등학생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초등학생 대상 공공 돌봄서비스 유형(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수)
전체	53.6	26.4	5.4	4.1	2.8	2.4	32.9	1.7	(1,053)
지역규모									
대도시	55.9	28.6	6.1	5.6	3.3	3.5	31.4	1.7	(576)
중소도시	49.7	21.7	4.6	2.6	1.8	1.3	35.5	1.8	(392)
읍·면	55.3	32.9	4.7	1.2	4.7	0.0	30.6	1.2	(85)
자녀연령1(기준자녀)									
초등저학년	60.5	34.4	5.1	2.8	3.0	1.8	22.7	2.0	(494)
초등고학년	47.4	19.3	5.7	5.2	2.7	2.9	41.9	1.4	(559)
응답자 최종학력									
고졸이하	41.8	20.3	3.8	3.8	1.3	1.3	34.2	5.1	(79)
3년제 대졸	51.1	13.2	5.2	2.3	1.1	0.6	37.9	2.3	(174)
4년제 대졸	56.2	30.1	5.4	4.5	3.8	2.8	31.0	1.1	(651)
대학원 이상	51.0	28.9	6.7	4.7	1.3	3.4	34.2	2.0	(149)
맞벌이 여부									
맞벌이	55.1	38.1	6.3	5.1	4.4	4.0	29.3	0.4	(570)
외벌이	52.3	12.9	4.6	3.1	0.9	0.2	36.8	0.9	(459)
해당없음	41.7	8.3	-	-	4.2	4.2	41.7	4.2	(24)
취업모 여부1									
취업	55.4	36.8	6.5	5.1	4.1	3.8	29.4	1.3	(603)
휴직 중	56.0	24.0	5.3	1.3	5.3	1.3	29.3	0.0	(75)
구직 중	50.0	8.1	3.2	3.2	0.0	0.0	38.7	3.2	(62)
미취업	50.7	10.4	3.4	2.7	0.3	0.3	39.6	2.0	(298)
취업모 여부2									
전일제취업	56.2	40.1	7.3	6.0	4.7	4.5	27.7	0.9	(466)
시간제취업	59.8	26.1	2.2	2.2	3.3	1.1	30.4	3.3	(92)
미취업	50.7	10.3	3.3	3.0	0.3	0.3	39.3	2.0	(300)
가구소득 기준									
250만원 미만	41.4	41.4	8.6	12.1	1.7	1.7	1.7	1.7	(58)
250~450만원	55.5	32.8	18.8	5.9	2.7	1.2	0.8	2.0	(256)
450~650만원	53.7	35.0	21.7	3.8	1.6	2.4	1.1	1.9	(369)
650~850만원	52.6	29.8	37.2	4.2	5.6	2.8	3.7	0.5	(215)
850만원 이상	56.1	29.0	41.9	7.7	11.0	7.1	6.5	2.6	(155)
취약여부									
취약가구	55.0	33.1	12.5	8.8	5.6	5.0	25.0	1.9	(160)
비취약가구	53.3	25.2	4.1	3.2	2.4	1.9	34.3	1.7	(893)

주1: ①초등방과후과정, ②초등돌봄교실(학교돌봄터 포함), ③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④방과후아카데미(청소년문화의집 등, 여성가족부), ⑤다함께돌봄센터(보건복지부), ⑥온종일돌봄센터/지자체돌봄센터(각 지자체), ⑦기타, ⑧이용기관/서비스 없음, ⑨잘 모름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 수요자(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읍면지역, 초등저학년, 부모학력 4년제 대졸이상, 맞벌이/전일제 취업모 가구, 그리고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손/다문화/한부모 등 취약특성을 갖는 가구에서도 초등돌봄교실 이용률이 비취약가구에 비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는 대도시지역, 부모학력 대학원이상, 맞벌이/취업모 가구에서,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취약특성을 갖는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높았으며, ‘다함께돌봄센터’는 읍면지역, 맞벌이/모 휴직중, 가구소득 850만원이상 고소득 가구에서, 그리고 취약가구에서 좀 더 많은 이용률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초등돌봄 서비스 이용의 자격기준이 제한됨에 따라, 주 이용층이 되는 맞벌이가구의 고소득/고학력 특성과, 취약가구의 특성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IV-1-8〉 초등학생 자녀가 방과후돌봄 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이유(1순위, 2순위, 1+2순위)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전체	100.0(346)	100.0(257)	(346)
사설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41.6	23.0	58.7
가능한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싶어서	15.9	10.1	23.4
이용 자격이 되지 않아서	9.2	10.9	17.3
아이가 가고 싶어하지 않아서	8.1	12.1	17.1
원하는 이용시간과 맞지 않아서	6.9	14.4	17.6
돌봄서비스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4.6	9.3	11.6
신청했으나 탈락해서 이용하지 못함(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다 차서 기회가 없음)	3.2	3.1	5.5
해당 서비스를 잘 알지 못해서(이용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음)	2.3	5.4	6.4
믿을만한 곳이 없어서	2.3	5.8	6.6
가까운 곳에 돌봄기관이 없어서	2.0	2.7	4.0
비용 부담 때문에	1.7	2.7	3.8
기타	2.0	0.4	2.3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 수요자(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초등자녀가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1+2순위

중복응답), ‘사설학원을 다니고 있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58.7%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가능한 한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싶어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3.4%, ‘원하는 이용시간과 맞지 않아서’ 17.6%, ‘이용자격이 되지 않아서’ 신청하지 못했다 17.3%, ‘아이가 가고 싶어 하지 않아서’ 17.1%, ‘돌봄서비스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11.6%로 그 뒤를 이었다.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학원’과 같은 돌봄 기능을 겸하는 외부 시설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비율이 약 60%로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용자격이 되지 않아서, 이용시간이 맞지 않아서 라는 이용 의향이 있으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각 17% 이상으로 응답되었다.

다. 현금 및 시간 지원 이용/수혜 현황

1) 현금-시간 지원 이용 전반

서비스 이용 외 현금 및 시간 지원과 상담/놀이치료와 같은 기타 서비스 이용 및 수혜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IV-1-9〉 현재 받고 있거나 과거에 받은 현금/시간 지원

단위: %(명)

구분		현재 받고 있음	과거 받은 적 있음	현재/과거 받은 적 없음	비해당	계(수)
1) 아동수당		59.6	26.4	14.0	-	100.0(2,183)
2) 영아수당(2022년 출생아 대상)		86.8	4.1	9.1	-	100.0(220)
3) 가정양육수당(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시)		17.4	47.5	35.2	-	100.0(2,183)
4) 첫만남이용권(첫만남 꾸러미)		58.2	29.5	12.3	-	100.0(220)
5) 기타 지자체 현금지원(일회성 포함)		12.2	41.8	46.0	-	100.0(2,183)
6) 육아휴직	(부)	5.7	18.4	64.1	11.8	100.0(2,149)
	(모)	13.7	29.8	34.2	22.2	100.0(2,161)
7) 근로시간 단축	(부)	3.1	10.0	75.1	11.8	100.0(2,149)
	(모)	5.3	18.4	54.1	22.2	100.0(2,161)
8) 육아시간지원	(부)	4.7	7.1	76.4	11.8	100.0(2,149)
	(모)	5.0	10.4	62.5	22.2	100.0(2,161)
9) 가족돌봄휴가	(부)	6.5	12.7	69.0	11.8	100.0(2,149)
	(모)	5.5	12.3	60.0	22.2	100.0(2,161)

구분		현재 받고 있음	과거 받은 적 있음	현재/과거 받은 적 없음	비해당	계(수)
10) 재택근무	(부)	6.5	16.1	65.5	11.8	100.0(2,149)
	(모)	5.8	13.2	58.8	22.2	100.0(2,161)
11)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부)	7.7	10.6	69.9	11.8	100.0(2,149)
	(모)	6.2	11.2	60.4	22.2	100.0(2,161)
12) 상담/놀이치료	(부)	1.7	5.5	81.0	11.8	100.0(2,149)
	(모)	1.9	5.6	70.2	22.2	100.0(2,161)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 수요자(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현재 받고 있거나 과거 받은 경험이 있는 현금과 시간 지원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중복응답), 현금지원으로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받은 적 있는 비율이 전체 응답가구의 86.0%로 나타났다. 만8세 미만 아동 대상의 보편적 지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영아수당'은 지원 대상이 되는 2022년 올해 출생아(N=220) 중 90.9%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써 올해 출생아의 약 9.1%는 영아수당을 수령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전체 응답가구의 64.9%가 현재 받고 있거나 과거에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기타 지자체의 현금지원을 받은 비율은 전체 응답가구의 54.0%로 과반으로 나타났으며, 첫만남이용권(첫만남꾸러미)의 경우 올해 출생아(N=220)의 약 87.7%가 받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전반적으로 현금지원의 도입과 확대에 따라 0~12세 자녀양육가구의 현금지원 수혜율이 과반 이상으로 나타남을 보여준다.

한편 시간지원의 경우, 현재 시간 지원을 받고 있거나 과거에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30% 내외를 보이는 가운데 부-모 간 이용률의 차이를 보이며, 받고 있지 않거나 받은 적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0~70% 내외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육아휴직의 경우 모 현재/과거 이용률 43.5%, 부 24.1%로 다른 시간지원에 비해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근로시간 단축은 모 23.7%, 부 13.1%, 육아시간지원은 모-부 각각 15.4%, 11.8%, 가족돌봄휴가 17.8%, 19.2%, 재택근무 19.0%, 22.6%,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17.4%, 18.3%로 나타나, 육아휴직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무의 이용률이 20% 내외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육아시간지원에 대해 아버지의 76.4%, 어머니의 62.5%가 현재/과거에 받은 적 없다고 응답

하여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그 외 상담/놀이치료와 같은 기타 서비스 지원을 받은 적 있는지 질문한 결과, 아버지의 81%, 어머니의 70.2%가 받은 적 ‘없다’고 응답하여, 아버지의 7.2%, 어머니의 7.5%가 받은 적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상담/놀이치료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현재 시점 실제 이용 경험은 약 7% 정도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현금지원의 확대에 따라 현금지원 수혜율은 상승한 반면, 시간지원의 경우 수혜율이 (증가세 하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여전히 (부의 이용률 상승 하에서도) 성별 격차를 나타내었다. 기타 상담/놀이치료의 경험은 전체 자녀양육가구의 약 7%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초등돌봄 서비스의 이용은 방과후학교를 포함하여 초등자녀 가구의 약 67%로 나타났으나, 초등돌봄교실(학교돌봄터 포함) 이용률은 26.4%, 마을돌봄 이용률은 중복응답의 합으로 14.7%로 조사되어 방과후과정-학교돌봄-마을돌봄 이용기반에 차이를 보였다.

돌봄의 연속성과 통합적 접근을 위해 서비스-현금-시간의 양육지원체계의 정합성과 함께, 개별 서비스 이용 간 연계와 접근성이 아동의 연령주기를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2) 현금지원 이용/수혜 가구 특성

현금지원이 확대되는 현 시점에 현금지원 수혜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및 과거 해당 현금지원을 수령 또는 수령하지 않은 가구의 특성을 ‘영아수당’과 ‘가정양육수당’, ‘지자체 현금지원’의 3개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 영아수당 수령 가구 특성

올해 출생아 중 영아수당을 받은적/받고있는 가구는 90.9%로,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영아수당을 수령하지 않는’ 비율이 부모학력 고졸이하와 맞벌이여부에서 비해당 즉 부모 미취업 또는 부재의 경우, 그리고 가구소득 월 250만원 이하 저소득가구에서 좀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0세아 자녀 양육가구에서 영아수당 대신 어린이집 이용을 선택한 가구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표 IV-1-10〉 현재 받고 있거나 과거 받은 현금 지원: 2)영아수당(2022년 출생아 대상)

단위: %(명)

구분	현재 받고 있음	과거 받은적 있음	현재/과거 받은적 없음	계(수)
전체	86.8	4.1	9.1	100.0(220)
지역규모				
대도시	90.9	3.9	5.2	100.0(77)
중소도시	86.9	4.7	8.4	100.0(107)
읍·면	77.8	2.8	19.4	100.0(36)
$\chi^2(df)$		6.320(4)		
자녀연령1(기준자녀)				
영아	87.6	2.2	10.1	100.0(178)
유아	87.1	6.5	6.5	100.0(31)
초등저학년	77.8	22.2	-	100.0(9)
초등고학년	50.0	50.0	-	100.0(2)
$\chi^2(df)$		21.291(6)**		
응답자 최종학력				
고졸이하	68.0	8.0	24.0	100.0(25)
3년제 대졸	92.7	-	7.3	100.0(41)
4년제 대졸	86.7	5.5	7.8	100.0(128)
대학원 이상	96.2	-	3.8	100.0(26)
$\chi^2(df)$		12.984(6)*		
맞벌이 여부				
맞벌이	87.5	3.1	9.4	100.0(64)
외벌이	87.4	4.2	8.4	100.0(143)
해당없음	76.9	7.7	15.4	100.0(13)
$\chi^2(df)$		1.367(4)		
취업모 여부1				
취업	87.3	4.2	8.5	100.0(71)
휴직 중	87.2	4.7	8.1	100.0(86)
구직 중	100.0	-	-	100.0(3)
미취업	85.0	3.3	11.7	100.0(60)
$\chi^2(df)$		1.191(6)		
취업모 여부2				
전일제취업	87.3	1.8	10.9	100.0(55)
시간제취업	100.0	-	-	100.0(10)
미취업	84.1	4.8	11.1	100.0(63)
$\chi^2(df)$		2.510(4)		
가구소득 기준				
250만원 미만	82.8	3.4	13.8	100.0(29)
250~450만원	91.1	3.3	5.6	100.0(90)
450~650만원	80.9	5.9	13.2	100.0(68)

구분	현재 받고 있음	과거 받은적 있음	현재/과거 받은적 없음	계(수)
650~850만원	90.5	4.8	4.8	100.0(21)
850만원 이상	91.7	-	8.3	100.0(12)
$\chi^2(df)$		5.458(8)		
취약여부				
취약가구	87.1	6.5	6.5	100.0(31)
비취약가구	86.8	3.7	9.5	100.0(189)
$\chi^2(df)$		0.768(2)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 수요자(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나) 가정양육수당 수령 가구 특성

영아수당의 도입 등 현금지원에 변동이 많은 가운데, 2022년 현재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전체 응답가구의 17.4%,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의 27.9%로 나타났다.

대체로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부모 고졸이하 학력, 맞벌이여부 비해당(부모부재 등), 모 휴직중, 모 미취업, 그리고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취약특성을 갖는 가구에서 현재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좀 더 많았다.

현재/과거 가정양육수당을 받은 적 '없다'는 응답은 (대)도시지역, 부모 학력과 가구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맞벌이/모 취업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1〉 현재 받고 있거나 과거 받은 현금 지원: 3)가정양육수당(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시)

단위: %(명)

구분	현재 받고 있음	과거 받은적 있음	현재/과거 받은적 없음	계(수)
전체	17.4	47.5	35.2	100.0(2,183)
지역규모				
대도시	15.3	44.1	40.6	100.0(955)
중소도시	18.2	50.2	31.6	100.0(981)
읍·면	21.9	49.8	28.3	100.0(247)
$\chi^2(df)$		24.682(4)***		
자녀연령1(기준자녀)				
영아	41.9	30.8	27.3	100.0(484)
유아	17.3	61.6	21.1	100.0(646)

구분	현재 받고 있음	과거 받은적 있음	현재/과거 받은적 없음	계(수)
초등저학년	8.3	51.6	40.1	100.0(494)
초등고학년	4.1	41.9	54.0	100.0(559)
$\chi^2(df)$		414.465(6)***		
자녀연령2(기준자녀)				
미취학자녀	27.9	48.4	23.7	100.0(1,130)
취학자녀	6.1	46.4	47.5	100.0(1,053)
$\chi^2(df)$		237.139(2)***		
응답자 최종학력				
고졸이하	20.0	49.3	30.7	100.0(205)
3년제 대졸	17.0	48.3	34.7	100.0(377)
4년제 대졸	17.2	47.6	35.2	100.0(1,323)
대학원 이상	16.9	44.2	38.8	100.0(278)
$\chi^2(df)$		3.963(6)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6	48.4	39.0	100.0(1,071)
외벌이	21.0	47.3	31.7	100.0(1,036)
해당없음	34.2	36.8	28.9	100.0(76)
$\chi^2(df)$		45.463(4)***		
취업모 여부1				
취업	12.6	48.6	38.9	100.0(1,145)
휴직 중	33.7	39.9	26.4	100.0(303)
구직 중	16.7	53.9	29.4	100.0(102)
미취업	18.3	48.9	32.7	100.0(611)
$\chi^2(df)$		80.013(6)***		
취업모 여부2				
전일제취업	13.5	46.7	39.8	100.0(904)
시간제취업	11.3	57.9	30.8	100.0(159)
미취업	18.3	48.7	33.0	100.0(622)
$\chi^2(df)$		17.133(4)**		
가구소득 기준				
250만원 미만	26.7	41.2	32.1	100.0(165)
250~450만원	24.0	47.8	28.2	100.0(678)
450~650만원	12.5	50.7	36.8	100.0(726)
650~850만원	11.3	50.1	38.6	100.0(363)
850만원 이상	15.9	37.5	46.6	100.0(251)
$\chi^2(df)$		73.145(8)***		

구분	현재 받고 있음	과거 받은적 있음	현재/과거 받은적 없음	계(수)
취약여부				
취약가구	22.3	42.0	35.7	100.0(300)
비취약가구	16.6	48.3	35.1	100.0(1,883)
$\chi^2(df)$		7.158(2)*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 수요자(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다) 지자체 현금지원 수령 가구 특성

한편 지자체 현금지원을 받은적 있다는 응답은 현재 받고 있음 12.2%, 과거 받은적 있음 41.8%로 과반 이상의 자녀양육가구에서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자체 현금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읍면지역일수록, 자녀연령이 어릴수록(영아자녀가구), 맞벌이여부 비해당(부모 미취업 등), 모 휴직중, 취약가구에서 좀 더 많았으며, 지자체 현금지원을 받은 적 ‘없다’는 응답은 대도시지역, 자녀연령이 많을수록, 모 미취업인 경우, 비취약가구에서 좀 더 많았다.

〈표 IV-1-12〉 현재 받고 있거나 과거 받은 현금 지원: 5)기타 지자체 현금지원(일회성 포함)

단위: %(명)

구분	현재 받고 있음	과거 받은적 있음	현재/과거 받은적 없음	계(수)
전체	12.2	41.8	46.0	100.0(2,183)
지역규모				
대도시	9.8	41.7	48.5	100.0(955)
중소도시	13.5	42.2	44.3	100.0(981)
읍·면	16.2	40.5	43.3	100.0(247)
$\chi^2(df)$		11.248(4)*		
자녀연령1(기준자녀)				
영아	27.9	35.5	36.6	100.0(484)
유아	11.0	45.8	43.2	100.0(646)
초등저학년	6.1	48.2	45.7	100.0(494)
초등고학년	5.4	36.9	57.8	100.0(559)
$\chi^2(df)$		177.679(6)***		
맞벌이 여부				

구분	현재 받고 있음	과거 받은적 있음	현재/과거 받은적 없음	계(수)
맞벌이	11.9	42.8	45.4	100.0(1,071)
외벌이	11.6	41.8	46.6	100.0(1,036)
해당없음	25.0	27.6	47.4	100.0(76)
$\chi^2(df)$		14.742(4)**		
취업모 여부1				
취업	12.2	42.5	45.2	100.0(1,145)
휴직 중	23.1	39.6	37.3	100.0(303)
구직 중	3.9	48.0	48.0	100.0(102)
미취업	8.2	40.4	51.4	100.0(611)
$\chi^2(df)$		54.085(6)***		
취업모 여부2				
전일제취업	13.1	41.4	45.6	100.0(904)
시간제취업	9.4	49.7	40.9	100.0(159)
미취업	8.5	40.2	51.3	100.0(622)
$\chi^2(df)$		14.105(4)**		
가구소득 기준				
250만원 미만	19.4	30.9	49.7	100.0(165)
250~450만원	13.1	42.6	44.2	100.0(678)
450~650만원	10.7	43.7	45.6	100.0(726)
650~850만원	11.6	42.4	46.0	100.0(363)
850만원 이상	10.0	40.2	49.8	100.0(251)
$\chi^2(df)$		17.235(8)*		
취약여부				
취약가구	16.7	41.7	41.7	100.0(300)
비취약가구	11.5	41.8	46.7	100.0(1,883)
$\chi^2(df)$		7.177(2)*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 수요자(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라) 기타 상담/놀이치료 서비스 이용/수혜 가구 특성

서비스-현금-시간 지원 외에,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부모의 돌봄 지원을 위한 기타 서비스 지원이 확장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확대되고 있는 상담/놀이치료 관련 서비스 수혜 경험을 질문한 결과, '아버지 응답'을 기준으로 전체 7.2%가 '현재+과거'에 받아 본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⁹⁾.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대도시지역, 초등자녀에서, 부모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맞벌이/모 전일제 취업가구, 그리고 취약가구에서 아동 상담/놀이치료 관련 지원을 받고 있다/받은 적 있다는 응답이 좀 더 많았다.

〈표 IV-1-13〉 현재 받고 있거나 과거 받은/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간 지원: 12)상담 놀이치료(부)

단위: %(명)

구분	현재 받고 있음/ 필요시 이용 중	과거 받은적 있음	현재/과거 받은적 없음	비해당 (미취업, 부재 등)	계(수)
전체	1.7	5.5	81.0	11.8	100.0(2,149)
성별					
부	1.7	7.1	83.8	7.4	100.0(1,047)
모	1.6	4.0	78.4	16.0	100.0(1,102)
$\chi^2(df)$	44.157(3)***				
지역규모					
대도시	1.5	7.3	80.6	10.5	100.0(939)
중소도시	1.9	4.2	80.8	13.1	100.0(969)
읍·면	1.7	3.3	83.4	11.6	100.0(241)
$\chi^2(df)$	14.006(6)*				
자녀연령1(기준자녀)					
영아	2.1	2.7	83.4	11.8	100.0(476)
유아	1.7	4.7	81.4	12.2	100.0(639)
초등저학년	0.8	7.2	81.1	10.9	100.0(488)
초등고학년	2.0	7.3	78.4	12.3	100.0(546)
$\chi^2(df)$	17.599(9)*				
자녀연령2(기준자녀)					
미취학자녀	1.9	3.9	82.2	12.0	100.0(1,115)
취학자녀	1.5	7.3	79.7	11.6	100.0(1,034)
$\chi^2(df)$	12.382(3)**				
응답자 연령					
30대이하	2.1	4.9	80.4	12.6	100.0(1,163)
40대	0.9	6.4	82.0	10.7	100.0(912)
50대 이상	4.1	4.1	78.4	13.5	100.0(74)
$\chi^2(df)$	11.629(6)				
응답자 최종학력					
고졸이하	3.5	3.5	70.1	22.9	100.0(201)
3년제 대졸	1.1	3.2	80.1	15.6	100.0(372)

49) 어머니 응답에서도 전체 7.5%가 현재+과거 받아 본 적 있는 것으로 유사하게 나타남.

구분	현재 받고 있음/ 필요시 이용 중	과거 받은적 있음	현재/과거 받은적 없음	비해당 (미취업, 부재 등)	계(수)
4년제 대졸	1.7	6.2	82.3	9.8	100.0(1,301)
대학원 이상	1.1	6.5	84.0	8.4	100.0(275)
$\chi^2(df)$	48.357(9)***				
맞벌이 여부					
맞벌이	1.6	7.6	83.6	7.3	100.0(1,071)
외벌이	1.7	3.5	80.3	14.5	100.0(1,015)
해당없음	3.2	1.6	49.2	46.0	100.0(63)
$\chi^2(df)$	113.927(6)***				
취업모 여부1					
취업	1.7	7.4	83.0	7.9	100.0(1,123)
휴직 중	2.7	2.7	81.9	12.8	100.0(298)
구직 중	1.0	5.1	73.7	20.2	100.0(99)
미취업	1.3	3.1	78.4	17.1	100.0(607)
$\chi^2(df)$	57.401(9)***				
취업모 여부2					
전일제취업	1.7	7.6	84.6	6.2	100.0(887)
시간제취업	1.9	5.7	77.7	14.6	100.0(157)
미취업	1.5	3.2	78.3	17.0	100.0(617)
$\chi^2(df)$	54.711(6)***				
가구소득 기준					
250만원 미만	3.6	2.9	60.0	33.6	100.0(140)
250~450만원	1.5	4.6	80.4	13.5	100.0(672)
450~650만원	1.4	4.6	83.3	10.8	100.0(723)
650~850만원	1.7	8.3	84.6	5.5	100.0(363)
850만원 이상	2.0	8.0	82.9	7.2	100.0(251)
$\chi^2(df)$	99.387(12)***				
취약여부					
취약가구	3.9	11.7	72.1	12.4	100.0(283)
비취약가구	1.3	4.6	82.4	11.7	100.0(1,866)
$\chi^2(df)$	35.403(3)***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 수요자(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과거’ 받은 적 있다는 응답은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응답률이 높아진 반면, ‘현재’ 자녀 상담과 놀이치료를 받고있다는 응답은 가구소득 250만원이하 그룹에서 가장 많았으며(3.6%), 가구소득 850만원이상 고소득 가구에서도 다소 많은(2.0%) 경향을 보였다. 가구소득과 맞벌이 등 가족특성과의 유의한 상관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점차 상담/치료 서비스 지원과 이용이 (저소득가구 대상 등) 늘어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자녀 돌봄 지원 서비스의 연계와 확대를 고려할 지점으로 사료된다.

2. 아동의 발달주기별 돌봄서비스 접근성 및 연계·통합

가. 돌봄서비스 이용 평가(6개항목)

아동의 연령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돌봄서비스 이용의 접근성과 연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요자 부모를 대상으로 주요 돌봄서비스 정책/사업 13개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및 만족도와 향후 이용의향, 필요 시 이용가능한지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 정보의 충분성에 대해 질문하였다(6개 항목).

〈표 IV-2-1〉 13개 주요 돌봄서비스에 대한 6개항목 평가

단위: %, 점

구분	인지도	이용률	만족도	이용의향	접근성	정보 충분성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79.7	42.2	65.4 3.8	27.3	46.3	44.3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91.3	90.4	86.3 4.2	84.7	88.7	77.5
어린이집 이용	94.8	83.7	78.5 4.0	57.4	73.0	65.5
유치원 이용	90.0	53.3	73.8 3.9	58.0	65.0	58.9
시간제 보육	72.1	16.9	65.4 3.8	38.6	33.0	31.6
민간 육아도우미 관련	55.4	17.6	54.0 3.6	26.2	26.4	23.1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56.5	13.9	54.3 3.6	32.5	21.7	21.3
육아/마을 공동체 돌봄	39.3	13.0	57.6 3.6	28.9	22.9	22.8
초등돌봄교실	76.5	25.4	71.0 3.9	55.0	43.8	43.5
초등방과후과정	83.3	37.8	71.7 3.9	71.0	55.8	49.0
지역아동센터	64.0	12.4	59.5 3.6	30.8	27.0	22.7
다함께돌봄센터	38.0	15.8	49.6 3.5	32.7	26.5	23.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3.3	13.5	58.6 3.7	44.1	31.6	24.0

주: '접근성'의 경우, 필요시 쉽게 이용가능-이용 어려움-잘모름 중, '쉽게 이용가능'에 대한 응답률임.
'정보 충분성'의 경우, 충분-불충분-잘모름 중, '충분함'에 대한 응답률임.

1) 인지도

전체 응답가구(N=2,183)를 대상으로 13개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질문

한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어린이집 이용(94.8%), 어린이 국가예방접종(91.3%), 유치원 이용(90%)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수요자 부모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방접종과 같이 보편적 지원 기반과 전국 인프라를 갖춘 서비스에 대한 인지율이 높으며, 초등돌봄교실과 시간제보육, 지역 아동센터와 같은 정부 정책사업에 대한 인지도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개별돌봄인력(아이돌보미, 민간육아도우미)과 다함께돌봄센터, 육아/마을 공동체 돌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인지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초등 방과후학교(방과후과정)를 알고 있는 응답자가 83.3%, 초등돌봄교실(학교돌봄터 포함)이 76.5%를 차지하며 응답자의 상당수가 초등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방과후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보육에 대한 인지도는 72.1%, 지역아동센터 64.0%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돌봄서비스로, 다함께돌봄센터(지자체 돌봄센터포함) 38.0%, 육아/마을 공동체 돌봄 39.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청소년의 집, 수련관) 43.3%로 나타났다. 공공 아이돌보미와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인지도는 55~56%로 과반의 인지율을 보였다.

2) 이용률(이용경험)

서비스별 인지자를 대상으로 실제 이용 경험을 질문한 결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인지자의 90.4%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고, 어린이집 이용은 83.7%, 유치원 이용 53.3%로 나타났다. 주로 영유아 돌봄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이 높았으며, 이는 앞서 살펴본 인지도와 대체로 일치했다. 그 다음으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이용률 42.2%, 초등방과후과정 37.8%, 초등돌봄교실 25.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경험이 적은 서비스로, 민간 육아도우미 17.6%, 시간제보육 16.9%로 17% 내외로 나타났으며,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이용률 15.8%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서비스(아이돌보미) 이용률은 13.9%로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률보다 적었으며, 이어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13.5%), 육아/마을 공동체 돌봄(13.0%), 지역아동센터(12.4%)로 13% 내외의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모든 응답자 대상 분석임).

3) 이용만족도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서비스별 이용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대체로 ‘만족한다’는 긍정응답이 50% 이상으로 5점 평균 3.5~4.2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이 4.2점(만족 응답률 86.3%)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이어서 어린이집 4.0점(78.5%), 유치원 3.9점(73.8%)으로 인지도와 이용률에 이어 영유아 돌봄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초등돌봄교실(학교돌봄터포함)과 초등방과후학교(방과후과정)의 이용 만족도가 3.9점(각 71.0%, 71.7%)로 높게 나타나, 영유아 교육·보육 시설과 초등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지자체 돌봄센터 포함)가 3.5점(49.6%)으로 낮았으며, 민간 육아도우미,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공공아이돌보미), 육아/마을 공동체 돌봄, 지역아동센터의 만족도가 5점 평균 3.6점(50~60%)으로 다소 낮았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와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다른 서비스와 달리 ‘매우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3% 이상으로 나타났다.

4) 향후 이용의향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거나 이용을 지속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중복응답), 어린이 국가예방접종(84.7%), 초등 방과후 학교(71.0%), 유치원 이용(58%), 어린이집 이용(57.4%), 초등돌봄교실(55.0%)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이는 인지도와 이용률, 이용 만족도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용 경험 비율은 낮았지만 향후 이용할 의사가 있거나 이용을 지속할 의향이 있는 돌봄서비스로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44.1%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시간제 보육 38.6%, 다함께 돌봄센터 32.7%, 아이돌봄서비스 32.5%로 나타나, 현재 해당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지만 미래에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즉 이용수요 대비 현재의 공급이 불충분한 서비스로 해석된다.

5) 접근성

해당 돌봄서비스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할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접근성’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은 88.7%가 쉽게 이용 가능하다고 응답하여 돌봄서비스 중 압도적으로 높은 접근성을 보였다. 그 뒤로 필요할 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3.0%, 유치원 65.0%로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의 돌봄서비스 이용가능성(접근성)이 좋을 수 있다. 초등돌봄교실을 필요시 이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43.8%, 초등 방과후학교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55.8%로 조사되었다. 초등돌봄교실과 초등 방과후학교는 인지도와 이용의향, 이용 만족도에 비해 접근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필요시 이용가능성(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비스로, 아이돌봄서비스(21.7%), 육아/마을 공동체 돌봄(22.9%), 민간 육아도우미(26.4%), 다함께돌봄센터(26.5%), 지역아동센터(27.0%)로 나타났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접근성은 31.6%, 시간제보육 33.0%로 비교적 낮은 이용가능성을 보였으며,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는 46.3%로 나타났다.

6) 정보 충분성

서비스별 인지자를 대상으로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충분하다’는 긍정응답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77.5%), 어린이집 이용(65.5%), 유치원 이용(58.9%)으로 50% 이상으로 높았다. 또한 초등돌봄교실(43.5%), 초등 방과후교실(49%)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접근성이 높다고 응답한 돌봄서비스 순위와도 일치한다.

반면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44.3%, 시간제보육 31.6%로 나타났으며,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은 돌봄서비스로는 시간제보육(관련정보 불충분, 51.8%), 민간 육아도우미(57.4%), 아이돌봄서비스(57.1%), 육아/마을 공동체 돌봄(55.1%), 지역아동센터(53%), 다함께돌봄센터(54.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52.5%)가 있었다. 충분하다는 응답이 대체로 20%대로, 이는 이용해본 경험이 적고,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응답한 돌봄서비스 유형과 일치했다.

7) 소결: 아동의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이용의 연계 및 통합성

이로써 보편적 이용기반으로서의 전국 인프라를 시설/기관을 중심으로 갖춘 ‘국가 예방접종’과 ‘어린이집·유치원’의 경우, 높은 인지도와 이용률, 이용 만족도와 향후 이용의향(이용 수요)이 높은 수준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과정’의 경우 (모든 응답자 대상으로 분석 시) 높은 인지도와 이용의향, 만족도에 비해 이용가능성(접근성)과 관련 정보의 충분성이 다소 떨어지고, 실제 이용률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⁰⁾.

민간 육아도우미는 이용의향과 이용가능성(접근성), 정보 충분함이 20%대로 유사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이용의향에 비해 실제 이용률과 이용가능성(접근성), 관련 정보의 충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의 경우 접근성과 관련 정보, 이용 만족도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용의향(이용수요) 대비 접근성과 정보의 충분함, 실제 이용만족도가 양호하게 나타남에 따라 산후돌봄서비스의 자리매김이 수요자 부모의 평가를 통해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시간제보육의 경우는 이용의향(이용수요) 대비 접근성과 정보 충분성이 비교적 양호하지만, 실제 이용률이 이용의향 대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마을 공동체의 경우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40% 미만으로 낮지만, 이용의향 대비 접근성과 정보 충분성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이용의향 대비 접근성과 관련 정보, 실제 이용률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각기 다른 인프라 기반과 이용률 및 이용수요를 갖는 돌봄서비스들 간에 개별 돌봄서비스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 외에 지역 내 유관 돌봄서비스 이용 간 매칭과 연계, 정보 제공의 온-오프라인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하겠다.

50) 현재 분석대상이 모든 응답자로, 서비스 이용 대상이 되는 연령별 분석 시 다소 달라질 수 있음.

나. 자녀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및 어려움

1) 평일 낮시간 자녀돌봄 현황

자녀돌봄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초등 6학년이하 자녀 중 가장 나이가 많은 1명을 기준으로(응답기준 아동) 현재 평일 낮 시간에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 또는 기관 1, 2순위를 답하게 하였다.

〈표 IV-2-2〉 평일 낮 시간에 자녀를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기관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모	57.5	15.6	71.5
부	7.6	24.2	29.3
부모 함께	9.2	9.6	17.8
조부모/친인척 돌봄 이용	4.6	14.3	17.0
어린이집 이용(기본-연장보육)	9.5	7.5	16.2
학원 - 학습관련	2.7	7.6	9.5
초등학교 방과후과정(방과후학교)	1.7	5.9	7.0
유치원 이용(교육-방과후과정)	3.8	3.0	6.4
학원- 예체능 관련	0.5	4.4	4.5
초등돌봄교실(학교돌봄터 포함)	1.3	2.8	3.8
공공 아이돌보미(아이돌봄서비스) 이용	0.3	1.7	1.9
반일제이상 영유아학원 이용(영유아놀이학교, 영어유치원 포함)	0.3	0.5	0.7
민간 베이비시터/돌보미 이용	0.2	0.8	0.9
다함께돌봄센터(보건복지부)	0.2	0.1	0.3
지역아동센터	0.1	0.6	0.6
온종일돌봄(지자체 돌봄센터)	0.1	0.1	0.2
육아공동체/마을공동체	-	-	-
학원 외(학습지, 방문과외, 온라인수강 등)	0.0	0.3	0.3
없음(자녀 혼자, 자녀들끼리)	0.5	-	0.5
영유아 사교육(시간제학원, 학습지 등)	-	0.4	0.4
시간제보육/돌봄 이용	-	0.3	0.2
문화/오락/체험활동 영유아	-	0.2	0.2
사설놀이공간(예: 키즈카페등)	-	0.1	0.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성가족부)	-	0.1	0.1
공동육아나눔터	-	0.1	0.0
기타 공공기관/센터/인프라 이용(도서관 등)	-	0.1	0.0
기타	-	0.1	0.1
전체	100.0(2,183)	100.0(1,956)	(2,183)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 수요자(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중복응답률 으로 제시함.

그 결과, 평일 낮에 가장 많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기관은 ‘어머니’로 1+2순위 중복응답 합산 71.5%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두 번째로 많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꼽힌 ‘아버지’(29.3%)와 비교하였을 때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그 다음으로 ‘부모 함께돌봄’과 ‘조부모/친인척 돌봄’이 각 17.8%, 17.0%로 나타났다. 아동의 어린 연령을 고려하여 부모와 친인척의 돌봄이 (1순위 응답 기준) 부모 74.3%, 조부모/친인척 4.6%로 나타남에 따라, 약 80%의 돌봄 제공이 가족돌봄(특히 모)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1+2순위 중복응답 기준) 어린이집 이용이 16.2%로 많았으며, 학원(학습 관련 9.5%, 예체능 4.5%)이 14.0%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영유아사교육과 학원, 문화/오락/체험활동, 사설놀이공간, 학원 외 서비스 응답까지 합치면 ‘사교육·돌봄 서비스’의 이용이 약 15.7%가 된다.

공적 돌봄의 경우, 취학 전 어린이집 이용(16.2%)이 유치원(6.4%)보다 두 배 이상 많았으며, 초등방과후돌봄이 약 10.8%(방과후과정 7.0%, 초등돌봄교실 3.8%)로 나타났다. 마을돌봄 1.1%로 적은 비율을 보였으며(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온종일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육아/마을 공동체를 합침), 돌봄인력의 경우 약 2.8%로 나타났다(아이돌보미 1.9%, 민간 육아도우미 0.9%).

2022년 현재 초등이하 자녀에 대한 낮시간 주된 돌봄은 여전히 부모 중심의 가족돌봄(특히 모)이 우세한 가운데, 돌봄서비스 중에서 어린이집(16.2%), 사적 교육·돌봄 서비스 이용(15.7%), 초등방과후돌봄(10.8%), 마을돌봄(1.1%), 돌봄인력(2.8%)의 순을 보였다.

2) 자녀 돌봄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자녀 돌봄서비스 이용 시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1+2순위 중복응답 기준), 예기치 못한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돌봐줄 사람 또는 맡길 곳을 구하지 못해서 겪는 ‘긴급돌봄 대응’의 어려움(28.6%, 1+2순위)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이용의 우선순위와 자격제한’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22.3%), 그리고 ‘비용 부담’(17.2%)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변에 이용 가능한 돌봄서비스 ‘인프라 부족’과 ‘돌봄인력의 전문

성’(15.3%)이라는 응답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이용시간(대)’(14.9%), 이용 가능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13.4%), 돌봄서비스의 ‘내용과 질’(12.3%), ‘위치/물리적 접근성’(11.3%), 그리고 ‘서비스 이용 간 연계’의 어려움(8.2%)로 응답되었다. 돌봄서비스 이용의 ‘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5.3%로 나타났다. 특별히 어려움이 없었다는 응답은 3.4%,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 8.5%로 나타났다.

〈표 IV-2-3〉 자녀 돌봄서비스 이용 시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예기치 못한 긴급한 돌봄 발생 시 대응의 어려움 (갑자기 돌봐줄 사람/말길 곳을 구하지 못함)	17.5	13.4	28.6
돌봄서비스 이용 제한(이용 우선순위/자격제한 등)	11.7	12.8	22.3
비용 부담	10.2	8.5	17.2
주위에 이용 가능한 돌봄서비스의 부족(인프라 문제)	7.7	9.1	15.3
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7.5	9.3	15.3
돌봄서비스 이용시간(양, 시간대)/이용시기	7.4	9.0	14.9
(이용 가능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6.5	8.4	13.4
돌봄서비스의 질/내용(프로그램의 다양성)	5.1	8.7	12.3
돌봄서비스 기관 위치(접근성, 도로 및 교통이용 관련)	5.0	7.6	11.3
서비스 이용 간 연결/연계의 어려움	4.2	4.8	8.2
식사/간식 제공과 질	3.0	4.5	6.7
돌봄서비스 이용 단절(이용하던 서비스를 지속하지 못 함)	2.2	3.7	5.3
기타	0.0	0.1	0.1
특별히 어려움 없음	3.4	-	3.4
비해당(별도의 돌봄서비스 이용하지 않음)	8.5	-	8.5
계(수)	100.0(2,183)	100.0(1,808)	(2,183)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 수요자(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자녀 돌봄서비스 이용의 가능성과 연속성의 어려움, 즉 돌봄의 단절과 제한, 공백으로 인해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이 응답되었으며, 돌봄인력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대한 불만족 또한 약 27.6% (중복응답의 합)로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났다. 수요자 관점의 돌봄서비스 이용의 공백과 단절, 제한으로 경험하는 불편과 어려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돌봄서비스의 접근성과 연속성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 자녀 돌봄공백 현황

가) 돌봄공백의 경험

올 한해를 기준으로 자녀를 돌보는데 돌봄의 공백⁵¹⁾을 경험한 적 있는지 질문한 결과, (어느정도+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 33.8%, 7.3%로 ‘돌봄공백’을 경험한 비율이 전체의 41.1%로 적지않은 비중을 보였다. 특히 응답기준이 되는 자녀 연령을 중심으로 영아자녀 가구(42.8%)와 초등저학년 자녀 가구(45.4%)에서, 맞벌이(48.3%)/모취업(47.8%)/전일제취업모(49.2%) 가구에서 자녀 돌봄의 공백을 경험한 비율이 외벌이(34.1%) 또는 미취업모(28.7%) 가구보다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4〉 자녀 돌봄 시 돌봄 공백 경험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어느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평균	계(수)
전체	23.0	35.9	33.8	7.3	2.3	100.0(2,183)
자녀연령1(기준자녀)						
영아	24.0	33.3	34.5	8.3	2.3	100.0(484)
유아	23.5	34.7	33.3	8.5	2.3	100.0(646)
초등저학년	19.2	35.4	39.1	6.3	2.3	100.0(494)
초등고학년	25.0	40.1	29.0	5.9	2.2	100.0(559)
$\chi^2(df)/F$	20.442(9)*				3.312*	
자녀연령2(기준자녀)						
미취학자녀	23.7	34.1	33.8	8.4	2.3	100.0(1,130)
취학자녀	22.3	37.9	33.7	6.1	2.2	100.0(1,053)
$\chi^2(df)/t$	6.741(3)				0.879	
응답자 최종학력						
고졸이하	28.3	32.2	33.7	5.9	2.2	100.0(205)
3년제 대졸	26.8	36.3	30.0	6.9	2.2	100.0(377)
4년제 대졸	21.8	36.5	34.5	7.2	2.3	100.0(1,323)
대학원 이상	20.1	35.3	35.3	9.4	2.3	100.0(278)
$\chi^2(df)/F$	11.999(9)				2.712*	
맞벌이 여부						
맞벌이	15.5	36.2	40.1	8.2	2.4	100.0(1,071)
외벌이	30.5	35.4	27.7	6.4	2.1	100.0(1,036)

51) 여기서 돌봄공백이란, 자녀를 돌봐줄 사람/서비스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를 말함.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어느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평균	계(수)
해당없음	27.6	38.2	27.6	6.6	2.1	100.0(76)
$\chi^2(df)/F$	79.561(6)***				33.597***	
취업모 여부1						
취업	16.3	35.9	39.2	8.6	2.4	100.0(1,145)
휴직 중	23.1	38.6	30.0	8.3	2.2	100.0(303)
구직 중	24.5	26.5	37.3	11.8	2.4	100.0(102)
미취업	35.4	36.0	24.9	3.8	2.0	100.0(611)
$\chi^2(df)/F$	107.849(9)***				32.680***	
취업모 여부2						
전일제취업	15.0	35.7	40.0	9.2	2.4	100.0 (904)
시간제취업	22.0	36.5	36.5	5.0	2.2	100.0 (159)
미취업	34.7	36.2	25.1	4.0	2.0	100.0 (622)
$\chi^2(df)/F$	101.799(6)***				50.247***	
가구소득 기준						
250만원 미만	31.5	29.7	30.3	8.5	2.2	100.0(165)
250~450만원	27.7	36.3	30.4	5.6	2.1	100.0(678)
450~650만원	22.2	36.0	34.0	7.9	2.3	100.0(726)
650~850만원	16.8	36.4	37.7	9.1	2.4	100.0(363)
850만원 이상	16.3	38.2	38.6	6.8	2.4	100.0(251)
$\chi^2(df)/F$	36.430(12)***				6.494***	
취약여부						
취약가구	19.7	34.3	36.7	9.3	2.4	100.0 (300)
비취약가구	23.6	36.2	33.3	7.0	2.2	100.0(1,883)
$\chi^2(df)/t$	4.837(3)				2.172*	
현재 초등돌봄 이용						
이용	18.3	35.6	38.6	7.5	2.4	100.0 (689)
미이용	29.9	42.3	24.5	3.3	2.0	100.0 (364)
$\chi^2(df)/t$	38.604(3)***				6.323***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 수요자(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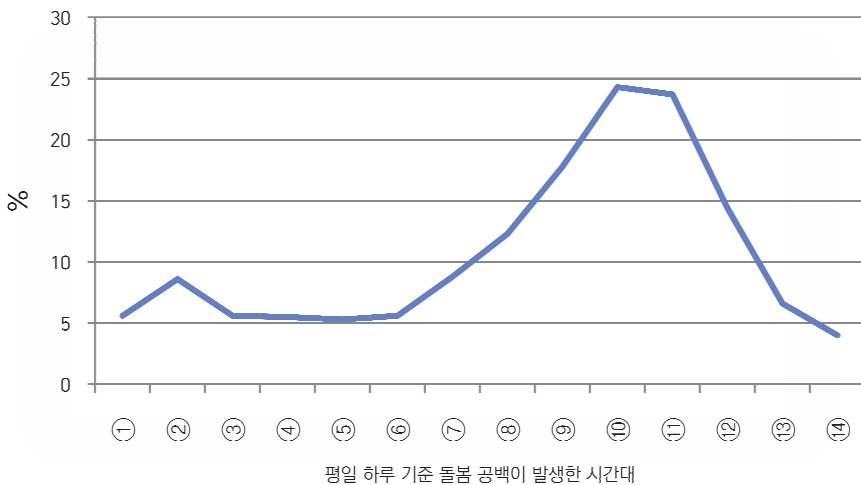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그리고 취약가구에서 자녀 돌봄공백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아, 맞벌이가구와 취약특성(한부모, 조손, 장애 등)을 갖는 가구에서 자녀 돌봄공백의 경험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돌봄공백의 지원이 (맞벌이가구 중심의) 일가정양립과 취약계층 지원의 두 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자녀 연령주기(영아기,

초등 1,2학년)를 고려하여 촘촘히 점검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나)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시간대

현재시점 평일 하루를 기준으로 돌봄공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를 모두 표기하게 한 결과(중복응답), 16~17시(24.3%), 17~18시(23.7%)가 가장 많아 오후 4~6시에 자녀 돌봄공백의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14시~15시(12.3%), 15시~16시(17.8%)로 오후 2~4시에 돌봄공백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일 오후 2~6시에 주로 돌봄공백이 발생하며, 오전 7~9시의 등원/등교 전에도 각 5.6%, 8.6%로 돌봄공백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림 IV-2-1] 현재 시점 평일 하루를 기준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시간대



주1: ①07:00~08:00, ②08:00~09:00, ③09:00~10:00, ④10:00~11:00, ⑤11:00~12:00, ⑥12:00~13:00, ⑦13:00~14:00, ⑧14:00~15:00, ⑨15:00~16:00, ⑩16:00~17:00, ⑪17:00~18:00, ⑫18:00~19:00, ⑬19:00~20:00, ⑭20:00~21:00

주2: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 수요자(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자녀 돌봄공백이 '없음/비해당'인 경우가 전체 42.5%로 나타나, 역으로 돌봄공백의 경험은 대도시지역, 초등 취학 후, 맞벌이/모취업 가구,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그리고 취약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자녀 취학 후 돌봄공백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자녀 연령과 자녀의 취학 여부에 따라 돌봄공

백을 경험하는 시간대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돌봄과 유아교육, 보육 기관의 운영시간과 인프라, 접근성에 따라 돌봄공백의 경험과 그 시간대가 달라진 것으로 사료된다. 취학 전-후, 아동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돌봄과 교육의 연속성을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다) 돌봄공백 발생 시 대응 방식 및 서비스 유형

돌봄공백의 발생 시 어떻게 대응 했는지/하고있는지 질문한 결과(1+2순위 중복 응답 기준), ‘조부모/친인척’ 돌봄이 45.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모(33.9%), 부(23.7%), 부모 함께(12.3%), 자녀혼자/자녀들끼리(9.1%)로 나타났다. 대부분 가족돌봄을 통해 돌봄공백의 발생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들끼리 있는 경우가 약 9% 이상으로 나타났다.

돌봄공백 시 서비스의 이용은 학원 10.1%(학습관련 7.6%, 예체능관련 2.5%), 어린이집 8.3%, 초등 방과후돌봄 7.1%(방과후과정 4.8%, 초등돌봄교실 2.3%), 유치원 4.7%, 아이돌보미 2.3%, 민간 육아도우미 2.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원 외와 기타 사교육/학원 이용(2.7%)까지 더하면 사교육·돌봄 서비스의 이용이 12.8%로 가장 많았다.

마을돌봄은 총 1.2%로 기타 공공기관 인프라(0.5%)까지 더하면 1.7%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제보육은 0.9%의 이용률을 보였다.

〈표 IV-2-5〉 돌봄공백 발생 시 대응 돌봄방식 또는 서비스 유형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조부모/친인척 돌봄 이용	32.4	19.8	45.4
모	25.3	13.1	33.9
부	11.4	18.7	23.7
부모 함께	7.6	7.2	12.3
없음(자녀혼자, 자녀들끼리)	9.1	-	9.1
어린이집 이용(기본-연장보육)	3.4	7.4	8.3
학원 - 학습관련	2.7	7.4	7.6
초등학교 방과후과정(방과후학교)	2.0	4.3	4.8
유치원 이용(교육-방과후과정)	1.0	2.3	4.7
공공 아이돌보미(아이돌봄서비스) 이용	1.0	2.0	2.3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민간 베이비시터/돌보미 이용	1.0	2.4	2.5
학원-예체능 관련	0.9	5.8	2.5
초등돌봄교실(학교돌봄터 포함)	0.7	2.4	2.3
문화/오락/체험활동	0.2	0.8	0.7
학원외(학습지, 방문과외, 온라인수강등)	0.2	0.6	0.6
시간제보육/돌봄 이용	0.2	1.0	0.9
영유아 사교육(시간제학원, 학습지 등)	0.2	0.9	0.8
기타 공공기관/센터/인프라 이용(도서관등)	0.1	0.6	0.5
지역아동센터	0.1	0.6	0.5
반일제이상 영유아학원 이용(영유아놀이학교, 영어유치원 포함)	0.1	0.2	0.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성가족부)	0.1	0.2	0.2
영유아 사설놀이공간(예:키즈카페등)	0.0	0.3	0.3
육아공동체/마을공동체	0.0	-	-
온종일돌봄(지자체 돌봄센터)	0.0	0.5	0.4
기타	0.2	0.8	0.8
다함께돌봄센터(보건복지부)	-	0.2	0.1
육아종합지원센터	-	0.1	0.1
공동육아나눔터	-	0.1	-
전체	100.0(2,183)	100.0(1,956)	(2,183)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 수요자(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돌봄공백의 대응에서 여전히 '가족돌봄'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적 돌봄의 이용은 학교/마을 돌봄과 어린이집·유치원,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보육을 합하여 25.1%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학원 등(12.8%), 민간육아도우미(2.5%)를 합하여 사적 교육·돌봄 서비스의 이용이 15.3%로 나타났다. 돌봄공백 발생 시 돌봄서비스 이용의 접근성과 대응력 제고를 위해 공적 서비스 이용의 연계와 연속성, 접근성을 꾀하여 서비스 이용기반의 확장을 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4) 자녀 연령별 돌봄공백 경험과 부모 취업상태

지난 육아 경험을 돌이켜볼 때, 자녀 양육 시 '돌봄공백'을 경험한 시기가 언제인지 해당 시기를 자녀의 연령대별로 모두 체크하게 한 결과(중복응답), 만0세(0~11개월)에 돌봄공백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29.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만1세(12~23개월) 24.6%, 만2세(24~35개월) 21.7%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아기에서

유아기를 거쳐 돌봄공백의 경험이 점차 줄어들다 초등 1학년에 돌봄공백의 경험이 다시 24.0%로 증가하였다. 자녀 출산 이후 0, 1세의 생애 초기에 이어 초등 입학 후 1학년에서 경험하는 돌봄공백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IV-2-6〉 자녀연령별 돌봄공백 경험 및 부모 취업상태

단위: %(명)

구분	돌봄 공백 경험	부			모				(수)
		전일제 취업중	시간제 취업중	미취업	전일제 취업중	시간제 취업중	휴직중/ 출산휴가	미취업	
만0세	29.7	90.3	1.5	1.9	21.5	4.3	28.7	39.0	(648)
만1세	24.6	91.8	1.1	1.5	37.9	8.0	13.8	32.9	(538)
만2세	21.7	90.1	2.5	2.3	41.6	11.4	8.9	31.9	(474)
만3세	18.6	91.1	2.2	2.5	46.2	14.6	4.9	27.7	(405)
만4세	15.7	92.4	2.0	2.3	46.5	17.8	4.1	25.4	(342)
만5세	14.7	93.1	3.4	1.2	50.2	21.2	3.1	20.9	(321)
만6세	14.5	95.6	1.9	0.3	54.1	16.1	2.5	19.9	(316)
초등1학년	24.0	92.7	1.3	1.1	52.8	14.7	4.2	22.0	(523)
초등2학년	12.4	91.9	1.8	-	52.4	17.3	4.1	18.8	(271)
초등3학년	7.5	87.7	3.1	1.2	55.8	17.8	1.8	16.0	(163)
초등4학년	4.1	88.8	3.4	3.4	62.9	16.9	2.2	14.6	(89)
초등5학년	2.2	91.8	6.1	2.0	61.2	18.4	4.1	14.3	(49)
초등6학년	0.9	95.0	-	5.0	60.0	10.0	5.0	20.0	(20)

주: 부모 취업상태는 학업 및 취업훈련중, 비해당 응답률을 제시하지 않음.

자녀를 양육하면서 돌봄공백을 경험했을 때 ‘부모의 취업상태’를 살펴보았다.

부의 취업상태는 90% 이상 전일제 취업으로 나타났으며, 부의 휴직과 시간제취업률은 5%미만으로 적은 비율을 보였다. 자녀연령 만 4~6세에서 돌봄공백을 경험했을 때 아버지가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는 비율이 약 92~96%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 부에 대한 영유아기 시간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하겠다.

자녀 연령별 모의 취업상태는 자녀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일제 및 시간제 취업률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자녀 돌봄공백의 경험이 많은 0, 1세의 경우 모의 휴직과 미취업률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자녀 돌봄공백의 경험이 모의 취업을 및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만3세 이후 감소하던 휴직률이 초등 1,2학년과 초등 5,6학년에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즉 만 0세에는 어머니가 미취업을 39.0%, 휴직률 28.7%을 보이는 가운

데 자녀 돌봄공백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30%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연령이 증가할수록 돌봄공백의 감소세와 함께, 일정비율의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0세 시기에는 영영아기 자녀돌봄을 지원하는 다른 돌봄 자원이 필요함을 보여주며, 만1세~초등 6학년까지 시기는 어머니가 전일제 취업 상태일 때 돌봄공백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많으나, 시간제취업과 미취업 시에도 돌봄공백을 일정수준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 고학년 자녀의 돌봄공백을 경험하는 경우 60%이상이 어머니가 전일제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 미취업/시간제취업 시에도 10~20%의 돌봄공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자녀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일제 취업모 자녀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의 마련과 함께, 모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돌봄공백에의 대응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현재와 같은 초 저출생 하에서 서비스 이용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 자녀 연령별 돌봄 관련 정부정책 평가

자녀 출생 후부터 현재까지 자녀 연령별로 경험한 돌봄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해 5점 척도로 평정하게 한 결과, 전반적으로 5점 평균 3점 이상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영아기에 비해 유아기에 잘 되어있다는 긍정응답이 40% 내외로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기로 가면서 점차 긍정응답이 적어졌으며, 특히 취학전 만 5,6세에서 초등 1학년으로 이어지는 유초연계에서 큰 폭의 긍정응답률 감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7〉 자녀 연령별로 경험한 돌봄 관련 정부 정책 평가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잘되어있지 않음	잘되어있지 않음	보통	잘 되어있음	매우 잘 되어있음	긍정응답률 (4+5점)	5점 평균	계(수)
만0세	7.7	19.5	40.7	25.8	6.3	32.1	3.0	100.0(2,183)
만1세	6.2	19.9	41.8	25.6	6.4	32.0	3.1	100.0(2,022)
만2세	5.2	16.4	42.3	30.1	6.1	36.2	3.2	100.0(1,862)
만3세	4.7	14.5	42.3	32.8	5.7	38.5	3.2	100.0(1,699)

구분	전혀 잘되어있지 않음	잘되어있지 않음	보통	잘 되어있음	매우 잘 되어있음	긍정응답률 (4+5점)	5점 평균	계(수)
만4세	4.6	13.6	41.5	34.1	6.3	40.4	3.2	100.0(1,538)
만5세	4.4	15.4	40.1	33.0	7.1	40.1	3.2	100.0(1,377)
만6세	4.4	14.2	41.5	33.1	6.8	39.9	3.2	100.0(1,215)
초등1학년	6.6	20.8	42.8	24.0	5.8	29.8	3.0	100.0(1,053)
초등2학년	6.6	20.4	41.2	25.9	5.8	31.7	3.0	100.0(891)
초등3학년	6.4	19.8	45.0	23.2	5.7	28.9	3.0	100.0(724)
초등4학년	5.4	19.3	47.6	22.2	5.5	27.7	3.0	100.0(559)
초등5학년	5.8	18.1	48.5	21.6	6.0	27.6	3.0	100.0(365)
초등6학년	5.0	22.1	46.4	21.0	5.5	26.5	3.0	100.0(181)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 수요자(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만2~6세에 이루어지는 취학전 돌봄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5점 평균 3.2점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이는 만3~5세 누리과정의 확대, 영유아 무상 교육·보육의 실시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 이용이 보편화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돌봄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 잘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연령은 초등 1~6학년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초등 1학년 때 이루어지는 돌봄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27.4%, 초등 2학년 27.0%로, 학령기 다른 연령(초등 3~6학년)에 비해 좀 더 높았다. 이는 학령기 중 가장 많은 돌봄공백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시기가 초등 1학년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0세에서도 부정응답의 비율이 좀 더 높았다.

초등 취학 전-후 연계와 출산 전-후 자녀 및 모자 돌봄과 보건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라. 연령별로 가장 필요한 서비스/지원 및 돌봄정책 평가

1) 연령별로 가장 필요한 서비스 및 지원

아동의 연령별로 가장 필요한 서비스 또는 지원 1가지를 응답하게 한 결과, 취학 전-후 '현금지원'에 대한 응답이 30% 내외로 일정한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취학 전-후에 따라 응답이 상이했다.

가) 취학전 영유아기

취학전 자녀(만0~6세)의 경우, 가장 필요한 지원은 ‘현금지원’이라고 응답한 가운데 자녀 연령이 많아질수록 현금지원과 육아휴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줄고, 3-5세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육아휴직 외)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시간 지원, 가족돌봄휴가 등의 시간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취학전 10% 내외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났다.

〈표 IV-2-8〉 자녀 연령별로 가장 필요한 서비스 또는 지원(만0~6세)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계(수)
임산출산기	49.4	21.0	15.9	-	-	-	3.5	5.0	-	3.5	-	-	-	0.3	1.4	100.0(2,183)
만0세	47.2	20.4	6.8	5.7	5.4	3.9	2.0	1.9	1.6	1.3	1.1	0.8	0.6	0.0	1.2	100.0(2,183)
만1세	40.8	16.2	9.1	5.8	13.5	2.9	1.7	2.1	1.8	1.3	1.3	0.9	1.1	0.0	1.4	100.0(2,022)
만2세	35.2	4.2	10.6	3.0	11.1	1.8	2.9	1.9	1.7	0.9	0.8	23.2	1.2	0.1	1.2	100.0(1,862)
만3세	32.8	7.4	10.1	3.6	26.0	2.2	2.4	3.4	1.6	1.2	1.0	5.7	1.2	0.1	1.4	100.0(1,699)
만4세	30.7	5.7	10.2	3.3	20.4	2.0	2.2	3.9	1.5	1.2	0.9	15.0	1.7	0.1	1.2	100.0(1,538)
만5세	30.8	4.1	9.8	2.7	12.8	1.7	2.3	4.5	1.1	1.2	0.5	25.1	2.0	0.1	1.3	100.0(1,377)
만6세	30.5	3.6	10.5	2.9	7.2	1.6	2.3	6.5	1.3	1.4	0.9	27.3	2.3	0.2	1.5	100.0(1,215)

주1: ①**현금지원**(아동수당, 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자체지원 등), ②**육아휴직**, ③**근로시간 단축**, 육아시간지원, 가족돌봄휴가, ④**공공돌봄인력**(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⑤**어린이집**, ⑥**사적돌봄인력**(민간육아도우미, 베이비시터), ⑦**재택근무**, ⑧**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등), ⑨**조부모/친인척 돌봄**, ⑩**육아종합지원센터/가족센터/상담** 등 지원체계, ⑪**육아돌봄공동체**(공동육아 등) 운영, ⑫**유치원**, ⑬**영유아기** 기타 사교육/돌봄 기관(영어유치원, 놀이학교, 영유아예체능단 등), ⑭기타, ⑮없음

주2: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 수요자(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임산출산기(21.0%), 만0세(20.4%), 만1세(20.4%)까지는 ‘육아휴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현금지원’ 다음으로 높아, 자녀연령이 어릴 때 부모가 직접 돌보고자 하는 시간 지원에 대한 요구가 큼을 현금지원 다음으로 크게 나타났다. 유아기의 경우, 유아 ‘교육·보육 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한 응답이 현금지원 다음으로 높았다. 가장 필요한 지원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더하면 만2세 34.3%, 만3세 31.7%, 만4세 35.4%, 만5세 37.9%, 만6세의 34.5%가 ‘돌봄 시설 이용’이 가장 필요한 서비스라고 응답하였다.

나) 초등 학령기

자녀 학령기(초등 1~6학년)에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초등 방과후돌봄에 대한 요구가 줄고 현금지원에 대한 의견이 증가하였다. 자녀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교육과 학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V-2-9〉 아동 연령별로 가장 필요한 서비스 또는 지원(초등 1-6학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수)
초등 1학년	34.9	30.2	10.0	7.6	4.8	4.0	3.2	2.8	0.9	1.5	100.0(1,053)
초등 2학년	35.9	29.4	9.1	7.9	6.2	2.2	2.4	4.0	0.9	2.0	100.0(891)
초등 3학년	30.4	31.8	8.1	7.3	6.9	1.4	2.1	8.3	1.1	2.6	100.0(724)
초등 4학년	21.6	34.9	7.3	7.7	7.3	1.3	2.1	13.1	1.6	3.0	100.0(559)
초등 5학년	16.2	37.3	7.4	8.2	4.9	0.8	1.4	18.4	0.8	4.7	100.0(365)
초등 6학년	13.8	34.8	7.7	8.3	6.6	0.6	1.1	21.0	-	6.1	100.0(181)

주1: ①초등대상 **학교 방과후돌봄**(초등돌봄교실/학교돌봄터, 방과후학교 등), ②**현금지원**(아동수당, 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자체지원 등), ③근로시간 단축, 육아시간지원, 가족돌봄휴가, ④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등), ⑤초등학생 대상 마을 방과후돌봄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자체돌봄), ⑥육아휴직, ⑦재택근무, ⑧사교육/학원, ⑨육아종합지원센터/가족센터/상담 등 지원체계, ⑩없음

주2: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 수요자(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학령별로 살펴보면, 초등 1, 2학년에는 방과후돌봄-현금지원-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제 순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면, 초등 4학년부터는 방과후돌봄의 필요성(21.6%)이 떨어지고 현금지원(34.9%)과 사교육/학원(13.1%)의 필요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초등 6학년까지 계속되어 6학년에는 방과후돌봄이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가 13.8%로 줄고, 현금지원이 34.8%까지 늘고, 사교육/학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1.0%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이 증가할수록 돌봄보다 자녀 학습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2) 횡적-종적 연계

현재 시점 자녀의 하루 일과 중 방과후에 돌봄서비스 이용 간 연계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횡적연계의 어려움), 그동안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의 연령증가에 따라 기관이나 돌봄서비스 이용이 끊임없이 원활히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지(종적연계의 원활함)에 대해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현 시점 평일 하루 일과에서 횡적연계에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응답이 (어느 정도+매우) 그렇다 32.8%, 자녀 연령증가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연속성과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졌다는 종적연계에 대한 긍정 응답은 32.6%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역) 해석을 반영하면 횡적연계의 어려움 경험 32.8%, 종적연계의 어려움(원활하지 않음) 경험 26.1%로, 현재 시점 자녀의 하루 일과에서 시간대별로 돌봄서비스 이용 간 연계에서 경험하는 횡적연계의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0〉 자녀 돌봄의 연속성 및 연계 어려움 정도(횡적-종적 연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계(수)
횡적연계의 어려움	10.9	24.2	32.1	27.3	5.5	2.9	100.0(2,183)
종적연계의 원활함	5.9	20.2	41.4	28.4	4.2	3.0	100.0(2,183)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 수요자(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표 IV-2-11〉 자녀 돌봄 횡적연계의 어려움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계(수)
전체(횡적연계)	10.9	24.2	32.1	27.3	5.5	2.9	100.0(2,183)
자녀연령1(기준자녀)							
영아	12.8	20.5	36.6	24.6	5.6	2.9	100.0(484)
유아	10.8	26.3	28.3	28.0	6.5	2.9	100.0(646)
초등저학년	7.9	21.3	31.4	33.0	6.5	3.1	100.0(494)
초등고학년	12.2	27.5	33.1	23.6	3.6	2.8	100.0(559)
$\chi^2(df)/F$			36.844(12)***			6.914***	
응답자 최종학력							
고졸이하	14.1	18.5	41.0	23.4	2.9	2.8	100.0(205)
3년제 대졸	14.9	24.7	32.9	22.0	5.6	2.8	100.0(377)
4년제 대졸	10.1	24.0	31.6	28.8	5.6	3.0	100.0(1,323)
대학원 이상	7.6	28.8	26.6	29.9	7.2	3.0	100.0(278)
$\chi^2(df)/F$			34.731(12)***			3.556*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계(수)
맞벌이 여부							
맞벌이	6.7	23.9	30.0	33.0	6.4	3.1	100.0(1,071)
외벌이	15.2	25.0	33.7	21.6	4.5	2.8	100.0(1,036)
해당없음	13.2	17.1	39.5	23.7	6.6	2.9	100.0(76)
$\chi^2(df)/F$			68.866(8)***			25.255***	
취업모 여부1							
취업	7.2	24.1	29.9	32.2	6.6	3.1	100.0(1,145)
휴직 중	9.6	24.1	36.3	25.7	4.3	2.9	100.0(303)
구직 중	11.8	18.6	32.4	27.5	9.8	3.0	100.0(102)
미취업	18.5	25.7	34.5	18.0	3.3	2.6	100.0(611)
$\chi^2(df)/F$			95.143(12)***			24.235***	
취업모 여부2							
전일제취업	6.7	23.2	28.3	34.0	7.7	3.1	100.0(904)
시간제취업	9.4	23.3	40.3	25.2	1.9	2.9	100.0(159)
미취업	18.2	25.7	34.4	18.3	3.4	2.6	100.0(622)
$\chi^2(df)/F$			102.816(8)***			40.542***	
가구소득 기준							
250만원 미만	14.5	17.0	39.4	23.6	5.5	2.9	100.0(165)
250~450만원	14.6	25.2	35.1	20.8	4.3	2.8	100.0(678)
450~650만원	10.2	25.6	31.5	25.9	6.7	2.9	100.0(726)
650~850만원	6.9	24.5	27.3	35.8	5.5	3.1	100.0(363)
850만원 이상	6.8	21.5	27.5	38.6	5.6	3.2	100.0(251)
$\chi^2(df)/F$			71.535(16)***			9.341***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 수요자(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형적연계의 어려움은 '초등저학년' 자녀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으며, 맞벌이 가구일수록(39.4%), 어머니가 취업 중이고(38.8%), 전일제 근무일수록(41.7%),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현재 시점 자녀의 평일 하루 돌봄방식 및 돌봄서비스 이용 간 연계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V-2-12〉 자녀 돌봄 종적연계의 원활함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계(수)
전체(종적연계)	5.9	20.2	41.4	28.4	4.2	3.0	100.0(2,183)
응답자 연령							
30대이하	6.0	20.1	40.3	29.1	4.6	3.1	100.0(1,184)
40대	6.0	21.0	42.4	26.9	3.7	3.0	100.0(922)
50대 이상	2.6	11.7	45.5	35.1	5.2	3.3	100.0(77)
$\chi^2(df)/F$			8.666(8)			3.205*	
취업모 여부1							
취업	5.3	20.5	39.6	30.5	4.1	3.1	100.0(1,145)
휴직 중	7.9	24.8	40.6	25.1	1.7	2.9	100.0(303)
구직 중	10.8	20.6	38.2	27.5	2.9	2.9	100.0(102)
미취업	5.2	17.5	45.5	26.2	5.6	3.1	100.0(611)
$\chi^2(df)/F$			28.269(12)**			4.814**	
취업모 여부2							
전일제취업	5.5	20.4	39.0	31.1	4.0	3.1	100.0(904)
시간제취업	3.8	19.5	42.8	29.6	4.4	3.1	100.0(159)
미취업	5.5	17.4	45.2	26.4	5.6	3.1	100.0(622)
$\chi^2(df)/F$			10.902(8)			4.814**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 수요자(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자녀 돌봄의 종적연계에 대해 '원활하였다'는 긍정응답이 응답자 연령이 많을수록 많은 경향을 보여, 자녀 연령에 따라 육아 경험이 많을수록 긍정응답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현재의 자녀연령에 따라 누적된 경험의 차이로 인해 종적 연계의 원활함에 대한 연령별 응답의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그 간의 종적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졌다는 긍정응답(취업모 34.6%, 미취업모 31.8%)과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정응답(취업모 25.8%, 미취업모 22.7%)에서 모두 미취업모에 비해 취업모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여부에 따른 뚜렷한 경향이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유의한 차이는 휴직중/구직중 모와 취업/미취업 모 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모와 미취업모 내에서도 자녀돌봄의 연속성과 연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사회경제적, 인구학적인 개별 특성에 따라 차이를 짐작케한다.

3) 자녀 출생 후 현재 연령까지 서비스 이용에서 연계가 어려운 때

자녀 출생 이후 현재 연령까지 서비스 이용에서 연계가 어려운 때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21.8%가 만0세(0~11개월)에서 만1세(12개월~23개월)로 가는 전환기를 꼽았고, 18.4%가 만1세(12~23개월)에서 만2세(24개월~35개월)로 가는 전환기를 꼽아, 자녀 출산이후 영아기 연령 간 돌봄연계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만6세(72~83개월)에서 초등 1학년으로 가는 전환기 16.8%, 초등 1학년부터 초등 2학년으로 가는 전환기에 14.6%로 응답되었다. 이는 만0, 1, 2세, 초등 1학년부터 ‘돌봄공백’을 가장 많이 경험하였다는 응답과 일치하는 결과로, 영아기와 취학 전-후 시기에 경험하는 ‘돌봄연계’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2-13〉 자녀연령별로 돌봄서비스 이용 연계가 어려운 시기

단위: %

구분	서비스 이용 시 연계가 어려운 시기	돌봄공백 경험	구분
임신출산기-만0세	15.7	-	임신출산기
만0세-만1세	21.8	29.7	만0세
만1세-만2세	18.4	24.6	만1세
만2세-만3세	14.5	21.7	만2세
만3세-만4세	13.0	18.6	만3세
만4세-만5세	11.4	15.7	만4세
만5세-만6세	7.5	14.7	만5세
만6세-초등1학년	16.8	14.5	만6세
초등1-2학년	14.6	24.0	초등1학년
초등2-3학년	7.2	12.4	초등2학년
초등3-4학년	3.1	7.5	초등3학년
초등4-5학년	1.9	4.1	초등4학년
초등5-6학년	0.7	2.2	초등5학년
초등6학년-중학생	0.3	0.9	초등6학년
없음	21.3	-	-

3.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에 대한 의견

앞서 살펴본 자녀돌봄의 어려움과 공백, 단절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 마련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았다.

우선 육아 및 돌봄 관련 플랫폼과 앱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경험과 만족도 질문을 통해, 현재 돌봄관련 통합 플랫폼에 대한 수요자 부모의 의견을 파악하고, 통합적 운영기반 마련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과제에 대해 질문하였다.

가. 돌봄 플랫폼에 대한 인지도, 이용경험, 만족도 및 필요기능에 대한 의견

〈표 IV-3-1〉 육아 및 돌봄 관련 플랫폼/앱에 대한 인지도, 이용률,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인지도 (N=2,183)	이용률 (인지자)	만족도 (이용자)	계(수)
복지로	68.4	71.1	45.2 3.4	100.0(2,183)
정부24-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서비스	49.9	59.1	49.8 3.5	100.0(2,183)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57.3	73.9	49.0 3.5	100.0(2,183)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어플리케이션	21.3	43.8	47.7 3.5	100.0(2,183)
민간육아도우미 서비스 매칭 플랫폼	22.1	32.6	40.6 3.3	100.0(2,183)
경기도 위라벨 링크	8.9	32.0	51.6 3.5	100.0(2,183)
서울시 직장맘 든든맵	9.2	32.0	51.5 3.4	100.0(2,183)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 수요자(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인지도는 전체 응답자, 이용률은 알고있다는 인지자, 만족도는 이용경험이 있는 이용자 응답 결과임.

만족도는 (어느정도+매우) 만족한다는 긍정응답률과 5점 척도 평균을 제시함.

육아 및 돌봄 관련 플랫폼과 앱을 알고 있는지를 5개 항목에 대한 ‘인지도’를 우선 질문하였다. 그 결과, ‘복지로’에 대해 알고있다는 응답이 68.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57.3%, ‘정부24-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서비스’ 49.9%로 조사되었다. 아이돌봄서비스 앱을 모른다는 응답이 78.7%, 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 매칭 플랫폼을 모른다는 응답이 77.9%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이용률, 관련 정보의 충분성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던 응답률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지자체 플랫폼/앱인 경기도 위라벨 링크와 서울시 직장맘든든맵의 경우 수도권

에서의 인지도가 각각 11.8%, 12.8%로 타 권역에 비해 높았으나, 해당 권역의 인지도가 10%를 넘는 정도의 비율을 보였다.

개별 플랫폼/앱에 대해 알고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경험’을 질문한 결과,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73.9%)과 복지로(71.1%)에 대한 이용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정부24(59.1%), 아이돌봄서비스 앱(43.8%)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육아도우미 매칭 플랫폼과 지자체 경기도와 서울시 플랫폼은 인지자 중 이용경험이 약 32%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아이사랑 포털에 대한 높은 이용률은 임신출산기 지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영유아기 교육 및 보육 시설 이용과 같은 주요한 서비스들이 포털을 통해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에 이용해본 적 없는 플랫폼으로는 전국 응답자 기준 경기도 위라벨 링크, 서울시 직장맘 든든맵이 68%로 가장 높았으나, 지자체 기반의 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위특성에 의하면, ‘경기도 위라벨 링크’의 경우 초등저학년 자녀를 둔 경우(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취학자녀, 30대이하, 고학력/고소득, 맞벌이/취업모, 그리고 취약가구와 초등돌봄 이용 가구에서 위라벨 링크 이용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의 이용률이 35.2%로 타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 직장맘 든든맵’의 경우, 초등고학년 자녀, 고학력/고소득, 맞벌이/취업모, 마찬가지로 취약가구와 초등돌봄 이용 가구에서 직장맘 든든맵을 이용경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앱의 경우 수도권 이용률이 타지역과 다르지 않았다. 이로써 돌봄관련 플랫폼/앱의 이용 대상과 주요 내용(콘텐츠) 설계에 따라 이용자 기반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민간육아도우미 서비스 매칭 플랫폼을 이용해본 적 없다는 응답이 67.4%로 나타났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앱과 민간육아도우미 서비스 매칭 플랫폼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약 77%로 비슷한 것과 비교하여, 실제 이용경험은 아이돌봄서비스 앱(43.8%)이 민간육아도우미 서비스 매칭 플랫폼(32.6%)보다 높게 나타났다.

육아 및 돌봄 관련 플랫폼을 이용해본 적 있는 이용경험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설문한 결과, 대체로 5점 평균 3.3~3.5점의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지

자체 기반으로 이용자 수는 적지만 경기도 워라벨 링크와 서울시 직장맘 든든맵의 이용자 만족도가 만족한다는 긍정응답률 51%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부24와 아이사랑 포털에 대한 만족응답도 약 50% 미만으로 높게 나타났다. 민간육아도우미 서비스 매칭 플랫폼에 대한 이용자 만족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1) 인지도-하위특성 분석

개별 플랫폼/앱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인지자 그룹의 하위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플랫폼/앱이 갖는 목적과 내용 구성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표 IV-3-2〉 응답자별 알고 있는 육아 및 돌봄 관련 플랫폼 혹은 앱: 0)복지로

단위: %(명)

구분	알고 있음	모름	계(수)
전체	68.4	31.6	100.0(2,183)
성별			
부	58.1	41.9	100.0(1,047)
모	77.9	22.1	100.0(1,136)
$\chi^2(df)$	99.152(1)***		
자녀연령1(기준자녀)			
영아	67.8	32.2	100.0(484)
유아	75.5	24.5	100.0(646)
초등저학년	70.4	29.6	100.0(494)
초등고학년	58.9	41.1	100.0(559)
$\chi^2(df)$	39.846(3)***		
자녀연령2(기준자녀)			
미취학자녀	72.2	27.8	100.0(1,130)
취학자녀	64.3	35.7	100.0(1 053)
$\chi^2(df)$	15.816(1)***		
응답자 최종학력			
고졸이하	73.2	26.8	100.0(205)
3년제 대졸	70.6	29.4	100.0(377)
4년제 대졸	67.0	33.0	100.0(1,323)
대학원 이상	68.7	31.3	100.0(278)
$\chi^2(df)$	4.235(3)		
취업모 여부1			
취업	67.8	32.2	100.0(1,145)
휴직 중	68.3	31.7	100.0(303)

구분	알고 있음	모름	계(수)
구직 중	77.5	22.5	100.0(102)
미취업	67.9	32.1	100.0(611)
$\chi^2(df)$	4.134(3)		
취업모 여부2			
전일제취업	68.4	31.6	100.0(904)
시간제취업	70.4	29.6	100.0(159)
미취업	68.3	31.7	100.0(622)
$\chi^2(df)$	0.292(2)		
가구소득 기준			
250만원 미만	78.8	21.2	100.0(165)
250~450만원	71.7	28.3	100.0(678)
450~650만원	65.7	34.3	100.0(726)
650~850만원	65.3	34.7	100.0(363)
850만원 이상	64.9	35.1	100.0(251)
$\chi^2(df)$	17.072(4)**		
취약여부			
취약가구	72.3	27.7	100.0(300)
비취약가구	67.8	32.2	100.0(1,883)
$\chi^2(df)$	2.499(1)		
현재 초등돌봄 이용			
이용	69.5	30.5	100.0(689)
미이용	54.4	45.6	100.0(364)
$\chi^2(df)$	23.735(1)***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 수요자(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우선 '복지로'에 대해 알고있다는 응답은 부모다 모, 미취학자녀를 둔 경우, 그리고 현재 초등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에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고졸이하 학력과 가구소득 250만원이하 저소득가구, 취약특성을 갖는 가구에서 복지로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모 취업 여부에 따른 인지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IV-3-3〉 응답자별 알고 있는 육아 및 돌봄 관련 플랫폼 혹은 앱: 1)정부24-원스톱/생애주기/푸러미서비스

단위: %(명)

구분	알고 있음	모름	계(수)
전체	49.9	50.1	100.0(2,183)
성별			
부	46.1	53.9	100.0(1,047)
모	53.4	46.6	100.0(1,136)
$\chi^2(df)$	11.618(1)***		
자녀연령1(기준자녀)			
영아	56.8	43.2	100.0(484)
유아	48.5	51.5	100.0(646)
초등저학년	52.6	47.4	100.0(494)
초등고학년	43.3	56.7	100.0(559)
$\chi^2(df)$	21.046(3)***		
자녀연령2(기준자녀)			
미취학자녀	52.0	48.0	100.0(1,130)
취학자녀	47.7	52.3	100.0(1,053)
$\chi^2(df)$	4.149(1)*		
취업모 여부1			
취업	51.0	49.0	100.0(1,145)
휴직 중	53.1	46.9	100.0(303)
구직 중	55.9	44.1	100.0(102)
미취업	44.8	55.2	100.0(611)
$\chi^2(df)$	9.524(3)*		
취업모 여부2			
전일제취업	52.1	47.9	100.0(904)
시간제취업	50.3	49.7	100.0(159)
미취업	45.0	55.0	100.0(622)
$\chi^2(df)$	7.471(2)*		
가구소득 기준			
250만원 미만	54.5	45.5	100.0(165)
250~450만원	52.5	47.5	100.0(678)
450~650만원	49.2	50.8	100.0(726)
650~850만원	46.8	53.2	100.0(363)
850만원 이상	46.6	53.4	100.0(251)
$\chi^2(df)$	5.872(4)		

구분	알고 있음	모름	계(수)
현재 초등돌봄 이용			
이용	55.6	44.4	100.0(689)
미이용	32.7	67.3	100.0(364)
$\chi^2(df)$	50.049(1)***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 수요자(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정부24-원스톱생애주기서비스’에 대해 알고있다는 응답은 모, 영아자녀와 초등저학년 자녀를 둔 경우, 취업모와 휴직중/구직중인 모, 현재 초등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에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가구소득 250만원이하 저소득가구에서 정부24에 대한 인지도가 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V-3-4〉 응답자별 알고 있는 육아 및 돌봄 관련 플랫폼 혹은 앱: 2)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단위: %(명)

구분	알고 있음	모름	계(수)
전체	57.3	42.7	100.0(2,183)
성별			
부	42.8	57.2	100.0(1,047)
모	70.7	29.3	100.0(1,136)
$\chi^2(df)$	173.317(1)***		
지역규모			
대도시	52.4	47.6	100.0(955)
중소도시	61.1	38.9	100.0(981)
읍·면	61.5	38.5	100.0(247)
$\chi^2(df)$	17.024(2)***		
자녀연령1(기준자녀)			
영아	60.5	39.5	100.0(484)
유아	70.1	29.9	100.0(646)
초등저학년	59.3	40.7	100.0(494)
초등고학년	37.9	62.1	100.0(559)
$\chi^2(df)$	132.082(3)***		
자녀연령2(기준자녀)			
미취학자녀	66.0	34.0	100.0(1,130)
취학자녀	48.0	52.0	100.0(1,053)
$\chi^2(df)$	72.660(1)***		

구분	알고 있음	모름	계(수)
가구소득 기준			
250만원 미만	57.6	42.4	100.0(165)
250~450만원	60.9	39.1	100.0(678)
450~650만원	58.0	42.0	100.0(726)
650~850만원	54.5	45.5	100.0(363)
850만원 이상	49.4	50.6	100.0(251)
$\chi^2(df)$	11.291(4)*		
현재 초등돌봄 이용			
이용	55.3	44.7	100.0(689)
미이용	34.1	65.9	100.0(364)
$\chi^2(df)$	50.049(1)***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 수요자(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대해 알고있다는 응답은 모, 중소도시/읍면지역, 미취학자녀를 둔 경우, 취업모와 휴직중/구직중인 모, 가구소득이 적은 경우, 현재 초등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에서 인지도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및 모 취업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지원 전반의 정보를 제공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표 IV-3-5〉 응답자별 알고 있는 육아 및 돌봄 관련 플랫폼 혹은 앱: 3)경기도 워라밸 링크

단위: %(명)

구분	알고 있음	모름	계(수)
전체	8.9	91.1	100.0(2,183)
응답자 최종학력			
고졸이하	11.2	88.8	100.0(205)
3년제 대졸	4.2	95.8	100.0(377)
4년제 대졸	9.8	90.2	100.0(1,323)
대학원 이상	9.0	91.0	100.0(278)
$\chi^2(df)$	12.859(3)**		
맞벌이 여부			
맞벌이	11.9	88.1	100.0(1,071)
외벌이	5.1	94.9	100.0(1,036)
해당없음	18.4	81.6	100.0(76)
$\chi^2(df)$	38.404(2)***		

구분	알고 있음	모름	계(수)
취업모 여부1			
취업	11.4	88.6	100.0(1,145)
휴직 중	6.6	93.4	100.0(303)
구직 중	5.9	94.1	100.0(102)
미취업	5.9	94.1	100.0(611)
$\chi^2(df)$	18.470(3)***		
취업모 여부2			
전일제취업	12.5	87.5	100.0(904)
시간제취업	6.9	93.1	100.0(159)
미취업	5.9	94.1	100.0(622)
$\chi^2(df)$	19.713(2)***		
가구소득 기준			
250만원 미만	13.9	86.1	100.0(165)
250~450만원	6.0	94.0	100.0(678)
450~650만원	6.6	93.4	100.0(726)
650~850만원	11.6	88.4	100.0(363)
850만원 이상	15.9	84.1	100.0(251)
$\chi^2(df)$	35.228(4)***		
취약여부			
취약가구	14.7	85.3	100.0(300)
비취약가구	8.0	92.0	100.0(1,883)
$\chi^2(df)$	14.349(1)***		
지역			
수도권	11.8	88.2	100.0(1,036)
강원권	10.8	89.2	100.0(74)
충청권	7.1	92.9	100.0(280)
호남권	5.7	94.3	100.0(245)
영남권	5.5	94.5	100.0(548)
$\chi^2(df)$	22.997(4)***		
현재 초등돌봄 이용			
이용	12.3	87.7	100.0(689)
미이용	3.6	96.4	100.0(364)
$\chi^2(df)$	21.680(1)***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 수요자(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경기도 워라밸링크’에 대해 알고있다는 응답은 고졸이하 학력, 맞벌이/모취업 가구, 가구소득 250만원이하 및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그리고 취약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경향을 보였다.

〈표 IV-3-6〉 응답자별 알고 있는 육아 및 돌봄 관련 플랫폼 혹은 앱: 4)서울시 직장맘 든든맵

단위: %(명)

구분	알고 있음	모름	계(수)
전체	9.2	90.8	100.0(2,183)
지역규모			
대도시	12.1	87.9	100.0(955)
중소도시	7.0	93.0	100.0(981)
읍·면	6.1	93.9	100.0(247)
$\chi^2(df)$	18.394(2)***		
자녀연령1(기준자녀)			
영아	8.1	91.9	100.0(484)
유아	6.7	93.3	100.0(646)
초등저학년	11.5	88.5	100.0(494)
초등고학년	10.9	89.1	100.0(559)
$\chi^2(df)$	10.993(3)*		
자녀연령2(기준자녀)			
미취학자녀	7.3	92.7	100.0(1,130)
취학자녀	11.2	88.8	100.0(1,053)
$\chi^2(df)$	10.216(1)**		
응답자 최종학력			
고졸이하	8.3	91.7	100.0(205)
3년제 대졸	4.5	95.5	100.0(377)
4년제 대졸	10.4	89.6	100.0(1,323)
대학원 이상	10.4	89.6	100.0(278)
$\chi^2(df)$	12.795(3)**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2	87.8	100.0(1,071)
외벌이	5.5	94.5	100.0(1,036)
해당없음	15.8	84.2	100.0(76)
$\chi^2(df)$	32.813(2)***		
취업모 여부1			
취업	11.6	88.4	100.0(1,145)
휴직 중	8.9	91.1	100.0(303)

구분	알고 있음	모름	계(수)
구직 중	8.8	91.2	100.0(102)
미취업	4.6	95.4	100.0(611)
$\chi^2(df)$	23.817(3)***		
취업모 여부2			
전일제취업	12.1	87.9	100.0(904)
시간제취업	8.8	91.2	100.0(159)
미취업	4.8	95.2	100.0(622)
$\chi^2(df)$	23.375(2)***		
가구소득 기준			
250만원 미만	11.5	88.5	100.0(165)
250~450만원	5.3	94.7	100.0(678)
450~650만원	7.4	92.6	100.0(726)
650~850만원	12.9	87.1	100.0(363)
850만원 이상	17.5	82.5	100.0(251)
$\chi^2(df)$	43.150(4)***		
취약여부			
취약가구	14.3	85.7	100.0(300)
비취약가구	8.3	91.7	100.0(1,883)
$\chi^2(df)$	11.177(1)***		
지역			
수도권	12.4	87.6	100.0(1,036)
강원권	10.8	89.2	100.0(74)
충청권	5.4	94.6	100.0(280)
호남권	5.3	94.7	100.0(245)
영남권	6.6	93.4	100.0(548)
$\chi^2(df)$	26.609(4)***		
현재 초등돌봄 이용			
이용	15.7	84.3	100.0(689)
미이용	2.7	97.3	100.0(364)
$\chi^2(df)$	40.003(1)***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 수요자(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서울시 직장맘 든든맵’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취학자녀, 학력/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맞벌이/모취업 가구, 취약가구와 현재 초등돌봄 이용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지자체에서 개발한 앱/링크가 일가정양립을 위한 맞벌이가구 위주 정보와 지원내용을 담고 있어, 취업모 특성과 연관된 고소득/고학력의 이용자 기반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IV-3-7〉 응답자별 알고 있는 육아 및 돌봄 관련 플랫폼 혹은 앱: 5)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어플리케이션

단위: %(명)

구분	알고 있음	모름	계(수)
전체	21.3	78.7	100.0(2,183)
지역규모			
대도시	23.0	77.0	100.0(955)
중소도시	20.9	79.1	100.0(981)
읍·면	15.8	84.2	100.0(247)
$\chi^2(df)$	6.295(2)*		
자녀연령1(기준자녀)			
영아	17.8	82.2	100.0(484)
유아	21.1	78.9	100.0(646)
초등저학년	23.3	76.7	100.0(494)
초등고학년	22.7	77.3	100.0(559)
$\chi^2(df)$	5.456(3)		
자녀연령2(기준자녀)			
미취학자녀	19.6	80.4	100.0(1,130)
취학자녀	23.0	77.0	100.0(1,053)
$\chi^2(df)$	3.624(1)		
맞벌이 여부			
맞벌이	24.4	75.6	100.0(1,071)
외벌이	17.7	82.3	100.0(1,036)
해당없음	26.3	73.7	100.0(76)
$\chi^2(df)$	15.352(2)***		
취업모 여부1			
취업	23.8	76.2	100.0(1,145)
휴직 중	21.8	78.2	100.0(303)
구직 중	16.7	83.3	100.0(102)
미취업	16.5	83.5	100.0(611)
$\chi^2(df)$	14.101(3)**		
취업모 여부2			
전일제취업	24.4	75.6	100.0(904)

구분	알고 있음	모름	계(수)
시간제취업	18.9	81.1	100.0(159)
미취업	16.7	83.3	100.0(622)
$\chi^2(df)$	13.739(2)**		
가구소득 기준			
250만원 미만	24.8	75.2	100.0(165)
250~450만원	17.3	82.7	100.0(678)
450~650만원	20.8	79.2	100.0(726)
650~850만원	21.5	78.5	100.0(363)
850만원 이상	30.7	69.3	100.0(251)
$\chi^2(df)$	21.165(4)***		
취약여부			
취약가구	33.3	66.7	100.0(300)
비취약가구	19.3	80.7	100.0(1,883)
$\chi^2(df)$	30.314(1)***		
지역			
수도권	23.4	76.6	100.0(1,036)
강원권	25.7	74.3	100.0(74)
충청권	15.7	84.3	100.0(280)
호남권	16.3	83.7	100.0(245)
영남권	21.7	78.3	100.0(548)
$\chi^2(df)$	12.365(4)*		
현재 초등돌봄 이용			
이용	29.6	70.4	100.0(689)
미이용	10.4	89.6	100.0(364)
$\chi^2(df)$	49.442(1)***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 수요자(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앱’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대)도시지역, 취약 자녀, 맞벌이/모취업 가구와 맞벌이여부 비해당가구, 가구소득 850만원이상 고소득가구, 강원도와 수도권 지역에서, 그리고 취약가구와 현재 초등돌봄 이용 가구에 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8〉 응답자별 알고 있는 육아 및 돌봄 관련 플랫폼 혹은 앱: 6)민간육아도우미 서비스 매칭 플랫폼(예: 맘시터, 째깍악어)

단위: %(명)

구분	알고 있음	모름	계(수)
전체	22.1	77.9	100.0(2,183)
성별			
부	18.6	81.4	100.0(1,047)
모	25.3	74.7	100.0(1,136)
$\chi^2(df)$	13.960(1)***		
지역규모			
대도시	24.6	75.4	100.0(955)
중소도시	20.7	79.3	100.0(981)
읍·면	17.8	82.2	100.0(247)
$\chi^2(df)$	7.255(2)*		
응답자 연령			
30대이하	24.3	75.7	100.0(1,184)
40대	19.4	80.6	100.0(922)
50대 이상	19.5	80.5	100.0(77)
$\chi^2(df)$	7.577(2)*		
응답자 최종학력			
고졸이하	21.0	79.0	100.0(205)
3년제 대졸	15.6	84.4	100.0(377)
4년제 대졸	23.3	76.7	100.0(1,323)
대학원 이상	25.9	74.1	100.0(278)
$\chi^2(df)$	12.671(3)**		
맞벌이 여부			
맞벌이	24.7	75.3	100.0(1,071)
외벌이	18.5	81.5	100.0(1,036)
해당없음	32.9	67.1	100.0(76)
$\chi^2(df)$	17.159(2)***		
취업모 여부1			
취업	24.6	75.4	100.0(1,145)
휴직 중	23.8	76.2	100.0(303)
구직 중	23.5	76.5	100.0(102)
미취업	16.7	83.3	100.0(611)
$\chi^2(df)$	15.162(3)**		
취업모 여부2			
전일제취업	24.9	75.1	100.0(904)

구분	알고 있음	모름	계(수)
시간제취업	24.5	75.5	100.0(159)
미취업	16.6	83.4	100.0(622)
$\chi^2(df)$	15.785(2)***		
가구소득 기준			
250만원 미만	25.5	74.5	100.0(165)
250~450만원	17.6	82.4	100.0(678)
450~650만원	19.6	80.4	100.0(726)
650~850만원	25.6	74.4	100.0(363)
850만원 이상	34.3	65.7	100.0(251)
$\chi^2(df)$	36.152(4)***		
지역			
수도권	27.6	72.4	100.0(1,036)
강원권	25.7	74.3	100.0(74)
충청권	18.9	81.1	100.0(280)
호남권	10.6	89.4	100.0(245)
영남권	17.9	82.1	100.0(548)
$\chi^2(df)$	44.899(4)***		
현재 초등돌봄 이용			
이용	27.1	72.9	100.0(689)
미이용	10.2	89.8	100.0(364)
$\chi^2(df)$	40.984(1)***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 수요자(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민간육아도우미 서비스 매칭 플랫폼’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모, (대)도시지역, 30대이하 연령, 대학원이상 학력, 맞벌이/모취업 가구 및 맞벌이여부 비해당가구,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수도권/강원 지역에서, 현재 초등돌봄 이용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통합정보 돌봄 플랫폼/앱에 대한 의견 및 수요

가) 필요성

돌봄 관련 통합(정보)플랫폼 혹은 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필요성’에 대해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어느정도 그렇다 60.4%, 매우 그렇다 31.1%로 육아/돌

봄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긍정응답이 91.5%로 대부분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육아 및 돌봄 관련 정보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전달하는 플랫폼 또는 앱에 대한 요구도가 큼을 알 수 있다.

〈표 IV-3-9〉 육아 및 돌봄 관련 통합(정보)플랫폼 혹은 앱 필요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필요함	매우 필요함	4점 평균	계(수)
전체	1.5	6.9	60.4	31.1	3.2	100.0(2,183)
자녀연령1(기존자녀)						
영아	1.2	6.0	53.7	39.0	3.3	100.0(484)
유아	1.2	6.3	59.0	33.4	3.2	100.0(646)
초등저학년	1.6	6.9	62.6	28.9	3.2	100.0(494)
초등고학년	2.0	8.4	66.0	23.6	3.1	100.0(559)
$\chi^2(df)/F$		32.888(9)***			9.185***	
자녀연령2(기존자녀)						
미취학자녀	1.2	6.2	56.7	35.8	3.3	100.0(1,130)
취학자녀	1.8	7.7	64.4	26.1	3.1	100.0(1 053)
$\chi^2(df)/t$		24.765(3)***			4.604***	
응답자 연령						
30대이하	1.3	6.5	58.8	33.4	3.2	100.0(1,184)
40대	1.8	7.7	62.3	28.2	3.2	100.0(922)
50대 이상	1.3	3.9	63.6	31.2	3.2	100.0(77)
$\chi^2(df)/F$		9.044(6)			3.906*	
취업모 여부1						
취업	1.5	6.6	61.4	30.6	3.2	100.0(1,145)
휴직 중	1.0	5.6	54.5	38.9	3.3	100.0(303)
구직 중	2.9	7.8	54.9	34.3	3.2	100.0(102)
미취업	1.6	8.2	62.7	27.5	3.2	100.0(611)
$\chi^2(df)/F$		16.467(9)			4.009**	
현재 초등돌봄 이용						
이용	1.3	7.0	62.6	29.2	3.2	100.0(689)
미이용	2.7	9.1	67.9	20.3	3.1	100.0(364)
$\chi^2(df)/t$		12.277(3)**			3.405***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 수요자(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나) 필요한 기능

아동돌봄을 관할하는 돌봄 플랫폼이 있다면 해당 플랫폼에서 꼭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 8개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 아동 연령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 검색 기능(80.6%), 기관 운영 프로그램 및 이용 가능 시간대별 검색 기능(78.7%)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용 가능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수요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IV-3-10〉 돌봄 플랫폼에서 꼭 필요한 기능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5점 평균	1순위 응답	계(수)
1)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	1.9	3.1	22.4	48.8	23.7	3.9	23.0	100.0(2,183)
2) 아동연령별 이용가능 서비스 검색	1.5	2.5	15.3	45.9	34.7	4.1	25.7	100.0(2,183)
3) 기관 운영 프로그램 및 이용 가능 시간대별 검색 기능	1.3	2.0	18.0	44.9	33.8	4.1	15.4	100.0(2,183)
4) 이용가능 서비스 대기신청	1.4	2.3	18.4	45.9	32.0	4.0	11.6	100.0(2,183)
5) 이용가능 서비스 등록과 결제	1.4	2.0	18.8	46.5	31.2	4.0	8.4	100.0(2,183)
6) 정책서비스 이용 후기 의견 및 관련 후기정보 제공	1.4	2.9	22.0	47.0	26.7	3.9	4.4	100.0(2,183)
7) 거주지역 돌봄지도 시각화 기능	1.5	2.4	22.1	47.0	27.0	4.0	5.5	100.0(2,183)
8) 아동 등하원알리미 통합서비스	1.4	2.4	19.5	45.1	31.6	4.0	6.0	100.0(2,183)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 수요자(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 다음으로는 이용가능 서비스에 대한 대기신청과 등록/결제 기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 77.9%, 77.7%로 높았다. 이를 통해 돌봄 플랫폼을 이용할 시 서비스 이용 대기과 등록, 결제로 이어지는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기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 등하원알리미 통합서비스의 제공(76.7%)과 거주 지역의 돌봄지도 시각화 기능(74.0%), 서비스 이용 후기 정보 제공(73.7%),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72.5%)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제시된 8가지 기능 중, 돌봄 플랫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1가지를 선택하게 한 결과, 아동연령별 이용가능한 서비스 검색 기능(25.7%)과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23.0%)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기관운영 프로그램 및 이용가능 시간대별 검색 기능(15.4%)과 이용가능 서비스에 대한 대기신청(11.6%) 및 등록/

결제(8.4%) 시스템으로 이용 편의를 위한 응답이 20.0%로 나타났다. 이용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제공과 개인별 연령특성과 지역인프라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의 제공, 그리고 자녀의 등하원알리미 정보 간의 통합 제공 등, 돌봄 플랫폼의 가장 필요한 기능으로 정확한 최신 정보 제공에의 요구가 큼을 알 수 있다.

나. 돌봄서비스 이용 간 연계에 대한 의견

아동 돌봄서비스 간 이용의 연계와 연속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5점 척도)과 구체적으로 돌봄서비스 간 연계가 필요한 지점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어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질문하였다.

1) 돌봄서비스 이용의 연계/연속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

아동 돌봄서비스 간 이용의 연계와 연속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매우 필요하다 46.3%, 필요하다 39.5%로 총 85.8%가 연속적인 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1.7%)에 비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아동돌봄 수요자(부모)의 돌봄 서비스 이용의 연계와 연속성을 위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3-11〉 돌봄서비스 간 이용의 연계와 속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5점 평균	계(수)
전체	0.3	1.4	12.5	39.5	46.3	4.3	100.0(2,183)
자녀연령2(기준자녀)							
미취학자녀	0.3	1.4	11.5	36.1	50.7	4.4	100.0(1,130)
취학자녀	0.3	1.4	13.6	43.2	41.5	4.2	100.0(1,053)
$\chi^2(df)/F$			18.831(4)***			3.494***	
응답자 최종학력							
고졸이하	0.5	2.0	19.5	37.1	41.0	4.2	100.0(205)
3년제 대졸	-	0.5	13.8	43.8	41.9	4.3	100.0(377)
4년제 대졸	0.3	1.6	11.9	38.2	47.9	4.3	100.0(1,323)
대학원 이상	0.4	1.4	8.3	41.7	48.2	4.4	100.0(278)
$\chi^2(df)/F$			23.828(12)*			3.324*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5점 평균	계(수)
맞벌이 여부							
맞벌이	0.5	1.2	12.5	42.0	43.8	4.3	100.0(1,071)
외벌이	0.1	1.5	11.8	37.3	49.3	4.3	100.0(1,036)
해당없음	-	2.6	22.4	35.5	39.5	4.2	100.0(76)
$\chi^2(df)/F$			18.022(8)*			4.332*	
가구소득 기준							
250만원 미만	-	1.8	16.4	37.0	44.8	4.3	100.0(165)
250~450만원	0.3	1.9	13.4	36.1	48.2	4.3	100.0(678)
450~650만원	0.3	1.1	11.2	40.8	46.7	4.3	100.0(726)
650~850만원	0.3	0.6	11.0	41.0	47.1	4.3	100.0(363)
850만원 이상	0.4	2.0	13.5	44.6	39.4	4.2	100.0(251)
$\chi^2(df)/F$			16.965(16)			1.592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 수요자(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미취학자녀를 둔 가구,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맞벌이가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 가구에서 아동 돌봄서비스 간 이용의 연계와 연속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좀 더 많았다.

2) 돌봄서비스 이용에서 연계가 필요한 지점

아동 돌봄에서 연계가 필요한 지점으로 ‘부모/가족 돌봄’과 ‘영유아 기관’ 및 초등학교 정규수업을 마친 ‘방과후’ 전반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개별 돌봄인력’과 ‘학교돌봄’과의 연계에 대한 응답이 있었다.

〈표 IV-3-12〉 자녀의 돌봄에서 원활한 연계가 필요한 지점(1순위, 2순위, 1+2순위)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부모/가족 돌봄	29.7	16.5	46.2
영유아 기관 돌봄(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이상학원-영어유치원 등)	27.1	19.0	46.1
초등학교 정규수업을 마친 방과후	22.0	18.0	39.9
개별돌봄 인력(공공아이돌보미, 민간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이웃/지인 등)	10.5	15.7	26.2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초등 방과후) 학교돌봄(초등돌봄교실, 초등방과후과정, 학교돌봄터 등)	6.9	17.9	24.8
사교육	2.0	7.1	9.2
(초등 방과후) 지역사회/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지자체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1.5	5.5	7.0
전체	100.0(2,183)	100.0(2,183)	(2,183)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 수요자(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3)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우선 과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 수요자 부모는 1순위와 2순위 모두 영유아기관과 학교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를 꼽았다. 부모의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영유아 기관 및 학교를 중심으로 한 돌봄서비스가 확대되어야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수요자관점의 아동돌봄통합(정보)플랫폼 마련(1+2순위 중복응답 기준) 30.8%, 통합 행·재정 체계 구축 28.2%, 교육-돌봄서비스 간 연계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27.5%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화 된 운영기준의 마련(23.7%)과 지자체/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21.7%)에 대한 응답도 중복응답 기준 20%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IV-3-13〉 아동돌봄 통합적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있는 내용(1순위, 2순위, 1+2순위)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영유아기관 및 학교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	20.2	17.6	37.7
(수요자 관점의) 아동돌봄통합(정보)플랫폼 마련	17.8	13.0	30.8
통합 행·재정 체계의 구축	15.1	13.1	28.2
교육-돌봄서비스 간 원활한 연계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13.7	13.8	27.5
관련 법적 근거 마련	11.4	4.4	15.8
표준화 된 운영 기준과 모델 설정(예: 돌봄프로그램/활동, 시설설비, 인력 배치, 규모, 예산운영/비용지원, 급간식 운영 관련)	9.2	14.5	23.7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지자체/지역사회(또는 공동체)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	7.6	14.1	21.7
종사인력 운영체계 정비(교육·보육·돌봄 교직원의 자격, 처우, 역할 등)	4.8	9.2	14.0
전체	100.0(2,183)	100.0(2,183)	(2,183)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 수요자(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다. 부모 면담조사 결과-자녀돌봄 서비스 이용의 주요 쟁점 및 어려움

아동 돌봄서비스 간 이용의 연계와 연속성 및 통합적 운영에 관한 수요자 부모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영유아자녀 및 초등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녀돌봄의 현황을 중심으로 돌봄서비스 이용의 접근성과 연속성과 연계와 관련하여 자녀양육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통합적 운영기반 마련에 대한 주요 수요 및 제언을 살펴보았다.

1) 기관접근성(access, affordability, infrastructure, 물리적거리/비용 등)

가) 초등돌봄 인프라의 절대적 양적 부족

우선 자녀 돌봄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관련하여 이용가능성과 접근성에 대해, 거주지역의 초등돌봄 인프라의 개설 초등돌봄교실 수의 양적인 절대적 부족에서 오는 이용의 어려움, 그 다음으로 물리적 위치(자녀가 안전하게 걸어서 갈 수 집 근처에 위치)가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2개 중요요소(양적 부족, 물리적 위치)의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으로 인해 결국 이동수단(버스)을 제공하고 아이를 데려가고 데려오는 ‘학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였다.

돌봄교실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용자들 모두 자체가 적다고... 한 클래스가 일단 적어가지고. 저도 휴직 중에는 돌봄교실 신청 자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복직을 중간에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는 게 거기에서는 큰 기대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알아보지 않았어요, 지리적으로 머니까... 아이가 걸어야 할 거리가 아닌 이상 돌봄 장소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초등 아동 부모 A)

(초등돌봄교실 외 아동돌봄기관이) 가까운 곳이 없어요. 가깝지 않고 또 두 명이다 보니까

큰 아이만 어디를 보내고 둘째는 데리고 있고 그런 것 보다는 둘이 한 번에 집에서 누군가 보는 게 낫거든요. (초등 아동 부모 C).

단설 유치원을 최대한 보낸 이유가 그나마 돌봄이 길어서요. 병설은 12시에 끝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단설 유치원을 선택했고 방과후 반이 많은 유치원을 선택했구요. 선생님께 여쭙 보니까 취업을 해야 서류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방과후 자리가 하나도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유아 부모 D)

다들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치원 때 보다 시간이 짧아졌고 나머지 시간을 방과후나 돌봄교실을 보내야 하는데 방과후 같은 경우는 아이가 듣고 싶어 하는 수업은 다른 아이들도 듣고 싶어 해서 저는 다 잘렸고요. 또 취직이 된 상태로 돼있지 않으니까 맞벌이라고 인정받기가 다른 것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방과후도 안됐고 돌봄도 이제 주변에서 들었을 때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사교육으로 다 돌렸고.. 사실 아이가 어리니까 이동경로가 최대한 단축이 돼야지 집에서 일을 하든 어딜 출근을 하든 마음이 놓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사교육 말고는 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거를 해주시는 학원으로 계속 연락도 주고받을 수 있고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도 쉽고 그래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초등 아동 부모 D)

나) 물리적 위치-학교내 돌봄 연계에의 요구

부모들은 돌봄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은 결국 자녀의 안전을 확보하는 물리적 위치로, 이를 위해 초등학교 (또는 안정적 기관내) 에서 돌봄서비스의 제공이 연계되기를 강하게 바라고 있었다.

아이가 둘 있다 보면 한 아이를 키우다 문제가 발생해서 제가 아프거나 어디 맡겨야 될 때 조부모가 가까이 있지 않으면(곤란해요).. 만약에 잠깐 맡길 수 있다 하면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제일 좋은 것 같고, 지금 보면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가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게 학교인 것 같은데, 학교 돌봄이나 방과후를 부모들이 선호한다는 것 자체가 우선 학교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센터를 만들기보다는 교육청에서 오시거나 에이전시라도 써서 방과후를 하더라도 우선 엄마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데가 학교이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 뭔가 운영되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으면 직장맘들 같은 경우에도 찾아다니면서 알아보는 것도 시간적으로도 힘들고, 학교 안에 이런 센터가 운영을 하면 같이 맡기고 하원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등 아동 부모 B)

집에서 가까운 곳. 그런데 초등학교도 결국 접근성이더라고요. 제가 안전을 생각하면 근방 거리 내에서 아이가 혼자 케어 가능한 차도나 횡단보도나 이런 것들을 다 민감하게 체크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게 생겨도 멀면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해줄 곳은 사실 초등학교 밖에 없는데 초등학교에서 제가 예전에 한 번 얘기했지만 방과후과정은 담임교사 선생님이 터치하지 않는다 거의 분리된 개념으

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정교사 선생님들은 딱 1~2시까지만 신경쓰신다고.. 그런 체계가 약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초등 아동 부모 A)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건 알고 계신지?) 어쨌든 거길 보내려면 보호자가 짧은 거리라도 있어줘야지 되게 다르잖아요. 아이가 1학년이라서 핸드폰을 일부러 쥐어주고 통화를 하면서 왔다갔다 하게 훈련을 해봤는데 통제가 잘 안돼요. 친구가 아파트 놀이터라도 간다고 하면 갑자기 그쪽으로 빠져버리고. 지금도 사실 근무를 집에서 계속 해야 하는데도 아이 픽업시간에는 잠깐이라도 나가서 해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초등 아동 부모 D)

(앞서 자녀 이용 기관 어려움 논의) ...그리고 돌봄을 많이 알아봤었어요. 주변의 돌봄 환경이 아직 신도시다 보니까 없고 내년에 초등학교 가니까 초등학교 돌봄을 알아보니까 아이가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려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게 되는 시스템이 되어버렸어요(영유아 부모 A)

다) 일하는 부모의 출퇴근시간을 고려한 운영시간의 경직성 탈피

기관(공립유치원)의 돌봄서비스 운영시간이 일하는 부모의 출퇴근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경직성으로 인해 경험하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좀 더 이른 시간 유연한 운영시간을 적용하기를 바램을 제시하였다.

병설(유치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공립에 대한 믿음 때문에 보내고 싶었고, 아침에 출근할 때 제 출근시간이 8시 30분까진데 아이 유치원이 8시 30분에 열어요. 그런 문제가 좀 맞물려 있어서 너무 집 근처로 유치원을 보내게 되면 아침에 아이가 8시에 가야 되는데 8시에는 보육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애를 차에 태우고 나중에 이사 예정인 아파트에 있는 병설을 보냈어요. 아이 내려주고 육아시간을 써서 아침에 8시 50분까지 출근을 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병설이 큰 도로에 위치하다 보니까 아이를 제가 잠깐 차를 정차해두고 데려다 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아이를 초등학교 정문에 내려주면 5살 짜리 아이가 혼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약간 너무 융통성 없이 8시 20분에만 열어줬어도 제가 좀 안심을 하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거기도 8시 30분에 열고 제 출근시간도 8시 30분이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영유아 부모 B)

하원도우미나 조부모님 도움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건데 그게 아니면 하원도우미 쓰면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참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영유아 부모 C)

어린이집에서부터 선생님이 늘 말씀하신 게 어머니 3시면 애들이 다 가요. 그러면 4시 이후로 남아 있는 애들이 없나요? 물어보면 네, 4시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데려가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없는 맞벌이는 없나요? 그랬더니 아..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해서 저도 난감하고 저는 일을 편하게 마치고 데리러 오고 싶었는데 다들 일찍 데려간다고 하니까는 이 분위기 조성이 어린이집에서부터 너무 돼버리니까 유치원을 가도 그렇게 크게 달

라지지가 않는 거예요(영유아 부모 B)

제가 지금 보내는 데는 일반 교육과정으로 들어와도 방과후를 다 집어넣어주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거든요. 왜냐면 다른 데는 진짜 한 두 자리 남더라고요. 우선지원으로 요즘에 2명 이상도 다 다자녀로 해주니까 그냥 다 지원을 우선지원으로 넘어서서 추천이 되니까, 저는 (아이가) 하나니까 거기에 낄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한 두 자리 갖고선 경쟁을 하는데 진짜 신이 도우셨다, 자리 일곱 개 중에 하나를 꿰차고 들어간 나의 아이의 운에 감사합니다.. 약간 이럴 정도로 그 추천이 되게 긴장되는 과정이었거든요. 사실 저도 유치원 보내나 어린이집 보내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들 같은 마음이지겠지만 오래 보낼 수 있는 데를 보내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면 좋겠다 싶긴 하네요(영유아 부모 D)

라) 일시돌봄으로서의 시간제보육 이용의 원천적 어려움

시간제보육과 같은 일시적 돌봄과 긴급돌봄 이용의 원천적 어려움을 지적하며, 일시돌봄과 긴급돌봄 수요에의 대응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저는 시간제 보육도 한 번 써봤었거든요. 이사 오기 전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시간제보육 예약이 하늘의 별따기고, 그리고 한 번 성공했는데 애가 아파서 못 보냈고 또 한 번은 애가 적응을 못하잖아요. 둘째 같은 경우에는 언니 뭐 어디 보내야 되가지고 애가 힘들니까 더울 때 한 번 보내봤는데 너무 우니까 데려가시라고 아니면 엄마가 오시라고... 근데 이용하신 분들은 계속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거의 풀로 쪽 이용을 하니까 자리가 없어요(영유아 부모 D)

상기한 접근성/이용가능성의 쟁점은 양질의 돌봄서비스 이용에의 기회가 제한되는 데에서 오는, 돌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하는 아동/가구와 그렇지 못한 아동/가구 간 돌봄서비스 이용과 수혜의 형평성(equity) 저해라는 문제를 안고 있음이 드러났다. 교육·보육돌봄으로서의 양질의 돌봄서비스가 보편적 이용기반으로서 운영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2) 양질의 서비스(quality) 수준 및 내용(contents)에 대한 수요

가) 자녀의 성장발달과 학업수행,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양질의 교육 수요

부모는 돌봄서비스라 하여도 취학 전후 자녀의 성장과 다양한 체험활동 및 학업준비와 수행을 지원하는 양질의 교육·보육·돌봄으로서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상당부분 드러났다.

주말에 한 번씩 그런 퍼포먼스 미술 하는 데 갔었는데 좋아하더라고요. 집에서 제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아해서 그걸 좀 다니다가 이제 4세 정도 되니까 주변에 가베수업도 하고 친구들은 많이 시키더라고요. 저는 아직 딱히 필요를 못 느껴서 그냥 어린이집 끝나면 놀고 하는 거에 중점하고 있긴 한데 약간씩은 교육적인 부분이 고민되기 시작하긴 했어요. (영유아 부모 C)

(지금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는) 특활활동을 작년에는 하나도 안하다가 올해 2개를 시작했는데 제가 보기엔 40분 체육수업 하나, 음악수업 하나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육을 많이 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런데 보면 한글, 숫자 이런 것도 한다고 하고 뭐 어떤 데는 한문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게 조금만 보충이 되면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후년부터는 두 명을 다 유치원을 보내려고 생각하면 약간 부담이 돼서. 통학버스 타는 것도 조금 걱정이 되고. 교육적인 부분만 조금 보충이 된다면 어린이집을 계속 보내고 싶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아마도 유치원으로 옮기게 될 것 같기는 해요 (영유아 부모 C)

방과후과정 말고 돌봄교실도 질도 그냥 요리나 종이접기 이런 것들을 한다고 들었는데, 첫째는 4학년인데 4학년 돌봄에서 요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돌봄이지 뭔가 거기서 교육적인 부분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부모님들도 결국은 빼고 사교육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엄마들이 봤을 때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다면 방과후처럼 많이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 아동 부모 B)

(방과후 돌봄에) 교육적인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도 저학년, 고학년이 있으니까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첫째는) 방과후로 역사, 한국사 이런 거 듣고 있는데, 학교에 교육과정에는 한국사가 없으니까 방과후과정을 통해서 그거를 충족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고학년 같은 경우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초등 아동 부모 B)

돌봄 교실이 (운영시간 중에) 이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안 하시는 맞벌이 어머니들도 제가 알고 있고.. 아니면 돌봄교실에 대한 비용은 내고 있지만 간식 먹고 자기 사교육 시간에 그냥 나가게 그걸 선택하는 어머니도 계시고... 부모의 욕심은 학업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인데 돌봄서비스 내에서 서비스 내용이 만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학년에서도 결국 사교육 쪽으로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방과후돌봄이 외국 보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클래스 갔다가 나왔다 하잖아요. 그렇게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초등 아동 부모 A)

나) 양질의 돌봄프로그램 및 지역중심 맞춤형 운영에 대한 높은 만족도

일단 양질의 방과후돌봄 반에 들어가면 높은 이용 만족도를 보고하였다. 지자체에서 해당지역의 부모 특성과 수요에 맞게 제공하는 돌봄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양질의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보편적 이용기반과 접근성, 이용기회의 형평성에 대한 수요가 더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단설유치원은 방과 후 반 엄마들은 만족도가 너무 좋은 게 교과 과정이 똑같이 끝나고 내려 가서 방과 후 같은 반 친구들이 같이 내려가는 시스템이에요. 병설은 막 크로스 하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6시까지 대부분 보장이 돼서 엄마들이 만족도가 엄청 높대요. 그런 말(아이를 일찍 데려가 달라는 교사나 기관의 요구)도 일절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과후 보내는 엄마가 여기는 티오가 진짜 하나도 안 나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구요(영유아 부모 D)

보니까 아파트 1층에 무슨 아이휴센터가 이런 게 생기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아이들을 돌봄 하는 곳인데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동네가 맞벌이 부부가 많은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그 특성에 맞춰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시간도 10시까지인가 굉장히 늦게까지 해주고 오전시간도 7시 반인가 되게 일찍부터 시작하고 지자체에서 이런 거를 관리하고 시행하다 보니까 딱 그 동네 지역 주민들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자녀가 아직 없기 때문에.. (중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 다 이용하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으면 좋는데 아직까지 저희 동네에 보면 그 대상이 초등학교생인 것 같더라고요. 대상이 확대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면 초등학교부터라도 적용이 되면 좋겠어요.. (영유아 부모 C)

3) 정보 접근성 - 통합정보플랫폼 구축에의 높은 수요

자녀양육과 돌봄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및 양육정보의 제공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크며, 구체적으로 이용가능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외에 자녀의 등하원 알림 서비스의 체계적 운영과 확대, 맞춤형 양육정보의 제공에 이르기까지 내용(콘텐츠) 중심의 정보 요구도가 크다.

가) 정보제공의 필요성-아동돌봄 및 자녀발달, 양육과정에 대한 통합정보

저는 통합 앱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정보를 항상 들어서 알고 알음알음 알거나 친구들, 맘카페 이런 비공식적으로 밖에 알 수가 없는데 사실 첫째 키울 때는 맨날 검색만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뭐 하나 사려고 하면 검색하고 그러다가 진짜 밤에 쉬는 시간이 몇 시간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를 전문가들이 연령별로 필요한 발달사항이라든지 놀이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영유아 부모 A)

이걸(각종 양육 정보) 첫째 때도 알았으면 되게 키우다가 알게 되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물론 있지만 그런 것들 경험자들이 연령별로 했던 거를 후기로 올려주는 걸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 사실 경험치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맘카페를 이용하는 거기도 하지만. 모든 거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집약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들을 통합 앱으로 한다면 사람들이 그 앱이 유용하다면 당연히 쓸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이사랑 앱은 그게 통합 앱이라고 생각해보면 적이 없고 정말 그냥 대기 거는 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린이집 대

기 거는 거.. (영유아 부모 A)

저희 첫째 때는 시간제보육 이런 것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많고 어디서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몰라서 못 이용했던 것 같고... 산후도우미도 정부 지원이 없었던 것 같고 아님 뭔가 소득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초등 돌봄은 아무래도 직장맘들을 위한 거니까 안 사용했고, 방과후 쓰고 지역아동센터도 안했어요. 돌봄센터 이런 것도 모르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이런 거는 방학 특강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처에. 그래서 방학 때 이거를 들었어요. 대부분은 모르고 시스템에 대해서 정보력이 없다고 해야 하나...(초등 아동 부모 B)

저는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생각은 했었는데.. 공공에 이런 게 있고 이용을 해보고 싶었는데 주변의 물어보면 ‘그거 소득 때문에 안 될걸?’, ‘일부만 이용할 수 있을걸?..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 더 이상 알아보지 않았거든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초등 아동 부모 C)

저는 시간제 보육은 몰랐었거든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도 몰라서 민간 육아도우미를 썼고요. 여성가족부 이것도 몰랐고 다함께돌봄센터 이거는 들어는 봤는데 약간 지역사회 소외 계층 분들이 이용하는 걸로 생각을 하게 돼서 잘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고 안 이용하게 되는 것 같고. 센터 자체도 멀거나 정확하게 어떤 교육으로 어떤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자체를 몰라서 어린 아동들 같은 경우는 시간제 보육 같은 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초등이 넘어가고 나서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학교 안에 있는 돌봄을 이용하시거나 멀지 않은 곳을 이용하다보니까 이렇게 학교 외에 있는 다른 센터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진 않은 것 같고 이용 자체도 하는 분들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직접적으로 생활하면서 경험하거나 들었던 경험은 없어서 약간 멀게 느껴지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초등 아동 부모 B)

나) 정보의 부족, 정보 제공에의 요구

(아동 돌봄 면담하다 보니) 여기 많은 케이스들이 존재를 하고 제가 신청하고 알아보고 그러면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서비스가 어떨지 사실 잘 모르겠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초등 아동 부모 C)

근데 저는 보육료 결제 할 때 빼고는 (아이사랑 앱을) 사용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뭔지 너무 복잡하고. 뭔가 알아보기에도 어렵고 뭔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뭘 쓰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보육료 결제밖에 저는 써본 적이 없어요. (영유아 부모 B)

다) 등하원알림 시스템의 체계화 및 연계

학교도 마찬가지로 유치원도 병설 같은 경우도 걸어 나오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애가 제대로 나온 건지 지금 머물고 있는 건지 뭔가 불안하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학원처럼 학원

은 앱이 있어서 몇 시 몇 분에 하원하였습니다,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림이 뜬대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라는 말을 하는걸 들어서 그거 좋겠다 왜냐면 저도 제가 하원 못 시킬 때 애 아빠가 시간보육을 써가지고 하원 시킬 때 하원 시켰는지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중략) 그런 게 조금 담겼으면 좋겠다 엄마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영유아 부모 D)

그리고 더 담겼으면 좋겠는 거는 부모한테 아동의 출석체크가 오는 게.. 저는 아직 핸드폰을 안 썼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태그가 있거든요. 그걸로 알림이 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알림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앱이 개발이 된다면 이런 기능이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기능을 썼어요.. 근데 방과후는 출석을 보내주는 선생님이 있고, 아닌 선생님도 있어서.. (초등 아동 부모 A)

사실 아이가 어리니까 이동경로가 최대한 단축이 돼야지 집에서 일을 하든 어딜 출근을 하든 마음이 놓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사교육 말고는 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거를 해주시는 학원으로 계속 연락도 주고받을 수 있고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도 쉽고 그래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초등 아동 부모 D)

4) 돌봄(교육·보육·돌봄) 서비스 이용의 통합과 연계- 횡적연계, 종적연계

가) 자녀 연령별 성장발달에 따른 돌봄-교육의 유초 연계와 연속성

첫째는 내년에는 유치원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중략) 저희 첫째는 1월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체적으로도 좀 크고 말이나 이런 것도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빨라서 작년에만 해도 학기 말쯤 되니까 아이가 좀 지루해 하더라고요. 올해 되면서 교실도 바뀌고 교구도 바뀌니까 잘 다니고 있는데 내년에 유치원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특활활동이나 교육적인 부분이 조금만 보충이 된다면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은 마음도 사실 있거든요. 여기가 단지 바로 앞에 있어서.. (영유아 부모 C)

다들 엄마들이 초등학교 적응할 때 엄마들이 걱정이 진짜 많거든요. 갑자기 스스로 해야 되고 환경도 그렇고 교육도 갑자기 너무 교육 쪽으로 넘어 가버리고. 그래서 유치원을 사이로 보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일부러 책상에 앉아서 정규시간을 버티려면 초등학교 때 갑자기 너무 당황스러울 거다. 그래서 7살이라도 유치원을 보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영유아 부모 A)

나) 통합적·종합적 돌봄 수요 충족의 중요성

일단 어린이집만한 곳이 없다. 정말 어린이집은 고마운 곳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고요. 오히려 여태 어린이집 덕분에 계속 유지를 해왔다면 초등학교 가고 나니까 저는 이제 퇴사를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만큼 돌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확실히 있어서 저

는 사교육보단 안전이 1순위여서 통학차량 태우고 그런 것보다 학교 내에서 케어가 다 가능하면 그 쪽에 다 의존하고 싶는데 그런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돌봄 자체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부모가 곁에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초등 아동 부모 A)

학교에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가깝기도 하고 좀 더 믿음이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동네도 동네 나름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마을 돌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아직은 신뢰가 잘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초등 아동 부모 C)

다) 다양한 돌봄서비스 선택지의 제공과 이에 대한 연계협력에의 요구

(학교돌봄/마을돌봄) 통합 자체를 할 필요 없이 그냥 다양성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고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굳이 통합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초등 아동 부모 B)

접근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마을돌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어디에 뭐가 생겼다는 인내가 학교에서 많이 오거든요. 새로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 근데 사실 가까운 곳은 없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용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다시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시기예요. 아이들도 조금 자랐고. 많이는 있는데 이용을 하면서 제가 만족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조금 고민이 되는 상태. 주변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 되게 좋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피드백을 잘 못들은 것 같고 진짜 필요에 의해서 보내고 거기 안보내면 어떻게 하겠어 라는 부모님도 계시는 것 같고. 일단 누가 운영을 하든 좀 질이 좋았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많이 생기고는 있지만 지역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등 아동 부모 C)

수요자 부모가 원하는 양질의 돌봄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 형태를 띠면서 부모의 선택권이 제고되는 다양성과 선택권에의 요구가 있었으며, 이는 서비스 이용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돌봄과 교육의 공백과 단절, 정보부재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었다. 표준화 된 단일한 형태의 서비스가 아닌 다양한 운영체계 하에서도 연계협력으로서의 연속성과 통합적 운영을 바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아동 돌봄분야 전문가 60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생애주기별 돌봄정책 및 양육지원체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다음과 같다.

〈표 IV-4-1〉 전문가조사-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계(수)	구분	계(수)
전체	100.0(60)	전문가 전공	
전문가 직업		사회복지	20.0(12)
대학교수	61.7(37)	보육/아동/가족	36.7(22)
연구원/기타	38.3(23)	유아교육/교육	26.7(16)
		행정/경제/기타	16.7(10)

가. 아동의 생애주기별 양육지원체계에 대한 의견

1) 생애주기별 양육지원체계에 대한 의견(7점 척도)

출생 이후부터 초등 학령기(0세~6학년)까지의 아동의 생애주기별로 돌봄서비스의 이용과 부모 대상의 양육지원체계 전반을 포함한 현행 육아지원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전문가 대상으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유아기(3~6세)에 대한 평가가 7점 척도 평균 5.6점으로 가장 높았고, 3.3점을 받은 초등 고학년(4~6학년)에 대한 긍정평가가 가장 적었다. 전반적으로 취학전 영유아기와 임신출산기에 비하여 초등 입학 이후 학령기에 대한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평가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2〉 아동 연령 주기별 현행 육아지원정책 평가(7점 척도)

단위: %, 점(명)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7점평균	계(수)
1)임신출산기	1.7	5.0	10.0	10.0	28.3	38.3	6.7	5.0	100.0(60)
2)영아기(0~2세)	1.7	3.3	5.0	13.3	26.7	38.3	11.7	5.2	100.0(60)
3)유아기(3~6세)	-	1.7	5.0	5.0	21.7	55.0	11.7	5.6	100.0(60)
4)초등 저학년(1~3학년)	3.3	13.3	33.3	23.3	15.0	11.7	-	3.7	100.0(60)
5)초등 고학년(4~6학년)	11.7	15.0	30.0	21.7	18.3	3.3	-	3.3	100.0(60)

주1: 1점은 '전혀 잘 되어 있지 않음', 4점은 '보통', 7점은 '매우 잘 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
 주2: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2) 잘 마련되어 있는/있지 않은 시기(1, 2순위)

자녀 양육과 돌봄을 위한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 중 상대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는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는지 1, 2순위로 질문한 결과(중복응답)에서도, ‘유아기’라고 응답한 비율이 78.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영아기’(63.3%), ‘임신출산기’(43.4%)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등 고학년(3.3%)과 초등 저학년(11.7%)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적고, 잘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⁵²⁾.

〈표 IV-4-3〉 정부 육아지원 중 상대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는/있지 않은 시기

단위: %(명)

구분	잘 마련되어 있음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음
	1순위	1+2순위	1순위
1)임신출산기	28.3	43.3	11.7
2)영아기(0~2세)	23.3	63.3	10.0
3)유아기(3~6세)	45.0	78.3	1.7
4)초등 저학년(1~3학년)	1.7	11.7	43.3
5)초등 고학년(4~6학년)	1.7	3.3	33.3
계	100.0(60)	(60)	100.0(60)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나. 주요 돌봄서비스 정책/사업에 대한 의견 및 평가

1) 전반적인 평가(7점 척도)

아동의 연령별로 이루어지는 주요 돌봄 서비스 정책/사업(13개)에 대한 평가를 7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긍정평가가 7점 평균 6.6점으로 가장 우수하였고,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5.9점)과 ‘유치원’(5.7점) 이용으로 나타났다.

7점 평균 4점대로 보통이상의 긍정의견을 보인 돌봄 정책/사업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4.7점)와 아이돌봄서비스(4.6점), 초등 방과후과정(4.6점), 시간제보육(4.5점), 지역아동센터(4.5점), 그리고 초등돌봄교실(4.3점)

52) 정부의 육아/돌봄 정책에 대한 긍정 및 부정 평가 이유 응답결과는 〈부록〉 참조

과 다함께돌봄센터(4.2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4.0점)가 있었다.

반면에 민간 육아도우미(3.4점)와 육아/마을 공동체 돌봄(3.9점)에 대한 긍정응답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⁵³⁾.

〈표 IV-4-4〉 정책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7점 척도

단위: %, 점(명)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잘 모름	7점 평균	계(수)
1)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	6.7	10.0	21.7	18.3	31.7	1.7	10.0	4.7	100.0(60)
2)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	-	-	-	6.7	26.7	66.7	-	6.6	100.0(60)
3) 어린이집 이용	-	-	1.7	8.3	20.0	41.7	28.3	-	5.9	100.0(60)
4) 유치원 이용	-	1.7	1.7	8.3	30.0	35.0	23.3	-	5.7	100.0(60)
5) 시간제보육	-	6.7	11.7	25.0	38.3	11.7	5.0	1.7	4.5	100.0(60)
6) 민간 육아도우미	3.3	23.3	18.3	35.0	15.0	-	1.7	3.3	3.4	100.0(60)
7) 아이돌봄서비스	-	6.7	10.0	28.3	31.7	20.0	3.3	-	4.6	100.0(60)
8) 육아/마을 공동체 돌봄 (공동육아 포함)	3.3	8.3	23.3	33.3	20.0	8.3	1.7	1.7	3.9	100.0(60)
9)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포함)	-	10.0	16.7	26.7	26.7	15.0	3.3	1.7	4.3	100.0(60)
10) 초등방과후과정(방과후학교)	-	3.3	15.0	31.7	28.3	16.7	5.0	-	4.6	100.0(60)
11) 지역아동센터	-	6.7	15.0	26.7	28.3	20.0	3.3	-	4.5	100.0(60)
12) 다함께돌봄센터 (지자체돌봄센터 포함)	-	11.7	10.0	40.0	21.7	10.0	3.3	3.3	4.2	100.0(60)
1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의 집 등)	1.7	11.7	15.0	40.0	16.7	8.3	3.3	3.3	4.0	100.0(60)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2) 항목별 평가(4개요소, 1-2순위)

아동의 연령별로 이루어지는 주요 돌봄서비스 정책/사업(13개)의 운영기반에 대해 접근성(보편적 이용가능성)과 포괄성(취약계층 지원, 핵심수요 충족), 행·재정 거버넌스, 돌봄공백/사각지대 해소의 4개 요소별로 가장 잘 마련되어있는 것과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정책/사업 1, 2순위를 질문하였다⁵⁴⁾.

53) 13개 돌봄 정책/사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 이유 및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을 위한 정책/사업에 대한 제언 응답은 〈부록〉 참조

54) 13개 돌봄 정책/사업에 대한 4개요소별 긍정-부정 평가 이유는 〈부록〉 참조

〈표 IV-4-5〉 주요 돌봄서비스 정책/사업에 대한 항목별 긍정 평가(4개항목: 1+2순위 응답)

단위: %

구분	접근성	포괄성	행·재정 거버넌스	돌봄공백/ 사각지대 해소
정부지원산후도우미(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8.3	16.7	10.0	5.0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71.7	40.0	45.0	11.7
어린이집 이용	76.7	56.7	53.3	43.3
유치원 이용	15.0	16.7	26.7	11.7
시간제보육	-	-	-	13.3
민간 육아도우미 관련	-	-	-	5.0
아이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	3.3	13.3	10.0	30.0
육아/마을 공동체 돌봄	-	-	3.3	3.3
초등돌봄교실(학교돌봄터 포함)	6.7	11.7	8.3	13.3
초등방과후과정(방과후학교)	10.0	5.0	5.0	5.0
지역아동센터	1.7	8.3	6.7	15.0
다함께돌봄센터(지자체돌봄센터)	-	1.7	3.3	8.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	3.3	1.7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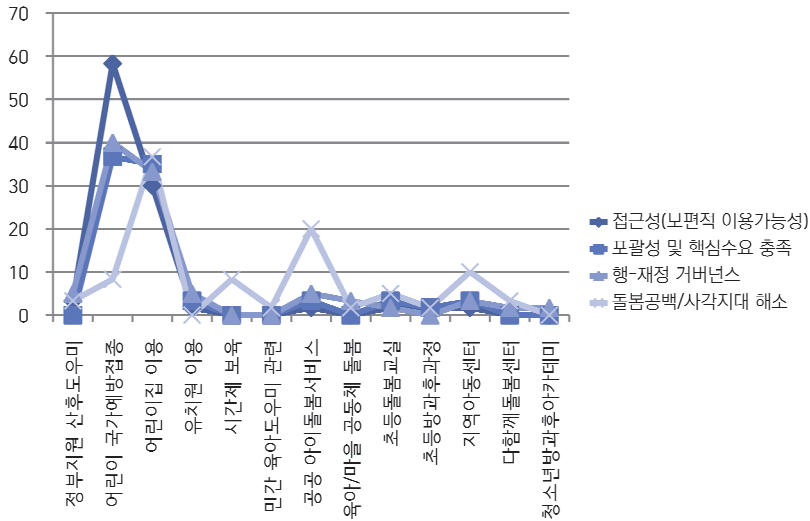
수요자 관점의 접근성(보편적 이용가능) 측면에서 '잘 마련되어 있는' 1+2순위 중복응답률임.

수요자 부모와 아동의 관점에서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과 포괄성, 행·재정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에 대한 전문가의 긍정 평가가 일관되게 나타났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경우 돌봄공백과 사각지대 해소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우세하였으며, 유치원 교육서비스의 행·재정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긍정의견이 많았다. 돌봄공백과 사각지대 해소의 측면에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긍정평가도 우세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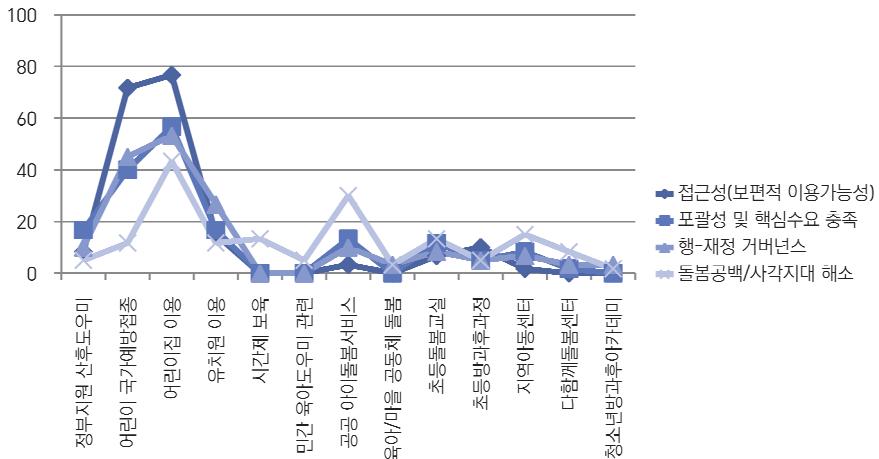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에 대한 4개 요소별 긍정평가가 10% 내외로 고르게 나타난 가운데, 특별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취약계층 지원을 고려하여 포괄성에서 긍정평가(16.7%)가 우수하였다. '초등돌봄교실'도 4개 요소별로 긍정평가가 10% 내외로 고르게 나타났으며, 돌봄공백과 사각지대 해소의 측면에서 '시간제보육'과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긍정의견이 약 13%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마을돌봄'과 '민간육아도우미' 및 '시간제보육'에 대한 긍정의견은 낮은 수준을 보이거나 응답률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V-4-1] 잘 마련되어 있는 돌봄서비스 정책/사업-1순위, 1+2순위 응답 결과

〈1순위 응답〉



〈1+2순위 중복응답〉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표 IV-4-6〉 주요 돌봄서비스 정책/사업에 대한 항목별 부정 평가(4개항목: 1+2순위 응답)

단위: %

구분	접근성	포괄성	행·재정 거버넌스	돌봄공백/사각지대 해소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10.0	6.7	1.7	3.3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1.7	-	-	3.3
어린이집 이용	1.7	3.3	3.3	1.7
유치원 이용	5.0	1.7	3.3	3.3
시간제보육	15.0	16.7	6.7	13.3
민간 육아도우미 관련	23.3	13.3	43.3	25.0
아이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	13.3	21.7	16.7	16.7
육아/마을 공동체 돌봄	23.3	21.7	23.3	15.0
초등돌봄교실(학교돌봄터 포함)	23.3	21.7	23.3	23.3
초등방과후과정(방과후학교)	6.7	10.0	11.7	13.3
지역아동센터	10.0	10.0	13.3	8.3
다함께돌봄센터(지자체돌봄센터)	25.0	11.7	11.7	8.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0.0	16.7	6.7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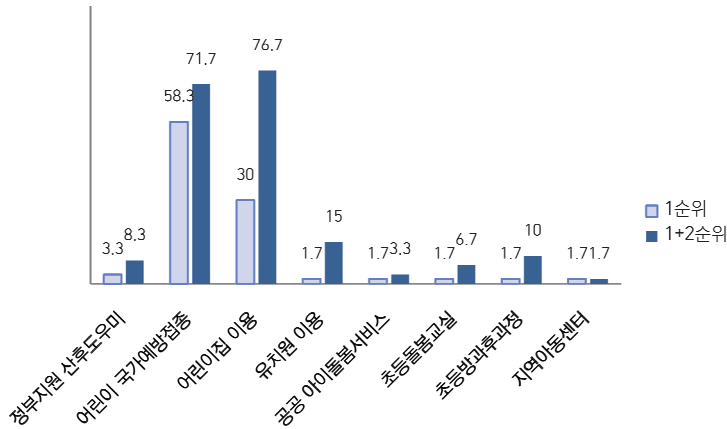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수요자 관점 접근성(보편적 이용가능)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지않은' 1+2순위 중복응답률임.

4개 요소별로 상대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부정적 의견은 민간 육아도우미와 육아/마을 공동체 돌봄, 초등돌봄교실에서 나타났으며,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포괄성에서,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접근성에서 부정적 의견이 2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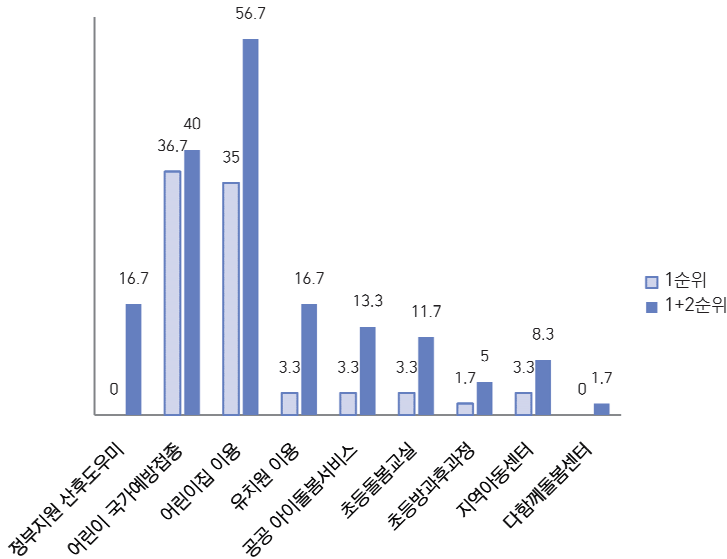
주요 돌봄 정책/사업에 대한 4개 요소별 전문가 의견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V-4-2] 돌봄서비스 정책/사업에 대한 항목별 평가①-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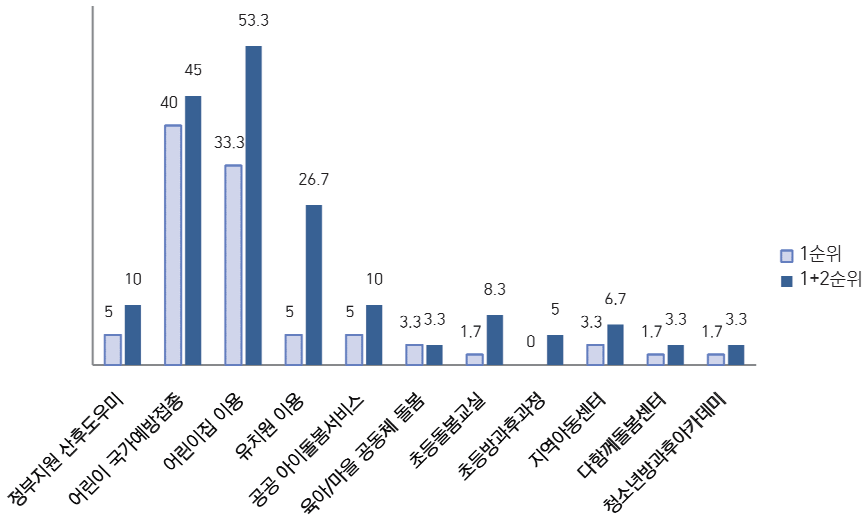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 1+2순위 중복응답임.

[그림 IV-4-3] 돌봄서비스 정책/사업에 대한 항목별 평가②-포괄성 및 핵심수요 충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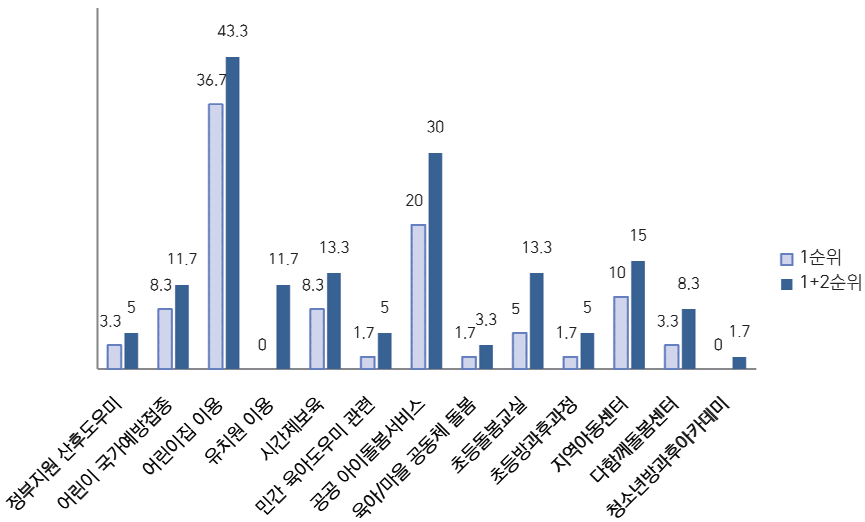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 1+2순위 중복응답임.

[그림 IV-4-4] 돌봄서비스 정책/사업에 대한 항목별 평가③-행·재정 거버넌스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 1+2순위 중복응답임.

[그림 IV-4-5] 돌봄서비스 정책/사업에 대한 항목별 평가④-돌봄공백/사각지대 해소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 1+2순위 중복응답임.

다. 돌봄서비스 이용의 연속성과 연계에 대한 의견

〈표 IV-4-7〉 종적-횡적 연계에 대한 의견

단위: %, 점(명)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7점평균	계(수)
종적 연계	11.7	23.3	20.0	23.3	15.0	6.7	-	3.3	100.0(60)
횡적 연계	3.3	23.3	26.7	20.0	25.0	1.7	-	3.5	100.0(60)

주1: 1점은 '전혀 잘 되어 있지 않음', 4점은 '보통', 7점은 '매우 잘 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

주2: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수요자 부모와 아동의 관점에서 돌봄서비스 이용 시 연속성과 연계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종적(생애주기), 횡적(하루일과) 연계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하루 일과 중 돌봄서비스 이용에 관한 횡적 연계에 대한 긍정응답은 26.7%(7점 평균 3.5점), 생애주기에 따른 돌봄서비스 이용의 종적 연계는 21.7%(3.3점)으로 전체 응답 평균 '보통이하'의 평가로 나타났다. 특히 종적 연계에 대해 1점(전혀 잘되어있지 않음)이라는 부정적 응답이 11.7%로, 전문가들은 아동의 생애주기에 따른 돌봄서비스 이용의 연속성과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⁵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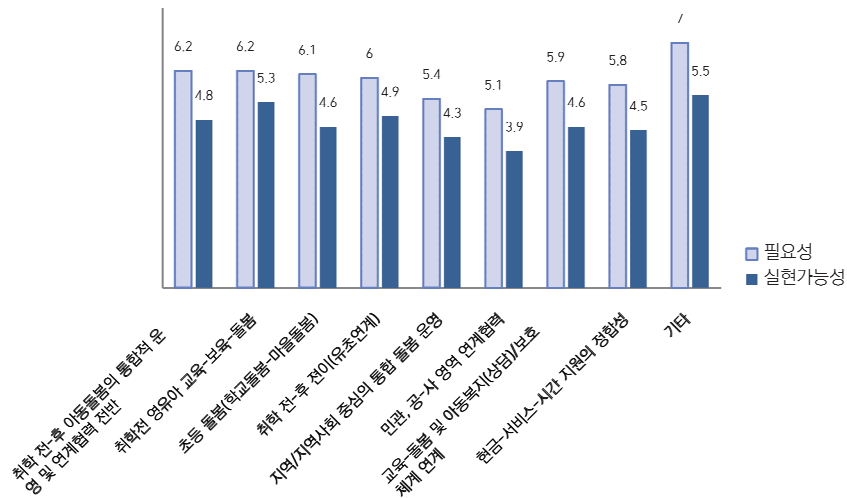
라.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에 대한 의견

1) 통합적 운영기반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전문가들에게 취학 전-후 아동 돌봄서비스(교육·보육·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의 필요성과 그 실현가능성(실행력)에 대해 질문한 결과, 통합적 운영 기반의 '필요성'은 7점 평균 5~6점대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이와 비교하여 '실현가능성'에 대한 긍정의견은 7점 평균 4~5점 내외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5) 돌봄서비스 이용의 종적-횡적 연계에 대한 평가 의견은 〈부록〉 참조

[그림 IV-4-6] 아동 돌봄서비스 통합적 운영 기반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표 IV-4-8〉 아동돌봄 통합적 운영 기반 마련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단위: 점

필요성(7점평균)	아동 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	실현가능성(7점평균)
6.2	0)취학 전-후 아동돌봄의 통합적운영 및 연계협력 전반	4.8
6.2	1)취학전 영유아 교육·보육·돌봄	5.3
6.1	2)초등 돌봄(학교돌봄-마을돌봄)	4.6
6.0	3)취학 전-후 전이(유초연계)	4.9
5.4	4)지역/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운영	4.3
5.1 ↓	5)민-관, 공-사 영역 연계협력	3.9 ↓
5.9	6)교육·돌봄 및 아동복지(상담)/보호체계 연계	4.6
5.8	7)현금-서비스-시간 지원의 정합성	4.5

주1: 1점은 '전혀 필요하지 않음', 4점은 '보통', 7점은 '매우 필요함'을 의미

1점은 '실현 가능성 매우 낮음', 4점은 '보통', 7점은 '실현 가능성 매우 높음'을 의미

주2: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취학 전-후 아동 돌봄서비스(교육·보육·돌봄)에 대한 통합적 운영 기반의 **필요성**은 취학 전-후 아동 돌봄의 통합적 운영 및 연계·협력 전반(6.2점)과 취학 전 영유아 교육·보육·돌봄(6.2점)에 대한 통합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우세하였다. 이어서 전문가들은 초등 돌봄(학교돌봄-마을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의 필요성(6.1점)과 취학 전-후 전이(유초 연계)의 필요성(6.0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상대적으로 민-관, 공-사 영역 간 연계협력을 위한 통합적 운영 기반(5.1점)과 지역/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운영(5.4점)의 필요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이 역시 7점 평균 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전문가들에게 취학 전-후 아동의 돌봄서비스(교육·보육·돌봄)에 대한 통합적 운영 기반의 **실현가능성(실행력)**에 대해 7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취학 전 영유아 교육·보육·돌봄(5.3점)의 통합적 운영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취학 전-후 전이(유초연계)(4.9점)의 실행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반면에 민-관, 공-사 영역 간 연계협력을 위한 통합적 운영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3.9점으로 보통이하로 평가하였다. 민-관, 공-사 영역 연계협력에 대해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1점)고 평가한 비율이 응답자의 8.3%로 나타났다.

2) 통합적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우선 추진 부문 및 과제

〈표 IV-4-9〉 취학 전-후 돌봄서비스 운영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우선 추진 부문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취학 전-후(0세~초등학령기)	43.3	11.7	55.0
취학전 영유아 교육·보육·돌봄	23.3	15.0	38.3
초등 돌봄(학교돌봄-마을돌봄)	11.7	15.0	26.7
취학 전-후 전이(유초연계)	6.7	11.7	18.3
지역/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운영	5.0	10.0	15.0
민관, 공-사 영역 연계협력	-	11.7	11.7
교육·돌봄 및 아동복지(상담)/보호체계 연계	1.7	11.7	13.3
현금-서비스-시간 자원의 정합성 및 체계성	8.3	11.7	20.0
계	100.0(60)	100.0(60)	100.0(60)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취학 전-후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정책적으로 우선 추진할 부문에서도 1순위로 꼽힌 것은 취학 전-후(0세에서 초등학령기) 전반에 대한 통합 운영체계의 마련으로 전체 응답의 43.3%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취학전 영유아 기 교육·보육·돌봄(23.3%)과 초등돌봄에서 학교-마을 돌봄 간 통합적 운영(11.7%), 취학 전후 유초연계(6.7%)로 답하였다.

①취학 전후 돌봄서비스 운영 전반과 ②영유아기 교육-보육-돌봄, ③초등돌봄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우선 추진되어야 함이 전문가 의견으로 드러났다.

〈표 IV-4-10〉 취학 전·후 돌봄서비스 운영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우선 추진 과제

단위: %(명)

구분	우선 추진 과제		실행가능성이 높은 과제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관련 법적 근거 마련	35.0	40.0	28.3	41.7
행·재정 거버넌스 구축	26.7	61.7	11.7	33.3
(수요자 관점의) 아동통합돌봄플랫폼 마련	15.0	30.0	25.0	38.3
영유아기관 및 학교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	6.7	15.0	16.7	30.0
지자체/지역사회(공동체 포함)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	6.7	15.0	5.0	13.3
표준화 된 운영 기준과 모델(예: 인력배치, 예산운영/비용지원, 급간식 등)	5.0	18.3	10.0	30.0
인력운영체계정비(자격, 처우, 직무/역할 등)	5.0	18.3	3.3	11.7
계	100.0(60)	(60)	100.0(60)	(60)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상기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를 질문한 결과 (1+2순위 중복응답 기준) 행·재정 거버넌스의 구축(61.7%)과 통합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40.0%), 수요자 관점의 아동통합돌봄플랫폼 마련(30.0%)이 상위로 응답되었다.

이 중 실행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관련 법적근거의 마련, 아동통합돌봄플랫폼 구축, 행·재정 거버넌스의 구축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통합적 운영 기반으로서 당장의 실행가능성이 낮은 과제로 인력 운영체계의 정비(자격, 처우, 직무/역할 등)(11.7%)와 지자체/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13.3%)로 나타났다.

V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제언

- 01 법적기반
- 02 거버넌스
- 03 아동돌봄 통합정보플랫폼

V.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제언

초 저출생 기조 하 우리나라의 육아지원정책은 서비스 지원 외에 현금지원과 시간지원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 간의 육아지원체계가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다고 하나, 아동의 연령주기 전반을 고려하였을 때 수요자 관점에서 서비스의 제공은 여전히 돌봄의 공백과 단절, 사각지대와 독박육아의 어려움과 같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아동 수의 감소와 함께 관련 인프라의 축소와 소멸이 가시화 되는 상황에서 돌봄서비스의 종합적·체계적 운영은 당면한 과제로, 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을 위한 방안들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수요자 부모가 바라는 돌봄의 연속성과 통합적 운영은 돌봄 서비스의 표준화 된 운영과 물리적 통합이 아닌, 다양한 돌봄서비스의 선택권을 제고하면서 부모의 양적 질적 수요를 충족하는, ‘연계협력’으로서의 통합적 운영을 바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주요 돌봄서비스 정책/사업(10개, 13개)에 대한 평가(3장) 및 의견 조사(4장)를 통해서도 보편적 이용기반으로서의 돌봄서비스 이용의 연속성과 접근성, 양질의 교육·보육·돌봄에의 수요가 충족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수요자 부모와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통해 이는 관련 법적 근거의 마련과 거버넌스의 구축, 돌봄 통합정보플랫폼 구축의 3개 과제로 제안되었다.

이 장에서는 연계협력으로서의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을 위한 방안을 3개 과제를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1. 법적기반

정부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에서 소관별로 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간 연계·협력이 미흡하여 장기적·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돌봄 서비스 공백 및 유사·중복된 돌봄 서비스 공급 등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등 사업 추진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안정적인 공적 돌봄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 돌봄서비스 제공 및 운영의 주관부처가 산재해 있는 가운데,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근거 법률 없이 수행되고 있다.

가. 현행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문제점

가) 수요자 관점에서의 문제점

(1) 중복서비스

현행법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동돌봄 사업이 다양한 만큼 법 규정이 산재되어 있어 수요자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업의 다양성은 촘촘한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처럼 부처와 근거법률이 제각각일 경우에는 서비스가 중복될 가능성이 높고, 수요자 입장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다. 가령, 초등돌봄교실과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등 돌봄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는 ‘소득기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후자의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인 점은 차치하고, 사업별 대상선정기준과 시설별 신청방식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보니, 수요자는 정확한 서비스를 파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특정 돌봄 신청 후 탈락시, 대체 시설을 찾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⁵⁶⁾

그리고 부처별로 중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니, 실제 서비스 제공을 받아야 하는 범위를 넓히는데 한계에 봉착하기 쉽다. 각 부처가 사업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의 범위를 고수할 경우 사업확장과 조정에 있어서 유연성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

(2) 대상선정의 규범화 필요성

현재 돌봄사업에 따라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다르다.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맞벌이 가구 중심이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취약계층인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 중심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돌봄 필요성이 인정되는

56) 강지원 외(2021). 보육·돌봄 체계 중장기 개편방안 연구. pp. 60-61.

초등학생과 중학생 중심이다. 대상자 선정기준 뿐만 아니라, 운영주체도 차이점이 있다.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아카데미는 학교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운영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주체가 다양하긴 하지만 주로 민간이 맡고 있다.

이는 돌봄사업의 다양성 확보라는 관점이 있을 수 있으나,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돌봄사업의 구조는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기보다는 사업주체별로 각각의 영역을 획정하여 장벽이 있는 모양새에 가깝다.

사업에 따라서는 대상선정기준의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기준과 근거가 각양각색인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상선정기준을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시행령에서 대상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식이 합당하다.

나) 규범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부처별로 법규범의 위상이 상이한 점은 현행 돌봄사업의 법적 기반이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초등돌봄교실과 같이 사업의 이해관계자, 수요자, 종사자 등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법률적 근거 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근간에 어긋난다. 보건복지부의 막대한 예산⁵⁷⁾이 투입되는 사업이 법률상 몇 개의 조문에 근거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지원법」이라는 개별법률을 두고 있으나, 이 법이 여성가족부의 모든 돌봄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통일된 법률에 입각해 사업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 개선방향

현행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의 당위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단기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 주무부처가 각기 다른 돌봄서비스를 통합법률이 규정하는 것은 소관부처가 복수가 되는 것이므로 법체계상으로도 흔치 않을 뿐만 아니라,⁵⁸⁾ 통합법률의 입법과정에서 부처간에 합의를 해야 할 지점이 많다

57) 2022년 보건복지부의 아동·보육 예산은 9조 1,820억 원이다.

58)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이 소관부처인 「경범죄 처벌법」,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소관부처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와 병무청이 소관부처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가 소관부처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국무조정실과 외교부가 소관부처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무부처인 「귀농어·귀촌

보니 각종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통합법률이 다양한 돌봄사업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정되려면, 세심한 정책 조율이 요구된다. 따라서 통합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단기간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그러므로 돌봄사업 관련 현행법령에 대한 개선안을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1단계 방안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2단계 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1단계 방안은 현행법령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2단계 방안은 통합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1단계 현재 기존 법령내 신규조항 마련 등 정비를 통해 돌봄서비스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로써 개별 정책/사업내 예산 확보를 통해 해당 돌봄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제고를 꾀하는 안이다. 덧붙여 개별 법령에 유관 돌봄서비스 간 정보 공유와 이용 대기 및 신청, 이용과 비용 지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안이다.

2단계 돌봄서비스를 포괄하는 통합법률의 안은 (현금지원의 확대 기초 하에서 현금-시간-각종 서비스 지원과의 정합성 및 이에 대한 각기 총괄 법 기반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수요자 관점에서 돌봄서비스의 이용과 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장기적인 접근의 통합 법률에 대한 제안이다.

나. 1단계: 돌봄관련 현행법령 정비 방안

1) 법치행정과 법률유보원칙

법치행정이란 행정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법치행정은 법률우위원칙과 법률유보원칙에 바탕한다. 법률우위원칙은 국가의 행정은 합헌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법률유보원칙은 행정권이 발동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을 말한다.

법률우위원칙이 모든 행정에 적용되는 것과 달리 법률유보원칙은 모든 행정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외교부·환경부·해양수산부가 소관부처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소관부처인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소관부처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부처인 「학교체육 진흥법»,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관부처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긴 하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행정의 범위에 대해서는 학설상의 대립이 존재하는데, 모든 행정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전부유보설부터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행정에 대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침해유보설까지 다양한 입장들이 공존한다. 급부행정유보설이나 중요사항유보설은 급부행정 중 사회보장행정은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입장에 따를 경우 돌봄사업은 사회보장 행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또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범위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있는 만큼 돌봄사업은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는 행정이 아니라는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법률적 근거에 따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법률적 근거 없이 돌봄사업을 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들다.

2) 법령 정비 방안

가) 교육부 - 초·중등교육법에 신설조항 마련

우선 교육부의 돌봄서비스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초·중·고등학교는 법령상 근거가 없이 2004년 정책발표 및 시범운영에 따라 시작되었고, 방과후학교는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74호)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행정규칙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행정부의 고시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초·중·고등학교와 방과후학교에 관한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4장의3을 신설하여 초·중·고등학교와 방과후학교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초등학교에 관한 '장'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5장의3을 신설하여 초·중·고등학교와 방과후학교의 서비스 내용, 지원 주체, 돌봄 종사자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도록 한다.

초·중·고등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과 제한된 이용자격 요건에 따른 어려운 접근성이다. 따라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1) 관련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 초·중·고등학교 운영의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2) 여타 돌봄서비스와 연계를 하기 위해서 법률에 이용가능한 유관 돌봄서비스 정보

제공과 연계 이용 대기 및 신청, 이용과 비용 지불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합당하다.

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통합운영과 연계협력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및 현행법령(아이돌봄 지원법, 청소년기본법) 소관부처 변경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돌봄사업은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이중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는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사업이고, 현행 「아동복지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이 시설의 장점은 설립단계부터 여타 돌봄서비스와 통합·연계를 추구하는 것인데, 교육시설과 복지시설의 통합, 마을돌봄 모델의 개발, 그리고 초등돌봄교실 등 학교 안 돌봄프로그램과 학교 밖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다함께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실질적인 연계협력 방안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업무의 보건복지부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이 현실화할 경우 여성가족부의 돌봄사업의 운영주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의 소관법률인 「아이돌봄 지원법」과 「청소년기본법」은 보건복지부 소관법률로 변경이 요구된다. 이 때 두 부처의 돌봄사업 간 통합운영과 연계협력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법령 정비 방안의 한계

기존 법령 정비 방안은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미시적으로 조정하고, 교육부 돌봄사업의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해결하는 등 당면과제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돌봄서비스 운영의 거버넌스 통합이나 통합플랫폼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도 설계와 운영의 주체 및 구심점을 체계화 하기에 한계점이 있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통합된다면, 양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돌봄사업의 연계확대와 거버넌스의 개편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를 개정하여 ‘아이돌봄서비스’에 두 부처가 운영하는 돌봄사업을 모두 포함하고, 제4조의2 개정 및 제4조의3 신설 등을 통해 돌봄사업의 거버넌스에 관한 내용을 정비할 수 있다.

교육부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은 거버넌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초등학교에 관한 거버넌스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돌봄사업에 관한 거버넌스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낮으며, 「초중등교육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⁵⁹⁾.

「초중등교육법」이 유치원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유아교육법」을 제정하면서, 유치원에 관한 거버넌스 규정들이 신설될 수 있었던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의 체계를 고려할 때 「초중등교육법」 개정은 교육부 돌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지만, 거버넌스 및 통합플랫폼의 운영과 같은 내용을 담기에는 한계를 보인다 하겠다.

다. 2단계 : 통합법률의 제정방안

1) 통합법률의 제정 필요성

다음 단계의 안으로, 통합법률 제정을 통해 돌봄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사회적 수요를 맞추기 위해 개별적으로 출발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과 함께 서비스 중복의 단점을 안고 있다. 시대변화에 따라 수요가 많은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재편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대상선정 기준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제한이 학교돌봄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하교시간이 빠르다 보니, 하교 이후 아동돌봄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 시기에 여성의 퇴직과 경력단절이 급증하는 이유이다.

또한 개별 시설 단위 신청은 지역 단위 방과후돌봄의 수요-공급을 어렵게 한다.

59) 앞서 해외사례에서 미국 콜로라도주,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교육부 산하에 초등학교 시기의 돌봄을 통합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의 산하 기관들(지역아동센터, 가족센터 등)과 MOU체결 또는 업무이관을 받는 방식을 살펴보았음. - 제3의 기관과 법에 대한 접근도 고려 가능한 지점이 있으나, 이 역시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짐.

지역별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수요와 공급을 조정해야 하는데, 현재의 시설 단위 신청은 정확한 수요 및 공급 예측을 힘들게 하고 상호 조정도 어렵게 한다(강지원 외, 2021: 62).

그리고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돌봄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다부처 사업관리의 문제점이기도 하다(강지원 외, 2021: 62-63).

돌봄수요에 대한 대응은 교육기관인 학교로 집중되고 있고, 학교 밖 돌봄 운영은 각 지역에 따라 편차가 발생해 아동과 부모들에게 양질의 체계적 돌봄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돌봄 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업 간 연계가 부족하고 분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각 지자체마다 수요 대비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돌봄의 공백은 학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을 어렵게 하고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할 경우 아동의 건강한 성찰 발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에 대한 돌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취학 전-후 교육·돌봄의 연속성(이음교육, continuity, transition)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돌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2) 통합법률의 방향 및 내용

가) 기본방향

아동돌봄사업의 거버넌스의 통합이 가능할지 여부는 의문이다. 부처간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대규모 조정과 통합의 과정을 거쳐 거버넌스를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통합적 접근의 과정에서 통합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즉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의 다양한 서비스를 획일화시키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통합법률을 제정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사업재정비의 계기로 삼아 실질적인 연계협력의 운영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점이다. 통합법률의 제정에만 초점을 둘 경우 실효성 없는 법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수요자가 원하는 사업 중심으로 재편해야 하며, 유관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바람

직한지는 미지수로 중복과 사각지대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돌봄서비스의 통합 운영 기반 마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심사업을 두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형태를 취해야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사업은 학교에서의 돌봄으로, 이상적으로는 학교돌봄사업이 중심이 되고 다른 마을돌봄 사업들이 보완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향후 정부조직 개편 시 교육부가 돌봄사업의 운영주체로서 주도권을 갖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며,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의 신설이 계획되어 있다.

이러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향후 아동돌봄사업은 새로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유보통합의 주무부처를 어디로 정할지 여부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유보통합과 아동돌봄통합을 모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맡는 경우, 유보통합은 교육부 아동돌봄통합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맡는 경우, 유보통합과 아동돌봄통합을 모두 교육부가 맡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거버넌스와 전달체계에 대해서는 복수의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통합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조문까지 제안하는 것은 현 시점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본방향과 통합법률이 답아야 할 내용을 제안하는 선에서 논의하였다.

나) 통합법률이 답아야 할 내용

(1) 목적

돌봄사업의 통합과 아동돌봄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고, 통합법률이 지향하는 바를 답아야 한다.

(2) 정의규정

돌봄 및 돌봄시설 등에 관한 정의를 규정한다.

(3) 이념 및 기본방향

아동돌봄사업의 이념 및 기본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4) 행정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를 거쳐 연도별 지역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거버넌스

〈1안〉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인 교육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의 장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의 대표자를 위원으로 하는 아동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2안〉

교육부장관이 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이 부위원장이 되고, 관련 부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의 대표자를 위원으로 하는 아동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3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 교육부차관이 부위원장이 되고, 관련 부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의 대표자를 위원으로 하는 아동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6) 전달체계

〈1안〉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돌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아동돌봄 특별위원회는 아동돌봄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위하여 중앙 아동돌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안〉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돌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아동돌봄 특별위원회는 아동돌봄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위하여 중앙 아동돌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7) 돌봄과정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을 고려하되(연계성), 이와는 차별화 되는 돌봄과정과 활동프로그램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다.

(8) 돌봄인력의 자격 및 교육

0~12세 대상 아동의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운영 외에, 교육·보육·돌봄을 포괄하는 광의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운영의 자격과 교육훈련의 체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돌봄의 국가자격체계(National Qualification System)을 마련한다(최윤경 외, 2021). 가령 향후 유보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영유아 교사가 초등돌봄사업에 종사하고, 아이돌봄의 국가자격 취득자가 0~12세 재가 방과후돌봄 서비스 제공이 서비스 영역별로 가능하도록 한다.

(9) 시설

기존에 존재하는 모든 아동돌봄시설의 유형을 열거하되, 시설의 구체적 기준이 최소한의 질적 수준과 공간 및 시설설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다.

(10) 비용부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돌봄시설, 지원센터 및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1) 관리감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돌봄시설, 지원센터 및 지역센터를 관리감독한다. 질관리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규정을 담는다.

(12) 위임위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돌봄시설 운영을 위임위탁하여 민간이 돌봄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13) 정보시스템 구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돌봄시설의 현황, 시설별 아동돌봄의 내용 등 온종일 돌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취학 전-후 아동기를 포괄하여 학령 전기 및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돌봄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4) 돌봄서비스 운영의 연계협력

이를 통해 돌봄서비스 운영이 아동의 연령과 성장발달에 따라 연속성 있게 제공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돌봄서비스 운영 전달체계의 협의체 구성 등 연계협력 조항을 담는다.

또한 통합돌봄 전달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중앙-지방정부의 기능 부담을 담을 필요가 있으며, 아동 돌봄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주기적 영향평가의 시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통합 운영의 실질적 안착을 위해 사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교육청-지자체 간 협력 방안 및 기관별 역할에 관한 법적 근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취학 전-후 돌봄서비스 운영의 통합법률을 통해 지역 기반의 아동기 돌봄서비스 운영이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인력, 시설설비/공간, 이용기준 및 비용지원, 관리감독, 위임, 정보시스템, 연계협력/협의체), 이로써 적정수준의 표준화 및 체계화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또한 온-오프라인 및 중앙-지방 정부의 전달체계와 운영기반이 유기적 소통과 관리체계를 통해 연계협력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의의를 갖는다,

2. 거버넌스

다부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령별 돌봄 정책/사업이 수요자 부모와 아동에게 원활히 전달되도록 하는 운영체계(거버넌스)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관련 정보의 검색과 이용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플랫폼의 구축과 함께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오프라인 상의 전달체계 정비를 필요로 한다. 10개 주요 돌봄 정책/사업에 대한 통합적 운영 기반 분석을 통해 개별 사업이 상이한 인프라 특성과 대상 및 수요자와의 접점을 갖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돌봄서비스의 운영이 종합적으로 연계, 파악될 수 있는 전달체계의 마련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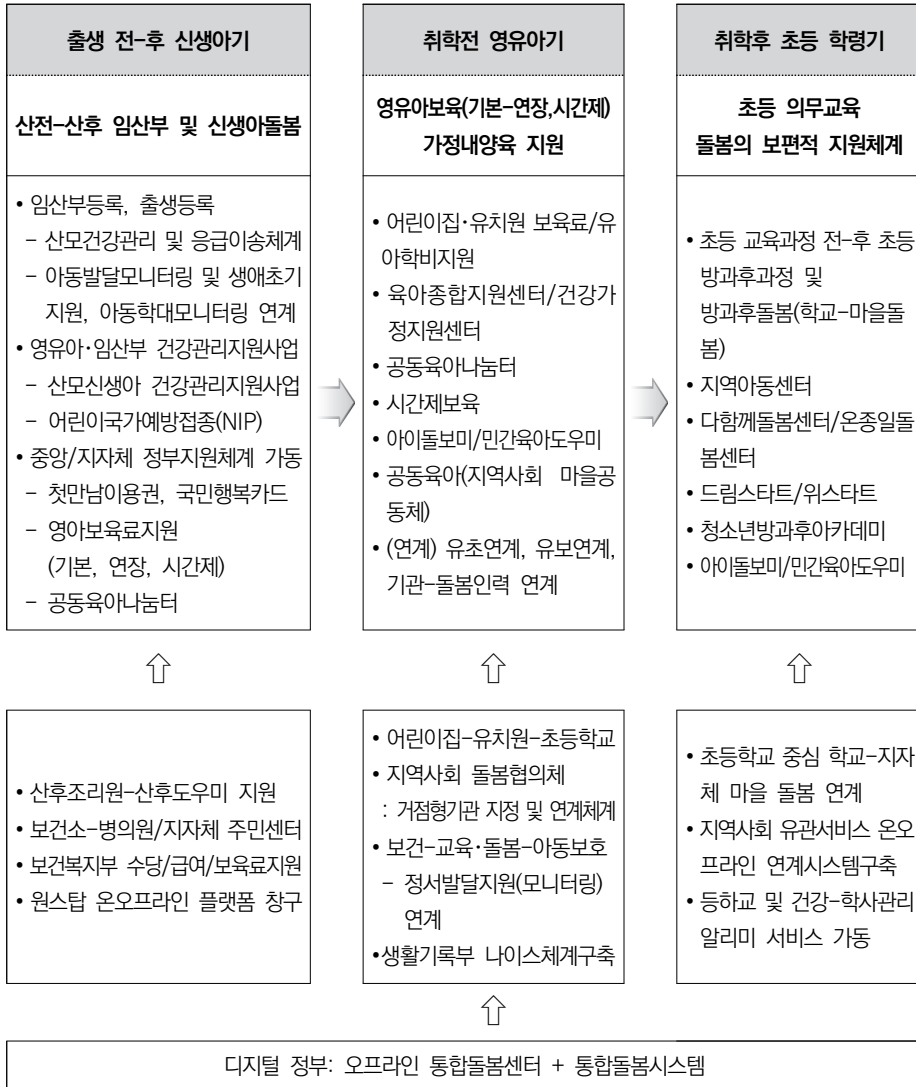
통합돌봄의 운영 기반 조성 전에는 개별 수요자가 다양한 돌봄 정책과 서비스별로 정보를 탐색하고 이용을 하였다면(그림 V-2-1), 통합적 운영 기반 조성 후에는 온-오프라인의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어 관련 정보의 제공과 서비스 연계가 동일한 채널을 통해 파악되고 진행되도록 한다(그림 V-2-2).

이는 초등 방과후돌봄에서 추구해 온 지자체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유사한 접근이다. 이러한 지역 중심의 통합적 돌봄서비스 운영 기반은 조직과 시설의 운영체계에 대한 하드웨어적 접근과 네트워킹⁶⁰⁾의 측면이라는 두 가지 강조점을 안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제도적 기반과 후자의 네트워킹(연계협력 운영)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서는 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한 온라인 통합돌봄정보체계와 디지털 정부의 통합시스템 운영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자녀 출생과 함께 진행되는 첫만남이용권과 각종 수당 및 신생아산후도우미 지원 등 일련의 육아지원체계가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된 상황에서, 다양한 돌봄서비스의 탐색과 대기신청, 이용 및 비용 결제가 임신육아종합포털과 같은 디지털정부 온라인시스템과 연동되어 생애초기 출생등록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아동 통합돌봄의 운영체계를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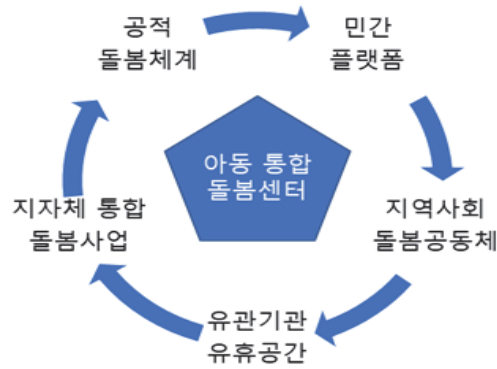
이를 위해 임신부 등록과 함께 산전-산후 돌봄과 아동 출생 후 출생등록과 함께 생애주기 관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정비를 단계적·누적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60) 일본은 2013년 사회보장제도 개혁 보고서에서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의료-개호 네트워크로 표현함. 이로써, 지역포괄케어 체계를 시스템이 없는 주체성과 연대성에 기초한 협력관계로 접근함(신권철 외, 2020: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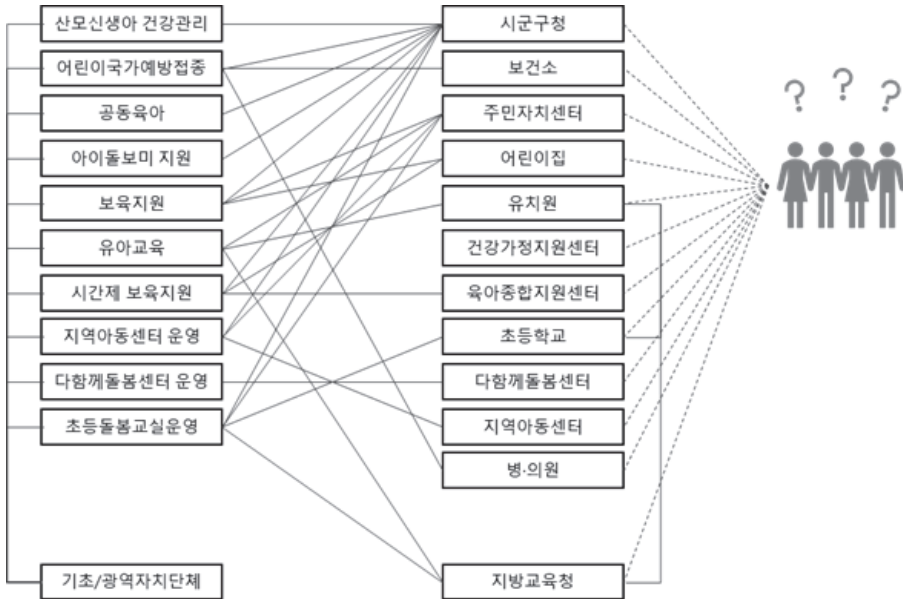
[그림 V-2-1] 출생 전후 아동 생애주기별 돌봄지원 사업 거버넌스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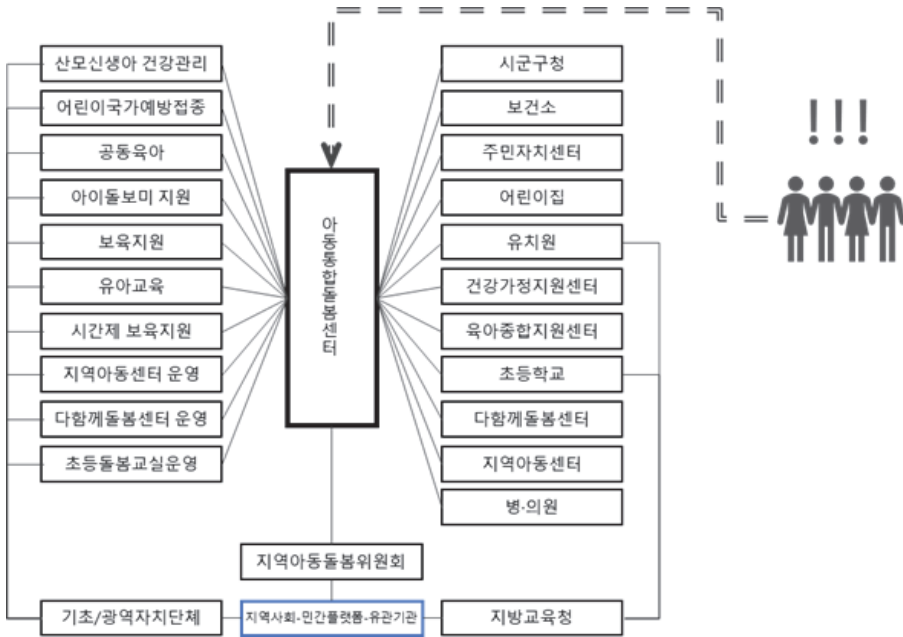
[그림 V-2-2] 지역 통합돌봄 환경 선순환 생태계



[그림 V-2-3] 지역단위 통합돌봄 환경 조성 전 거버넌스



[그림 V-2-4] 지역단위 통합돌봄 환경 조성 후 거버넌스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의 연속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연계협력이 중요한 가운데, 지역별로 가용한 민-관 영역의 자원인 지자체 고유의 통합돌봄사업과 민간플랫폼(예: 네이버 맵, 민간육아도우미 매칭 플랫폼), 지역사회 돌봄공동체와 유관기관/유허공간(학교시설, 도서관, 주민센터 등)에 대한 접근성까지 포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민간위탁을 통한 공적 운영, 민간 플랫폼의 대중적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공적 돌봄서비스의 통합적 운영은 민-관이 가용한 자원을 연계협력하는 확장성을 지속적으로 꾀할 필요가 있다.

앞서 국·내외 사례 고찰을 통해 이미 상당수 지자체에서 지역별로 고유한 돌봄 사업 모델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지역별로 개별 지역사회의 인구/가족 구성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수요에 기반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모델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돌봄정책과 지방정부의 돌봄체계 간에 실효성 있는 연계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중앙의 통합돌봄체계의 구축과 함께 지역별로 아동돌봄의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

지방 정부간, 지자체 간 협력 거버넌스의 구축이 요구된다. 지역내 교육-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관련 정보의 제공, 실시간 집계 등 정보연계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는 앞서 제안한 법적근거의 마련과 함께 예산운영에 대한 접근, 그리고 아동돌봄을 포괄하는 즉 증장기적으로 아동돌봄에 국한되지 않는 생애주기별 교육(평생학습)-돌봄의 통합정보 플랫폼의 구축을 필요로 한다.

우선 정보 제공의 연계에서 출발하여 통합정보의 검색과 제공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으로 진행되도록 하며, 나아가 개별 사업과 법 체계내에서 설치된 유희공간과 시설 및 인력(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유관 돌봄사업의 공간과 인력 운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체제와 인력 전반에 있어 보다 유연하고 광범위한 접근이 필요하다(예: 빈 교실 공간에서 지역사회 시간제돌봄 및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증장기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시설·설비 기준과 인력 운영 및 자격체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인력 운영의 경우 교육-돌봄 분야 국가자격체제(National Qualification System)의 구축을 통해 유관분야 교직원 및 인력의 교육훈련과 자격체제가 일관된 공통요소 및 전문화 된 직무에 기반하여 체계화 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 나아가 생애주기별 통합적 돌봄체제의 구축이 현행 취학 전 또는 후의 아동 돌봄서비스 기관에 국한되지않고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아동통합센터가 중앙-시·도-시·군·구 조직을 갖추고, 중앙 및 시·도 센터는 지원기관으로, 시·군·구 센터는 해당 지역의 아동돌봄을 직접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 필요가 있다(예: 지역 단위 전담 운영 체제-지역센터). 이를 위해 지역별 교육청과 지자체 및 민관협력체제를 아우르는 (가칭) 지역통합돌봄위원회와 관련 조직체제의 마련이 요구된다.

3. 아동돌봄 통합정보플랫폼

부모는 다양한 돌봄서비스의 물리적 위치와 이용가능성,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 운영시간 등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크고, 이를 통합정보플랫폼의 형태로 접근 및 제공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돌봄의 통합정보 플랫폼의 구축을 위해서는 내용의 설계와 주요 전략의 수립이 우선 요구된다.

아동돌봄의 통합정보플랫폼은 다음의 내용(콘텐츠)을 담을 필요가 있다.

첫째, 가용한 돌봄서비스의 이용을 실시간 검색, 확인하고 대기신청 및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공-사, 민-관의 정보와 돌봄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플랫폼으로서의 개방성과 확장을 필요로 한다. 셋째, 자녀돌봄을 위해 돌봄서비스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상담 및 놀이치료 등의 서비스 이용까지 연계되는 돌봄-복지의 확장된 연계를 바라며, 넷째,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등하원알림 서비스의 확대와 자녀의 연령에 맞는 양육정보의 제공 또한 필요로 한다. 다섯째, 지자체별로 특화된 돌봄서비스 앱과 민간영역의 지도 및 유관 매칭 서비스와도 연결될 수 있는 개방성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지역별로 관내 유휴공간과 시설 및 인력(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유관 돌봄사업의 공간과 인력 운영으로 전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하고 광범위한 연계협력(예: 빈 교실 공간에서 지역사회 시간제돌봄 및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휴공간과 인력에 대한 정보 탐색이 가능하고, 이후 공간 예약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통합 관리가 가능한 예약서비스 시스템, 예약 신청 시 각 시설별 담당자에게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연계가 필요하며(예: 대전아이), 이를 위해 이용가능한 공간의 데이터 베이스화(위치, 면적, 예약가능 대상 및 인원, 시간 등), 예약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분류와 신청자 자격 검증 절차, 예약을 승인하기 위해 검토가 필요한 필수 사항들, 그리고 이러한 정보 연계와 이용 전환이 가능하게 하는 법적근거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아동돌봄 및 양육과 관련된 정보 제공에서 수요자가 찾기 이전에 먼저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주요 정책/사업 분석에서 예방접종의 평가가 우수한 것은 문자알림의 사전정보 제공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 사용자의 정보를 등록해두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것, 즉 대상자의 특성과 아동의 연령, 지역별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가용한 서비스의 제공과 신청방법, 이용가능한 시설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동의 하에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아동돌봄의 통합정보플랫폼은 다음의 전략을 필요로 한다(이원복, 2022).

1) 개방성과 확장성을 충족하는 플랫폼 인프라 구축을 계획하고, 2) 돌봄 수요자 부모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가능한 돌봄생태계의 구축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정보의 공유와 협력의 기제, 접근성을 제고한다. 3) 부모/아동의 수요를 실시간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는 상시관리체계로서의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플랫폼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한다.

구체적으로 (1) 칸막이 현상의 지속적인 점검과 제거, 관련 컨트롤타워의 구축, (2) 지속적인 디지털 강화와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 (3) 민간 참여 유도와 수요자 국민의 참여를 유도, (4) 공공 데이터 공유 및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적용, (5) 정부 데이터 기반 전략과 서비스 전담 조직의 설치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 리더(system leader)로서 이러한 과정을 선도하는 기관이 필요하며, 이를 오프라인 아동통합돌봄센터와 온라인 아동돌봄통합정보체계로 제안하였다.

초 저출생 기조 하에서 지역별 교육·돌봄뿐만 아니라 및 건강·의료, 문화·체육 인프라의 소멸과 재구성이 필요하고, 다양한 재난/위험 상황에 대비한 긴급돌봄 운영체계의 유연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정규적인 교육·돌봄 서비스의 제공 외에, 지역별로 예기지 못한 재난/위험 상황별로 긴급한 일시 돌봄 서비스의 제공과 교육의 운영이 공백과 단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가용한 정보를 온라인통합돌봄시스템을 중심으로 집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내 시설·공간과 돌봄인력 운영의 정보가 재난/위험 상황의 긴급돌봄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돌봄운영 체계를 통합정보플랫폼 내에 구축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참고문헌

- 강지원·최혜진·김성아·이지혜·노현주·조동훈 외(2021). 보육·돌봄 체계 중장기 개편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지원·최혜진·임완섭·황인나·안영·노동훈·김우성(2020). 사회보장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적정 지출관리 방안연구: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경기도 보도자료(2018. 9. 28).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경상남도교육청 거점통합돌봄센터(2021).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리플렛.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2021. 02). 아이좋아 경남교육 2021년 2월호(vol 49).
- 경상남도교육청 보도자료(2021. 1. 11). 2021. 달라지는 경남교육청 학교정책국 주요 정책.
- 경상남도교육청 보도자료(2021. 2. 24). 경남교육청,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개원.
- 경상남도교육청 보도자료(2021. 6. 18).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경남교육청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선정.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8. 6. 27).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9개 지자체 선정.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8. 11. 20).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낸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 발표.
- 관계부처 합동(2018. 11. 20).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 관계부처 합동(2020. 8).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안)(‘20~’24).
- 관계부처 합동-한국교육개발원(2019).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사례집.
- 교육부(2018. 3).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공공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 교육부(2019). 2020년도 예산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 교육부(2021a). 2021년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통계.
- 교육부(2021b).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 방안(안).
- 교육부(2022. 7. 29). 교육부 업무보고.

- 교육부(2022). 2022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
- 교육부 외(2022).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개정판 2022).
- 교육부 동정자료(2017. 1. 19). 이준식 부총리, 초등돌봄교실을 방문하여 소통의 시간을 가져.
- 권미경·최은영·김나영·김혜진·임준범(2016).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근진·박은정·김희수(2019). 수요예측을 통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온종일 돌봄 공백 해소 방안: 취학 전·후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김근진·유해미·조혜주(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V):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김동훈·최효미·홍근석·김태우(2021). 양육지원정책 중장기 재정 추계 및 분담구조 개선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성기(2020). 학교와 지역사회의 필연적 협력,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도봉형 마을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돌봄 온라인 Newsletter(73호). <https://www.afterschool.go.kr/webzine/73/index.html>(2022. 6. 29, 인출).
- 김수동·윤준영·정영모(2017). 방과후학교의 실태와 문제점 및 발전방안.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2), 855-864.
- 김숙자(2018). 부모가 주체가 되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실현. 육아정책포럼. 육아정책연구소.
- 김아름(2020). 산후도우미 자격 및 관리 체계 긴급점검. 육아정책연구소 정책토론자료집(2020. 11. 23). 육아정책연구소·고민정국회의원실.
- 김영란·조선주·선보영·배호중·김진석·정영모(2018). 초등학생 돌봄 실태 파악 및 수요분석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김은설·김지현·최정원·윤유나(2020). 시간제보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 모델 개발.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조혜주·이보라(2011). 육아지원기관 행·재정 체계의 통합 추진을 위한 단·중기 전략.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최윤경·권미경·최효미·김나영·김자연 외(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정·오신휘·이희현·이혜숙(2021).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초등 학령기 아동 돌봄체

- 계 대응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정·장수정·정영모·오신휘(2019).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공급체계 분석과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정·홍진주·정세미·김현진(2017). 지역사회 기반 초등돌봄 사업의 현황과 과제: 온종일 돌봄 생태계구축 선도사업 참여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2(2), 139-154.
- 남승연·이경민(2019). 경기도형 돌봄체계 구축방안.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남승연·최금순(2020). 오산시 온종일 돌봄 성과측정 및 중장기 발전방안.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대한민국 정부(2020).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도봉구청·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2020).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도봉지구 2020년 사업실행계획서.
- 문무경·양미선·송기창·김문정(2021). 2022-2027 유아교육·보육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박선권(2020).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확대의 유의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박승재·정영식·하봉운·이제원·박성민·이혜나·정은주·전보미(2017). 방과후학교 참여율 제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박주은·정선영(2020). 인천광역시 아동실태조사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2021~2024) 수립 연구. 인천여성가족재단.
- 박해금·류지선·배은석(2021). 온종일 돌봄체계 선도사업 지역에 대한 사례연구. 사회 복지정책과 실천, 7(3), 99-131.
- 박해금·류지선·임채영(2020). 지역통합형 아이돌봄 모형개발 연구.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 배은주(2015).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자 만족도 분석. 인천연구원.
- 백순근·이솔비·장지현·양현경(2019). 맞벌이 가정 자녀의 초등돌봄교실 참여에 따른 사교육 시간과 비용 및 일-양육 양립에 대한 인식 차이. 육아정책연구, 13(1), 55-74.
- 보건복지부(2017. 1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 보건복지부(2019. 2. 12).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 보건복지부(2020a). 내부자료(2021년도 다함께돌봄센터 국고보조금 교부액).
- 보건복지부(2020b). 내부자료(2021년도 지역아동센터 국고보조금 교부액).
- 보건복지부(2020c). 시행공문-2021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 보건복지부(2021a). 내부자료: 2021년 지역아동센터 진입 및 심화평가 결과통보.
- 보건복지부(2021b). (2020년 12월 말 기준) 전국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 보건복지부(2021c).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2a). 2021년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22b). 2022년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2c).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2d). 2022 보육사업안내 부록.
- 보건복지부(2022e). 2022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2022f).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2g). 내부자료: 2022년 0-2세 영아대상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07. 12. 10).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만족도 조사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0. 6. 17). 어린이집, 보육 관련 정보가 궁금할 땐 “아이사랑 보육포털(childcare.go.kr)”을 이용하세요!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 3. 1). 다함께돌봄센터 아침·저녁(7~9시) 운영 연장 실시.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2. 4. 8).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 지원정책 사례집 발간.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1). 온마을이 함께 키우는 아이 다함께돌봄.
-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22).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 보건복지부·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2021). 2021 포괄적 양육정보 안내.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2022). 2022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 서울 노원구청(2022). 2022년 구정기본현황.
- 서울 노원구청 보도자료(2020. 10. 26). 노원구, 우리아이 돌봄서비스 한곳에 다 모였네! 〈노원 아이돌봄센터〉 개소.

- 서울 성북구청(2018). 성북 온종일돌봄 종합계획.
-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2019). 서울 서북권역 직장부모를 위한 안내서 직장맘 든든맵.
-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보도자료(2020. 2. 14). 성북구·강북구 돌봄기관 원클릭으로 찾는다.
- 서정아·황진구·허효주·최윤경·이재희·이보람 외(2021). 위험과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구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육아정책연구소·한국교육개발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울산과학기술 원모든학교체험학습연구소.
- 신권철·김도희·홍남희·김지우(2020).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률 마련 연구. 보건복지부·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양미선·이운진·김동훈·조숙인·김근진·구자연 외(2021a). 2021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양미선·이운진·정도영·한재희·장혜진(2021b). 영유아 인구 희소 농어촌지역 보육·교육 서비스 통합 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여성가족부(2021. 4. 27). 2025 세상모든가족함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21~2025).
- 여성가족부(2021a). 시행공문-2021년도 아이돌봄미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 여성가족부(2021b). 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여성가족부(2022a).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여성가족부(2022b). 2022년도 가족사업안내 II.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3. 10. 7).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집에서 인터넷으로.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6. 11. 9).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세요!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9. 12. 24). 신청부터 만족도 평가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편리해진다.
-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 효율적 연계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윤재석·신유선·임은정(2019). 인천형 혁신육아[공동육아·공동돌봄] 활성화 방안

연구. 인천광역시.

이나련·황나리(2021). 경기도워라밸링크 이용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성희·조선미·장지은(2020). 초등돌봄교실 정책 효과 분석: 실재론적평가. 한국교육개발원.

이예진(2021).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인천여성가족재단.

이옥·김은설·신나리·문무경·최혜선(2006). 육아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아교육보육의 협력과 통합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이원복(2022). 빅데이터 시대의 효율적 플랫폼 정부 방안. KIET 산업경제분석(2022. 4).

이정림·이재희·조미라·박여정(2021). 산후조리원 표준서비스 기준 마련 방안.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이정원·이정림·김태우(2018).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이정원·조숙인·엄지원·이상인(2021).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정비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이재희·김근진·엄지원(2017). 초등자녀 양육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이재희·이정림·엄지원·김희선(2020).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이혜숙·이영주(2018). 서울시 방과후돌봄 지역사회 협력방안. 서울연구원.

이혜숙·이영주(2019). 서울시 방과후돌봄 활성화 방안. 서울연구원.

이희현·권택환(2021).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유형별 주요 의제 분석: 2.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돌봄 지원 체제 확립. 한국교육개발원.

이희현·김효정·최형주·김은경·손호성(2021).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의 성과 및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이희현·장명림·황준성·유경훈·김성기·김위정·이덕난·김보미(2019).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실태 및 개선과제: 우수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이희현·황준성·김은경·김정현·배현순(2020). 학교 지역사회 연계 교육 생태계 구축을 통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연구.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인천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단(2022. 5) 내부자료.

- 인천광역시(2022).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 임선일·전호성·이선영(2017).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모델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 장귀덕(2020).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의 법적 타당성과 법률관계 검토. 교육법학연구, 32(1), 83-106.
- 장명림·박성철·정연아·이지미·김보미(2020).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확산을 위한 지역 돌봄 운영 지원 방안-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운영 업무 매뉴얼 개발을 중심으로.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장명림·이희현·조진일·최형주·임봉조·강지원 외(2018). 학생·학부모 요구에 부응하는 초등돌봄서비스 내실화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장수정·송다영·백경훈(2019). 초등돌봄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 공동육아 방과후 참여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62), 251-287.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 5).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 전미양·이혁수(2018). 온종일 돌봄을 위한 ‘키움센터’ 운영 매뉴얼(안) 개발 연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정미나·원일·장안서·강지원·박지숙·이혜숙·이희현·박석환(2020). 사회서비스원의 초등돌봄 운영모델 개발연구.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 정설미·문희원·정동욱(2021). 돌봄과 교육의 혼합체(hybrid)로서초등돌봄교실의 효과와 쟁점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9(5), 85-114.
- 정영모(2019). 초등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월간 복지동향(2019. 10), 13-18.
- 주정훈·강민정·김세희·김보영(2017). 학교와 자치구가 협력하는 마을방과후학교 운영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2019). 소식지: 기분 좋은 상상.
- 질병관리청(2017). 내부자료(국가예방접종 지원정책 만족도 및 보호자 인식조사).
- 질병관리청(2021). 공문-2021년도 국가필수 예방접종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 질병관리청(2022a). 2022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 질병관리청(2022b). 2021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 현황.
- 최세림·윤자영·이희현(2020). 온종일돌봄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고용노동부·한

국노동연구원.

최윤경·문무경·원종욱·김재원(2011). 육아지원인력 체계의 통합 추진을 위한 단·중기 전략. 육아정책연구소.

최윤경·박원순·최윤경·안현미(2021).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공백 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최윤경·박은정·차선자·권혜진·박유경(2022). 양육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양육지원법 제정 기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최현임·손가현(2021). 아동권리적 초등돌봄서비스 발전방안 탐색-다함께돌봄정책 공공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3), 761-770.

최혜영(2020). 학교와 지역사회의 필연적 협력,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도봉형 마을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돌봄 온라인 Newsletter(72호).

최효미·이정원·박은정·김태우(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홍성군청(2021). 2021 아이들의 방과후돌봄.

하봉운·김성기·김용련·이현·임광국·장덕호·조대진(2021). 서울형 통합 초등 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한미영·윤연경·김성연·윤수영(2019). 경남형 돌봄체계 구축 방안 연구(I) 지역사회 중심의 초등돌봄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2019년 교육정책 연구보고서 자체연구보고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한성민(2019).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적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KDI.

한유미·공병호(2019). 스웨덴의 ECEC 교직원 관련 정책과 현황. 한국스칸디나비아연구, 24, 267-294.

황보영·함정오(2002). 일부취약계층아동에서 적기예방접종에 관한 연구. 순천향의대 논문집 제13권1호. 19-2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7. 7. 26). 7만여 건의 정부서비스, 이제 '정부24'에서 이용하세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8. 6. 21). 정책관련 정보도 '정부24'에서 손쉽게 이용하세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8. 7. 3). 유아에서 어르신까지, 생애별 서비스 '정부24'에서 한눈에.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9. 11. 11). 우리 아이 방과 후 돌봄시설 신청, 「정부24」에서 한 번에 해결.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0. 6. 30).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이제 찾아가지 말고 「정부 24」로 바로 신청하세요!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1. 1. 20). 신학년 초등돌봄 서비스, 「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 Atchison, B., & Diffey, L. (2018). Governanc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Education Trends. 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
-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 Care Quality Authority. (n.d.). StartingBlocks.gov.au. Your first step into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Retrieved October 11, 2022, from <https://www.startingblocks.gov.au/>
- Australian Government. Services Australia. (n.d.). Centrelink. Retrieved October 11, 2022, from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centrelink?context=1>
- Australian Government. Services Australia. (n.d.). Early education. Retrieved October 11, 2022, from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early-education?context=60007>
- Australian Government. Services Australia. (n.d.). Separating. Retrieved October 11, 2022, from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help-when-youre-deciding-to-separate?context=60015>
- Australian Government. Services Australia. (n.d.). When your baby arrives. Retrieved October 11, 2022, from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when-your-baby-arrives?context=60001>
- European Agency. (n.d.). Country information for Sweden – Legislation and policy. Retrieved October 7, 2022, from <https://www.european-agency.org/country-information/sweden/legislation-and-policy>
- Eurydice. (2022, July 13). Sweden. 2. Organisation and governance. Retrieved October 6, 2022, from https://eacea.ec.europa.eu/national-policies/eurydice/content/organisation-and-governance-80_en
- Eurydice. (2022, July 15). Sweden. 4.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Retrieved October 6, 2022, from <https://eurydice.eacea.ec.europa.eu/national-education-systems/sweden/early-childhood-education>

n-and-care

- Eurydice. (n.d.). Sweden. 9. Teachers and education staff. 9.1. Initial education for teachers working in early childhood and school education. Retrieved October 6, 2022, from <https://eurydice.eacea.ec.europa.eu/national-education-systems/sweden/initial-education-teachers-working-early-childhood-and-school>
- Government.no. (2020, February 11).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Retrieved October 7, 2022, from <https://www.regjeringen.no/en/topics/families-and-children/kindergarden/early-childhood-education-and-care-polic/id491283/>
- Halligan, J. (2008). The Centrelink experiment: Innovation in service delivery. ANU E Press. http://epress.anu.edu.au/centrelink_citation.html
- Ministry of Children and Education. (n.d.). <https://eng.uvm.dk/>
-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n.d.). <https://okm.fi/en/frontpage>
- Nordic Council of Ministers. (2022). Nordic approaches to evaluation and assessmen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Final report.
- OECD. (2017). Starting Strong V: Transition from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to Primary Education,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15). Integrating Social Services for Vulnerable Groups: Bridging Sectors for Better Services Delivery.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33775-en>.
- OECD. (2021). Start Strong VI: Supporting meaningful interaction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Retrieved October 10, 2022, from https://www.oecd-ilibrary.org/sites/f47a06ae-en/1/4/1/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f47a06ae-en&_csp_=dd82f616450cabbb36e84807345747f7&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
- Oxford Bibliographies. (n.d.).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Sweden. Retrieved October 7, 2022, from <https://www.oxfordbibliographies.com/view/document/obo-9780199756810/obo-9780199756810-0081.xml>
- Shuey E. A., Kim, N., Cortazar, A., Poblete, X., Rivera, L., Lagos, M. J.,

Faverio, F., & Engel, A. (2019). OECD Education Working Paper No. 193. Curriculum alignment and progression betwee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nd primary school. A brief review and case studies. OECD.

UNESCO(2020). Inclusive Education and Cross-Sectoral Collaboration between Education and Other Sectors. 2020 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

[법령 및 고시 자료]

-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고시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고시
 「모자보건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12호, 2021. 12. 21., 일부개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법률 제18216호, 2021. 6. 8., 일부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2.] [보건복지부령 제893호, 2022. 6. 22., 일부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7283호, 2020. 5. 19., 일부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1.] [여성가족부령 제172호, 2021. 12. 31.,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899호, 2022. 6. 20., 일부개정]
 「유아교육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218호, 2021. 6. 8., 일부개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21. 12. 14.] [법률 제18580호, 2022. 6. 15., 일부개정]
 「청소년기본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85호, 2020. 5. 19., 일부개정]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1. 29.] [대통령령 제30375호, 2020. 1. 29.,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인터넷 자료]

- 강원도 교육청 보도자료(2022. 4. 7). 강원도교육청, 이음교육을 통한 전환기 유아 지원(https://www.gwe.go.kr/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781&boardSeq=1468142&id=kr_040401000000, 2022. 10. 14, 인출).
- 강진군청 홈페이지, <https://www.gangjin.go.kr/www/government/news/notice?idx=465689&mode=view>(2022. 6. 8, 인출).
- 경기 오산시 홈페이지a, <https://www.osan.go.kr/portal/contents.do?mId=0502010000>(2022. 6. 10, 인출).
- 경기 오산시 홈페이지b, <https://www.osan.go.kr/portal/contents.do?mId=0501060000>(2022. 6. 10, 인출).
- 경기도 워라밸 링크 홈페이지a, <https://13b.gg.go.kr/intro/userguide>(2022. 6. 29, 인출).
- 경기도 워라밸링크 홈페이지b, <https://13b.gg.go.kr/caremap/>(2022. 6. 29, 인출).
- 경기도 워라밸링크 홈페이지c, <https://13b.gg.go.kr/help/>(2022. 6. 29, 인출).
- 경남일보(2022. 1. 11). 경남교육청,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2호’ 개관(<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667>).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s://www.gne.go.kr/nbgne/index.gne?menuCd=DOM_000003801001002000(2022. 6. 8, 인출).
- 경인매일(2021. 9. 1). 오산시, 대한민국 대표 아동친화도시 모델이 되다(<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876>).
- 경인일보(2020. 7. 9). 규제 풀린 '인천형 육아카페'... 아파트 '공동보육' 길 열렸다(<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708010001826>).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B3&lang_mode=ko&vw_cd=MT_ZTITLE&list_id=A6&conn_path=I4(2022. 6. 11, 인출).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2022. 5. 30, 인출).
-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a('21년 유치원 교육통계 학교별 주요 현황').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5446&survSeq=2021&i>

- temCode=01&menuId=m_010104&uppCd1=010104&uppCd2=010104&flag=A. 2022. 8. 17, 인출.
-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b('20년 유치원 교육통계 학교별 주요 현황').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4978&survSeq=2020&itemCode=01&menuId=m_010102&uppCd1=010102&uppCd2=010102&flag=B. 2022. 8. 17, 인출.
-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c('19년 유치원 교육통계 학교별 주요 현황').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4107&survSeq=2019&itemCode=01&menuId=m_010102&uppCd1=010102&uppCd2=010102&flag=B. 2022. 8. 17, 인출.
-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d('18년 유치원 교육통계 학교별 주요 현황').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4107&survSeq=2018&itemCode=01&menuId=m_010102&uppCd1=010102&uppCd2=010102&flag=B. 2022. 8. 17, 인출.
-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e('17년 유치원 교육통계 학교별 주요 현황').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941&survSeq=2017&itemCode=01&menuId=m_010102&uppCd1=010102&uppCd2=010102&flag=B. 2022. 8. 17, 인출.
-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f('22년 학년별 학급수 및 학생수').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5445&survSeq=2022&itemCode=01&menuId=m_010104&uppCd1=010104&uppCd2=010104&flag=B. 2022. 8. 17, 인출.
-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g('21년 학년별 학급수 및 학생수').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5445&survSeq=2021&itemCode=01&menuId=m_010104&uppCd1=010104&uppCd2=010104&flag=B
- 대전아이돌봄센터 홈페이지, <https://www.daejeoni.or.kr/dolbom/main.do;jsessionid=68B340F6E4DCCF048A4DE2F711EE3603>(2022. 6. 7, 인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9. 5. 29),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8612047>(2022. 6. 8, 인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 12. 27). 늘 따뜻하게 아이들을 돌보는 '늘봄'입니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7417>(2022. 6. 8, 인출).

도봉배움e 홈페이지, <https://edu.dobong.go.kr/content.asp?code=10007683>
(2022. 5. 16, 인출).

대구 경북 내일신문 블로그, <https://blog.naver.com/edu-naeil/222648919129>,
2022. 10. 14, 인출.

에너지경제신문(2021. 12. 17). 경북교육청, 유·초 이음 교육 놀이자료집 발간(<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1217010002816>, 2022. 10. 14, 인출).

맘시터 홈페이지a, <https://www.mom-sitter.com/introduce>(2022. 6. 30, 인출).

맘시터 홈페이지b, <https://mom-sitter.zendesk.com/hc/ko/articles/900002231546--%EB%B6%80%EB%AA%A8%ED%9A%8C%EC%9B%90-%EA%B0%80%EC%9D%B4%EB%93%9C-%EC%8B%9C%ED%84%B0%EB%8B%98%EC%97%90%EA%B2%8C-%EC%A7%81%EC%A0%91-%EC%9D%B8%ED%84%B0%EB%B7%B0-%EC%8B%A0%EC%B2%AD%ED%95%98%EA%B8%B0-%EB%B0%9B%EC%9D%80-%EC%9D%B8%ED%84%B0%EB%B7%B0-%EC%A7%80%EC%9B%90%EC%97%90-%EC%88%98%EB%9D%BD-%ED%95%98%EA%B8%B0>(2022. 6. 30, 인출).

맘시터 홈페이지c, <https://mom-sitter.zendesk.com/hc/ko/articles/900002226983--%EB%B6%80%EB%AA%A8%ED%9A%8C%EC%9B%90-%EA%B0%80%EC%9D%B4%EB%93%9C-%EC%B1%84%EC%9A%A9-%EB%B0%8F-%EB%8F%8C%EB%B4%84-%EC%98%88%EC%95%BD-%EC%8B%A0%EC%B2%AD%ED%95%98%EA%B8%B0>(2022. 6. 30, 인출).

매일경제(2022. 6. 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974344?sid=101>(2022. 6. 30,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gubun=ELIS&ordinSeq=1443897>(2022. 6. 11, 인출).

베이비뉴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011>(2022. 6. 7, 인출).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http://www.ssc.go.kr/menu/busi/busi040101_05.do, 2022. 5. 30, 인출).

서울경제(2018. 9. 15). <https://www.sedaily.com/NewsView/1S4NA23PDN>(2022. 6. 30, 인출).

- 서울 노원구 블로그, <https://blog.naver.com/goodnowon/222356301590>(2022. 6. 10, 인출)
- 서울 노원구청 홈페이지, https://www.nowon.kr/www/info/info2/info2_06/info2_06_01/info2_06_01_08.jsp(2022. 6. 11, 인출)
- 서울 도봉구청 홈페이지a, https://ceo.dobong.go.kr/FILE/link/ceo/SCMAOO_A1_00039/%EA%B3%B5%EC%95%BD28.pdf(2022. 5. 16, 인출).
- 서울 도봉구청 홈페이지b, <https://www.dobong.go.kr/Contents.asp?code=10004207>(2022. 6. 9, 인출).
- 서울신문(2022. 5. 26),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526500169&wlog_tag3=naver(2022. 6. 7, 인출).
-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a, <http://bbedu.sen.go.kr/CMS/adminfo/adminfo09/adminfo0902/index.html>(2022. 6. 10, 인출).
-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b, <http://bbedu.sen.go.kr/CMS/adminfo/adminfo09/adminfo0903/index.html>(2022. 6. 9, 인출).
-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seoulworkingmom.or.kr/sb/site.html?state=2&boardId=15&articleId=31>(2022. 6. 30, 인출).
-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sbgbedu.sen.go.kr/CMS/admininfo/admininfo04/admininfo0405/admininfo040501/index.html>(2022. 6. 8, 인출).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107295>(2022. 6. 30, 인출).
- 성북구청·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s://sbhappy.sb.go.kr/upload/donbom_01.jpg(2022. 6. 30, 인출).
- 성북 공공데이터 플랫폼, <https://sbdata.sb.go.kr/seongbuk/home/content.do?menu=172>(2022. 6. 8, 인출).
- 성북 온가족 행복망 온라인통합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https://sbhappy.sb.go.kr/main/lowb/LowBirhtDetail.do?lowbId=LOWB_000000000000598&menuNo=&subMenuNo=&Msub=Y(2022. 5. 16, 인출).
- 스마트 서울맵 홈페이지, https://map.seoul.go.kr/smgis2/themeMapCopy?mode=themeMapCopy&thm_theme_id=100957&map_type=1&xpoi

nt=126.93265177493501&ypoint=37.5898691897176&level=7&old
map=&tp=0.7&maptile=BASEMAP_GEN&order=0&utid=%C2%A9_
mode=theme(2022. 6. 30, 인출).

시흥시 초등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https://childfirst.siheung.go.kr>(2022. 6. 7,
인출).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a, [https://www.icareinfo.go.kr/intro/center/center
Aboutus.do?menuNo=2004300](https://www.icareinfo.go.kr/intro/center/center>Aboutus.do?menuNo=2004300). 2022. 8. 28, 인출.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b, https://www.dadol.or.kr/center/center_info. 202
2. 9. 4, 인출.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a, [https://www.idolbom.go.kr/front/upc/comm/ht
mlInfo.do?SEQ=41&L_MENU_CD=020302&H_MENU_CD=0203&SI
TE_ID=FRONT&MENU_SITE_ID=FRONT](https://www.idolbom.go.kr/front/upc/comm/htmlInfo.do?SEQ=41&L_MENU_CD=020302&H_MENU_CD=0203&SITE_ID=FRONT&MENU_SITE_ID=FRONT)(2022. 6. 29, 인출).

아이사랑꿈터 홈페이지a, [https://kkumteo.or.kr/main/main.php?categoryid=
02&menuid=06&groupid=01](https://kkumteo.or.kr/main/main.php?categoryid=02&menuid=06&groupid=01)(2022. 6. 11, 인출).

아이사랑꿈터 홈페이지b, [https://kkumteo.or.kr/main/main.php?categoryid=
02&menuid=03&groupid=01](https://kkumteo.or.kr/main/main.php?categoryid=02&menuid=03&groupid=01)(2022. 6. 11, 인출).

아이사랑꿈터 홈페이지c, <https://kkumteo.or.kr/main/index.php>(2022. 6. 7,
인출).

아이사랑꿈터 홈페이지d, [https://kkumteo.or.kr/main/main.php?categoryid=
02&menuid=02&groupid=00](https://kkumteo.or.kr/main/main.php?categoryid=02&menuid=02&groupid=00)(2022. 6. 7, 인출).

여성가족부 유튜브브(2020. 7. 15). [아이돌봄서비스] 앱 사용법 간단정리! | 이용자
편(<https://www.youtube.com/watch?v=x1f0dWQVwW4&t=128s>, 20
22. 6. 29, 갈무리).

여성가족부 홈페이지-2022 예산 및 기금운영 설명자료.[http://www.mogef.go.kr/
mp/pcd/mp_pcd_s001d.do?mid=plc505](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5)). 2022. 8. 16, 인출.

연합뉴스(2018. 5. 29). "서울 마포·서대문·은평구 직장맘은 참고하세요"([https://n.
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0113584?sid=102](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0113584?sid=102))(2022.
6. 30, 인출).

연합뉴스(2022. 4. 7).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이음교육'으로 전환기 유아성장
지원(<https://www.yna.co.kr/view/AKR20220407062400062>, 2022. 1
0. 14, 인출).

- 연합뉴스(2022. 6. 15). "재정경제혁신부 신설하고 여가부 업무 복지부로 옮겨야"(<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248607?sid=100>)(2022. 6. 30, 인출).
- 우리동네키움포털 홈페이지a, https://icare.seoul.go.kr/icare/user/fcltyInfoManage/BD_selectCareCenterContactList.do?q_tap=1(2022. 6. 10, 인출).
- 우리동네키움포털 홈페이지b, <https://icare.seoul.go.kr/icare/index.do>(2022. 6. 3, 인출).
- 익산시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hiksanin/222689118029>(2022. 6. 8, 인출).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a, <https://www.incheon.go.kr/IC040102>(2022. 6. 11, 인출).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b,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20323>(2022. 6. 11, 인출).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c,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20317>(2022. 6. 7, 인출).
- 인천광역시 교육청 공식 블로그a, <https://blog.naver.com/icehongbo/222799439148>, 2022. 10. 14, 인출.
- 인천광역시 교육청 공식 블로그b, <https://blog.naver.com/icehongbo/222692330867>, 2022. 10. 14, 인출.
- 인천광역시 교육청 공식 블로그c,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icehongbo&logNo=222929986354&referrerCode=0&searchKeyword=%EC%9D%B4%EC%9D%8C>, 2022. 11. 17, 인출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a, <https://www.childcare.go.kr>(2022. 6. 28, 인출).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b, <https://www.childcare.go.kr/cpin/contents/040201000000.jsp>(2022. 6. 28, 인출).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c, <https://www.childcare.go.kr/cpin/contents/060100000000.jsp>(2022. 6. 28, 인출).
-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transferReport>(2022. 6. 28, 인출).
- 전자신문(2021. 8. 1). <https://www.etnews.com/20210801000070>(2022. 6.

30, 인출).

정책주간지 공감(2022. 3. 14).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lhYE78DDGJ000>(2022. 6. 30, 인출).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https://jffsc.kr/pages.php?p=3_1_1_1(2022. 6. 7, 인출).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2022. 8. 16, 인출.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홈페이지, <https://eduinfo.go.kr/portal/bbs/eduinfoPage.do>. 2022. 8. 17, 인출.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예방접종도우미-2020년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 <https://nip.kdca.go.kr/irgd/support.do?service=getNewsView&strNum=431&PROSEQNUM=431>.

째깍악어 블로그, https://blog.naver.com/tictoc_croc/222051879987(2022. 6. 30, 인출).

째깍악어 홈페이지, <https://parent.tictocroc.com/application>(2022. 6. 30, 인출).

충청의 오늘(2021. 12. 23). 홍성군, 초등생 방과 후 돌봄 공백 제로화 온 힘(<http://www.hankookin.net/165648>, 2022. 5. 17, 인출).

충남 홍성군청 홈페이지a, https://www.hongseong.go.kr/kor/sub04_0104.do (2022. 6. 9, 인출).

충남 홍성군청 홈페이지b, 2022b https://www.hongseong.go.kr/prog/popule/kor/sub04_0105/list.do(2022. 6. 9, 인출).

파이낸셜뉴스(2022. 2. 21). 오산시, '함께자람 돌봄센터' 20호점 세교호반아파트에 4월 개소(<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791375?sid=10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familynet.or.kr/web/index.do>. 2022. 8. 16, 인출.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cpi.or.kr/kcpi/cyberpr/childcarestat4.do>. 2022. 9. 12, 인출.

한국일보(2019. 12. 2). 주택가 유휴공간 활용한 공동육아시설... 인천 '아이사랑꿈터' 첫발(<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021432047710>).

- 한겨레(2019. 12. 2). 인천형 공동육아·돌봄터 ‘아이사랑꿈터’ 1호점 문 열어(<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919238.html>) .
- 화성형 아이키움터 홈페이지, <http://www.hscfamily.or.kr/main.asp>(2022. 6. 8, 인출).
- 행복한 교육(2019. 4). 마을돌봄 사례② 경기 오산 온종일 돌봄 ‘함께자람’(https://hap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ArticleImg.do?bbsId=BSMSTR_000000000191&nttId=9101, 2022. 5. 17, 인출).
- U-LEX 법률우주 홈페이지a, <https://www.ulex.co.kr/%EB%B2%95%EB%A5%A0/1533275-2201608-%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EC%84%B1%EB%B6%81%EA%B5%AC%EC%98%A8>(2022. 5. 17, 인출).
- U-LEX 법률우주 홈페이지b, <https://www.ulex.co.kr/%EB%B2%95%EB%A5%A0/1411310-2190493-%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EB%85%B8%EC%9B%90%EA%B5%AC%EC%98%A8>(2022. 6. 10, 인출).
- U-LEX 법률우주 홈페이지c, <https://www.ulex.co.kr/%EB%B2%95%EB%A5%A0/1413286-2183639-%EC%98%A4%EC%82%B0%EC%8B%9C%EC%B4%88%EB%93%B1%ED%95%99%EC%83%9D%EC%98%A8%EC%A2%85>(2022. 5. 17, 인출).



Abstract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grated Operation Foundation for Child Care

Yoon Kyung Choi, Sook In Cho, Hyemin Lee,
Jung-Hyun Kim, & Youn Jae-seok

The continuity of service use from a parent and child's point of view and the cooperation between education and care delivery, are inevitable tasks of current times.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care policy, the provision of education and care services centered on schools, families, and institutions and regions, goes beyond the institutional design or the issues of infra-struc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plan to establish an integrated operating system that provides child care policies that are provided segmentally by policy as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service based on the region. Based on the child's life cycle, this study has focused on the availability and continuity of care services as a broad care encompassing education, childcare, and child protection.

Based on the main research results, this study first proposed to prepare a legal basis for the Ministry of Education's care service. In the order of reorganizing the current care laws and enacting the integrated law in the first stage, it was suggested to take the form of an integrated approach to reorganize the business in a way that blind spots are solved. Secondly,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the on-offline operation foundation for integrated care, individual consumers searched are necessary to enhance the universal accessibility. Once an integrated operational foundation is established, an integrated online and offline platform is established to ensure that relevant information is provided and service links are identified through the same channel. The integrated child care information platform for child care needs to contain the following contents: Real-time search and waiting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of available care services, Openness and expansion as an integrated platform for public-private and public-private information and care services, expanded care-welfare links, expanded child safety and healthy growth and development, and open care apps for each local government

Keyword: Integr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Continuity of service use.
Legal foundation, Governance system, online and offline platforms

부록 1.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개)-전문 비교

권철승 의원 대표발의 (2020. 6. 10)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0. 8. 4)
(제안이유)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안이유)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인 교육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 회장을 위원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 를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나. <u>교육부장관은</u>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교육장)과 협의를 거쳐 연도별 지역 온종일 돌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지역의 온종일 돌봄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온종일 돌봄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협력 증진 등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돌봄 협의회를 둠(안 제7조 및 제8조). 마. 온종일 돌봄은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에게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간식 및 급식 지원, 특기적성 및 역량 개발 지원 등을 의미함(안 제9조). 바. 온종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온종일 돌봄시설의 설치기준, 인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안 제10조). 사.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아. 교육부장관은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을 지원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나. <u>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인 교육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u> 하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의 장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의 대표자를 위원으로 하는 <u>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u> 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는 5년마다 온종일 돌봄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는 온종일 돌봄 실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적 편차로 인하여 아동 돌봄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안 제6조).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를 거쳐 연도별 지역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마. 지역의 온종일 돌봄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온종일 돌봄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협력 증진 등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돌봄 협의회를 둠(안 제8조 및 제9조). 바. 온종일 돌봄은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에게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간식 및 급식 지원, 특기적성 및 역량 개발 지원, 생활상담 등 정서적 지원,

권철승 의원 대표발의 (2020. 6. 10)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0. 8. 4)
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위하여 중앙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12조). 자. 교육부장관은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온종일 돌봄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13조). 차. 온종일 돌봄시설 운영자는 기초수급자, 한부모·다문화가족, 장애인 및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온종일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14조). 카. 온종일 돌봄시설 운영자는 보호자에게 온종일 돌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안 제15조). 타. 온종일 돌봄시설의 현황, 시설별 온종일 돌봄의 내용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및 제공하기 위해 온종일 돌봄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16조). 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시설 및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 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시설 설치·운영을 위해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안 제18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미함(안 제10조). 사. 온종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온종일 돌봄시설의 설치기준, 인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함(안 제11조). 아.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자.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는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위하여 중앙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 차. 온종일 돌봄시설 운영자는 보호자에게 돌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안 제16조). 카. 온종일 돌봄시설의 현황, 시설별 돌봄의 내용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17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체계적인 온종일 돌봄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체계적인 돌봄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단계 학령기(學齡期) 아동”이란 초등학교 교육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2. “온종일 돌봄”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시간 외에 보호자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호되기 어려운 시간에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에게 제공되는 제9조의 교육·보호 등을 말한다. 3. “온종일 돌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가. 온종일 돌봄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학교 내 시설 나.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라 초등단	(좌동)

권철승 의원 대표발의 (2020. 6. 10)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0. 8. 4)
계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설치된 다 함께돌봄센터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 라.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온종일 돌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온종일 돌봄과 관련되는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좌동)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의 온종일 돌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좌동)
	제5조(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 ①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온종일 돌봄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인 교육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위원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룬다. 1.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의 조정 2. 중앙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 설치 3. 그 밖에 온종일 돌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④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

권철승 의원 대표발의 (2020. 6. 10)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0. 8. 4)
제5조(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5년마다 온종일 돌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온종일 돌봄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정부조직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내용을 총괄·조정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온종일 돌봄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온종일 돌봄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 방안 3. 온종일 돌봄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 4. 온종일 돌봄의 예산 지원 방안 5. 온종일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조 방안 6. 그 밖에 온종일 돌봄에 필요한 사항 ⑤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도 교육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는 5년마다 온종일 돌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유사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편차로 인하여 아동 돌봄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온종일 돌봄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온종일 돌봄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 방안 3. 온종일 돌봄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 4. 온종일 돌봄의 예산 지원 방안 5. 온종일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조 방안 6. 그 밖에 온종일 돌봄에 필요한 사항 ④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시·도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계획 등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지역 온종일 돌봄시행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관할구	제7조(시행계획 등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지역 온종일 돌봄시행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관할구

권철승 의원 대표발의 (2020. 6. 10)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0. 8. 4)
역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온종일 돌봄의 수요·공급의 변동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정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지역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시행, 제3항에 따른 변경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역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는 온종일 돌봄의 수요·공급의 변동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정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지역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시행과 제3항에 따른 변경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광역돌봄협의회) ①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온종일 돌봄에 대한 주요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광역돌봄협의회를 둔다. ② 광역돌봄협의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온종일 돌봄 관련 전문가,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자 등 온종일 돌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임명·위촉한다. ③ 광역돌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좌동)
제8조(기초돌봄협의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온종일 돌봄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온종일 돌봄시설 간 협력 증진, 온종일 돌봄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의 조사 등을 위하여 기초돌봄협의회를 둔다. ② 기초돌봄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온종일 돌봄 관련 전문가, 관할 지역 내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위촉한다. ③ 기초돌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좌동)
제9조(온종일 돌봄)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보호 등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안전한 보호 2. 간식 및 급식 지원 3. 특기적성 및 역량 개발 지원 4. 체험 및 놀이활동 지원 5. 생활상담 등 정서적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보호	(좌동)
제10조(온종일 돌봄시설 운영 등) ① 온종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에게 제9조에 따른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데 적합	(좌동)

권철승 의원 대표발의 (2020. 6. 10)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0. 8. 4)
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온종일 돌봄시설의 설치 기준, 인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지도·감독)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좌동)
제12조(온종일 돌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교육부장관은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중앙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온종일 돌봄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2. 온종일 돌봄시설 간의 연계 및 협력 지원 3. 온종일 돌봄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 4. 온종일 돌봄 관련 정보의 제공, 홍보 및 교육 5. 온종일 돌봄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온종일 돌봄 관련 인력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지원 7. 광역돌봄협의회 및 기초돌봄협의회 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분석 지원 8. 그 밖에 온종일 돌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③ 교육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구역에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는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온종일 돌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는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중앙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온종일 돌봄시설 및 온종일 돌봄 지역센터에 대한 업무 지원 2. 온종일 돌봄시설 간의 연계 및 협력 지원 3. 온종일 돌봄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 4. 온종일 돌봄 관련 정보의 제공, 홍보 및 교육 5. 온종일 돌봄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온종일 돌봄 관련 인력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지원 7.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 광역돌봄협의회 및 기초돌봄협의회 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분석 지원 8. 그 밖에 온종일 돌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③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구역에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는 온종일 돌봄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온종일 돌봄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온종일 돌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제14조(실태조사 등) ①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는 온종일 돌봄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온종일 돌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

권철승 의원 대표발의 (2020. 6. 10)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0. 8. 4)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온종일 돌봄의 우선 제공) 온종일 돌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온종일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할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7. 만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구의 자녀 8. 그 밖에 교사가 추천하는 아동(제2조제3호가목의 시설에서 온종일 돌봄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좌동)
제15조(보호자의 비용 부담) 온종일 돌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의 보호자에게 온종일 돌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좌동)
제16조(온종일 돌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온종일 돌봄시설의 현황, 시설별 온종일 돌봄의 내용 등 온종일 돌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온종일 돌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온종일 돌봄시설의 현황, 시설별 온종일 돌봄의 내용 등 온종일 돌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18조(비용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온

권철승 의원 대표발의 (2020. 6. 10)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0. 8. 4)
	종일 돌봄시설, 지원센터 및 제13조제4항에 따른 온종일 돌봄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비용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온종일 돌봄시설, 지원센터 및 제12조제4항에 따른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좌동)
제18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온종일 돌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계약에 의한다.	(좌동)

자료: 의사국 의안과 의안원문(권철승,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2022. 5. 30, 인출)

부록 2. 아동돌봄 수요자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지

아동돌봄 수요자(부모) 대상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취학 전-후 아동의 생애주기별 양육 현황과 교육·돌봄의 공백과 어려움 등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지원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향후 아동돌봄 관련 정책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응답하신 모든 분들에게 소정의 사례를 제공하오니, 귀하의 소중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윤리 및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이외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2022년 9월

■ 설문문의: 육아정책연구소 02) 398-7727, 7706

응답자 선별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성

2. 여성

SQ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출생연도를 입력해 주세요.

출생연도: ()년

SQ3)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시/도 ()시/군/구 ()읍/면/동

SQ4) 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 기혼
2. 미혼
3. 기타(이혼, 사별 등)

SQ5) 귀하께서는 현재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1. 있음
2. 없음 → **조사종료**

SQ6) 귀하께서는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의 주양육자이십니까?

1. 예
2. 아니오 → **조사종료**

SQ7) 현재 귀하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에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1. 미취학 아동
2. 초등학생
3. 중학생
4. 고등학생
5. 성인

SQ7-1) 현재 귀하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의 수를 적어주세요.

연령대	자녀 수
1. 미취학 자녀	()명
2-1. 초등 1~3학년 자녀	()명
2-2. 초등 4~6학년 자녀	()명
3. 중학생 이상 자녀	()명
계	()명

SQ8) 귀 닥의 자녀의 생년과 성별, 이용기관은 어떻게 되십니까?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응답해주세요

구분	SQ8-1. 생년	SQ8-2. 성별		SQ8-3. 취학 여부		SQ8-3. 이용기관					
		남	여	미 취 학	취 학	취학전(만0~6세)				초등이상 자녀	
						어린 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기관 미이용	초등 학교	중학교 이상
1. 첫째 자녀	()년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⑥
2. 둘째 자녀	()년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⑥
3. 셋째 자녀	()년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⑥
4. 넷째 자녀	()년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⑥
...	...	...	...	...	...	...	...	...	...	...	...

부모 특성

DQ1) 귀댁의 가구원 구성 현황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1. 부모 모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음
2. 부/모 중 한 명만 자녀와 함께 살고 있음

DQ2) 부모님의 응답자 특성에 답해주십시오.

구분	부	모
1. 연령	만 _____세	만 _____세
2. 최종학력 ※ 수료, 중퇴, 재학/휴학은 이전학력으로 분류	① 고졸 미만 ② 고졸 ③ 2~3년제 대학 졸업 ④ 4년제 대학 졸업 ⑤ 대학원 이상	① 고졸 미만 ② 고졸 ③ 2~3년제 대학 졸업 ④ 4년제 대학 졸업 ⑤ 대학원 이상
3. 취업상태	① 취업 ② 휴직 중 ③ 학업 중 ④ 구직 중 ⑤ 미취업	① 취업 ② 휴직 중 ③ 학업 중 ④ 구직 중 ⑤ 미취업
(3에서 ①인 경우) 3-1. 일하는 형태	① 규칙적으로 출퇴근 ② 불규칙하게 출퇴근(유연근무) ③ 출퇴근하지 않음(재택, 농어민)	① 규칙적으로 출퇴근 ② 불규칙하게 출퇴근(유연근무) ③ 출퇴근하지 않음(재택, 농어민)
(3에서 ①,③인 경우) 3-2. (모든 응답자) 1주 평균 근로시간	주 평균 근로시간: ____시간	주 평균 근로시간: ____시간
4. 근로/고용 형태 (3에서 ① 취업중인 경우)	① 임금근로자 ② 비임금근로자	① 임금근로자 ②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일때) ① 전일제 ② 시간제(파트타임)	(임금근로자일때) ① 전일제 ② 시간제(파트타임)
	(임금근로자일때)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계약직)	(임금근로자일때)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계약직)
5. (모든 응답자) 월 평균 근로소득	월 평균 _____만원 ※ 세후(실수령)액 기준	월 평균 _____만원 ※ 세후(실수령)액 기준
6. 월 평균 가구소득	월 평균 _____만원 (※ 세후(실수령)액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7. 가구원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구원 수: 본인 포함 _____명	

DQ3) 귀 닥의 다음의 항목별 해당 여부를 표기해 주십시오.

구분	해당사항 있음 (과거/현재 그러함)	비해당 (과거/현재 아님)	모름
1. 기초생활수급여부			
2. 법정차상위계층 여부			
3. 다문화가족 여부			
4. 한부모가족 여부			
5. 조손가족 여부			
6. 장애가족 여부			
7. 장기입원·질환 여부			
8. 비정형/플랫폼 노동			

* 비정형노동은 근로시간(대)와 일의 형태와 양이 불규칙적 또는 비정형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플랫폼노동자는 고객이나 일감을 구하기 위해 웹사이트나 핸드폰 앱 등 온라인 플랫폼(예: 배달의 민족, 숨고, 크몽 등)을 이용해 일을 받고 수입(소득)을 얻는 일자리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돌봄 현황

※ 다음은 귀하의 자녀 양육 및 돌봄에 대한 질문으로, 여기서 ‘돌봄’은 아동의 연령과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 보육, 돌봄을 넓게 포괄하는 ‘교육·보육·돌봄’으로서 광의의 돌봄을 의미합니다.

[SQ8-3=1 응답자]

문1) 현재 귀 닥의 미취학 영유아 자녀(들)가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기관 유형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1. 국공립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어린이집
3. 민간어린이집
4. 가정어린이집
5. 직장어린이집
6. 부모협동어린이집
7. 기타(적어주세요: _____)

[SQ8-3=2 응답자]

문2) 현재 귀댁의 미취학 영유아 자녀(들)가 이용하고 있는 유치원 기관 유형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1. 국공립유치원
2. 사립유치원
3. 기타(적어주세요: _____)

[SQ8-3=4 응답자]

문3) 현재 미취학 자녀(들)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 등의 기관에 다니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가까운 곳에 없어서
2. 믿을만한 곳이 없어서
3. 가족이 돌보는 것이 아이에게 좋을 것 같아서
4. 아이가 아직 어려서
5. 아이가 가지 않으려고 해서
6. (국공립어린이집 등) 입소 대기 중/보내려고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중
7. 비용 부담 때문에
8. 기타(적어주세요: _____)

[SQ8-3=5 응답자]

문4) 현재 귀댁의 초등학생 자녀(들)가 이용하고 있는 초등학생 대상 공공 돌봄서비스 유형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1. 초등돌봄교실(학교돌봄터 포함)
2. 초등방과후과정
3.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4. 다함께돌봄센터(보건복지부)
5. 방과후아카데미(청소년문화의집 등, 여성가족부)
6. 온종일돌봄센터/지자체돌봄센터(각 지자체)
7. 잘 모름
8. 이용기관/서비스 없음
9. 기타(적어주세요: _____)

[문4=8 응답자]

- 문5) 초등학교 자녀(들)가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순위까지 답해 주십시오. [2순위 필수 응답]
1순위: () 2순위: ()
1. 가능한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싶어서
 2. 아이가 가고 싶어하지 않아서
 3. 이용 자격이 되지 않아서 신청 못함
 4. 신청했으나 탈락해서 이용하지 못함(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다 차서 기회가 없음)
 5. 가까운 곳에 돌봄기관이 없어서
 6. 비용 부담 때문에
 7. 원하는 이용시간과 맞지 않아서
 8. 돌봄서비스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9. 믿을만한 곳이 없어서
 10. 사설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11. 해당 서비스를 잘 알지 못해서(이용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음)
 12. 기타(적어주세요:)

- 문6) 귀 닻에서 현재 받고 있거나, 과거 받은/이용한 경험이 있는 현금 및 시간 지원은 무엇입니까? 부와 모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기해주시요.

지원 종류	구분	현재 받고 있음	과거 받은적 있음	현재/과거 받은적 없음
현금 지원	1. 아동수당	①	②	③
	2. 영아수당(2022년 출생아 대상)	①	②	③
	3. 가정양육수당(어린이집·유치원 미 이용시)	①	②	③
	4. 첫만남이용권(첫만남পুর미)	①	②	③
	5. 기타 지자체 현금지원(일회성 포함)	①	②	③

		부			모		
		현재 받고 있음 /필요시 이용중	과거 받은적 있음	현재/ 과거 받은적 없음	현재 받고 있음 /필요시 이용중	과거 받은적 있음	현재/ 과거 받은적 없음
시간 지원	6. 육아휴직	①	②	③	①	②	③
	7. 근로시간 단축	①	②	③	①	②	③
	8. 육아시간지원	①	②	③	①	②	③
	9. 가족돌봄휴가	①	②	③	①	②	③
	10. 재택근무	①	②	③	①	②	③
기타	11.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등)	①	②	③	①	②	③
	12. 상담 놀이치료	①	②	③	①	②	③
	13. 기타(적어주세요:)	①	②	③	①	②	③
	14. 비해당(미취업,부재 등)						

주요 서비스에 대한 이용경험 및 만족도 평가

- 문7-1) 다음 중 귀하께서 알고 계신 돌봄서비스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 문7-2) 다음 중 귀하께서 이용한 경험에 있는 돌봄서비스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 문7-3) 귀하께서 이용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응답해 주세요.
- 문7-4) 다음 중 귀하께서 향후에도 이용할 의향이 있는 돌봄서비스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 문7-5) 귀하께서는 다음의 돌봄서비스가 필요할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7-6) 귀하께서는 다음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7-1. 인지도	7-2. 이용 경험		7-3. 이용 만족도				7-4. - 향후 이용 의향 - 이용 지속 의향		7-5. 필요시 이용가능성 (접근성)		7-6. 관련 정보의 충분성		
	(모든 응답자)	(서비스별 인지자)		(서비스별 이용자)				(모든 응답자)		(서비스별 인지자)		(서비스별 인지자)		
	알고 있음/ 들어 본 적 없음	있음	없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있음	없음	쉽게 이용 가능	이용 어려움	잘 모름	충분 하지 않음
1.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①	②	①	②	①	③	④	⑤	①	②	①	②	①	②
2.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①	②	①	②	①	③	④	⑤	①	②	①	②	①	②
3. 어린이집 이용	①	②	①	②	①	③	④	⑤	①	②	①	②	①	②
4. 유치원 이용	①	②	①	②	①	③	④	⑤	①	②	①	②	①	②
5. 시간제 보육	①	②	①	②	①	③	④	⑤	①	②	①	②	①	②
6. 민간 육아도우미	①	②	①	②	①	③	④	⑤	①	②	①	②	①	②

구 분	7-1. 인지도		7-2. 이용 경험		7-3. 이용 만족도					7-4. 향후 이용 의향 - 향후 이용 의향 - 이용 지속 의향		7-5. 필요시 이용가능성 (접근성)			7-6. 관련 정보의 충분성		
	(모든 응답자)		(서비스별 이용자)		(서비스별 이용자)					(모든 응답자)		(서비스별 이용자)			(서비스별 이용자)		
	알고 있음/들어 본 적 있음	모름/들어 본 적 없음	있음	없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있음	없음	쉽게 이용 가능	이용 어려움	잘 모름	충분함	충분하지 않음	잘 모름
7.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공공 아이돌봄미)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③
8. 육아/마을 공동체 돌봄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③
9. 초등돌봄교실(학교돌봄터포함)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③
10. 초등 병과후학교(병과후과정)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③
11. 지역아동센터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③
12. 다함께돌봄센터 (지자체 돌봄센터 포함)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③
1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의집,수련관)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③

자녀돌봄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문8) 자녀 돌봄서비스 이용 시 귀하가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힘들었던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1. 돌봄서비스 이용시간(양, 시간대)/이용시기
2. 돌봄서비스 기관 위치(접근성, 도보 및 교통이용 관련)
3. 돌봄서비스 이용 단절(이용하던 돌봄서비스 이용을 지속하지 못 함)
4. 돌봄서비스 이용 제한(이용 우선순위/자격제한 등)
5. (이용 가능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6. 서비스 이용 간 연결/연계의 어려움
7. 예기치 못한 긴급한 돌봄 발생 시 대응의 어려움(갑자기 돌봐줄 사람/
말길 곳을 구하지 못함)
8. 주위에 이용 가능한 돌봄서비스의 부족(인프라 문제)
9. 돌봄서비스의 질/내용(프로그램의 다양성)
10. 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11. 식사/간식 제공과 질
12. 비용 부담
13. 기타(적어주세요:)
14. 특별히 어려움 없음
15. 비해당: 별도의 돌봄서비스 이용하지 않음

자녀 돌봄 현황

▶ 지금부터는 귀댁의 초등 6학년 이하 자녀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자녀 1명([SQ8 응답값])을 떠올리며 질문에 답하여 주십시오.

문9) 현재 평일 낮 시간에 [SQ8 응답값]를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기관은 누구/어디입니까? 가장 많이 돌보는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해 주세요.
- 1가지(1순위)만 있는 경우, 2순위 응답은 '없음'을 선택해주세요.

1순위: () 2순위: ()

구분	〈보기 1〉	
공통1	부모	① 부
		② 모
		③ 부모 함께
미취학 아동	돌봄인력	④ 조부모/친인척 돌봄 이용
		⑤ 공공 아이돌보미(아이돌봄서비스) 이용
		⑥ 민간 베이비시터/돌보미 이용
	영유아기관	⑦ 어린이집 이용(기본-연장보육)
		⑧ 유치원 이용(교육-방과후과정)
		⑨ 시간제보육/돌봄 이용
	사교육/시설	⑩ 반일제이상 영유아학원 이용 (영유아놀이학교, 영유유치원 포함)
		⑪ 영유아 사교육(시간제학원, 학습지 등)
		⑫ 영유아 시설놀이공간(예:키즈카페등)
	공공	⑬ 육아종합지원센터
		⑭ 공동육아나눔터
		⑮ 육아공동체/마을공동체
초등학생	초등 방과후돌봄	⑯ 초등돌봄교실(학교돌봄터 포함)
		⑰ 초등학교 방과후과정(방과후학교)
		⑱ 지역아동센터
		⑲ 온종일돌봄(지자체 돌봄센터)
		⑳ 다함께돌봄센터(보건복지부)
		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성가족부)
	초등사교육	㉒ 학원 - 학습관련
		㉓ 학원 - 예체능 관련
		㉔ 학원외(학습지, 방문과외, 온라인수강등)
공통2	기타	㉕ 기타 공공기관/센터/인프라 이용(도서관등)
		㉖ 문화/오락/체험활동
		㉗ 기타 (적어주세요:)
		㉘ 없음(자녀 혼자, 자녀들끼리)

문10) 귀하는 [SQ8 응답값]를 돌보는데 돌봄의 공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을 한해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 ‘돌봄공백’이란, 자녀를 돌봐줄 사람/서비스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를 말합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어느정도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문10-1) 현재 시점 평일 하루를 기준으로 [SQ8 응답값]를 돌보는 데에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는 시간대가 있습니까? 돌봄공백이 발생한 시간대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평일 시간대	자녀 돌봄공백이 발생/발생하는 시간대
07:00~08:00	①
08:00~09:00	②
09:00~10:00	③
10:00~11:00	④
11:00~12:00	⑤
12:00~13:00	⑥
13:00~14:00	⑦
14:00~15:00	⑧
15:00~16:00	⑨
16:00~17:00	⑩
17:00~18:00	⑪
18:00~19:00	⑫
19:00~20:00	⑬
20:00~21:00	⑭
없음/비해당	99

문10-2)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제시된 <보기> 항목 중 선택한 돌봄방식 또는 서비스 유형을 최대 2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구분	〈보기 1〉	
공통1	부모	① 부
		② 모
		③ 부모 함께
	돌봄인력	④ 조부모/친인척 돌봄 이용
		⑤ 공공 아이돌보미(아이돌봄서비스) 이용
		⑥ 민간 베이비시터/돌보미 이용
미취학 아동	영유아기관	⑪ 어린이집 이용(기본-연장보육)
		⑫ 유치원 이용(교육-방과후과정)
		⑬ 시간제보육/돌봄 이용
	사교육/사설	⑭ 반일제이상 영유아학원 이용 (영유아놀이학교, 영어유치원 포함)
		⑮ 영유아 사교육(시간제학원, 학습지 등)
		⑯ 영유아 사설놀이공간(예: 키즈카페 등)
	공공	⑰ 육아종합지원센터
		⑱ 공동육아나눔터
		⑲ 육아공동체/마을공동체
초등학생	초등 방과후돌봄	⑳ 초등돌봄교실(학교돌봄터 포함)
		㉑ 초등학교 방과후과정(방과후학교)
		㉒ 지역아동센터
		㉓ 온종일돌봄(지자체 돌봄센터)
		㉔ 다함께돌봄센터(보건복지부)
		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성가족부)
	초등사교육	㉖ 학원 - 학습관련
		㉗ 학원 - 예체능 관련
		㉘ 학원외(학습지, 방문과외, 온라인수강 등)
공통2	기타	㉙ 기타 공공기관/센터/인프라 이용(도서관 등)
		㉚ 문화/오락/체험활동
		㉛ 기타 (적어주세요:)
		㉜ 없음(자녀 혼자, 자녀들끼리)

아동 생애주기별 돌봄 이용경험 및 의견

- 문11) [SQ8 응답값]의 지난 육아 경험을 돌이켜볼 때, 자녀 양육과 돌봄, 교육에 있어 ‘돌봄공백’을 경험한 때는 언제입니까? 해당하는 시기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 ‘돌봄공백’이란, 자녀를 돌봐줄 사람/서비스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를 말합니다.
- 문11-1) 당시 부모의 취업상태는 어땠습니까?
- 문11-2) [SQ8 응답값] 출생 후부터 현재까지 아동의 연령 시기별로 이루어지는 돌봄 서비스 이용과 육아지원 전반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육아지원체계의 적절성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해주세요.
- 육아지원은 일반적으로 <보기2>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 문11-2-1)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와 관련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 문11-3) 일반적으로 아동의 연령 시기별로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보기 2>를 보시고 아동 연령대별로 우선되는 1가지를 선택해주세요.

	문 11-1.		문 11-2.					문 11-2-1.	문 11-3.
	부 취업상태	모 취업상태	돌봄관련 정부 정책(보기2)에 대한 평가(5점 척도)					평가 이유	아동 연령별로 가장 필요한 서비스 또는 지원
문11. 돌봄공백 경험 시기	부 취업상태		모 취업상태						
	① 전일제 취업중 ② 시간제 취업중 ③ 학업 및 취업훈련중 ④ 미취업 ⑤ 휴직 및 출산휴가중 ⑥ 비해당(부재)								1가지 <보기 2>에서 선택해주세요
	임신출산기			전혀 잘 되어 있지 않음	잘 되어 있지 않음	보통	잘 되어 있음	매우 잘 되어 있음	
	만0세(0~11개월)	①		①	②	③	④	⑤	
	만1세(12~23개월)	②		①	②	③	④	⑤	
	만2세(24~35개월)	③		①	②	③	④	⑤	
	만3세(36~47개월)	④		①	②	③	④	⑤	
	만4세(48~59개월)	⑤		①	②	③	④	⑤	
	만5세(60~71개월)	⑥		①	②	③	④	⑤	
	만6세(72~83개월)	⑦		①	②	③	④	⑤	
	1학년	⑧		①	②	③	④	⑤	
	2학년	⑨		①	②	③	④	⑤	
	3학년	⑩		①	②	③	④	⑤	
	초등 취학 (만5세이상)	⑪		①	②	③	④	⑤	
	5학년	⑫		①	②	③	④	⑤	
	6학년	⑬		①	②	③	④	⑤	

〈보기 2〉 현금-서비스-시간 지원 등 공/사 육아 및 돌봄 전반

구분	지원종류
현금지원	① 현금지원(아동수당, 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자체지원 등)
서비스 이용 - 취학 전 영유아기	② 유치원
	③ 어린이집
	④ 공동돌봄인력(여성가족부 아이돌봄비)
	⑤ 사적돌봄인력(민간육아도우미, 베이비시터)
	⑥ 조부모/친인척 돌봄
	⑦ 육아돌봄공동체(공동육아 등) 운영
	⑧ 영유아기 기타 사교육/돌봄 기관(영어유치원, 놀이학교, 영유아예체능단 등)
	⑨ 초등학교 대상 학교 방과후돌봄 (초등돌봄교실/학교돌봄터, 방과후학교 등)
서비스 이용 - 취학 후 초등자녀	⑩ 초등학교 대상 마을 방과후돌봄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자체돌봄)
	⑪ 사교육/학원
	⑫ 육아휴직
	⑬ 근로시간 단축, 육아시간지원, 가족돌봄휴가
	⑭ 재택근무
시간지원	⑮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등)
	⑯ 육아종합지원센터/가족센터/상담 등 지원체계
	⑰ 기타(적어주세요: _____)
	⑱ 없음

- 문12) 현재 [SQ8 응답값] 돌봄에서 평일 시간대별로 이루어지는 돌봄의 방식 및 돌봄서비스 이용 간 연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 초등학교 수업이 끝나고 방과후 돌봄에서, 또는 어린이집 하원 후 자녀 돌봄에서, 또는 출근시간이 일러 자녀 등원/등교까지 경험하는 어려움 등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
4. 어느정도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 문13) [SQ8 응답값]가 성장하면서 연령 증가에 따라 이용하는 기관이나 돌봄 서비스 이용이 끊임없이 원활히 잘 이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
4. 어느정도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문13=1,2 응답자]

- 문13-1) 그렇게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14) [SQ8 응답값]가 출생이후 현재 연령까지 서비스 이용에서 연계가 어려운 때는 언제였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기해주시시오

문14-1) 그렇게 응답하신 이유가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연령/발달 전환기	문14. 돌봄의 연속성/ 연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시기	문14-1. 응답 이유
임신출산기에서 ~0세(0~12개월) 시기로 가는 전환기	①	
0세(0~12개월)에서 ~ 만1세(12~23개월)로 가는 전환기	②	
만1세(12~23개월)에서 ~ 만2세(24~35개월)로 가는 전환기	③	
만2세(24~35개월)에서 ~ 만3세(36~47개월)로 가는 전환기	④	
만3세(36~47개월)에서 ~ 만4세(48~59개월)로 가는 전환기	⑤	
만4세(48~59개월)에서 ~ 만5세(60~71개월)로 가는 전환기	⑥	
만5세(60~71개월)에서 ~ 만6세(72~83개월)로 가는 전환기	⑦	
만6세(72~83개월)에서 ~ 초등 1학년으로 가는 전환기	⑧	
초등 1학년에서 ~ 초등 2학년으로 가는 시기	⑨	
초등 2학년에서 ~ 초등 3학년으로 가는 시기	⑩	
초등 3학년에서 ~ 초등 4학년으로 가는 시기	⑪	
초등 4학년에서 ~ 초등 5학년으로 가는 시기	⑫	
초등 5학년에서 ~ 초등 6학년으로 가는 시기	⑬	
초등 6학년에서 ~ 중학교 1학년으로 가는 시기	⑭	
없음	99	

돌봄 통합 플랫폼

문15) 귀하는 다음의 육아 및 돌봄 관련 플랫폼 혹은 앱을 알고 계십니까?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였습니까?

구분	인지도		이용 경험		만족도				
	알고 있음	모름	있음	없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0. 복지로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 정부24-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경기도 워라벨 링크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서울시 직장맘 든든맵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어플리케이션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민간육아도우미 서비스 매칭 플랫폼(예: 맘시터, 째깍악어)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7.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16) 귀하는 다음의 육아 및 돌봄과 관련하여 통합(정보)플랫폼 혹은 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필요하지 않음
2. 필요하지 않음
3. 필요함
4. 매우 필요함

문17) 아동돌봄을 모두 관할하는 ‘돌봄 플랫폼’이 있다면, 해당 플랫폼에서 꼭 필요한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성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필요성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1.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⑤
2. 아동연령별 이용가능한 서비스 검색 기능	①	②	③	④	⑤
3. 기관 운영 프로그램 및 이용 가능 시간대별 검색 기능	①	②	③	④	⑤
4. 이용가능 서비스 대기신청	①	②	③	④	⑤
5. 이용가능 서비스 등록과 결제	①	②	③	④	⑤
6. 정책서비스 이용 후기 의견 및 관련 후기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⑤
7. 거주 지역 돌봄 지도 시각화 기능	①	②	③	④	⑤
8. 아동 등하원 알리미 통합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⑤

문17-1) 위 기능 중 귀하가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기능은 무엇입니까?
1가지를 골라주십시오.

문17-2) 그 밖에 육아 및 돌봄 플랫폼 혹은 앱에 어떠한 기능이 담겨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돌봄서비스 이용 간 연계에 대한 의견

- 문18) 앞서 살펴본 아동 돌봄서비스 간 이용의 연계와 연속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별로 필요하지 않다
 3. 보통
 4. 어느정도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 문19) 평일을 기준으로 현재 귀하에게 자녀의 돌봄에서 원활한 연계가 필요한 지점은 어디입니까? 연결이 가장 필요한 2개의 돌봄방식 또는 서비스를 선택해 주세요.
(응답 예시: 어린이집 이용과 이후 베이비시터 이용간 연계가 필요한 경우 3-2로 응답)
1. 부모/가족 돌봄
 2. 개별돌봄 인력(공공아이돌보미, 민간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이웃/지인 등)
 3. 영유아 기관 돌봄(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이상학원-영어유치원 등)
 4. 초등학교 정규수업을 마친 방과후
 5. (초등 방과후) 학교돌봄(초등돌봄교실, 초등방과후과정, 학교돌봄터 등)
 6. (초등 방과후) 지역사회/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지자체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7. 사교육
 8. 기타(적어주세요: _____)
- 문20)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다음에 제시된 요소 중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순위로 응답해주시요. 제시된 보기 외에 의견은 기타 응답란에 직접 적어주시요.
- 1순위: () 2순위: ()
1. 관련 법적 근거 마련
 2. 통합 행·재정 체계의 구축
 3. (수요자 관점의) 아동돌봄통합(정보)플랫폼 마련
 4. 교육-돌봄서비스 간 원활한 연계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5. 영유아기관 및 학교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
 6. 지자체/지역사회(또는 공동체)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
 7. 표준화 된 운영 기준과 모델 설정(예: 돌봄프로그램/활동, 시설설비, 인력 배치, 규모, 예산운영/비용지원, 급간식 운영 관련)
 8. 종사인력 운영체계 정비(교육·보육·돌봄 교직원의 자격, 처우, 역할 등)
 9. 기타(적어주세요: _____)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2022년 기본과제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구축〉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생이후부터 초등학교까지 아동의 연령 및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교육과 보육, 돌봄을 포괄하는 광의의 돌봄으로서 돌봄서비스에 대한 이용가능성(접근성)과 연속성에 대해 살펴보고, 돌봄서비스 이용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통합적 운영 기반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향후 아동돌봄 관련 정책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소정의 사례를 제공하오니, 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윤리 및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이외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2022년 9월

■설문문의: 육아정책연구소 02) 398-7727 이해민 전문연구원
02) 398-7706 최윤경 선임연구위원

아동 생애주기별 양육지원체계에 대한 의견

- 문1) 출생 이후 초등학교(0세~6학년)까지 아동의 생애주기별로 돌봄 서비스의 이용과 부모 대상의 양육지원체계 전반을 고려할 때, 아동의 연령 주기별로 현행 육아지원정책에 대해 어떠한 평가가 가능하신지, 그 적절성에 대해 7점 척도로 평가해주시요. 다음의 지원 내용을 참조하여 평가해주시요.

〈보기〉 현금-서비스-시간 지원 등 공/사 돌봄 및 서비스 전반

구분	지원종류
현금지원	① 현금지원(아동수당, 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자체지원, 부모급여(예정) 등)
서비스 이용 - 취학 전 영유아기	② 유치원 ③ 어린이집 ④ 공공아이돌보미(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⑤ 민간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⑥ 조부모/친인척 돌봄 ⑦ 마을/육아돌봄공동체(공동육아 등) 운영 ⑧ 영유아기 기타 사교육/돌봄 기관(영어유치원, 놀이학교, 영유아체능단 등)
서비스 이용 - 취학 후 초등자녀	⑨ 초등학교 대상 학교 방과후돌봄(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⑩ 초등학교 대상 마을 방과후돌봄(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지자체돌봄) ⑪ 사교육/학원
시간지원	⑫ 육아휴직 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육아시간지원, 가족돌봄휴가 ⑭ 재택근무 ⑮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등)
기타	⑯ 육아종합지원센터/가족센터/상담 등 지원체계

구 분	전혀 잘 되어 있지 않다 ← 보통 → 매우 잘 되어 있다							잘 모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임신출산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영아기(0-2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유아기(3-6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4. 초등 저학년(1-3학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5. 초등 고학년(4-6학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문1-1) (1,2순위 응답 및 이유) 자녀 양육과 돌봄을 위한 정부의 육아지원 전반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는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1, 2순위를 응답해주시고,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1. 임신출산기
2. 영아기(0-2세)
3. 유아기(3-6세)
4. 초등 저학년(1-3학년)
5. 초등 고학년(4-6학년)

1순위 응답 이유: _____

2순위 응답 이유: _____

문1-2) (1,2순위 응답 및 이유) 자녀 양육과 돌봄을 위한 정부의 육아지원 전반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1, 2순위를 응답해주시고,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1. 임신출산기
2. 영아기(0-2세)
3. 유아기(3-6세)
4. 초등 저학년(1-3학년)
5. 초등 고학년(4-6학년)

1순위 응답 이유: _____

2순위 응답 이유: _____

0세~초등학령기 자녀 양육을 위한 서비스 및 정책사업에 대한 의견

문2-1) 다음은 아동의 연령별로 적용되는 주요 서비스 및 정책사업입니다. 제시된 정책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평가를 7점 척도로 응답해주시요.

구분	전혀 잘 이루 어지고 있지 않다 ← 보통 →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잘 모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2.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3. 어린이집 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4. 유치원 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5. 시간제보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6. 민간 육아도우미 관련 ⁶¹⁾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7.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8. 육아/마을 공동체 돌봄 (공동육아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9.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10. 초등방과후과정(방과후학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11. 지역아동센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12. 다함께돌봄센터 (지자체돌봄센터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1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의 집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61) 민간육아도우미: 정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에서 공공·민간 가정돌봄 인력의 근무여건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간육아도우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신원확인증명서 발급, 돌봄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를 제시한 바 있음.

- 2022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2022. 7. 25)를 통해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의 도입과 정부지원의 확대, 아이돌보미를 17만명까지 늘리고 기존 공공 중심의 아이돌봄서비스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해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낮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침을 제시함.

문2-2) 해당 서비스 및 정책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한 이유
1.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2.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3. 어린이집 이용	
4. 유치원 이용	
5. 시간제보육	
6. 민간 육아도우미 관련	
7.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	
8. 육아/마을 공동체 돌봄 (공동육아 포함)	
9.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포함)	
10. 초등방과후과정(방과후학교)	
11. 지역아동센터	
12. 다함께돌봄센터 (지자체돌봄센터 포함)	
1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의 집 등)	

prog: 문2-1 1~3 선택 항목만 제시
무응답이어도 넘어갈 수 있음

문2-3)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 및 접근을 위해 상기한 13개 정책사업 외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서비스 및 정책사업이 있으면 적어주시고, 이에 대한 평가를 7점 척도로 해주십시오.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서비스 및 정책사업	전혀 잘 이루 어지고 있지 않다 ← 보통 →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를 추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통합적 접근의 관점에서 설명 해주십시오.

- * 지금부터는 앞서 평가하신 주요 서비스 및 정책사업을 4가지 기준별로 평가하겠습니다.
 * 4가지 기준은 ① 접근성 ② 포괄성 및 핵심수요 충족 ③ 행·재정 거버넌스 체계 ④ 돌봄공백/사각지대 해소 기여입니다.

■ 항목별 평가①: 접근성(보편적 이용가능성)

문3-1) 수요자 부모와 아동의 **접근성(보편적 이용가능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는 정책사업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순위를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응답 이유 및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란에 적어주십시오.

1순위 응답 이유: _____

2순위 응답 이유: _____

문3-2) 수요자 부모와 아동의 **접근성(보편적 이용가능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정책사업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순위를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응답 이유 및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란에 적어주십시오.

1순위 응답 이유: _____

2순위 응답 이유: _____

■ 항목별 평가②: 포괄성 및 수요충족(취약계층 지원, 핵심수요 충족 등 targeting)

문4-1) 수요자 부모와 아동의 포괄성 및 핵심수요 충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는 정책사업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순위를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응답 이유 및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란에 적어주십시오.

1순위 응답 이유: _____

2순위 응답 이유: _____

문4-2) 수요자 부모와 아동의 포괄성 및 핵심수요 충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정책사업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순위를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응답 이유 및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란에 적어주십시오.

1순위 응답 이유: _____

2순위 응답 이유: _____

■ 항목별 평가③: 행·재정 거버넌스

문5-1) 행·재정 거버넌스와 운영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는 정책사업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순위를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응답 이유 및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란에 적어주십시오.

1순위 응답 이유: _____

2순위 응답 이유: _____

문5-2) 행·재정 거버넌스와 운영의 측면에서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정책사업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순위를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응답 이유 및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란에 적어주십시오.

1순위 응답 이유: _____

2순위 응답 이유: _____

■ 항목별 평가④: (긴급돌봄 대응 등) 돌봄 공백과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문6-1) 돌봄 공백/사각지대 해소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는 정책사업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순위를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응답 이유 및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란에 적어주십시오.

1순위 응답 이유: _____

2순위 응답 이유: _____

문6-2) 돌봄 공백/사각지대 해소의 측면에서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정책사업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순위를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응답 이유 및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란에 적어주십시오.

1순위 응답 이유: _____

2순위 응답 이유: _____

- 문7) 수요자 부모와 아동 관점에서 돌봄서비스 이용 간 연속성과 연계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사 돌봄을 포괄하여 다음의 종적(생애주기) - 횡적(하루일과) 연속성에 대해 7점 척도로 응답해주시요.

구 분	돌봄의 연속성						
	연계가 잘 되지 않음		← 보통 →			연계가 잘 됨	
1. 종적 연계 아동의 연령 증가에 따라 이용기관 등 돌봄서비스 이용이 끊임없이 원활히 이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횡적 연계 아동의 하루일과를 기준으로 시간대별로 이용기관 등 돌봄서비스 이용이 끊임없이 원활히 이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문7-1) 돌봄서비스 이용 간 연속성과 연계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신 이유 및 관련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시요.

구 분	돌봄의 연속성에 대한 평가 의견
1. 종적 연계(생애주기)	
2. 횡적 연계(하루일과)	

문8) 다양한 운영 기반과 대상 특성을 갖고 있는 취학 전-후 아동의 돌봄서비스 (교육·보육·돌봄) 통합적 운영기반의 필요성과 실행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취학 전-후 아동돌봄의 전반 및 제시된 부문별로 응답해주시시오.

구 분	통합적 운영기반 필요성							통합적 운영기반 실행가능성(실행력)						
	전혀 필요 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필요 함	실현 가능 성 매우 낮음	← 보통 →					실현 가능 성 매우 높음
0. 취학 전-후(0세~초등학령기)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및 연계협력 전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취학전 영유아 교육-보육-돌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초등 돌봄(학교돌봄-마을돌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취학 전-후 전이(유초연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지역/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민관, 공-사 영역 연계협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교육-돌봄 및 아동복지(상담)/보호체계 연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현금-서비스-시간 지원의 정합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기타(적어주세요: _____)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8-1) 취학 전-후 아동의 돌봄서비스 통합적 접근에서 정책적으로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순위로 적어주시시오.

1순위: () 2순위: ()

문9) 다양한 운영체계를 갖고 있는 아동 돌봄(교육·보육·돌봄)의 통합적 운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1, 2순위를 적어 주시고, 추가 의견이 있는 경우 기타 란에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2순위: ()

1. 관련 법적 근거 마련
2. 행·재정 거버넌스 구축
3. (수요자 관점의) 아동통합돌봄플랫폼 마련
4. 영유아기관 및 학교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
5. 지자체/지역사회(공동체 포함)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
6. 표준화 된 운영 기준과 모델(예: 인력배치, 예산운영/비용지원, 급간식 등)
7. 인력 운영체계 정비(자격, 처우, 직무/역할 등)
8. 기타(적어주세요:)

문9-1) 문9에 제시된 통합 요소 중 실행가능성이 높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순위로 적어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문10) 다음의 각 부문별로 제안 가능한 실행력 제고 방안이 있는 경우, 적어주십시오.

문10-1)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①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안

문10-2)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② 행·재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안

문10-3)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③ 아동통합돌봄플랫폼 마련을 위한 방안

문10-4)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④ 영유아기관 및 학교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를 위한 방안

문10-5)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⑤ 지자체/지역사회(공동체포함)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를 위한 방안

문10-6)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⑥ 표준화 된 운영 기준과 모델(예: 인력배치, 예산운영/비용지원, 급간식 등)을 위한 방안

문10-7)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⑦ 인력 운영체계 정비(자격, 처우, 역할 등)을 위한 방안 제안

문10-8) ⑧ 기타(적어주세요: _____)를 위한 방안 제안

배문1)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가장 주되게 하시는 일을 응답해 주십시오.

1. 대학교수
2. 연구원
3. 공무원
4. 현장전문가(어린이집/유치원/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전달체계 등 종사자)
5. 기타 전문가(적어주세요: _____)

배문2) 선생님의 전공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사회복지
2. 정책/행정
3. 유아교육/교육
4. 보육
5. 가족
6. 아동
7. 경제
8. 기타(적어주세요: _____)

♣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3.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오픈응답)

〈부록 표 1〉 정부 육아지원이 상대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는 시기라고 응답한 이유(1, 2순위)(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100.0(96)	100.0(89)
■ 정책/지원 관련 현금지원(출산장려금, 각종 아동수당, 세금혜택) 서비스 지원(보육료, 교육비 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등) 시간 지원(출산휴가, 육아휴직, 단축근로 등) 돌봄 지원 종류가 다양해서 의료지원이 있어서(임산부 검진비 지원, 영양제 제공 등) 국가 돌봄 정책(공적 돌봄 체계)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가정 내 돌봄 지원이 있어서(아이돌봄서비스 등)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서(보편성) 국가 주도로 관리되어 안전성, 편리성이 높아서 국가,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 투자가 집중되고 있어서 임신 출산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어서 육아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고, 그에 맞는 지원이 되고 있어서	76.0(73) 21.9(21) 13.5(13) 9.4(9) 8.3(8) 6.3(6) 5.2(5) 4.2(4) 3.1(3) 2.1(2) 2.1(2) - -	71.9(64) 12.4(11) 10.1(9) 9.0(8) 14.6(13) 4.5(4) 4.5(4) 7.9(7) 3.4(3) 1.1(1) 2.2(2) 1.1(1) 1.1(1)
■ 운영 관련 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해서 서비스 인프라, 전달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기관 운영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기본 보육 이후 돌봄 연계(연장보육, 방과후돌봄)가 잘 돼서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시설이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어서 보육포털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어서 산모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양육과 돌봄 관련 안내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22.9(22) 8.3(8) 6.3(6) 3.1(3) 2.1(2) 1.0(1) 1.0(1) 1.0(1) -	24.7(22) 9.0(8) 9.0(8) 2.2(2) 2.2(2) - - - 2.2(2)
■ 기타 지원 제도의 사용률이 그 시기에 가장 높아서 종사자의 학력 수준이 높아서 (유치원)	1.0(1) 1.0(1) -	3.3(3) 2.2(2) 1.1(1)
〈1순위〉 고학년의 경우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다른 시기보다 지원이 다소 부족해도 가능하다는 취지임. 유아기 특성상 부모 외의 돌봄에 영아보다 잘 적응하는 것		
〈2순위〉 학교 적응을 비롯해 유치원 시기와 달리 이른 귀가 등으로 돌봄 공백 시간 및 이동 동선이 발생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부록 표 2〉 정부 육아지원이 상대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시기라고 응답한 이유(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	사례수
전체	100.0	(86)
■ 정책/지원 관련 시간지원이 부족해서(육아휴직과 휴직 기간의 재정 지원 등) 유아기 이후의 돌봄 체계가 연계되지 못하고 있어서 (초등 저학년)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돌봄체제가 확보되지 못해서 (임신기)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부 기관이 명확하지 않아서 (초등 저학년)돌봄 체계가 학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현금지원이 부족해서(아동수당 등) (초등 고학년) 돌봄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부족해서 주로 저소득층 대상이라서 유치원, 어린이집의 완전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이 필요해서 초등돌봄이 부처별로 분절화되어 있어서 임신 출산기에는 구체적으로 이용할 양육 서비스가 없어서 (초등 저학년)실효성있는 정책이 부족해서 (영아기)정부의 지원정책이 잘 전달되기 어려운 시기라서 (영아기)가정양육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경력단절로 이어짐	33.7 5.8 4.7 3.5 3.5 2.3 2.3 2.3 2.3 1.2 1.2 1.2 1.2 1.2 1.2	(29) (5) (4) (3) (3) (2) (2) (2) (2) (1) (1) (1) (1) (1) (1)
■ 운영 관련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서 (초등학교 시기)돌봄의 질이 미흡해서(프로그램, 인력) (초등 고학년)초등 저학년 위주로 제공되서 (초등 저학년)기관(학교) 이용 시간이 짧아서 (초등 저학년)맞벌이 부모를 위한 돌봄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초등 고학년)돌봄에 대한 홍보, 선호도가 떨어져서 다함께 돌봄은 거리적 접근성이 낮아 이용이 어려워서	48.8 20.9 8.1 8.1 8.1 1.2 1.2 1.2	(42) (18) (7) (7) (7) (1) (1) (1)
■ 아동/부모/가족 관련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어서 부모들이 사교육(학원, 과외)을 선호해서 (초등 고학년)사교육으로 인한 가정의 돌봄 부담이 커서 돌봄서비스가 발달단계에 적합하지 않아서 출산 직후 부모가 자녀 양육 및 돌봄을 하기가 어려워서 아동, 부모의 요구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돌봄 방안 마련이 필요함 (초등 저학년)학습을 강조하는 문화로 인해 놀 시간이 줄어들	16.3 7.0 2.3 2.3 1.2 1.2 1.2 1.2	(14) (6) (2) (2) (1) (1) (1) (1)
■ 사회문화적 인식 관련 산후 조리는 정부 지원 없이 산모 개인이 하는 것으로 여겨서 방과후 지원	1.2 1.2	(1) (1)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부록 표 3〉 정부 육아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한 이유: 1)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	사례수
전체	100.0	(11)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서(산후도우미)	27.3	(3)
안내 및 홍보가 부족해서	27.3	(3)
지원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라서(저소득층)	18.2	(2)
전달 시스템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9.1	(1)
공공 산후도우미 및 산후조리원 확대가 필요해서	9.1	(1)
산후도우미에 대한 지원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서	9.1	(1)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부록 표 4〉 정부 육아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한 이유: 3) 어린이집 이용

단위: %(명)

구분	%	사례수
전체	100.0	(1)
물리적 환경이 안 좋은 곳이 많고, 보육의 질이 낮아서	100.0	(1)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부록 표 5〉 정부 육아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한 이유: 4) 유치원 이용

단위: %(명)

구분	%	사례수
전체	100.0	(1)
사립의 비중이 높아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어려워서	100.0	(1)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부록 표 6〉 정부 육아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한 이유: 5) 시간제 보육(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	사례수
전체	100.0	(13)
▣ 정책/지원 관련	7.7	(1)
시간제 보육 운영 예산의 증가가 현실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서	7.7	(1)
▣ 운영 관련	84.6	(11)
수요 대비 시간제 보육 시설의 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38.5	(5)
홍보가 부족해서	15.4	(2)
시간제 보육 기관이 9~18시로 사용 제한이 있어서	7.7	(1)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7.7	(1)
편리성이 떨어져서	7.7	(1)
서비스를 인지도가 매우 낮아서	7.7	(1)
▣ 아동 관련	7.7	(1)
영아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아서	7.7	(1)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부록 표 7〉 정부 육아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한 이유: 6) 민간 육아도우미 관련(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	사례수
전체	100.0	(34)
▣ 정책/지원 관련	55.9	(19)
민간 사업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서	32.4	(11)
아직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14.7	(5)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5.9	(2)
다양한 돌봄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함	2.9	(1)
▣ 운영 관련	14.7	(5)
홍보가 부족해서	11.8	(4)
육아도우미 서비스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해서	2.9	(1)
▣ 인력 관련	23.5	(8)
육아도우미 교육, 자격, 전문성 차이로 인해 질 차이가 발생해서	23.5	(8)
▣ 아동/부모/가족 관련	5.9	(2)
국가가 민간 육아도우미를 관리해도 이용자가 더 신뢰하진 않아서	2.9	(1)
민간 육아도우미는 부모 스스로 구해야 하므로 신뢰성이 떨어져서	2.9	(1)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부록 표 8〉 정부 육아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한 이유: 7)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	사례수
전체	100.0	(7)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커서	57.1	(4)
유능한 인력 공급 부족해서	14.3	(1)
이용료가 자부담이 경우 비용이 저렴하지 않아서	14.3	(1)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인식되지 않아서	14.3	(1)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부록 표 9〉 정부 육아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한 이유: 8) 육아/마을 공동체 돌봄(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	사례수
전체	100.0	(18)
■ 정책/지원 관련 지자체에서도 체험공간, 정보 공유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정책 중요도에서 떨어져 있어서 지역사회 자원 등 육아역량이 지역마다 달라서	16.7 5.6 5.6 5.6	(3) (1) (1) (1)
■ 운영 관련 매우 지역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안내 및 홍보가 부족해서 전문성 없는 육아 활동이라서 아동 대상 프로그램의 형태를 띄므로, 정책목표와는 다소 달라서 공동육아나눔터에 인력에게 요구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해 공동육아 관련 기관이 거의 운영되지 못해서	66.7 16.7 11.1 5.6 5.6 5.6 5.6	(12) (6) (2) (1) (1) (1) (1)
■ 부모 관련 참여자의 품이 많이 들어서 부모의 자발성과 네트워킹이 현저히 부족해서	11.1 5.6 5.6	(2) (1) (1)
■ 사회문화적 인식 관련 공동 육아, 돌봄 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5.6 5.6	(1) (1)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부록 표 10〉 정부 육아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한 이유: 9) 초등돌봄교실(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	사례수
전체	100.0	(24)
■ 정책/지원 관련	12.5	(3)
학교돌봄터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해서	8.3	(2)
마을돌봄과의 연계가 부족해서	4.2	(1)
■ 운영 관련	50.0	(12)
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하지 않거나 제한적이라서	29.2	(7)
수요자의 요구와 운영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서	8.3	(2)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운영 실태의 편차가 커서	4.2	(1)
질적 수준 제고가 필요해서	4.2	(1)
학교 내 돌봄이 제도화되지 못하여 이용에 혼돈이 있어서	4.2	(1)
■ 인력 관련	12.5	(3)
초등돌봄교실 인력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부족해서	8.3	(2)
학교, 교사의 태도가 방어적이고, 책임성이 낮아서	4.2	(1)
■ 아동/부모/가족 관련	16.7	(4)
아동의 발달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아서	12.5	(3)
보호자와 아동의 선택권이 부족해서	4.2	(1)
■ 사회문화적 인식 관련	8.3	(2)
학원(사교육)의 저가 대체재로 인식되고 있어서	8.3	(2)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부록 표 11〉 정부 육아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한 이유: 10) 초등방과후과정(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	사례수
전체	100.0	(14)
■ 운영 관련	71.4	(10)
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하지 않거나 제한적이라서	35.7	(5)
질적 수준(수업의 질, 지역간 질적 편차)의 제고가 필요해서	21.4	(3)
수요자의 요구와 운영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서	7.1	(1)
돌봄교실과의 관계설정이 모호해서	7.1	(1)
■ 인력 관련	14.2	(2)
학교, 교사의 태도가 방어적이고, 책임성이 낮아서	7.1	(1)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7.1	(1)
■ 아동/부모/가족 관련	7.1	(1)
아동의 발달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아서	7.1	(1)
■ 사회문화적 인식 관련	7.1	(1)
사교육의 저가 대체재로 인식되고 있어서	7.1	(1)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부록 표 12〉 정부 육아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한 이유: 11) 지역아동센터(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	사례수
전체	100.0	(15)
▣ 정책/지원 관련 전체적인 운영지원비가 비현실적인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어서 현재 분절화되어 있는 초등돌봄체계를 아동 중심으로 통합해야 함 아동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26.7 13.3 6.7 6.7	(4) (2) (1) (1)
▣ 운영 관련 시설 개선 등 질 향상이 매우 절실해서 학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민간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공립의 확대가 부족해서 이용 아동에 대한 운영 기관의 이해가 부족해서	46.7 26.7 6.7 6.7 6.7	(7) (4) (1) (1) (1)
▣ 사회문화적 인식 관련 이용 대상이 취약계층, 저소득층 위주라는 고정관념이 강해서	26.7 26.7	(4) (4)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부록 표 13〉 정부 육아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한 이유: 12) 다함께돌봄센터(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	사례수
전체	100.0	(11)
▣ 정책/지원 관련 지자체 별 편차가 커서 공간, 운영비 등의 문제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어서	18.2 9.1 9.1	(2) (1) (1)
▣ 운영 관련 현실적으로 잘 실행되고 있지 않아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서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아서 홍보가 부족해서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돌봄센터 건립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63.6 18.2 18.2 9.1 9.1 9.1	(7) (2) (2) (1) (1) (1)
▣ 아동/부모/가족 관련 아동의 발달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아서	9.1 9.1	(1) (1)
▣ 사회문화적 인식 관련 사회적 편견이 양육 서비스 기관으로의 선택을 방해해서	9.1 9.1	(1) (1)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부록 표 14〉 정부 육아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한 이유: 1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	사례수
전체	100.0	(15)
■ 정책/지원 관련	6.7	(1)
초등돌봄체계와 분리하여 청소년 특성에 맞는 돌봄을 확대해야 됨	6.7	(1)
■ 운영 관련	73.3	(11)
청소년 돌봄을 위한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서	26.7	(4)
접근성이 낮아서(기관의 수가 적고, 교통편이 불편함)	20.0	(3)
돌봄보다는 프로그램 위주라서	6.7	(1)
지원 내용의 다양성이 필요해서	6.7	(1)
인지도가 낮아서	6.7	(1)
홍보가 부족해서	6.7	(1)
■ 사회문화적 인식 관련	20.0	(3)
사교육 시장이 비대해져서 그에 비해 존재감이 미비해서	13.3	(2)
사회적 편견이 양육 서비스 기관으로의 선택을 방해해서	6.7	(1)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부록 표 15〉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및 접근을 위해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서비스/정책사업
과 추가 이유(중복응답)

단위: %(명)

서비스	서비스 선택 이유	%	사례수
전체		100.0	(37)
■ 정책/지원 관련		83.8	(31)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돌봄 체계 구축(아침, 방과후, 긴급 돌봄 등)	- 부모가 9시 출근일 경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출근하는 것이 불가능 - 수요자 중심으로 돌봄 공백 발생 시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 돌봄이 불규칙적으로 필요한 가족을 위해 원하면 돌봄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8.1	(3)
아동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 돌봄과 교육이 통합된 플랫폼을 구축하고 부모나 아동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수요자 입장에서는 한번에 모든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받고 연계 받을 수는 없는 구조임	8.1	(3)

서비스	서비스 선택 이유	%	사례수
현행서비스 및 정책사업의 체계화 및 내실화	-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임신부터 초등학교까지(청소년 포함) 돌봄을 위한 정책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서비스를 추가하지 않음.	8.1	(3)
각 영역 간 협력 필요 (공공-민간, 학교-지역사회 내 기관, 지자체-교육청)	- 맞벌이 자녀 등하교, 시설 이외의 놀이 중심의 열린 체험을 위한 지원 필요 - 경계선 아동 양육 지원을 위해 학교,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 간의 통합적 접근 필요 - 온종일 돌봄구축의 기본으로 지자체와 교육청간의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 - 민간영역에서 제공하는 돌봄에 대한 정보 공유, 서비스 품질, 서비스 안정성 등에 대해 공적 영역에서 어느 정도 관리하고, 개입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8.1	(3)
돌봄 서비스의 통합 (초등 돌봄)	- 순조로운 돌봄 연계 (연령, 하루 일과) 필요 - 분절적 접근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안정된 이용이 보장되지 않음 - 부처별로 분절되어 부족한 자원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8.1	(3)
가족구성원(조부모)의 돌봄 제공에 대한 지원	- 가족돌봄은 주로 조부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들의 건강상황이 나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의 지원이 필요함 - 기관 보육이나 타인 돌봄 외의 욕구를 지원할 수 있음	5.4	(2)
돌봄 주관 부처의 통합	- 현재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각기 제공하고 있음. 질적 향상뿐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 절감을 위해 통합 운영이 필요함 - 틈새공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처의 통합이 필요	5.4	(2)
취약한 가정 및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돌봄(다문화, 장애, 야간, 환아 등)	- 다문화 아동 증가에 따라 학교 생활 적응 지원 필요(학습, 돌봄 등) - 기존 시스템으로 충분한 돌봄 요구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	5.4	(2)

서비스	서비스 선택 이유	%	사례수
기관 간 돌봄 연계 (유아기-초등 입학 시 돌봄 연계, 기관 간 연계)	- 초등 입학 초에 방과후 교실을 이용하지 않으면 아동은 민간 서비스기관을 이용할 수 밖에 없음 - 방과후 돌봄 신청 당시에 부모가 재직상태가 아니면 신청이 어려움 - 기관 간 이동, 서비스 이용 아동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한 물리적, 정보적 협력	5.4	(2)
가정내 양육지원사업의 활성화	- 기관으로의 유입은 영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2.7	(1)
양육 환경 및 가족 구성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세분화된 서비스 마련	- 개별가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서비스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보임	2.7	(1)
시간 지원으로 모성양육 활성화	- 육아휴직, 돌봄휴가(직) 외에 자녀와 보낼 수 있는 시간 확보가 매우 어려움 - 육아휴직, 돌봄휴가(직)의 낮은 이용률 - 국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 지원 (육아휴직, 자녀돌봄휴직, 탄력근무제)	2.7	(1)
상시 등원 기관이 중심이 되는 돌봄(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 아동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 돌봄이 낙인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선별적 접근을 지양해야 함	2.7	(1)
지역별 인프라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	- 지역별 돌봄서비스 인프라의 차이가 큼	2.7	(1)
초등학교 시기 돌봄과 교육을 융합한 아동양육 체계 구축 (초등 전일제 제도)	- 초등 돌봄 절벽 해소	2.7	(1)
혁신교육지구 등 마을단위 초등 학령기 방과후돌봄사업	- 전 정부에서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 중요한 사업으로 방과후돌봄사업이 포함 되어 있으나, 이용자 등 현황 파악이 충분히 않았음	2.7	(1)
현금 지원으로 모성양육의 활성화	- 국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현금 지원 (양육 수당, 영유아기관 활용 지원) - 현재의 가정 밖의 기관이나 전문가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에 실제 돌봄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직접 현금 제공까지 돌봄서비스의 범위로 포함하는 방안 검토 가능	2.7	(1)

서비스	서비스 선택 이유	%	사례수
■ 운영 관련		13.5	(5)
돌봄 서비스의 질 개선	- 부모는 정보를 다양한 기관에서 얻어야 하고, 정책의 방향성도 기관마다 달라서 혼란을 겪음. 각 분야 인력 관리를 통한 질 강화 필요 - 초등 저학년 대상 방과후 돌봄 등에 관한 질적 개선 노력 필요	5.4	(2)
지역사회내 유관기관(박물관, 체육시설, 미술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돌봄 운영에 이용	- 아이들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활용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함	2.7	(1)
초등학교 교육/돌봄 시간 연장	- 돌봄에 가장 적합한 물리적 환경(안전, 이동 등)을 갖추고 있음 - 아동의 발달과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놀이 중심) 및 돌봄이 제공된다면 부모와 가족원 모두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됨 - 학교 교원 이외에 다양한 전문인력이나 지역사회 인력을 활용한다면 질 높은 돌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2.7	(1)
인력 구성 및 배치 개선	- 일례로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인력 보완으로 자격증 도입을 검토한다면, 기존의 보육교사 자격자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방문간호사 제도 참고)	2.7	(1)
■ 기타		2.7	(1)
여성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	- 가정친화적이지 않은 기업문화로 인해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경험함(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우려되기는 함)	2.7	(1)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부록 표 16〉 접근성(보편적 이용가능성) 측면에서 잘 마련되어 있다고 응답한 이유(1, 2순위)(중복 응답)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100.0(71)	100.0(66)	
■ 정책/지원 관련 누구나 이용 가능해서(보편성) 의료체계와 연동되어 있어서(체계적 이력 관리, 국민 권리로 인식) 비용 부담이 적어서(유치원 원비, 보육료) 다양한 형태의 돌봄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서 예산이 충분해서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많은 산모가 이용하고 있어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지원이 효과적임	40.8(29) 19.7(14) 8.5(6) 5.6(4) 2.8(2) 1.4(1) 1.4(1) 1.4(1)	25.8(17) 15.1(10) - 7.6(5) - - - 3.0(2)	
■ 운영 관련 접근성이 높아서(충분한 공급, 지리적 인접성) 관련 정보 및 안내가 충분해서 홍보가 충분해서 역사가 오래되어서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어서(편의성) 공적돌봄의 비율이 높아져서 체계적으로 전달되고 있어서 아동의 개인적, 환경적 배경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아서 안전성이 높아서 학교(의무교육) 안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서 이용 가능 시간이 유연해서	59.2(42) 38.0(27) 5.6(4) 4.2(3) 2.8(2) 2.8(2) 1.4(1) 1.4(1) 1.4(1) 1.4(1) - - -	74.2(49) 42.4(28) 3.0(2) 3.0(2) - 4.5(3) 3.0(2) 4.5(3) 1.5(1) - 7.6(5) 3.0(2) 1.5(1)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부록 표 17〉 접근성(보편적 이용가능성) 측면에서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1, 2순위)
(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100.0(71)	100.0(49)
■ 정책/지원 관련 지역 편차, 기관 별 편차가 커서 대상이 제한적(소득, 맞벌이 여부 등)이라 보편적 이용이 어려워서 비용 지원이 보편적이지 않고 비용이 부담되서 국가의 관리, 지원이 미흡해서	22.5(16) 9.6(7) 7.0(5) 2.8(2) 2.8(2)	22.4(11) 8.2(4) 12.2(6) - 2.0(1)
■ 운영 관련 공급이 부족해서(수가 적어서) 접근성이 떨어져서(지리적 인접성) 프로그램, 서비스의 질이 낮아서 정보가 부족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정해진 운영 시간으로 인해 긴급 양육 지원이 어려워서 기관에서 연장 돌봄을 꺼려해서(학교의 방과후돌봄, 연장보육) 흔하게 볼 수 없어서 학교 내 방과후 서비스가 부족해서	64.8(46) 29.6(21) 11.3(8) 7.0(5) 5.6(4) 2.8(2) 2.8(2) 2.8(2) 1.4(1) 1.4(1)	67.3(33) 24.5(12) 18.4(9) 8.2(4) 4.1(2) 8.2(4) 4.1(2) - - -
■ 인력 관련 인력 구성이 열악해서(전문성 확보, 처우 개선 필요)	2.8(2) 2.8(2)	6.1(3) 6.1(3)
■ 아동/부모/가족 관련 이용자의 수요도가 낮아서(선호하지 않아서) 부모의 참여가 필요해서 이용률이 낮아서 수요자 간의 정보 격차 커서	7.0(5) 2.8(2) 1.4(1) 1.4(1) 1.4(1)	4.1(2) - - 4.1(2) -
■ 사회문화적 인식 관련 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인식이 강해 낙인의 위험이 있어서	2.8(2) 2.8(2)	- -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부록 표 18〉 포괄성 및 수요충족(취약계층지원, 핵심수요 충족 등 targeting) 측면에서 잘 마련되어 있다고 응답한 이유(1, 2순위)(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100.0(48)	100.0(38)
■ 정책/지원 관련	60.4(29)	57.9(22)
계층과 무관하게 누구나 이용 가능해서(보편성)	35.4(17)	23.7(9)
취약계층 지원이 잘 마련되어 있어서	14.6(7)	18.4(7)
비용 지원이 충분해서	10.4(5)	7.9(3)
소득 별로 자부담 비용을 달리 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어서	-	7.9(3)
■ 운영 관련	39.6(19)	42.1(16)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어서(수가 충분함)	14.6(7)	7.9(3)
특수대상자에 대한 융통성 있는 사업적용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서	6.3(3)	5.3(2)
운영 및 관리가 체계적이라서	6.3(3)	2.6(1)
질이 보장된 기관 이용이 가능해서	4.2(2)	2.6(1)
사업 목적이 뚜렷해서	2.1(1)	2.6(1)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양해서	2.1(1)	2.6(1)
탄력적, 일시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있어서	2.1(1)	-
접근성이 높아서(지리적 인접성)	2.1(1)	7.9(3)
안내 및 정보가 충분해서	-	2.6(1)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	7.9(3)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부록 표 19〉 포괄성 및 수요충족(취약계층지원, 핵심수요 충족 등 targeting) 측면에서 잘 마련되
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1, 2순위)(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100.0(61)	100.0(30)
■ 정책/지원 관련 대상자 제한(소득, 맞벌이 여부)으로 인해 보편적 이용이 어려워서 정책의 필요성 대비 재정적 지원이 미흡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서 돌봄 정책이 교육부, 지자체, 보건복지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아서 모든 산모들에게 산후도우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촘촘한 정책의 실현이 부족해서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 적용해야 함 정책의 중요성이 떨어져서	31.1(19) 13.1(8) 6.6(4) 1.6(1) 1.6(1) 1.6(1) 1.6(1) 1.6(1) 1.6(1)	6.7(2) 3.3(1) - - - - - - 3.3(1)
■ 운영 관련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서 서비스 질이 낮아서 지역별, 기관별 편차가 커서 대상자(부모, 아동)의 욕구와 돌봄서비스의 내용이 불일치해서 돌봄을 원하는 시간대와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대가 불일치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인지도가 낮아서 환경이 열악해서 서비스의 수요도가 낮아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것이라는 낙인의 우려가 있어서 비용 부담이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에 합류하는 것이 어려워서 기관에서 운영을 꺼려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에 취약해서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양하지 않아서 다른 기관과 비교하여 기능, 역할의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아서 서비스가 과다해서	63.9(39) 27.9(17) 8.2(5) 4.9(3) 4.9(3) 3.3(2) 1.6(1) 1.6(1) 1.6(1) 1.6(1) 1.6(1) 1.6(1) 1.6(1) 1.6(1) - - - -	73.3(22) 13.3(4) 3.3(1) 6.6(2) 3.3(1) - 6.6(2) 6.6(2) 3.3(1) - 3.3(1) 3.3(1) 3.3(1) - 3.3(1) 6.6(2) 6.6(2) 3.3(1)
■ 인력 관련 종사자 역량(전문성, 신뢰도 등) 강화가 필요해서 시설 돌봄 가능한 아동도 가정 돌봄을 제공하여 수요 충족 어려움	3.3(2) 1.6(1) 1.6(1)	9.9(3) 9.9(3) -
■ 아동/부모/가족 관련 아동의 발달적 특성에 맞지 않는 돌봄이라서 의무적 참여가 필요해서	1.6(1) 1.6(1) -	6.7(2) 3.3(1) 3.3(1)
■ 사회문화적 인식 관련 국가가 아닌 개인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서	- -	3.3(1) 3.3(1)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부록 표 20〉 행재정 거버넌스와 운영 측면에서 잘 마련되어 있다고 응답한 이유(1, 2순위)(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100.0(55)	100.0(40)
■ 정책/지원 관련 국가(정부, 지자체)의 체계적 행·재정적 지원과 관리감독이 있어서 의료체계(보건소, 병원)와 연동되어 있어서 체계적 전달 가능 비용 부담이 없거나 적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서 (보편성) 교육체계(학교) 안에 속해있기 때문에	52.7(29) 29.0(16) 14.5(8) 5.5(3) 1.8(1) 1.8(1)	60.0(24) 48.6(17) 2.5(1) 10.0(4) - 5.0(2)
■ 운영 관련 기관의 운영체계가 잘 잡혀 있어서(안정성) 서비스의 질이 잘 관리되고 있어서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보육포털서비스 구축으로 이용 효율성이 있어서 이용 시간이 부모의 요구에 맞아서 접근성이 높아서 다른 사업과 중복성이나 단절 문제가 가장 적어서 지역 기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안내 및 이력 정보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서 민간의 개입이 적어서 운영체제가 확고함 이용에 번거로움이 없어서(편의성) 인지도가 높고, 정보 제공도 충분히 이루어져서 공적 돌봄의 비중이 높아서 지역과 관계없이 서비스 내용, 규정, 이용방법에 일관성 있어서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아서 이용자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서	45.5(25) 21.8(12) 5.5(3) 1.8(1) 1.8(1) 1.8(1) 1.8(1) 1.8(1) 1.8(1) 1.8(1) 1.8(1) 1.8(1) 1.8(1) 1.8(1) 1.8(1) 1.8(1)	40.0(16) 22.5(9) - 2.5(1) 2.5(1) - - - - - - - - -
■ 인력 관련 인력이 잘 관리되고 있어서 부모참여를 전제로 하여 운영 이해당사자들(센터, 교사, 지사복) 간의 갈등이 많음	1.8(1) 1.8(1) - -	- - - -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부록 표 21〉 행정 거버넌스와 운영 측면에서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1, 2순위)(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100.0(53)	100.0(25)
■ 정책/지원 관련 공공-민간, 정부-지자체, 유관기관 간의 연계협력체계가 부족해서 정부의 행정 지원이 부족해서 지자체마다 운영 능력에 편차가 있어서 서비스 관할 부처가 분절되어 있어서 재정 지원이 미흡해서 민간 육아도우미를 공공정책사업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라서 거버넌스 운영체계에 대한 개방성과 공공성 확보가 필요해서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에 따른 세제 혜택이 전혀 없어서 육아/마을 공동체에 대한 공공정책이 부족해서 서비스가 저평가되고 있고 임시방편적 사업이 중심이 되기 쉬움	34.0(18) 9.4(5) 5.7(3) 3.8(2) 3.8(2) 1.9(1) 1.9(1) 1.9(1) 1.9(1) 1.9(1)	40.0(10) 24.0(6) 12.0(3) - - - - - - 4.0(1)
■ 운영 관련 서비스의 질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민간 육아도우미는 행정, 재정, 운영 면에서 비체계적이라서 자발성, 자율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용율이 적어서 운영이 체계적이지 않아서 중앙집권적이고, 학교 내에서 다소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어려워서 (편의성) 운영 시간이 다양하지 않아서	41.5(22) 11.3(6) 7.5(4) 5.7(3) 5.7(3) 3.8(2) 1.9(1) 1.9(1) 1.9(1) 1.9(1) -	32.0(8) - - 12.0(3) - - 4.0(1) 8.0(2) 4.0(1) - 4.0(1)
■ 인력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있어서(학교, 교육청, 지자체, 종사자 등) 운영, 종사자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인력 관리가 부족하고, 책임성이 불명확해서 인력 관리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처우개선 포함) 민간 육아도우미가 국가의 관리를 받고 있지 않아서	20.8(11) 9.4(5) 5.7(3) 5.7(3) - -	20.0(5) 8.0(2) - - 8.0(2) 4.0(1)
■ 인력 관련 아동발달 및 육구, 권리 중심의 거버넌스가 중심이 되지 않아서	1.9(1) 1.9(1)	4.0(1) 4.0(1)
■ 부모 관련 학교의 특성 상 부모의 참여율이 낮아서	- -	4.0(1) 4.0(1)
■ 사회문화적 인식 관련 이용 대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해서	1.9(1) 1.9(1)	- -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부록 표 22〉 돌봄공백/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잘 마련되어 있다고 응답한 이유(1, 2순위)(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100.0(57)	100.0(36)
■ 정책/지원 관련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서(보편성) 돌봄사각지대(저소득층 경제선 등)를 해소하고 있어서 예산 지원이 충분해서 비용 지원이 잘 되고 있어서(무상보육, 무상교육)	28.8(16) 8.8(5) 15.8(9) 1.8(1) 1.8(1)	33.3(12) 19.4(7) 5.6(2) 5.6(2) 2.8(1)
■ 운영 관련 이용 시간대가 다양하고 탄력적이라서 공급이 충분해서(수가 많아서) 개별화된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학교 내에서 이루어져 이동 걱정 없이 안전해서 기관 중심의 아동보육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어서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좋아서(지리적 인접성)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편의성) 가정양육을 희망하는 영아 부모를 위한 복지정책 역할을 해서 (초등 저학년) 방과 후 활동에 기반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기관에서 잘 관리하고 있어서 보호자의 퇴근시간에 맞춰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서 수요자의 상황을 운영에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어서 비교적 소규모로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어서 현재 내실화 과정을 구축해가고 있어서 어린이집 이용 전 시기의 산모, 선생아 돌봄을 제공해서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의 보충적 역할을 하고 있어서	66.7(38) 22.8(13) 8.8(5) 5.3(3) 5.3(3) 3.5(2) 3.5(2) 3.5(2) 1.8(1) 1.8(1) 1.8(1) 1.8(1) 1.8(1) 1.8(1) 1.8(1) - - -	63.8(23) 25.0(9) 11.1(4) - - - 5.6(2) 8.3(3) - - 5.6(2) - - 2.8(1) 2.8(1) 2.8(1)
■ 인력 관련 인력관리에 대한 국가수준의 체계와 메뉴얼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지역사회 내 인력 참여가 많아서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 유연근무제가 돌봄공백을 해소함 초등돌봄 교실 미입소 아동 대상으로 필요함.	5.3(3) 3.5(2) 1.8(1)	2.8(1) - -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부록 표 23〉 돌봄공백/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1, 2순위)(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100.0(60)	100.0(24)
■ 정책/지원 관련 대상자의 제한이 있어서(연령, 맞벌이 여부) 돌봄사각지대(저소득층 경계선, 고소득 가정)를 해소하지 못해서 산후조리 및 신생아, 영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함 소득에 관계 없이 이용 가능해야 함 민간 육아도우미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을 찾아볼 수 없음 청소년을 위한 기관이나 서비스가 다양하지 않아서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에게 실효성 있는 서비스인지 의문이라서 재정 지원이 부족해서 아직 정책 초입 단계라서 국가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가 약해서 비용 부담이 높아서	23.3(14) 6.6(4) 3.3(2) 1.7(1) 1.7(1) 1.7(1) 1.7(1) 1.7(1) 1.7(1) 1.7(1) 1.7(1) -	16.7(4) - - - - 4.2(1) - 4.2(1) - - 8.3(2)
■ 운영 관련 공급이 부족해서(수가 부족) 단시간 돌봄 공백에 활용하기 어려워(긴급돌봄, 틈새돌봄 등) 돌봄공백 해소를 목표로 한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서 접근성이 떨어져서(집 또는 학교로부터의 지리적 인접성)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서 수요자 중심 돌봄서비스가 되도록 해야 함 홍보가 부족해서 운영 시간이 부모의 퇴근 시간보다 짧아서 거의 활성화 되지 않아서 학교의 협조가 부족해서(학교종사자들이 교육과 돌봄을 분리함) 추가적 이용이 어려워서 필요에 따라 학교에 드나드는 것이 제한되어서 기관은 인건비 지원 조건 미충족으로 인해 긴급돌봄 운영 어려움 사교육 대비로 마련된 정책이라 돌봄을 위한 여건이 부족해서	63.3(38) 16.7(10) 10.0(6) 5.0(3) 5.0(3) 5.0(3) 3.3(2) 3.3(2) 3.3(2) 3.3(2) 1.7(1) 1.7(1) 1.7(1) 1.7(1) 1.7(1)	50.0(12) 12.5(3) 4.2(1) - 8.3(2) 8.3(2) 4.2(1) - 4.2(1) - 8.3(2) - - -
■ 인력 관련 민간 육아도우미를 구하기가 어려워서(시간, 비용, 신뢰성 등) 민간 육아도우미 관리체계 정비가 필요(자격, 이용요금, 교육 등) 인력 지원의 안정성이 떨어져서 돌봄이 어려운 아동, 가구의 경우, 돌봄이 거부될 수 있어서 방학에는 운영하지 않아 돌봄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져서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	8.3(5) 3.3(2) 3.3(2) 1.7(1) - - -	29.2(7) 4.2(1) 8.3(2) 4.2(1) 4.2(1) 4.2(1) 4.2(1)
■ 부모 관련 부모의 자발성과 공동체 의식이 부족해서	- -	4.2(1) 4.2(1)
■ 사회문화적 인식 관련 지역아동센터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않아서	1.7(1) 1.7(1)	- -
■ 기타 이용자나 돌보미가 보건 상의 이유로 돌봄을 꺼리면 공백 발생 코로나19로 교실은 비교 초등돌봄교실이 학교 역할까지 맡음	3.3(2) 1.7(1) 1.7(1)	- - -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부록 표 24〉 돌봄의 연속성 평가 이유: 종적 연계(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	사례수
전체	100.0	(67)
▣ 정책/지원 관련 영유아기~학령기 돌봄 연계 부족, 초등 입학 후 돌봄절벽 경험 담당 부처가 상이, 돌봄 연계를 위한 정책, 기관의 관행이 부족함 연령, 생애주기별 돌봄의 연결이 거의 없음 생애주기별로 이용하는 기관과 서비스가 다양함 형식적으로는 생애주기 별 돌봄의 연속성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저소득층 산전 관리~초등 방과후 돌봄, 청소년 정책의 일관성 연속성을 위해 아동 돌봄 이력이 일관성 있게 관리감독 되어야 함 명확하게 연령으로 나누기보다는 겹쳐지게 설계하는 것이 적절함 영유아기, 아동 초기에는 이루어지나 그 이후 생애주기는 부족함 가정양육시기 이후 양질의 공적 돌봄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출산 직후 영아기 가정양육 지원체계가 강화되어야 함 초등돌봄교실~다함께돌봄센터로 지속적 연계가 안됨 영아가~초등기 이용 가능한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음 생애주기별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의 일관성이 부족함 영유아기 이후 생활 방식과 아동 상황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심함 민간 서비스 이용에 대한 다양한 세제 지원이 필요함	80.6 37.3 10.4 7.5 6.0 3.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54) (25) (7) (5) (4) (2) (1) (1) (1) (1) (1) (1) (1) (1) (1) (1) (1) (1) (1)
▣ 운영 관련 공급이 부족함(병설, 단설 유치원, 다함께돌봄센터) 0~5세까지 주 40시간 이용 가능하며 이후 초등 돌봄 이용 가능 기관(어린이집)보육 이용률이 높음 교보육이 영아/유아로 분리되어 있어 분리를 경험함 영아기 때 대기가 길어 첫 어린이집 입소가 어려움 영아가~유아기 때 가정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기 어려움 시기 별 아동의 이전 시기의 특성이나 요구는 파악되지 않았음 영아반은 교사 대 아동비율 줄여야 함	13.4 3.0 1.5 1.5 1.5 1.5 1.5 1.5 1.5 1.5	(9) (2) (1) (1) (1) (1) (1) (1) (1) (1)
▣ 아동/부모/가족 관련 좋은 민간 육아도우미를 구하는 것에 대한 부모의 부담이 극심함 영아기 아이를 맡길 곳이 많지 않음 영아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비용이 부담됨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적 돌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	16.8 1.5 1.5 1.5 1.5	(4) (1) (1) (1) (1)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부록 표 25〉 돌봄의 연속성 평가 이유: 횡적 연계(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	사례수
전체	100.0	(55)
■ 정책/지원 관련 학교, 유치원의 횡적 연계는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공적 돌봄에서 사적 돌봄으로 넘어갈 때 제대로 연계되지 않음 담당 부처, 기관 유형이 상이하여 끊김이 발생함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방과후교실,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원활 학교돌봄에서 지역돌봄으로의 연계가 잘 되지 않음 취업모의 경우 돌봄 연계에 어려움이 많음 아이돌보미 등 가정에서의 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됨 중복지원 등의 문제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기도 함 공적서비스 간 연계는 취약하나, 사적서비스와의 연계는 이루어짐 돌봄서비스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 중이나, 미흡함	27.3 3.6 3.6 3.6 3.6 3.6 1.8 1.8 1.8 1.8 1.8	(15) (2) (2) (2) (2) (2) (1) (1) (1) (1) (1)
■ 운영 관련 어린이집은 종일제, 시간제 보육이 가능하여 횡적 연계가 보장됨 주 40시간 이상, 야간, 긴급, 일시적 돌봄 서비스를 찾기 어려움 돌봄의 연속성을 위해 촘촘한 시간 운영이 필요 양육자의 근무시간 다양성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 근로 시간에 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돌봄 시간이 짧음 가정의 요구에 적합한 서비스가 부족함 방과후교실, 돌봄교실 등이 실시되지 않는 기간에 대한 보완 필요 다함께돌봄센터 등 여러 돌봄 기관이 학교 밖에 설치되어 있음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에 이용 시간대 차이가 있음 아동의 하루 일과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다양함 아동의 거주지로부터의 접근성이 떨어짐 지역사회에서 밀도있는 돌봄서비스가 구축 및 제공되고 있지 않음 연장반 운영 어린이집이 부족함	43.6 9.0 7.3 5.5 3.6 3.6 1.8 1.8 1.8 1.8 1.8 1.8 1.8 1.8	(24) (5) (4) (3) (2) (2) (1) (1) (1) (1) (1) (1) (1) (1) (1)
■ 아동/부모/가족 관련 양육근로자는 출퇴근, 기관이용시간 불일치로 사적 자원을 이용함 (초등 저학년)하루 일과의 연속성 있는 돌봄 연계는 보완이 필요 아동 관점에서 하루에 많은 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방과 후에는 사교육에 의존함(초등 저학년) 아동은 한 기관, 교원과 지내는 것이 좋으나 인력의 변화가 잦음 아동이 스스로 기관과 기관을 연계하여 이동하는 것이 어려움	27.3 10.9 5.5 3.6 3.6 1.8 1.8	(15) (6) (3) (2) (2) (1) (1)
■ 사회문화적 인식 관련 학원을 다니는 문화가 팽배하여 공공에서 따라가기 어려움 연계라기보다는 수요자의 여건에 따라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아이를 맡아줄 수 있는 곳을 이용함으로 인해 비는 시간이 줄어듦	1.8 1.8	(1) (1)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부록 표 26〉 통합적 운영기반 필요성: 기타

단위: %(명)

구분	%	사례수
전체	100.0	(2)
인력배치의 연계성	50.0	(1)
행정부처 통합(시·군·구단위)	50.0	(1)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부록 표 27〉 아동돌봄 통합적 운영을 위한 우선 고려사항: 기타

구분	%	사례수
전체	100.0	(1)
부처 통합은 어려우니 지자체 중심 연계체계 점검, 구축해야 함	100.0	(1)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부록 표 28〉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 1)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안(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	사례수
전체	100.0	(40)
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을 위한 법적 근거 필요(기본법, 특별법)	27.5	(11)
영유아 보육과 유아 교육의 통합을 위한 관련 법 마련	10.0	(4)
관련 부처, 국회 등 관련자 협력	7.5	(3)
행정적 기틀 마련이 선결되면 법적 근거 마련은 더 가능할 것임	5.0	(2)
각 부처별 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는 현행법률의 통합적 정비	5.0	(2)
여론형성을 통해 법률제정(개정) 건의	5.0	(2)
영유아의 돌봄, 교육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있음을 남길 수 있음	2.5	(1)
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주체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2.5	(1)
현재의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	2.5	(1)
아동돌봄의 주체 부처를 일원화한 법적 근거 마련	2.5	(1)
통합적 돌봄 플랫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5	(1)
전문가와 현장의 적극적 의견 제출	2.5	(1)
돌봄에 대한 부모의 책무도 명시 필요	2.5	(1)
아동돌봄과 관련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검토	2.5	(1)
흩어져있는 돌봄 관련 법의 정책적 해석, 역할, 책임 관련 법 재정	2.5	(1)
정책 추진 의지만 있으면 가능함	2.5	(1)
초등돌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위한 법령 제정 필요	2.5	(1)
유사 연령대 법령을 통합하여 법적 근거 마련	2.5	(1)
아동돌봄 기본 법령 제정하고 총리실 소관업무로 배치	2.5	(1)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에 대한 세제 혜택 근거 마련	2.5	(1)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관련 행정 체계에서 움직이기 수월해짐	2.5	(1)
법적 근거 마련에 관심을 보이는 의원들을 적극 독려해야 함	2.5	(1)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부록 표 29〉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 2) 행·재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안 (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	사례수
전체	100.0	(48)
■ 정부부처 단일화 관련 돌봄에 대해 구심점 역할을 하는 단일화된 정부 부처가 있어야 함 통합 재정 및 예산구조 확립 검토 필요 통합된 정보시스템(통합 플랫폼) 구축 필요 돌봄 통합적 운영기반 행·재정 거버넌스 구축방안 구체적 제시 통합적 접근을 위한 로드맵 제시 필요 통합된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필요	52.1 25.0 12.5 6.3 4.2 2.1 2.1	(25) (12) (6) (3) (2) (1) (1)
■ 돌봄 통합을 위한 조정기구 설치 관련 분산된 돌봄 통합을 위한 조정 기구(국무조정실, 대통령실) 설치	12.5 12.5	(6) (6)
■ 다양한 유관부처, 기관 간의 협력 관련 지자체 단위의 다양한 돌봄 기관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단위의 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통합 의지만 있다면 관련 부처가 모여서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함 학계, 지자체, 서비스제공자, 이용자의 협력을 위한 소통통로 마련 관련 부처의 TF팀 구성 부서 협업 모델 개발(공동관리방식 마련)	27.1 8.3 6.3 6.3 2.1 2.1 2.1	(13) (4) (3) (3) (1) (1) (1)
■ 기존 돌봄 체계 활용 관련 이미 구축된 거버넌스의 효과적 운영, 실행력 제고가 필요함 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보육진흥원을 활용	6.3 4.2 2.1	(3) (2) (1)
■ 기타 명확한 거버넌스 모델 수립 없이 시행할 경우 시행착오가 가중됨	2.1 2.1	(1) (1)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부록 표 30〉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 3) 아동통합돌봄플랫폼 마련을 위한 방안(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	사례수
전체	100.0	(50)
■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관련 단일화된 통합돌봄 포털서비스 구축 전문가 동원하여 각종 정보가 연결된 실효성 있는 홈페이지 구축 기존 서비스 내용, 장소, 시간, 인력, 대상자 등 통합적 정보 제공 돌봄 신청, 사례관리, 만족도 설문까지 원스톱 플랫폼 구축 유사 기관 간의 공조가 아닌 통합 추진 공공, 민간 등 다양한 운영주체가 참여하는 플랫폼 구축 메타버스를 활용한 통합 돌봄 플랫폼 마련 돌봄 통합을 위한 조정 기구(국무조정실, 대통령실) 산하의 플랫폼 부서조정 후 아동 단위 플랫폼을 구축함 수요자 중심 영유아 초등 돌봄 통합플랫폼 구축 필요 시를 통해 가정, 아동, 상황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정보 제공 중앙정부-지방정부-서비스 전달기관의 플랫폼이 연계되어야 함 수요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 돌봄 플랫폼은 의미 없음 특정 부처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돌봄행정전달체계 구축 필요 돌봄 수요조사 및 돌봄서비스 마련 후 수요자 중심의 플랫폼 마련 통합정보와 자원 매칭 기능을 갖는 플랫폼을 각각 설치하도록 함	64.0 14.0 10.0 6.0 6.0 4.0 4.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32) (7) (5) (3) (3) (2) (2) (1) (1) (1) (1) (1) (1) (1) (1) (1)
■ 지역 및 전국 단위의 정보망 구축 관련 플랫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역+전국 단위의 창구, 정보망 필요 거주지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	10.0 8.0 2.0	(5) (4) (1)
■ 기존 플랫폼 개선 및 활용 관련 기존 플랫폼을 개선하는 방안(육아종합지원센터, 복지로 등) 현재 체계를 바탕으로 서비스 공급, 연계 기능을 수행하는 플랫폼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관련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도록 함	12.0 6.0 4.0 2.0	(6) (3) (2) (1)
■ 기타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관 부처 간의 논의가 필요함(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CCTV 등 안전 정보 제공 서비스 미연계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이 수반되어야 함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플랫폼 연계 필요 중요한 것은 플랫폼 관리체계임 사기업 시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돌봄 플랫폼의 벤치마킹	14.0 2.0 2.0 2.0 2.0 2.0 2.0 2.0	(7) (1) (1) (1) (1) (1) (1) (1)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부록 표 31〉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 4) 영유아기관 및 학교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를 위한 방안(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	사례수
전체	100.0	(55)
■ 정책/지원 관련 유초 연계, 유보 통합 기구 마련(아동돌봄부, 지역돌봄교육협의체) 상시 등원 기관(학교, 영유아기관) 중심 돌봄서비스 필요 학교의 돌봄 기능 전폭적 강화가 필요 지속적인 재정확충(돌봄전담인력 등) 유아교육기관과 학교 간 돌봄서비스를 총괄하는 포털사이트 구축 초등학교 유휴 교실에 돌봄을 위한 안정적인 물리적 환경 구성 병설유치원 기반으로 연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함(대상연령 확대) 방과후학교, 학교돌봄교실 지원을 확대하여 사각지대 해소 필요 과한 기관 중심 돌봄은 가정 기능을 약화시키므로 가정 중심 돌봄 유관 부처(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가 함께 논의해야 함 '초등 전일제학교 도입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사항을 협의 현재 추진 중인 학교돌봄터를 개선, 확장하는 방안 고려 필요 유보 통합 및 초등 돌봄 교실 운영 근거법령 마련 돌봄과 교육 간의 문화적, 물리적 단절부터 해소해야 함 추진 행정체계의 간소화, 행정적 지원	60.0 14.5 7.3 5.5 5.5 3.6 3.6 3.6 3.6 3.6 1.8 1.8 1.8 1.8 1.8	(33) (8) (4) (3) (3) (2) (2) (2) (2) (2) (1) (1) (1) (1) (1)
■ 운영 관련 지속적인 질 개선이 필요함 영유아기관 및 학교 중심은 운영 체계가 안정적임 정규 운영 시간 이외의 돌봄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 운영 영유아기관과 학교의 돌봄 연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함 영유아기관은 연장보육 교사 확대, 프로그램 지원을 해야 함 안전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제도 활성화 및 내실화 교사와 학교의 부담 완화와 책임 경감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학교 시간표와 학교 돌봄 시간을 어린이집 방과후 수준으로 맞춤 학교에서 교육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면서 돌봄 제공 공유어린이집 모델 확산	20.0 3.6 1.8 1.8 1.8 1.8 1.8 1.8 1.8 1.8 1.8	(11) (2) (1) (1) (1) (1) (1) (1) (1) (1) (1)
■ 인력 관련 교사들 간의 협조체제 구축 오전과 오후 한 학급 두 담임 교사제 운영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인력의 처우와 근무연속성 개선 영유아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인력의 역할을 명시함 인적 자원의 체제 확립이 우선되어야 함 지역사회 인력풀 구축 필요 교사의 인식 변화 및 자발적 참여 기관장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14.5 3.6 3.6 3.6 3.6 3.6 3.6 3.6 3.6	(8) (1) (1) (1) (1) (1) (1) (1) (1)
■ 아동/부모/가족 관련 초등 입학 연령을 유아에서 아동으로의 과도기라는 점을 고려 학교 공간을 아동친화적으로 재설계함 교사, 학부모 중심으로 현실적 방안 모색	5.4 3.6 3.6 3.6	(3) (1) (1) (1)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부록 표 33〉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 6) 표준화 된 운영 기준과 모델을 위한 방안(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	사례수
전체	100.0	(44)
■ 예산 관련	40.9	(18)
돌봄 인력 배치, 자격 기준, 예산 마련 및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인건비 상향 조정, 기관 별 인건비 차이, 처우 정비)	18.2	(8)
보육예산이 아닌 별도의 행재정 거버넌스 마련	6.8	(3)
예산 지원 체계에 따라 운영되고 질 관리가 되면 좋겠음	4.5	(2)
안정적인 재정 지원(인건비 등)	4.5	(2)
예산은 국가와 부모가 적정 비율로 분배	2.3	(1)
교육세의 일정 비율을 영유아의 교육(돌봄) 사업비로 고정	2.3	(1)
서비스 비용 부담 관련 원칙 수립 필요	2.3	(1)
■ 아동 돌봄 통합 주체 관련	9.1	(4)
통합 추진을 위한 기구 마련(유보통합 추진단 등)	6.8	(3)
연령 별 배치 인력 기준 마련(교사 대 아동 비율)	2.3	(1)
■ 표준화된 운영 기준 및 모델 연구 관련	22.7	(10)
연구용역을 통해 표준화된 운영기준과 모델 마련	13.6	(6)
매년 민관 협력 정책연구 추진 및 실행	2.3	(1)
국가 차원의 최소한의 운영기준과 모델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2.3	(1)
표준화에 대한 재해석 필요	2.3	(1)
표준화된 운영기준 및 모델의 필요성은 크게 없다고 판단됨	2.3	(1)
■ 운영 관련	15.9	(7)
자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2.3	(1)
동일연령 아동돌봄기관에 대한 운영매뉴얼 마련	2.3	(1)
아동 특성별 돌봄 모듈 마련 (현재의 NCS를 활용 및 개선)	2.3	(1)
아동 급간식 등에서도 시설 간의 차이가 없도록 함	2.3	(1)
지자체-교육청-학교-지역사회 관련 기관"으로 구성된 "초등전일 제학교운영협의체" 구성	2.3	(1)
기존 돌봄기관의 운영 수준 제고 위한 표준화 작업 필요	2.3	(1)
수요자 및 지역 거버넌스를 활용한 협력망 구축	2.3	(1)
■ 인력 관련	4.5	(2)
초등돌봄전담사와 방과후과정교사 간 업무 연계 및 통합을 통한 초등후돌봄 및 교육 인력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3	(1)
다양한 기관의 인력 간 상호 교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모델	2.3	(1)
■ 아동/부모/가족 관련	6.8	(3)
연령, 발달특성, 가정 배경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내용 수립	2.3	(1)
아동중심적 관점에서 접근	2.3	(1)
선호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3	(1)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부록 표 34〉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 7) 인력 운영체계 정비(자격, 처우, 역할 등)을 위한 방안 제언(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	사례수
전체	100.0	(52)
■ 정책/지원 관련 다양한 아동돌봄 종사자의 표준 임금체계(가이드라인) 마련 법적, 제도적 규정이 필요함 장기적 마스터플랜이 필요 돌봄노동(유사 직종) 가치 산정과 그에 따른 위원회 마련(캐나다)	32.7 23.1 3.8 3.8 1.9	(17) (12) (2) (2) (1)
■ 인력 관리(자격, 질, 교육 등) 관련 돌봄 인력 질 개선을 위한 자격 강화, 보수교육 및 처우 개선 국가 차원에서 돌봄 인력 파견 업체에 훈련과 관리 책임을 위탁 전문능력을 갖추기 위한 운영체계가 필요함 인력에 대한 자격기준을 국가자격증과 연계 부처가 달라도 돌봄 경력 인정되도록 할 필요 있음 적정 자격 기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고려 통합 행정체계에서 국가 자격제 도입 예비교사 교육과정(교육기관, 교육과정, 학과 운영, 교과목 등)과 맞물려 현실적인 방안 제언	50.0 36.5 1.9 1.9 1.9 1.9 1.9 1.9 1.9	(26) (19) (1) (1) (1) (1) (1) (1) (1)
■ 인력 운영체계 일원화 관련 다양한 인력 관리의 주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 처우, 역할 등의 일원화	5.8 3.8 1.9	(3) (2) (1)
■ 인력 운영체계 다원화 관련 현재 사회복지사 중심의 아동복지센터에 보육교사 등을 확대함 다양한 인력이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3.8 1.9 1.9	(2) (1) (1)
■ 기타 민관학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협력 연구 방과후교사 등의 고용 불안정 해소 방안이 필요	7.7 3.8 1.9	(4) (3) (1)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구축연구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